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책임자 | 이준우



국립국어원 2024-01-0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99-0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책임자 | 이준우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 2023년 8월 29일~2024년 3월 15일

2024년 3월 15일

연구 책임자: 이준우(강남대학교)

연구 기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준우

공동 연구원 김연신, 원태연, 유경미, 정점희

조정환, 고시현, 이기상

연구 보조원 김아름

〈연구 기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 연구원	김연신(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
	윤희연(강원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유경미(원주시수어통역센터 부장)
	정점희(금천구수어통역센터 과장)
	조정환(한국밀알선교단 장애사역연구소 책임연구원)
	고시현(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과장)
	이기상(평창군수어통역센터 과장)
연구 보조원	김아름(강원특별자치도수어문화원 연구원)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방향과 목표	3
3. 연구 내용	4
4. 연구 방법	5
5. 연구의 쟁점과 논거	8
II.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현황	9
1. 국내 유사 자격제도	9
1) 한국어교원	9
2) 평생교육사	12
3) 보육교사	14
4) 전문상담교사	15
2. 국외 유사 자격제도	16
1) 미국수어교사(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16
2) 외국어로서의 영어(TESOL) 교원 자격	21
III.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비학위, 학위) 운영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현황	24
1.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현황	24
1)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24
2) 한국수어 교육기관(비학위과정)	28
3) 한국수어 교육기관(학위과정)	30
2.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 현황	32
1)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비학위과정)	33
2)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학위과정)	38

IV. 한국수어교원 등급 및 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43
1.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요구 능력 및 수준	43
2. 한국수어교원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44
1) 한국수어교원 1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44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45
V. 한국수어교원과 양성기관 및 교강사 현황과 요구조사 결과	46
1. 교원 양성기관 요구조사 결과	46
1) 교과 운영	48
2) 교육 환경	51
3)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관련	53
2. 교원 양성기관 교강사 요구조사 결과	59
1) 교수·학습 관련 현황	59
2) 수어교원 1급 요구조사	65
3) 일반 정보	76
3. 교원 자격 취득자 요구조사 결과	81
1) 교원 취득 경험 관련 조사	81
2) 수어교원 1급 요구조사	90
3) 일반 정보	105
VI. 자문회의 분석 결과	109
1. 1차 자문회의 분석 결과	109
1)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109
2) 의미 단위 분석	110
3) 의미 분석 결과	112
2. 2차 자문회의 분석 결과	122
1)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122
2) 의미 단위 분석	123
3) 의미 분석 결과	124

Ⅶ.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모델 및 교(보)재 개발 결과	128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보)재 제작 과정	128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보)재 내용	131
Ⅷ.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결과	137
1. 한국수어교원 및 국내 수어교육 전문가 대상 세미나 실시 결과	137
1) 한국수어교원 1급 세미나 개요	137
2) 세미나 주요 내용 분석 결과	139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결과	145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결과	148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참여자 만족도	150
Ⅸ. 결론과 제언	171
1. 연구 요약	171
2.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안) 제언	174
3. 한국수어교원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안) 제언	177
4.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178
참고문헌	181
부록 목록	183
〈부록 1〉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184
〈부록 2〉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청 자료 목록	382
〈부록 3〉 한국수어교원 교강사 실태조사지	383
〈부록 4〉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지	394
〈부록 5〉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학위·양성과정) 실태조사지	405

표 목 차

〈표 II-1〉 한국어교원의 등급 체계	9
〈표 II-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후 경력별 승급	12
〈표 II-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13
〈표 II-4〉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14
〈표 II-5〉 전문상담교사의 자격 기준	15
〈표 II-6〉 ASL 교사 요구 능력 및 자격 유효 기간	16
〈표 II-7〉 수준별 ASL 교사 자격 검정	19
〈표 II-8〉 NCATE의 ESL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증 기준	21
〈표 II-9〉 ACTFL 외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22
〈표 III-1〉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현황	27
〈표 III-2〉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비학위과정)	28
〈표 III-3〉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별 영역별 운영 시간(비학위과정)	29
〈표 III-4〉 한국수어 교육기관(학위과정) 운영 현황	30
〈표 V-1〉 참여 기관별 현황	47
〈표 VI-1〉 1차 자문회의 참석자	109
〈표 VI-2〉 범주화 결과	110
〈표 VI-3〉 2차 자문회의 참석자	122
〈표 VI-4〉 범주화 결과	123
〈표 VII-1〉 교재 구성 및 집필진	129
〈표 VIII-1〉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세부 운영 일정	146
〈표 VIII-2〉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육 참여자 현황	147
〈표 VIII-2〉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과목별 배정 시간	158

그 림 목 차

[그림 I-1] 연구 과정	5
[그림 II-1] 한국어교원 등급 체계	11
[그림 III-1] 한국수어교원 등급체계	24
[그림 V-1] 한국수어교원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지 예시	47
[그림 VII-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교재 제작 절차	130
[그림 VIII-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포스터	137
[그림 VIII-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발표 및 토의 현장 사진	138
[그림 VIII-3]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사진	145
[그림 VIII-4]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포스터	146
[그림 VIII-5]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학’ 강의자료 1	163
[그림 VIII-6]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학’ 강의자료 2	164
[그림 VIII-7]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 교육론’ 강의자료	165
[그림 VIII-8]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의 실제’ 강의자료	166
[그림 VIII-9]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자료 1	167
[그림 VIII-10]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자료 2	168
[그림 VIII-11]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교육실습’ 강의자료	169
[그림 IX-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체계	172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어교원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 수어교원 양성의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한국수어교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내용을 공포하였다.
- 정부는 전문성 있는 수어교원을 양성하고자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지원으로 한국수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23년 현재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 전문 교육기관 15개소가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2018년에 35명(양성과정-교육경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위과정 136명, 양성과정 중 교육경력(300시간) 252명, 검정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177명을 포함하여 총 565명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2023년 12월 기준).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1급 승급 최소 연한인 3년이 경과하였으나 1급 승급에 대한 교육과정 및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1급 자격 교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해외의 경우 수어 교육과정 개발이 비교적 일찍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미국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대상(농인 및 청인)과 연령을 각각 고려하여 다양한 표준 미국수어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2008년 미국 뉴욕주에서는 ‘미국수어 능력 수준 1-4를 위한 학습 성과’ 연구를 통해 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f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이하 ACTFL)의 국가적 표준을 적용하여 미국수어 학습 성과 측정 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런 후 보다 발전적으로 ‘미국수어 국가 표준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특히 ACTFL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미국수어 교사 협회(ASL Teacher's Association, 이하 ASLTA)와 통역사교육센터 국가 컨소시엄가 상호 협업하여 ACTFL의 언어 표준을 참조하여 미국수어교육을 특수 언어 교육과정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체계적인 미국수어 교재가 「Master ASL!」이다. 아울러, ASLTA 차원에서도 ACTFL과의 상호 협력하에 유치원부터 대학교(K-16)까지 미국수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미국수어 학습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보급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학습 기준은 미국수어 능력을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 연결(Connection), 비교(Comparison), 공동체(Community) 등의 '5 C'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개발되었다(Swaney, 2015; 국립국어원, 2017).

- 또 다른 한편으로, 학습자용 워크북(Student Workbook)과 교사용 지도서(Teacher's Curriculum Guide)로 각각 구성하여 LEVEL 1, 2, 3로 나눠 개발된 Vista의 「Signing Naturally」라는 미국수어 교재가 있다. 특히 미국 전역 공립 고등학교에서 미국수어 교과목을 담당하는 미국수어 교사의 대다수(약 80% 이상)가 「Signing Naturally」란 미국수어 교재를 미국수어 교육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많은 미국수어 교사들이 이 교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미국수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체계적인 한국수어교원 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연구의 방향과 목표

- 본 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획되고 제안된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마련,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조사·분석,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 개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국내외 유사 시험 분석
 - ②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조사·분석
 - ③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및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④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마련
 - ⑤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⑥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 개발(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 수립, 시수 배정, 영역·과목별 교보재 개발)
 - ⑦ 국내 수어교원 및 수어 교육 전문가 대상 세미나 개최
 - ⑧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평가
 - ⑨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제안

3. 연구 내용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마련

-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수립

②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비학위, 학위)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조사·분석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운영 현황조사
 - 양성기관 운영 여부, 운영 주기(연 1회/반기별/분기별 등), 운영 통계(기수별 신청/수료 인원, 자격 취득 인원 등) 조사·분석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개설 교과목 조사 및 비교 분석
 - 교육과정 운영 현황조사, 양성기관 승인 시 제출한 계획과 비교
 - 비학위기관, 학위기관 간 영역별 개설 교과목 비교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및 교원 대상 요구조사

③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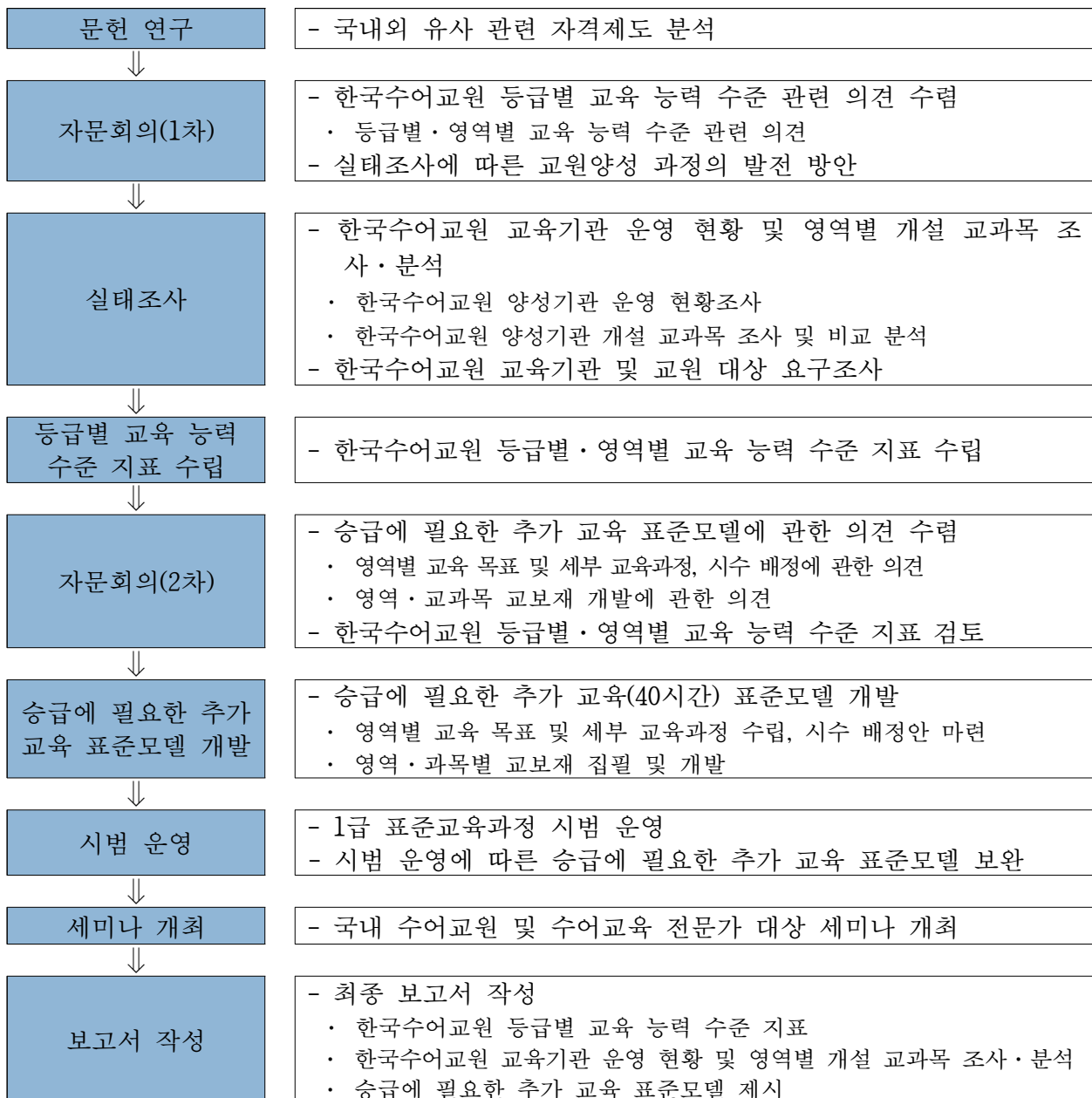
- 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 수립, 시수 배정안 마련
- 영역·과목별 교보재 집필 및 개발

④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 국내 수어교원 및 수어 교육 전문가 대상 세미나 개최
-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평가

4.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실태조사,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1차),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수립, 교육 능력 지표 검토 및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2차), 세미나 개최,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과정

1) 문헌 연구

- 국내의 유사 자격제도 분석(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 국외 유사 자격제도 분석(미국수어교사, 외국어로서의 영어(TESOL) 교원 자격)

2) 자문회의(1차)

- 목적: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를 수립하고자 실시한다.
-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농인 및 청인으로서,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로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등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 자문 내용: 한국수어교원 자격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실태조사에 따른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선점 및 발전 방안 등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3) 실태조사

-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을 조사·분석한다.
 - 양성기관 운영 여부, 운영 주기(연 1회/반기별/분기별 등), 운영 통계(기수별 신청/수료 인원, 자격 취득 인원 등)을 조사한다.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교과목 조사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및 교원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 양성기관(운영 담당자 등) 설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 양성과정의 개선점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한다.
 -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만족도 및 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다.

4)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수립

-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를 수립한다.
 - 1급, 2급
- 한국수어교원 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를 수립한다.
 - 언어 및 교육 기초, 한국수어학 - 한국수어 실제
 - 한국수어 교육론 - 농문화와 농사회
 - 한국수어교육실습

5) 자문회의(2차)

- 목적: 한국수어교원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 모델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농인 및 청인으로서,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로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등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 자문 내용: 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 시수 배정에 관한 의견, 영역·교과목 교보재 개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6)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 개발

-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 수립, 시수 배정안 마련
 - 영역·과목별 교보재 집필 및 개발 시 외부 영역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 영역별로 외부 전문가 2명과 연구진 1명이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전체 외부 전문가 및 연구진 회의에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7) 시범 운영

- 개발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 대상: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을 소지한 자(20명)
 - 교육 내용: 1급 승급에 필요한 40시간 교육(5일/8시간)
 - 종료 후 시범 운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실시

8) 세미나 개최

- 국내 수어교원 및 수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교육과정을 수정한다.
 - 수어교원 및 교육 전문가 등 80여 명

9)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 결과 보고서 작성: 세미나,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결과 및 참여자들의 설문 결과를 연구 결과에 반영
 - 한국수어교원 양성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개선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

5. 연구의 쟁점과 논거

- 1928년 제생원 농아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수어교육은 198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수화교실’ 또는 ‘수화동아리’로 확산되었다. 전국 농아인협회를 통해 개설된 단기 및 정기(3개월 과정 주 1~2회) 수화교육만 하더라도 2018년도 한 해 동안 192개 기관에서 2,307개의 강좌를 통해 35,13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수어 학습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부분 농인 단체가 실시하는 수어교육은 수어통역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수어교육 과정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회화반, 수어통역사 양성반으로 단계를 구분해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수어교육의 목표나 수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어 능력, 수어 통역 능력, 수어교육 능력은 확실히 다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어통역사 자격 한가지로 인증되어 왔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 8월 4일에 시행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4조에는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2급 한국수어교원이 양성되고 있으나, 한국수어교원 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 및 승급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1급 교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수립과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국수어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현황

1. 국내 유사 자격제도

1) 한국어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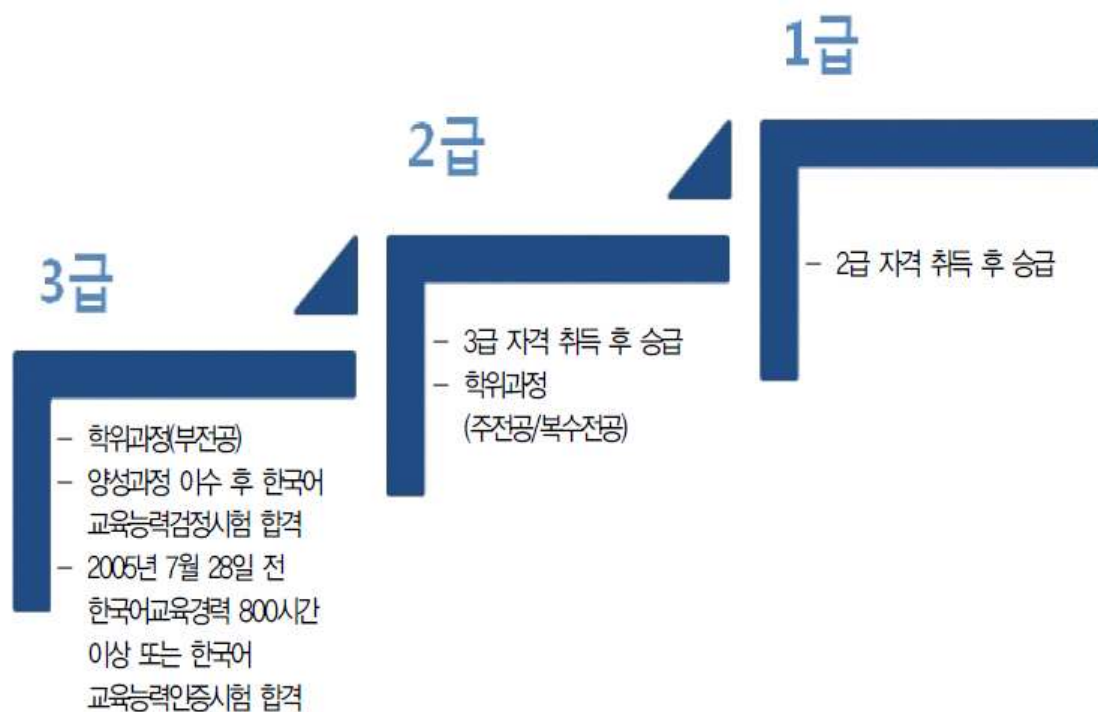
-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자격제도에 대한 근거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둔다.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1, 2, 3급으로 나누어지며, 1급은 2급 취득 후 경력을 쌓아 승급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고, 2급과 3급은 자격요건이 충족될 시 무시험검정 또는 시험 검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즉,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전공/복수전공, 부전공)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일정 시간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 한국어교원의 자격 기준은 <표 II-1>에 제시하였으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1> 한국어교원의 등급 체계

등급	자 격 기 준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급	자 격 기 준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제3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 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한국어 교원 3급	<p>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p>

등급	자 격 기 준
	<p>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p>



[그림 II-1] 한국어교원 등급 체계

출처: 2022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2022, p. 3.

〈표 II-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후 경력별 승급

구 분	대 상	기 준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총 합산 강의 시간
1급 승급	2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이상
2급 승급	부전공(학위과정) 3급 취득자	3년	1,200시간 이상
	하향 판정(학위과정) 3급 취득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 취득자		
	8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 3급 취득자		

※ 참고

- 강의 기간과 강의 시간을 충족할 경우 승급 심사 신청 가능함.
-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함.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함.
- 강의 기간 1년의 기준: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 승급 심사 시 자원봉사를 통한 한국어교육 경력도 인정함.

2)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이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하고, 학습자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생애능력개발 상담과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1급, 2급, 3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자격요건은 <표 II-3>에 제시하였다. 승급은 처음 등급 취득 후 경력에 따른 승급교육을 이수한 후 이루어진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표 II-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 기준
평생 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 교육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 교육사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출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항(2021. 12. 9. 개정)

3)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명시된 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인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에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자애로움, 영유아와의 공감 능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 지식, 교육 기술, 보육에 대한 자부심 등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처음 등급 취득 후 경력에 따라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후 승급이 이루어진다.

〈표 II-4〉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출처: 「영유아보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4)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국가 전문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 및 실기교사로 구분되며, 「초·중등교육법」의 별표 2에 제시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성되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은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학위과정 이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할 수 있다.

〈표 II-5〉 전문상담교사의 자격 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전문상담교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한 사람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2006~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됨)

출처: 「초·중등교육법」[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2. 국외 유사 자격제도

1) 미국수어교사(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어(modern/foreign language) 교사 양성과정에 미국수어교사가 포함되어 대학에서 교사 교육과정을 갖추고 수어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40개 주 학교 및 대학 기관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수어교사는 초기 아동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중 하나로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 이하 ASL)를 가르치며, 농학생 또는 제2언어로 수어를 배우는 일반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나 누구나 수어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수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과 교사자격증이 요구된다. ASL 교사들은 가르치는 대상 학생에 따라 자격 요구 사항도 달라진다. 교육센터, 기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훈련 또는 경력(교육 경험)이 요구되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학사학위와 교사자격증이 요구된다. 공립학교의 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및 교사자격증이 필요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또는 그 이상)가 필요하다.

〈표 II-6〉 ASL 교사 요구 능력 및 자격 유효 기간

수 준	요 구 능 력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
전문 자격 수준 (professional certification)	- 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 -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8년 유효 -요구사항 충족 시 갱신 가능
자격 수준 (qualified certification)	- 제2 언어 교육방법론, 언어활동, 평가, ASL 언어학 지식	-4년 유효 -2년 연장 가능
임시 자격 수준 (provision certification)	- ASL 능력, 교육과정, 교육계획 개발을 위한 교수에 대한 기본 지식	-4년 유효 -2년 연장 가능

- 임시 자격 수준의 ASL 교사는 ASL 능력,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 교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4년 동안 유효하며, 규정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검정은 포트폴리오와 정해진 주제에 대한 디브이디(DVD) 또는 유튜브, 비디오를 제출하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격을 받게 된다. 첫째, 포트폴리오는 5년 동안의 구체적인 ASL 경험 및 수어 사용 증거자료와 신원 증명서, 교육했던 강의 계획서 및 수업지도안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디브이디(DVD) 또는 유튜브, 비디오는 자기소개, 5년 동안의 ASL 사용 경험, ASL 교수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강의 계획서의 운영 효과, 교재 및 교수자료를 포함한 교수방법, 교수전략 등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자격 수준의 ASL 교사는 제2 언어 교육방법론, 언어활동의 실제, 평가, ASL 언어학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임시 자격 수준과 유사하게 자격은 4년 동안 유효하며, 규정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자격검정은 첫째, 임시 자격 수준을 인증하는 사본이 필요하고, 둘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셋째, 공인 인증 시험 ASLTA의 서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5년 이내의 ASL 관련 교육 경험 또는 240시간 이상의 ASL 연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어도 120시간은 관련 분야(통역교육, 농교육, 농학 등)의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론(제2 언어 교수, ASL 교수이론, 방법론, 농문화, 언어학, 평가 등)과 실습에서 150시간을 이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학사 이상 또는 ASL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증명서(학위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 포함)를 제출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디브이디(DVD) 또는 유튜브, 비디오 제출을 통한 자격검정을 했던 임시자격 수준과 달리 자격수준에서는 전문가적 경험과 훈련이 최소한의 규준에 충족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공인 인증 시험은 ASLTA 서면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평가위원장은 확인 문서와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 평가는 전문가적인 실제의 인식, ASL 언어학적 구조, 교수의 실제, 전략,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격 수준에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ASL 언어적 실제와 교수의 실제에 대한 지식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영어 작문 기술은 평가되지 않으나 평가위원들이 제출자의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자는 응시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해 다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지식이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디브이디(DVD) 또는 유튜브, 비디오 등도 요청할 수 있다. 수어교육 경험이 480시간 이상이고, 5년 이내 300시간 이상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등 전문가의 자격을 충족하면 평가 인증 절차를 밟아 ‘자격 수준’을 받을 수 있다.
- 전문 자격 수준의 ASL 교사는 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의 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자격은 8년간 유효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갱신할 수 있다. 자격검정은 첫째, 자격 수준을 인증하는 교육 이수과 학위 및 성적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고, 둘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며, 셋째, 전문 자격 수준의 인증을 위해 ASLTA 면접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240시간 이상의 ASL 연수 또는 자격 수준(Qualified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기관의 교육경력(자격 수준과 전문 자격 수준을 합쳐 480시간)을 제출해야 하며, 적어도 240시간 관련 분야(통역교육, 농교육, 농학 등)에서 교육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론(제2 언어 교수, ASL 교수 이론과 방법)과 실습에서 150시간을 이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 자격 수준 인증(Professional Certificate)을 위해 150시간의 교육 이수가 추가로 필요하다(자격 수준과 전문 자격 수준을 합쳐 300시간). 전문학사 이상 또는 ASL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서(학위 또는 성적 증명서 사본)를 제출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전문 자격 수준에서는 자격 인증을 위해 ASLTA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 면접하는 동안 ASLTA 평가자들은 ASL 능력과 지식, 제2 언어 교수의 실제, 평가 방법, 교육과정 개발, ASL 교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평가자들은 ASL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고, 학생들의 ASL 사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채점은 평가자들이 현장의 지식, 교수 전문성의 실제와 교수의 기준에 기초하여 응시자들의 반응 비율을 개별적으로 체크한다.
- 면접 평가의 목적은 전문성 있게 반응하는 기술, 지식,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ASL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면접에서 부가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교수의 몇 측면을 포함한 보고서와 몇 가지의 지식이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DVD, 유튜브나 비디오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표 II-7〉 수준별 ASL 교사 자격 검정

수 준	평 가
전문 자격 수준 (Professional Certification)	포트폴리오 및 관련 서류 제출 및 ASLTA의 면접 평가
	<input type="checkbox"/> 자격 수준(Qualified Certification) 인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시간 이상 ASL 연수 또는 자격 수준(Qualified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기관의 교육경력(자격 수준과 전문 자격 수준을 합쳐 480시간) 제출. 적어도 240시간 관련 분야(통역교육, 농교육, 농학 등)에서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함 • 이론(제2 언어 교수, ASL 교수 이론과 방법)과 실습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50시간은 전문 자격 수준 인증(Professional Certificate)을 위해 추가로 필요함(자격 수준과 전문 자격 수준을 합쳐 300시간) • 전문학사 이상 또는 ASL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증명서 제출(학위 또는 성적 증명서 사본) <input type="checkbox"/> 전문 자격 수준의 인증을 위한 ASLTA 면접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L 능력과 지식, 제2 언어 교수의 실제, 평가 방법, 교육과정 개발, ASL 교수에 관한 질문 - ASL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고, 학생들의 ASL 사용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술 • 면접에서 부가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수와 관련된 보고서와 몇 가지의 지식이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DVD, 유튜브, 비디오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자격수준 (Qualified Certification)	포트폴리오 및 관련 서류 제출 및 ASLTA 서면 평가
	<input type="checkbox"/> 임시 자격 수준(Provisional Certification) 인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ASL 관련 교육 경험 또는 240시간 이상의 ASL 연수 이수 자료 제출. 적어도 120시간 관련 분야(통역교육, 농교육, 농학 등)에서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함 • 이론(제2 언어 교수, ASL 교수 이론, 방법론, 농문화, 언어학, 평가 등)과 실습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전문학사 이상 또는 ASL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증명서 제출(학위 또는 성적 증명서 사본)

수 준	평 가
	<p><input type="checkbox"/> 공인 인증 시험 ASLTA 서면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평가는 ASL의 언어적 구조, 교수의 실제, 전략, 절차 등과 관련된 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임 • ASL의 언어적 실제와 교수의 실제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영어 작문 기술은 평가되지 않으나, 평가위원들이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자는 모호한 내용을 다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몇 가지의 지식이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DVD, 유튜브, 비디오 등도 요청할 수 있음 • 교육 경험이 480시간이고, 5년 이내 300시간 이상 전문성 개발 등 전문가의 자격을 충족한 경우, 평가 인증 절차를 밟아 ‘자격 수준’을 받게 됨
<p>임시 자격 수준 (Provision Certific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포트폴리오 및 평가 서류 제출</p> <p><input type="checkbox"/> 포트폴리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L 경험과 사용의 증거 자료(응시자는 최소 5년 동안 매일 ASL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함)제출 • ASL의 교육 경험 증거 자료 제출 • 신원 증명서 제출 • 강의 계획서 및 수업 지도안 제출 <p><input type="checkbox"/> DVD, 유튜브나 비디오(최대 길이 15~20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 적어도 5년 동안 사용해 왔던 ASL의 경험을 설명함 • ASL을 가르쳤던 교육환경을 설명하고, 응시자의 강의 계획서(목표/목적/활동/평가 과정)가 교수 환경의 특정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설명함 • 응시자가 사용한 교재, 교수 자료 등 교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재와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함 • 교수 전략들을 설명함

2) 외국어로서의 영어(TESOL) 교원 자격

- TESOL은 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의 약자로,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FL(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일컫는 경우가 많다.
- 미국의 경우 국가 또는 대학 기관 차원에서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TESOL 교육 기관이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의 교사 교육 인증기관(NCAT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의 ESL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증 기준은 언어, 문화, 교수 활동, 평가, 전문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8〉 NCATE의 ESL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증 기준

영역	기준
언어 (Language)	시스템으로서의 언어(Language as a system)
	언어 습득 및 발달(Langua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문화 (Culture)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Culture as it affects student learning)
교수 활동 (Planning, Implementing, and Managing Instruction)	표준 기반 ESL 및 내용 교육 계획 (Planning for standards-based ESL and content instruction)
	표준 기반 ESL 및 내용 교육 구현 및 관리(Implementing and managing standards-based ESL and content instruction)
	ESL 및 내용 교육에 자원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Using resources and technology effectively in ESL and content instruction)
평가 (Assessment)	영어 학습자를 위한 평가 문제 (Issues of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언어 능력 평가(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
전문성 (Professionalism)	ESL 연구 및 역사(ESL research and history)
	협력 및 지지(Partnership and advocacy)
	전문성 개발, 협력 및 지지 (Profess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and advocacy)

- 미국 외국어교육협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은 언어, 언어학, 비교(Comparisons)/문화, 문학, 범교과적 개념/언어 습득 이론 및 교수 활동/교육과정과 교수 활동 연계/언어와 문화 평가/전문성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II -9〉 ACTFL 외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영역	기준
언어, 언어학, 비교 (Language, Linguistics, Comparisons)	언어 능력 (Demonstrating language proficiency)
	언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linguistics)
	언어 비교 (Identifying language comparisons)
문화, 문학, 범교과적 개념 (Cultures, Literatures, Cross-Disciplinary Concepts)	문화 이해 (Demonstrating cultural understandings)
	문해력, 문화적 텍스트, 전통에 대한 이해 (Demonstrating understanding of literacy and cultural texts and traditions)
	다른 교과와의 통합 (Integrating other disciplines in instruction)
언어 습득 이론 및 교수 활동 (Language Acquisition Theories and Instructional Practices)	언어 습득 이해 및 교실 운영 (Understanding language acquisition and creating a supportive classroom)
	학습 결과와 학습자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수법 개발 (Developing instructional practices that reflect language outcomes and learner diversity)
교육과정과 교수 활동 연계 (Integration of Standards into Curriculum and Instruction)	계획의 표준 이해 및 통합 (Understanding and integrating standards in planning)
	교수에서의 표준 통합(Integrating standards in instruction)
	교재 선택 및 디자인 (Selecting and designing instructional materials)
언어와 문화 평가 (Assessment of Languages and Cultures)	평가 모형 이해 및 적절한 사용 (Knowing assessment models and using them appropriately)
	평가에 대한 고찰 (Reflecting on assessment)
	평가 결과 보고 (Reporting assessment results)
전문성 (Professionalism)	전문성 개발 참여 (Engaging in professional development)
	외국어 학습의 가치 이해 (Knowing the valu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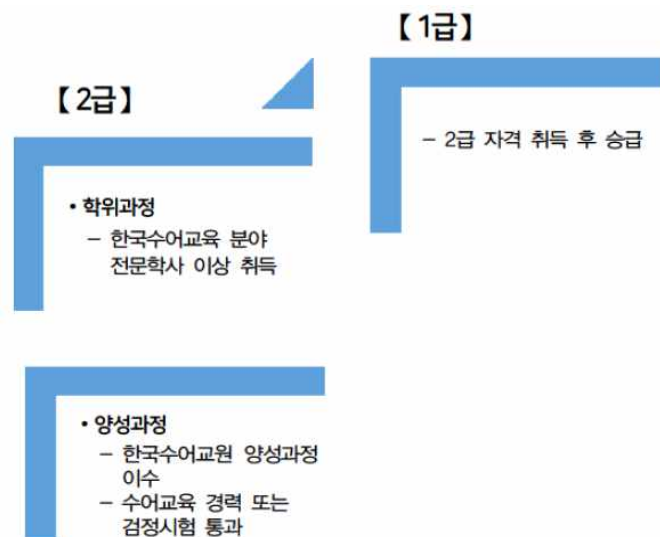
- 각 인증 기준은 영역별로 2~3개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고 기준별로 근접 수준 (approach standard), 부응 수준(meets standard), 능가 수준(exceeds standard) 등 세 가지 수행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ACTFL은 TESOL/NCATE과 거의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교수활동 영역이 언어 습득 이론 및 교수활동,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활동 연계의 두 가지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비학위, 학위) 운영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현황

1.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운영 현황

1)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 한국수어교원은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정 요건은 「한국수화언어법」(시행 2016. 8. 4.)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6조에 명시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재는 2급 자격증만을 발급하고 있고 1급 자격증 발급은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은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학위과정 이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필수 이수 시간을 이수하고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경력을 쌓거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다.



[그림 Ⅲ-1] 한국수어교원 등급체계

출처: 2018~2019년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2018, p. 4.

○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

등급	자격 기준
1급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별표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을 이수한 후 제 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원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할 것

출처: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2022. 7. 5. 개정).

○ 등급 및 영역별 이수 시간

등급	영역	이수 시간
1급 (40시간)	언어 및 기초교육	-
	한국수어학	5~10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15~20시간
	한국수어 실재	10~20시간 (선택)
	농문화와 농사회	5~10시간
	한국수어교육실습	5~10시간
2급 (120시간)	언어 및 기초교육	-
	한국수어학	15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35시간
	한국수어 실재	25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한국수어교육실습	30시간

출처: 2018~2019년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2018, p. 4.

○ 영역별 세부 심사 기준 및 과목 예시

영역	세부 심사 기준	과목 예시
1. 언어 및 교육 기초	한국수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학 및 언어학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문법·어휘·의미·화용·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수어 문법·어휘·의미·화용·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의 대한 교육 방법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 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교육에 필요한 한국 농문화와 농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수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수어교육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출처: 2018~2019년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2018, p. 31.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는 농인 등의 수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에 한국수어교육원 4개소¹⁾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어교육원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 전문 교육기관 15개소가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심의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 국립국어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최초로 한국수어교육원 2급 자격 심사를 통해 합격자 35명(양성과정-교육경력자)이 배출되었다. 이후 2019년 11월 9일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시행되어 응시자 71명 중 33명이 합격하였다. 제1회 시험은 농인 응시자 32명 중 14명이 합격하였고, 청인 응시자 39명 중 19명이 합격하여 46%의 합격률을 보였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을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2급 교원 취득자는 2019년 5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4명이 배출되었다. 2023년 현재 한국수어교육원 2급 자격 취득자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한국수어교육원 2급 자격 취득 현황

연도	학위과정	양성과정		계
		교육경력	검정시험	
2018년	0	35	0	35
2019년	5	49	0	54
2020년	24	56	43	123
2021년	32	56	55	143
2022년	39	28	60	127
합계	100	224	158	482

출처: 한국수어교육원 홈페이지(2022년 12월 기준).

- 2018년에 35명(양성과정-교육경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위과정 136명, 양성과정 중 교육경력(300시간) 252명, 검정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177명을 포함하여 총 565명이 한국수어교육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2023년 12월 기준).
- 정부는 전문성 있는 수어교육원을 양성하고자 한국수어교육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지원으로 한국수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

1) 경기도농아인협회(2017년), 강원도농아인협회(2017년), 전라남도농아인협회(2020년), 충청남도농아인협회(2022년)에 한국수어 교육 거점 지정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 2023년 현재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 등 전문 교육기관 15개소가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2) 한국수어 교육기관(비학위과정)

- 한국수어교원 비학위과정은 2018년부터 (사)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에서 운영이 시작되었다. 특히,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년 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료 인원 215명, 자격 취득 인원 130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는 187명이 수료, 64명이 2급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중 비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은 현재까지 8곳이 인정받았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18년 1회 운영 이후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농아인협회의 경우 2022년 이후 수료생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북농아인협회의 경우에도 2021년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 2023년 현재 5곳에서만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비학위과정)

번호	지역	기관명	운영기간	수료인원 (운영회기)
1	서울	(사)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2018년 (현재 미운영)	12명 (총 1기수)
2	부산	(사)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2020년~2022년	115명 (1~3기)
3	경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수어교육원	2019년~2023년	81명 (1~5기)
4	강원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2018년~2023년	215명 (1~10기)
5	충남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2019년~2023년	187명 (1~5기)
6	전남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남도협회 전라남도수어교육원	2021년~2023년	57명 (1~2기)
7	경북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2018년~2021년	100명 (1~3기)
8	광주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2022년~2023년	26명 (1~2기)

- 비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은 대부분 연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793명이 수료하였다. 이 중 2022년 12월 기준 382명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경력 300시간을 인정받아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24명,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58명이다.
- 비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은 1영역을 제외한 2~6영역의 필수 이수 시간 총 120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최소 123시간에서 최대 15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필수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표 Ⅲ-3〉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별 영역별 운영 시간(비학위과정)

구분		서울 (중앙회)	부산	경기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광주
영역	필수 시간								
2영역	15시간	15시간	16시간	20시간	20시간	18시간	16시간	19시간	21시간
3영역	35시간	36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2시간	38시간	39시간	39시간
4영역	25시간	27시간	32시간	40시간	30시간	33시간	28시간	30시간	27시간
5영역	15시간	15시간	16시간	20시간	20시간	18시간	18시간	19시간	18시간
6영역	30시간	30시간	34시간	30시간	30시간	36시간	32시간	36시간	30시간
합계	120시간	123시간	138시간	150시간	140시간	147시간	132시간	143시간	135시간

3) 한국수어 교육기관(학위과정)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중 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은 현재 7곳이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 한국수어 교육기관 학위과정은 크게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뉜다. 학부 과정으로는 나사렛대학교(4년제), 한경국립대학교(3년제/전공심화 4년제)의 2개의 대학(교)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5개의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학위 과정의 경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이 수어통역사를 양성하는 수어통역학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한국수어교원이 법제화되면서 수어교원학과로 바뀐 양상이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단독 학과(전공)로 운영되는 방식과 사회복지학과 내 세부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있다. 관련 학위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과명을 기준으로 학과 설치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I-4>와 같다.
- 2002년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사렛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가 생기면서부터 대학교에서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 열렸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과 한국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년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2년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등에 전공이 생겼으며, 2018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받은 대학교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 교육기관(양성과정)에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표 III-4> 한국수어 교육기관(학위과정) 운영 현황

구분	대학명	소속학과 및 전공명	설치 연도	개소
학부 과정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재활복지학부 한국수어교육전공 (3년제/전공심화 4년제)	2002년	2곳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수어통역교육전공(4년제)	2005년	
대학원 과정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전공	2005년	5곳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수화언어교육학전공)	2015년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국수어교원전공(사회복지학과 內)	2018년	
	안양대학교	글로벌대학원 한국수어(수화)교육전공(사회복지학과 內)	2018년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학과	2022년	

출처: 각 학교 홈페이지.

- 한경국립대학교(前 한국복지대학교, 2023년 통합)는 2002년 재활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재활복지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한국수어 관련 학부 과정(2년제)을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전공명을 ‘수화통역과’에서 수어통역사 및 수어교원을 양성하는 ‘한국수어교원과’로 변경하여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립한경대학교와 통합대학을 출범하여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되었다.
- 나사렛대학교는 2002년 아시아 최초로 대학원 과정에 수화언어 관련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개설 당시에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소속의 ‘국제수어통역학과’였으며, 2005년에는 학부 과정에 수화통역학과(現 수어통역교육전공)를 설치하였다.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 전공 과정은 2019년부터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세부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강남대학교는 2015년 일반대학원 수화통번역학과 석사과정을 설립하였고, 2017년 ‘수화언어통번역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8년부터는 수화언어통번역학 전공과 수화언어교육학 전공 등 두 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수어 전문 통번역사와 한국수어 전문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전공 안에 박사과정으로 수어학 세부 전공을 신설하여 수어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다.
-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한국수어교원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2018년에 신설되었다.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세부 전공으로 한국수어교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조선대학교는 2022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수화언어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화언어학과 내 ‘수화언어학’과 ‘수화언어교육학’ 2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2학기부터는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이 추가 개설되었다.
-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는 모두 100명이며, 대학원 과정인 안양대학교(2018년 인증)와 조선대학교(2023년 인증)에서는 아직까지 수어교원이 배출되지 않았다.

2.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 현황

-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운영 현황은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얻어 각 운영기관의 현황자료를 취합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작성한 양성기관 설문 작성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현황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교원 양성과정 홍보물, 메일 및 전화를 통한 개별 자료 요청 등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 비학위과정의 경우 교재를 바탕으로 각 강사가 작성한 강의자료(PPT 또는 한글 파일)를 하나의 자료집 형태로 묶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가의 경우 일부 시험을 통해 점수로 평가하는 기관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발표나 출석, 수업 참여도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개설 교과목 운영 현황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 해당 기관이 양성기관 승인 시 제출한 계획대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본 연구로 수행하여 취합한 자료들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1)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비학위과정)

구 분			강원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광주농아인협회	전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개 설	과정명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증 연도		2017년	2018년	2018년	2020년	2020년	2017년	2018년 (2022년 이후 미운영)	2017년 (2018년 이후 미운영)
영 역	한국 수어학	교과목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 문법론	한국수화언어
		교육내용	한국수화언어학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 어휘의 특성 및 유형, 한국수어의 기본 문법 구조,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차이, 한국수어에서 비수지기호의 의미 및 문법적 기능 이해	수어의 언어보편적 특성, 수어의 시각언어적 특성, 수화소, 수어 단어의 구조 및 단어 형성 방법, 한국수어 형태론, 수어의 특성, 한국수어 통사론, 농아동의 수어습득, 의사소통 지원	언어학에 대한 이해, 한국 수화 언어학(음운, 형태, 통사)에 대한 이해, 한국 수어 어휘론의 특성 및 유형, 한국 수어의 비수지 신호 및 관용표현의 의미 이해	형태론과 통사론의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차이, 분류사 구문과 수어문, 수어문법, 동사, 비수지기호, 의문문, 부정문, 수어기본어순과 수어문장 구성	수어언어학의 성립과 한국수어의 언어 환경, 한국수어의 언어 구조(음운, 단어, 문장), 의미와 화용론의 이해, 언어의 변화와 한국수어, 언어의 보편성과 수어언어의 특성 이해	언어학과 한국수어 이해, 한국수어의 토착화과정 이해, 수어의 음운구조, 단어와 문장의 구조 및 의미 이해, 한국수어의 비수지 신호와 수어 관용표현 이해	한국수화언어 문법체계 이해, 수어의 어휘개념과 특징 이해,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 이해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교섭법	수어와 언어, 기호와 수어, 한국 수어의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이해
		교재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 자료집(강원도농아인협회, 2023)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한국수화언어학입문(윤병천, 김철관, 2020)	수화언어학II(김철관, 2007)	한국수화언어학입문(윤병천, 2022)	한국수화언어학입문(윤병천, 김철관, 2020)	유인물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 국내외 논문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이론강의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이론강의, 토론
		평가방법	필기시험, 발표	필기시험, 발표, 질문 등	필기시험, 발표	출석, 참여도	출석, 참여도	-	-	출석, 참여도, 발표, 보고서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한국수어 교육론	교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 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 연구와 실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 교재연구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구 분			강원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광주농아인협회	전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 과 윤리						한국수어 문법교육론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한국수어 평가론	
		교육내용	다양한 언어교수 이론의 이해, 한국수어 교육학의 기본 개념 및 교육 원리 이해, 한국수어 어휘교육론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수어 문법교육론의 필요성과 방법, 평가(시험)와 관련된 주요 개념 이해 및 실습, 한국수어 교원의 역할과 직업윤리, 한국수어연구의 역사와 동향, 국내외 수어교재의 비교와 탐색, 대상별, 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 교원의 역할과 자격, 수어 학습자의 특성, 한국수어 학습환경 분석, 한국수어 수업의 실제(요구분석, 학습목표 설정, 교수 방법 및 절차, 교안 작성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 평가 및 총괄평가, 수어 기능 평가, 언어연구방법에 대한 이해, 수어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전사방법, 수어 산출과 지각 측정 방법, 수어연구방법, 수어문법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의 이해, 수어교육의 특성과 형태, 제1언어로서의 수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수어교육, 한국수어 교수법과 실제	제2언어로서의 한국수어 교육, 언어 학습과 교수, 농아동의 수어 습득과 이중언어 접근, 언어교수법에 기초한 수어교육, 언어 평가론에 기초한 수어평가, 언어교육과정과 교재, 수어교재연구, 수어교재개발, 수어교재의 평가 및 적용, 언어교육과정의 개념과 기본원리 이해	언어교육과정의 개념과 기본원리 이해,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개발 시도 및 운영을 위한 피드백, 수어교육의 당위적 이해, 역사적 이해, 수어 언어 구조와 습득, 뇌과학과 수어, 수어교육의 이론적 이해, 실천적 이해(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수어가 지닌 기본적인 특성을 유념하고, 각 어휘의 의미 관계까지 고려하여 수어의 다양한 어휘를 파악	언어의 기원과 수어교육의 역사적 배경, 수어교육과정 개발과 구성 및 운영, 평가, 수어교육을 위한 기초, 중급, 고급, 전문영역 수어교재 분석 및 교육에 적용, 한국수어 문법의 이해, 한국수어의 매체 활용 및 수어교육 적용	언어습득과 수어, 수어교육학의 성립, 언어의 본질과 언어교육방법, 한국수어교수를 위한 제2언어교육 방법,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한국 수어의 특성과 수어 연구, 국내외 수어 연구방법과 결과, 수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수어교육,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교안 작성, 한국수어교원 직업적 이해, 자질과 역할, 직업윤리 의식	한국수어의 역사적 배경, 음성언어의 습득이론과 발달과정 이해, 한국수어 학습을 위한 시각언어의 특성에 근거한 기본원리 이해, 한국수어 대화의 기술, 외국의 수어교육과정 탐색, 농아동의 수어습득, 한국수어교육 현황 분석 및 한국수어교수법 모델 제안,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 한국수어의 어휘연구, 한국수어의 문법연구, 수어능력 평가 방법
		교재	한국수어교육론(국립국어원, 2018)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 자료집(강원도농아인협회, 2023)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2(서울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외, 2019) 한국어평가론(지현숙, 2017)	수어교육개론(원성옥, 강운주, 2002) 수화(원성옥, 2013)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	유인물 언어학습과 교수의 원리6판(H. Douglas Brown, 문문섭 외 공역, 2020) 한국수화교재연구(윤병천, 김철관, 2018)	수화교육학 입문(원성옥, 2020)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이론(남기현 외, 2020)	수화교육학입문(김철관, 윤병천, 2018) 수어 회화(김정중, 2013)	한국수화언어학입문(윤병천, 2022) 수화교육개론(강운주, 2002) 원리에 의한 교수(김영숙 외 공역, 2012) 수화교육학입문(김철관, 윤병천, 2020) 한국수화교재연구(윤병천, 김철관, 2019)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Johnston, R., & Schembri, A., 2007)
		교육방법	이론강의, 실습 등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구 분			강원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광주농아인협회	전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평가방법	필기시험, 교안 평가	필기시험, 발표	계획안 작성, 발표	출석, 참여도	출석, 참여도	-	-	출석, 참여도, 보고서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필기도구, 전자칠판,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한국 수어 실제	교과목	한국수어의 실제-초급 한국수어의 실제-중급 한국수어의 실제-고급 한국수어의 실제-회화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초급수어의 실제 중급수어의 실제 고급수어의 실제 한국수어 회화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 회화
		교육내용	수어의 기본적인 표현방법(비수지기호, 강약, 공간활용 등), 일상생활 어휘, 문장 학습을 통한 수어의 이해, 문맥 속에서 다양한 어휘의 의미 이해 및 수어표현 확장, 이야기를 통한 공간 활용, 역할전환 등의 이해 및 표현, 분류사의 특징과 표현법 이해, 수어문학에 대한 이해 및 표현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의 특성을 이해, 수어 문법의 이해(수어문법의 체계적인 분류와 이해), 한국수어의 이해(농인의 표현 방식과 생활 이해)	한국수어 초급과정(수어소, 지문자 등) 교육방법과 실제, 한국수어 중급과정(문장, 문법 구조 등) 교육방법과 실제, 한국수어 고급과정(문법활용, 관용표현 등) 교육방법과 실제, 한국수어 학습자를 위한 회화 교육 방법과 실제, 수어 학습자를 위한 회화 이해 교육 및 표현 교육, 주제별 회화 어휘 학습, 농인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표현 교육	수어 기초 어휘 연습, 문장 연습, 수어 대화, 도상성 표현 및 공간분할의 기초, 수어문에 대한 토론, 농문화에 대한 토론(가족, 학교, 사회생활 등), 수어 관용적 표현의 이해와 분석	초급수어교육, 단원의 구성요소에 대한 교육, 수어의 언어적 특성과 중급 어휘에 교육, 수어소(수형, 수동, 수위, 수향, 비수지기호)의 변인에 따른 다양한 수어표현과 수어의 특성	수어강의 교수법 및 학습법의 이해, 비수지, 수어소 이해, 시각화된, 농문화 공유 및 수어 대화 연습, 다양한 수어표현, 수어와 비수지의 강약, 위치, 강조 이해, 농관련 이슈 및 경험담 공유, 주제관련 그림 자료를 통한 수어 어휘-문법-연습-활용, 대화유도 스킴 및 수어동영상 감상 후 토론	수어 기초 어휘 및 핵심 언어 구조 이해, 시각적 자료 및 구성 단계별 교수 전략, 수어 어휘와 수어문의 확장된 의미와 상황 표현력 심화, 고급 한국수어 문법의 이해와 활용, 어감 및 관용적 표현 이해,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상황별로 쓰이는 회화 표현 학습, 수어문법 이해와 정확하게 유창한 수어 표현	수화소(수형, 수동, 수위, 수향, 비수지기호)의 변인에 따른 다양한 수어 표현과 수어의 특성,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사용되는 관용 수어회화, 수어표현 실습
		교재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수어Ⅲ,Ⅲ-하(강원도농아인협회, 2009~2011)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13)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 중급(경기도농아인협회, 2018~2019)	-	한국수어 I, II, III(강원도농아인협회, 2010) 한국수어와 친구되기(변강석, 2010)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4)	한국수어-기초과정(전남수어교육원, 2021)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한국수어와 친구되기(변강석, 2010)	한국수어와 친구되기(변강석, 2010)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4)	한국수어와 친구되기(변강석, 2010)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윤병천 외, 2016)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4)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 남기현, 2014) 수화의 이해와 실제 고급과정(이준우·남기현, 2004) 한국수어회화 첫걸음(이준오 외, 2010)

구 분			강원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광주농아인협회	전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4)			한국수어와 친구되기(변강석, 2010)
		교육방법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평가방법	필기시험, 발표	필기시험, 발표, 설문 평가	발표, 수업시연	출석, 참여도	출석, 참여도	-	-	출석, 과제, 토론 및 참여도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농문화와 농사회	교과목	농사회의 이해 농문화의 이해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 정책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농인의 심리와 문화
		교육내용	농사회의 개념과 언어·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농교육의 쟁점과 과제, 농정체성과 농인의 인권,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한 정책동향	농인의 심리 특성, 농문화의 개념과 특성, 여러 국가의 농인공동체 사례 및 특성비교, 농인 심리 및 농문화 조사 방법 및 적용	농사회의 이해와 역사, 문학, 예술, 스포츠 등 농문화의 실재(實在), 농교육의 쟁점과 과제, 농사회 관련 정책과 한국수화언어법	문화·사회적 존재로서의 농인과 그 정체성을 이해, 농인의 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 농문화의 범주와 문화수용 현상을 이해, 청능주의와 농인의 언어권을 이해, 농교육과 농사회 미래 고찰	농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농사회의 문화수용에 대한 이해, 농인의 언어권과 수어언어법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문화와 농정체성 이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농사회, 농인과 심검, 코다, 농인의 세계와 삶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이해	농사회의 개념과 농사회 주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이해, 농문화와 농교육의 역사를 이해, 농정책론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한 이해	농인의 심리적 특성과 정체성, 사회문화적 특성, 생애주기에 따른 농인 삶의 특성, 한국 농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한국농아인협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역할 기능
		교재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 자료집(강원도농아인협회, 2023)	영혼에 닿은 언어(김유미, 2016) 농문화입문(김칠관, 윤병천, 2014)	농문화와 농사회(김유미 외, 2019) 한국농사회의 이해(강창욱 외, 2017)	농문화와 농사회(김유미 외, 2019)	농문화와 농사회(김유미 외, 2019)	농문화입문(김칠관, 윤병천, 2014)	한국농사회의 이해(강창욱 외, 2017) 창립 70년사(한국농아인협회 2016), 농문화와 농사회(국립국어원, 2019)	농인의 삶과 수어(이준우, 2018)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Thomas S. James P. Sparadley, 이준우 역, 2016)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이론강의	이론강의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토론	이론강의	이론강의, 토론
		평가방법	필기시험, 발표	필기시험	-	출석, 참여도	출석, 참여도	-	-	출석, 참여도, 발표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구 분			강원도농아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광주농아인협회	전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부산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 수어 교육 실습	교과목	한국수어교육실습 현장실습	한국수어교육참관/실 습 한국수어교육실습 (모의수업)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교육내용	실습 이론(강의 계획 서 작성 요령, 실습 서류 작성 등), 현장 실습(참관, 시강), 모 의수업 진행 및 평가, 실습 마무리 평가	한국수어교육 실습의 의의, 모의 수업 시 주의점 및 유의점, 수 업지도안 작성방법, 수업지도 방법 및 적 용, 학습자의 특성 평 가방법, 내용 선정방 법, 교수매체 선정, 수어 실습 평가	한국수어교육 현장 실습(참관 및 시연), 실습 일지 작성, 실 습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제물 작성	모의수어교육을 실 행함으로써 한국수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을 갖추고, 한국수어교 육 현장을 직접 참 관하여 수어교원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	한국수어교육 실습 의의와 목표, 한국수 어교원의 자질과 역 할, 수어교육의 유형 및 교육방식, 모의수 업(강의안 작성, 수업 진행), 수어교육 참 관, 결과보고서 작성	수어교육 과정 관찰 및 운영 방법 학습, 수어교수 방법에 따 른 교안 작성, 언어 및 교육기초 영역 수업 참관, 한국수어 교육론 영역 수업 참관, 수업 참관 일 지 작성, 최종평가회	한국수어교육 참관, 참관 일지 작성, 교수법 및 교육 내 용에 대한 과제물 작성	한국수어 교육과정, 교수설계, 교안작성, 모의수업, 참관수업, 교육실습	
	교재	한국수어교원양성과 정 자료집(강원도농아 인협회, 2023) 재미있게 배우는 한 국수어1,2,3(강원도농 아 인 협 회 , 2009~2011)	한국어교육 자격 취 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실습(이은경, 이 윤진, 2018)	수어교육 참관 실습 일지(윤병천, 미간 행)	한국수어(한국농아인 협회, 2001)	한국수화(한국농아인 협회, 2001)	수어교육 참관 실습 일지(윤병천, 2017)	유인물	강의안(이준우, 2018)	
	교육방법	이론강의, 실습, 발표, 토론	이론강의, 발표, 실습	이론강의, 발표,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교육참관, 발표, 토론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토론, 실습	
	평가방법	실습 서류 평가, 모 의수업 및 실습 평가	실습, 발표, 모의수업	실습, 발표, 모의수업, 과제물 제출	실습평가서, 출석, 모의수업평가	실습평가서, 출석, 모의수업평가	교안작성, 참관일지	참관일지, 실습일지, 과제물, 총평	실습일지, 슈퍼바이 저 평가, 출석, 모의 수업평가, 교수평가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출처: 각 양성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영역별 개설 교과목(학위과정)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한경국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총신대학교	안양대학교	조선대학교
개 설	학과		한국수어교육전공	휴먼서비스학부 수어통역교육전공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수어교원학전공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수화언어교육학전공	사회복지대학원 한국수어교원전공	글로벌대학원 한국수어(수화)교육전공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학과 수화언어교육학전공
	인증 연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23년
영 역 별	언어 및 교육 기초	교과목	한국어의 이해 교수와 학습의 원리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응용언어학개론	한국어의 이해	-	-	언어학개론
		교육내용	언어의 특징과 기능, 한글의 제자 원리와 운영 방법 및 국어의 순화, 음운론, 형태론 및 의미론, 통사론, 어문규정 교수학습의 이론, 효과적인 교수방법, 학습자 평가 방법,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 방법 및 대처 전략과악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언어와 한국어, 한국어의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한국어의 문자와 표기, 한국어사의 이해에 대하여 학습	언어학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를 상대화하며 이와 함께 언어양식을 달리하는 언어 특성 학습 언어교육(수화언어교육)과 언어습득(수화언어습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문화, 사회와 언어, 언어(수어)와 뇌 등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 등	국어이해와 언어이론, 응용국어학, 한국어의 유형적 특성, 음운론, 형태론, 어휘론, 기본문과 확대, 문장성분, 조사, 어미, 문장유형, 한국어의 역사, 한글맞춤법	-	-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형태론 등을 포함한 언어학 전반
		교재	선행국어(전선행, 2021)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변영계, 2006)	한국어학의 이해(박덕유, 2016)	응용언어학개론(김칠관·윤병천), 2014	한국어학(강현화 외, 2016)	-	-	언어학개론(이희란 외, 2021)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 토의, 조사 및 발표 등	강의, 토론, 발표, 과제	강의, 토론, 발표	-	-	강의, 토론, 발표, 과제
		평가방법	서술형 시험, 기타	과제 및 토론, 출석, 중간·기말시험	과제, 발표, 출석, 중간·기말시험	학습활동, 보고서, 출석	-	-	토론 및 발표 참여, 과제, 출석, 시험
		사용기자재	필기도구,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	-	-
	한국 수어학	교과목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화언어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문법론
		교육내용	언어학의 본질과 내용, 한국수화언어의 보편적 특성,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과	한국수어의 언어학적인 특성인 수어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과	한국수어의 언어학적인 특성인 수어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 파악(수화와 언어학 1.2, 음운론, 형태론	수어언어학, 수어문장과 문법, 수어문장의 기본구조, 한국수어의	수어언어학, 수어문장과 문법, 수어문장의 기본구조	한국수어의 형태론, 도상성, 한국수어의 시제와 상, 관용표현과 속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한정국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총신대학교	안양대학교	조선대학교
			론, 통사론, 화용론 등 한국수어 어휘의 구성 원리 및 특성, 어원, 가정, 학교, 사회생활 관련 수어 어휘 수어 관용 표현의 특성	한국수어의 역사와 수어 교육의 내용을 파악 한국수어 어휘 생성 및 분화, 수어어휘의 재구성 과정과 낱말의 복원 및 낱말가족에 대한 이해	등과 한국수어의 역사와 수어교육의 내용을 파악	1,2,3,4, 도상성, 통사론, 의미론, 담화1,2, 수어의 비수지 신호)	역사적 맥락과 이론	한국수어의 역사적 맥락과 어원론적 기원	담, 환유와 은유 등
		교재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 2014) 한국수어사전(국립국어원, 2017) 한국수화어행(한국농아인협회, 2004)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안성우, 2003) 어원론으로 본 한국수화어원(김칠관·윤병천, 2017)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안성우, 2003)	Australian Sign Language :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Johnston, Trevor & Schembri, Adam, 2007)	수화언어학 II (김칠관, 2007)_미간행 한국수화로 본 수화어원론 입문(윤병천·김칠관, 2017)	-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식, 토론, 발표	강의식, 토론, 발표	강의, 토론, 발표	이론강의, 발표, 토론, 선행연구 셰어링 등	이론강의, 토론, 선행연구 셰어링 등	강의, 토론, 발표
		평가방법	서술형 시험, 평가자 체크리스트, 문제해결 시나리오, 기타	과제, 발표, 출석, 중간·기말시험	과제, 발표, 출석, 중간·기말시험	발표, 참여도, 출석, 기말보고서	발표, 팀별 사례연구, 체크리스트, 등	발표, 팀별 사례연구	토론 및 발표 참여, 과제, 출석, 시험
		사용기자재	필기도구,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
	한국수어 교육론	교과목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교육과정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교육내용	언어교육 이론, 교수 및 교수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및 교수 목표 진술, 교수 전략 선택 및 평가 문항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안 작성 국내외 개발된 수어교육과정 탐색, 분석, 설계 교수전략, 수업평가, 언어평가 한국수어 문법 교육과정	일반 언어교육 방법과 이론, 수어교육 방법론을 익혀 수어교육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 및 태도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과 수업 설계 및 실행관련 이론과 실제 언어교육 과정에서의 교재의 의미 및 성격, 수어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배경, 수어교재 개발 과정 한국수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관용표	일반 언어교육 방법과 이론, 수어교육 방법론을 익혀 수어교육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 및 태도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과 수업 설계 및 실행관련 이론과 실제 언어교육 과정에서의 교재의 의미 및 성격, 수어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배경, 수어교재 개발 과정 한국수어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관용표	한국수어의 성립과 전개과정,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특징,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 미 국수어 교수법의 원리와 실제 교육과정의 기초 이론, 담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요소, 수어교육과정 개발 수어통번역 연구방법의 기본적 이론과 개념 및 용어, 양적·질적 연구방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 대상자에 따른 다양성,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 수어학 기초, 수어 지도의 기초이론, 수어 학습과 지도과정 한국수어의 역사와 특성, 교재 분석, 교재 제작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대상자에 따른 다양한 한국수어 교육과정,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의 실제 수어학의 기초, 수어 지도의 기초이론, 수어 학습과 지도과정 한국수어의역사와 특성, 한국수어교재 분석, 한국수어교재 제작	한국수어 어휘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어휘 교육 이론과 교수방법론 한국수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문법교육 이론과 교수방법론 한국수어 및 수어교육 분야 연구 주제와 내용, 연구방법론, 연구 사례 분석 등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한경국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총신대학교	안양대학교	조선대학교
				현, 비수지신호 등에 대한 연구방법과 유도자료 선정 및 제시 방법	현, 비수지신호 등에 대한 연구방법과 유도자료 선정 및 제시 방법	법, 연구설계와 과정, 수어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			
		교재	수화교육개론(원성옥, 2002) 언어교육과정개발 이론과 실제(Richards, J.C, 2015),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최상배 외, 2017) 원리에 의한 교수(Brown, 2008), 한국수어지도(원성옥, 2023)_미간행 한국수어문법(원성옥 외, 2021), 문법과 문법교육(신현숙, 2014)	한국수어교육학(윤병천, 2017)_미간행 한국수화의 이론과 실제(김칠관, 1999) 한국수화교재연구(김칠관, 2017)_미간행 한국수어연구와 실제(윤병천, 2017)_미간행	한국수어교육학(윤병천, 2017)_미간행 한국수화의 이론과 실제(김칠관, 1999) 한국수화교재연구(김칠관, 2017)_미간행 한국수어연구와 실제(윤병천, 2017)_미간행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김칠관, 1999) 교육과정(박효용, 2012) 담당교수의 강의안	수화학습 및 교수공학(허일, 2002) 한국수어의 이론(최상배·안상우, 2003) 수어교재연구를 위한 학술논문과 참고자료	-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교육 이론(남기현 외, 2020)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이론(남기현 외, 2020) 국내외 수어 및 수어교육 연구 문헌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 토론, 발표	강의, 토론, 발표	강의, 토론, 발표	이론강의, 발표, 토론, 선행연구 세어링, 등	이론강의, 발표, 선행연구 세어링	강의, 토론, 발표
		평가방법	서술형 시험, 기타	과제, 발표, 출석, 중간·기말시험	과제, 발표, 출석, 중간·기말시험	발표, 참여도, 출석, 기말 보고서	포트폴리오, 필기시험, 발표	포트폴리오, 발표, 필기시험	토론 및 발표 참여, 과제, 출석, 시험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
	한국수어실제	교과목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고급수어의 실제 수어회화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초급한국수어 실제 중급한국수어 실제 고급한국수어 실제
		교육내용	한국수어, 메타언어, 수어 어휘, 수어 문법, 대화 맥락에 맞는 수어 표현 대화 주제별 수어표현	초급·중급·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어휘와 문법 등	한국수어회화의 보편적 특징, 수어회화의 지역별 전개 양상 및 다양한 유형의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회화	수어의 언어적 특성, 수화소의 변화에 따른 수어의 특성 수어문장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실제적인 수어 어휘와 수어 사용방식	기초·중급·고급한국수어, 청각장애인과 직접 소통	기초·중급·고급한국수어, 농아인을 초청하여 직접 소통 한국수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맞게 회화	한국수어 기본 핵심어휘 학습 및 표현 실습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국수어 문장 학습 및 표현 실습 한국수어 어휘와 구문 확장과 활용을 통한 다양한 표현 양식 이해 및 활용 실습
		교재	한국수어의 실제(초급편)(경기도수어교육원, 2019)	The 쉽고 재미있는 수화(김현철 외, 2010)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장진권, 2004)	한국수어학개론(이준우·남기현, 2014), 수어	한국수화(한국농아인협회, 2001)	한국수화(한국농아인협회, 2001)	K-MOOC, 선생님! 한국수어를 부탁해요-입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한경국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총신대학교	안양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수어와 친구되기 (변강석, 2010), 한국수어의 실제(중급편)(경기도수어교육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고급편)(경기도수어교육원, 2021), 한국수어의 실제(고급편2)(경기도수어교육원, 2022) 회화교재(서울수화전문교육원, 2017), 수어가 눈에 쏙(경기도수어교육원, 2018)	한국수어와 친구되기 (변강석, 2010)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장진권, 2004)		의 이해와 실제(고급과정)(이준우 외, 2016) 한국수화회화 첫걸음 (이준우 외, 2010)		한국수어와 친구되기 (변강석, 2010) 한국수화여행(한국농아인협회, 2004) 수어회화(최성규·김정중·유지영, 2017)	문편, 영상촬영본 및 강의안 수화아카데미(기초편)(모상근, 2003) 한국수화 회화 첫걸음 (이준우 외, 2010) 한국수화여행(장진권, 2005)
		교육방법	이론강의, 실습	강의, 발표, 토론	강의, 토론, 발표	강의, 토론, 워크숍, 과제 등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실습	강의, 실습, 토론, 발표
		평가방법	평가자 체크리스트, 역할연기	발표 및 수업 기여도, 출석, 중간·기말시험	발표 및 수업 기여도, 출석, 중간·기말시험	과제, 토론, 참여도, 출석	발표, 기타	발표, 기타	토론 및 발표 참여, 과제, 출석, 시험
		사용기자재	필기도구, 컴퓨터, 빔프로젝터, 촬영기기 및 재생기기	비디오, 멀티미디어	비디오, 멀티미디어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
	농문화와 농사회	교과목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농사회의 이해
		교육내용	농인의 심리 특성, 농문화의 개념과 특성, 여러 국가의 농인공동체 사례 및 특성비교, 농인심리 및 농문화조사 방법 및 적용	농인공동체와 농인의 정체성 문제, 농학, 문화연구,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제적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농사회의 역사 이해	농인공동체와 농인의 정체성 문제, 농학, 문화연구,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제적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농사회의 역사 이해	언어소수자로서의 농인, 다양한 농커뮤니티, 농문화 농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현상, 수어를 통해 구현되는 삶의 양식	농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교육환경 및 가정, 직장 등에서의 일반적인 양상,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	농인의 성장주기에 따른 교육환경 및 가정, 직장 등에서의 일반적인 양상, 독특한 문화적인 요소	한국 농인과 농사회의 개념과 특징 이해, 농인의 언어공동체 이해, 수화언어법의 제정과 의의,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 등
		교재	농문화 입문(김칠관 외, 2014), 농문화와 농사회(국립국어원, 2019)	농문화입문(윤병천·김칠관, 2014)	농문화 입문(윤병천·김칠관, 2014)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Holcomb, Thomas K., 2014), 농문화 입문(김칠관·윤병천, 2014) 데프앤데프(이준우·김연신, 2012)	농문화 입문(김칠관·윤병천, 2014)	-	한국농사회의 이해(강창욱 외, 2017), 농문화와 농사회(국립국어원, 2019), 농문화 입문(김칠관·윤병천, 2014)
		교육방법	이론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 발표, 토론 등	강의, 발표, 토론 등	이론강의, 발표, 선행연구 셰어링, 등	이론강의, 발표, 선행연구 셰어링, 등	강의, 실습, 토론, 발표

구분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				
			한경국립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충신대학교	안양대학교	조선대학교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서술형 시험, 기타	발표 및 수업 기여도, 출석, 중간·기말시험	발표 및 수업 기여도, 출석, 중간·기말시험	과제, 발표, 참여도, 출석	필기시험, 발표	필기시험, 발표, 기타	토론 및 발표 참여, 과제, 출석, 시험
		사용기자재	필기도구, 컴퓨터, 빔프로젝터, 캡코더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한국수어교육실습	교과목	한국수어교육참관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실습
		교육내용	수어교원 자세와 태도, 참관 및 참관 일지 작성, 수업설계를 통한 관찰 방법 학습, 참관 후 참관 활동에 대한 세미나 수업계획안 작성 방법, 수업지도 방법 및 적용	다양한 수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참관, 수어 교육에 필요한 교안작성과 교수법	다양한 수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 참관, 수어교육에 필요한 교안작성과 교수법	수어교육실습 개요 및 수어교육의 이해, 수어교육 실제 1.2, 현장수업교육실습, 수어교육실습 강평	수어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모의수업을 위한 교안작성 및 모의수업, 수어지도법 및 수업운영 방법 분석, 수어교육 현장 실습	수어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수어교육을 위한 교안작성, 수어지도 시뮬레이션 및 상황별 대처방법, 수어교육 현장 참관	수어교육 학습자와 교육환경, 교사의 역할 이해, 수업지도안 작성법, 수업 참관, 모의실습, 강의 실습 등
		교재	한국수어교육 참관(김지숙)_미간행, 한국수어교육실습(이은경·이운진, 2021) 예비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실습(박경자, 2021)	수어교육 참관 실습일지(윤병천, 2017)_미간행	수어교육 참관 실습일지(윤병천, 2017)_미간행	강의안(강창욱, 201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실습지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14)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김칠관, 1999) 강의안	-	담당교수 강의안
		교육방법	이론강의, 실습, 발표, 토론 등	참관 및 참관일지작성, 발표 및 토의	참관 및 참관일지작성, 발표 및 토의	강의, 실습, 토론, 발표	이론강의, 실습	이론강의, 실습, 수어교육현장 참관	강의, 실습, 토론
		평가방법	서술형 시험,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기타	출석, 일지 작성, 교안작성 및 토의	출석, 일지 작성, 교안작성 및 토의	실습일지, 실습수행능력, 교수학습지도안, 출석	포트폴리오, 기타(실습)	포트폴리오, 기타	토론 및 모의수업 참여, 과제, 출석
		사용기자재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컴퓨터, 빔프로젝터	-

출처: 각 양성기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IV. 한국수어교원 등급 및 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 한국수어교원의 등급 및 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마련을 위해 국내외 유사 관련 자격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수어교원의 등급 및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행한 1차 자문회의에서 한국수어교원 2급은 기본적인 한국수어 교육 능력 수준이 필요하며, 1급은 한국수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및 한국수어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재 개발 능력, 농문화와 농사회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등급별·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의 전반적인 수정을 진행하였다.
- 1차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된 등급별·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을 2차 자문회의, 세미나,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다시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요구 능력 및 수준

수준	요구 능력 및 수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 -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 언어 교육 방법론, 언어활동, 평가, 한국수어 언어학 지식 - 한국수어 능력, 교육과정, 교육계획 개발을 위한 교수에 대한 기본 지식

2. 한국수어교원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1) 한국수어교원 1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영역	요구 능력 및 수준
언어 및 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하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분류사 활용 및 묘사, 역할전환, 공간 활용 및 묘사, 관용어 사용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전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한국수어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 - 한국수어 교수법과 교수 기술을 이해하고 교육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 오류에 대한 분석과 처리 능력
한국수어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회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 기술 및 농인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농문화와 농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라 한국수어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 활동 설계 및 구성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가공, 사용 능력,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 능력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영역	요구 능력 및 수준
언어 및 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법·어휘·의미·화용·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기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한국수어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실시능력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한국수어 교육 결과 평가 능력
한국수어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로 의사소통하고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과 전략 수행 능력
농문화와 농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 특징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심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수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 능력 - 효과적인 교실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교수법 채택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및 수업 과제 설계 능력

V. 한국수어교원과 양성기관 및 교강사 현황과 요구조사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구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9곳이며, 학위과정의 경우 3곳으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이었다. 비학위과정은 6곳으로 강원도 수어문화원, 경북농아인협회, 전남수어교육원, 충남수어교육원, 광주광역시수어교육원이고 부산농아인협회(기타)는 2022년 이후 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 본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강사 및 교원 자격 취득자 요구조사도 병행하였다.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482명 중 약 16.3%인 86명이 요구조사에 참여하였고, 교강사는 30명이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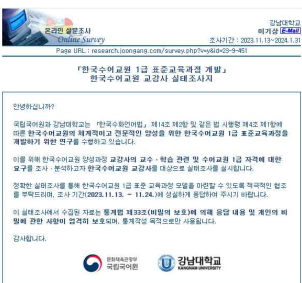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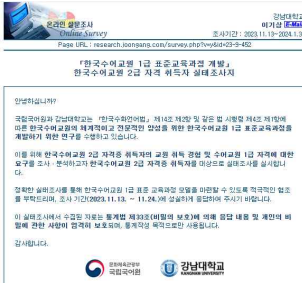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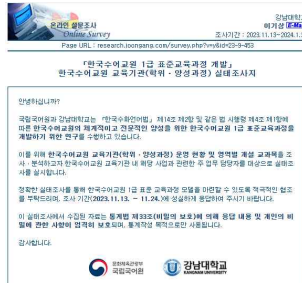
1. 교원 양성기관 요구조사 결과

-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구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기관별 유형부터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도식 또는 도표와 함께 주요 설명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각 항목별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도식 또는 도표에 별도의 번호를 매기지는 않았다.

◆ A4. 기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대학교 학위과정	0	0%	
대학원 학위과정	3	33%	<div style="width: 33%;"></div>
교원 양성기관	5	56%	<div style="width: 56%;"></div>
기타	1	11%	<div style="width: 11%;"></div>

〈표 V-1〉 참여 기관별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 및 인증 시기	인력 구성(명)
대학원 학위과정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설립 2015.03. / 인증 2017.08.	청인 7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설립 2001. / 인증 2017.	농인 1/청인 1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설립 2022.09. / 인증 2023.04.	청인 9
교원 양성기관	강원도수어문화원	설립 2017.10. / 인증 2017.12.	농인 1/청인 3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설립 2018.03. / 인증 2018.03.	농인 1/청인 2
	전남수어교육원	설립 2021.03. / 인증 2021.03.	농인 2/청인 3
	충남 한국수어교육원	설립 2018.12. / 인증 2018.12.	농인 1/청인 2
	광주광역시수어교육원	설립 2022.03. / 인증 2023.04.	농인 2/청인 1
기타 (2022년 이후 미운영)	부산농아인협회	설립 1997.10. / 인증 1997.10.	농인 1/청인 3

		
<교강사 설문>	<자격 취득자 설문>	<교육기관 설문>



[그림 V-1] 한국수어교원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지 예시

1) 교과 운영




교과 운영 목적에 대한 응답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이 2곳, ‘한국수어 교육 강사 양성’ 5곳, ‘한국수어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 이 2곳으로 수어교육 강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응답한 곳이 가장 많았다.

◆ B1. 교과 운영의 목적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격 취득)	2	22%	
한국수어 교육 강사 양성	5	56%	
한국수어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	2	22%	
기타	0	0%	

양성과정의 각 교과목의 학습 목적과 실제 강의 내용의 일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치한다’ 6곳, ‘매우 일치한다’ 3곳으로 ‘일치한다’ 가 가장 높았다.

◆ B2. 각 교과목의 학습 목적과 실제 강의 내용의 일치 정도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0	0%	
일치한다 (4)	6	67%	
매우 일치한다 (5)	3	33%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수강생의 학습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1곳, ‘그렇다’ 5곳, ‘매우 그렇다’ 3곳으로 응답률은 ‘그렇다’ 가 가장 높았다.

◆ B3.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수강생의 학습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	
그렇지 않다 (2)	0	0%	
보통이다 (3)	1	11%	
그렇다 (4)	5	56%	
매우 그렇다 (5)	3	33%	

2023년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4주 이상 연속 운영하는 ‘수어 학습 과정’) 운영 유무는 운영하는 곳이 5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4곳이다.

◆ B4. 2023년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4주 이상 연속 운영하는 ‘수어 학습과정’) 운영 유무는?			
있다	5	56%	<div></div>
없다	4	44%	<div></div>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형태는 대면 교육이 3곳, 비대면 교육이 2곳이었다.

◆ B4a.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형태는?			
대면 교육	3	33%	<div></div>
비대면 교육	2	22%	<div></div>
대면과 비대면 혼용	0	0%	<div></div>
기타	0	0%	<div></div>
무응답	4	44%	<div></div>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운영 단계는 초급(입문)과정 2곳, 초급-고급과정 3곳이었다.

◆ B4b.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운영 단계는?			
초급(입문)과정	2	22%	<div></div>
초급-중급과정	0	0%	<div></div>
초급-고급과정	3	33%	<div></div>
기타	0	0%	<div></div>
무응답	4	44%	<div></div>




현재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5곳 중 교육기관 외 민간 개발 한국수어 교재를 사용한다고 3곳(충남협회, 강남대, 나사렛대)이 응답하였고 별도의 보조 자료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곳은 1곳(조선대)이었다.

◆ B4c. 한국수어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 교재는?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	0	0%	<div></div>
교육기관 외 민간 개발 한국수어 교재	3	33%	<div></div>
별도의 보조 자료(예 : PPT,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 등)	1	11%	<div></div>
기타	1	11%	<div></div>
무응답	4	44%	<div></div>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별도의 한국수어 교육과정(‘수어학습과정’이 아닌 ‘훈련과정 등’에 해당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6곳이며,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 관 명	훈 련 과 정
조선대학교	한국수어연구 및 수어학연구
강원도수어문화원	한국수어교원 콜로키움, 한국수어교원 시험 대비교육, 대상별 맞춤형 수어교육
전남수어교육원	전문분야 실전통역 (문법, 방송통역 등)
충남 한국수어교육원	수어통역사 양성교육, 보수교육, 청각장애인/수어통역사 자격증 대비교육 등
광주광역시수어교육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수어통역사 자격증 대비반, 한국수어교원검정시험대비반
부산농아인협회	고급심화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과목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가 2곳, ‘적절하다’ 6곳, ‘매우 적절하다’ 1곳으로 ‘적절하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B5.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과목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1)	0	0%		
적절하지 않다 (2)	0	0%		
보통이다 (3)	2	22%		
적절하다 (4)	6	67%		
매우 적절하다 (5)	1	11%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교과목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기 관 명	교과 운영이 어려운 교과목과 이유
조선대학교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
강원도수어문화원	한국수어교육론 전반-전문 강사확보 어려움

기 관 명	교과 운영이 어려운 교과목과 이유
전남수어교육원	농인과 청인학습자의 이해정도가 달라 강의수준을 정할 때 어려움 수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어에 능숙한 청인 강사를 찾기 어려워 농인 강사 위주로 섭외해야 함
충남 한국수어교육원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 강사별 자체제작 교재의 수량이 상이함
부산농아인협회	한국수어실제- 이론이 너무 많아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 교육 환경

강사 선정 시 중요 1순위에서는 ‘지식에 대한 전문성’ 이 5곳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 가 3곳,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이 1곳이었다.

◆ C1_1. 강사 선정 시 중요 순서 - 1순위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	3	33%	<div></div>
기관 내 인사의 추천	0	0%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1	11%	<div></div>
지식에 대한 전문성	5	56%	<div></div>
체계적인 강의 내용	0	0%	
지명도	0	0%	

강사 선정 시 중요 2순위에서는 ‘체계적인 강의 내용’ 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식에 대한 전문성’ 2곳,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이 2곳이었다.

◆ C1_2. 강사 선정 시 중요 순서 - 2순위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	0	0%	
기관 내 인사의 추천	0	0%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2	22%	<div></div>
지식에 대한 전문성	2	22%	<div></div>
체계적인 강의 내용	5	56%	<div></div>
지명도	0	0%	

강사 선정 시 중요 3순위에서는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와 ‘체계적인 강의 내용’이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식에 대한 전문성’ 2곳, ‘기관 내 인사의 추천’이 1곳이었다.

◆ C1_3. 강사 선정 시 중요 순서 - 3 순위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	3	33%	
기관 내 인사의 추천	1	11%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0	0%	
지식에 대한 전문성	2	22%	
체계적인 강의 내용	3	33%	
지명도	0	0%	

이론 강의의 강의료는 ‘정액 지급’이 4곳, ‘경력 또는 학위에 따라 다름’이 3곳, ‘외부 인력만 지급’이 2곳이었다. 정액 지급은 시간당 12~15만 원, 추가 시간당 7~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C2. 이론 강의의 강의료는?			
정액 지급	4	44%	
경력 또는 학위에 따라 다름	3	33%	
외부 인력만 지급	2	22%	
기타	0	0%	

수강생의 수료(졸업) 이후 사후관리 여부는 ‘사후관리를 한다’가 5곳,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가 4곳이었다.

사후관리 내용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관련 정보 제공’, ‘수료자 정보 DB 관리’, ‘양성과정 보수교육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 C3a. 사후관리의 내용은? (중복 선택 가능)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관련 정보(접수, 시험일, 합격일 등) 제공	2	22%	
양성과정 보수교육(예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관련 문제 풀이반 개설 등) 운영	1	11%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4	44%	
한국수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0	0%	
수료자 정보 DB 관리	2	22%	
기타	0	0%	

3)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관련

수강생의 등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교원 자격 취득’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수어강사 활동’, ‘수어 능력 향상’, ‘자기 계발’ 순이었다.

◆ D1. 수강생의 등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교원 자격 취득	9	100%	
자기 계발	2	22%	
한국수어강사 활동	3	33%	
수어 능력 향상	3	33%	
기타	0	0%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과 관련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을 제시한 후, 교원 양성에 대한 능력 함양과 이수 시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도 하였다.

언어 및 교육 기초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 4곳, ‘매우 일치한다’ 3곳, ‘보통이다’ 2곳으로 나타났다.

◆ D2_1.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언어 및 교육 기초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2	22%	<div style="width: 22%;"></div>
일치한다 (4)	4	44%	<div style="width: 44%;"></div>
매우 일치한다 (5)	3	33%	<div style="width: 33%;"></div>

한국수어학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일치한다’ 5곳, ‘일치한다’ 4곳으로 나타났다.

◆ D2_2.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한국수어학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0	0%	
일치한다 (4)	4	44%	<div style="width: 44%;"></div>
매우 일치한다 (5)	5	56%	<div style="width: 56%;"></div>

한국수어 교육론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 5곳, ‘매우 일치한다’ 3곳, ‘보통이다’ 1곳으로 나타났다.

◆ D2_3.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한국수어 교육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1	11%	<div style="width: 11%;"></div>
일치한다 (4)	5	56%	<div style="width: 56%;"></div>
매우 일치한다 (5)	3	33%	<div style="width: 33%;"></div>

한국수어 실제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 5곳, ‘매우 일치한다’ 4곳으로 나타났다.

◆ D2_4.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한국수어 실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0	0%	
일치한다 (4)	5	56%	<div style="width: 56%;"></div>
매우 일치한다 (5)	4	44%	<div style="width: 44%;"></div>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 5곳, ‘매우 일치한다’ 4곳으로 나타났다.

◆ D2_5.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농문화와 농사회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0	0%	
일치한다 (4)	5	56%	<div style="width: 56%;"></div>
매우 일치한다 (5)	4	44%	<div style="width: 44%;"></div>

한국수어교육실습 영역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치한다’와 ‘매우 일치한다’가 각각 4곳, ‘보통이다’ 1곳으로 나타났다.

◆ D2_6. 교과목의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대한 적절성 - 한국수어교육실습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	0	0%	
일치하지 않는다 (2)	0	0%	
보통이다 (3)	1	11%	<div style="width: 11%;"></div>
일치한다 (4)	4	44%	<div style="width: 44%;"></div>
매우 일치한다 (5)	4	44%	<div style="width: 44%;"></div>

언어 및 교육 기초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하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3곳, ‘적절하다’ 2곳, ‘적절치 않다’ 1곳으로 나타났다.

◆ D3_1.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언어 및 교육 기초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1	11%	<div></div>
보통이다 (3)	3	33%	<div></div>
적절하다 (4)	2	22%	<div></div>
매우 적절하다 (5)	3	33%	<div></div>





한국수어학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가 모두 3곳으로 나타났다.

◆ D3_2.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한국수어학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33%	<div></div>
적절하다 (4)	3	33%	<div></div>
매우 적절하다 (5)	3	33%	<div></div>




한국수어 교육론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하다’ 4곳, ‘보통이다’ 3곳, ‘적절하다’와 ‘적절치 않다’가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 D3_3.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한국수어 교육론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1	11%	<div></div>
보통이다 (3)	3	33%	<div></div>
적절하다 (4)	1	11%	<div></div>
매우 적절하다 (5)	4	44%	<div></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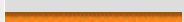


한국수어 실제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하다’와 ‘보통이다’ 각각 3곳, ‘적절하다’ 2곳, ‘적절치 않다’ 1곳으로 나타났다.

◆ D3_4.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한국수어 실제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1	11%	
보통이다 (3)	3	33%	
적절하다 (4)	2	22%	
매우 적절하다 (5)	3	33%	

농문화와 농사회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가 모두 3곳으로 나타났다.

◆ D3_5.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농문화와 농사회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33%	
적절하다 (4)	3	33%	
매우 적절하다 (5)	3	33%	

한국수어교육실습 영역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4곳, ‘매우 적절하다’ 3곳, ‘적절하다’ 2곳으로 나타났다.

◆ D3_6. 교과목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의 적절 - 한국수어교육실습			
전혀 적절치 않다 (1)	0	0%	
적절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4	44%	
적절하다 (4)	2	22%	
매우 적절하다 (5)	3	33%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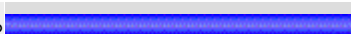
기 관 명	건의 사항 및 의견
강원도 수어문화원	<p>지금까지 운영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실습기관 선정입니다.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국적으로 수어교원에 대한, 실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이 부분은 국어원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건의할 것이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전남 수어교육원	<p>교육실습은 참관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어교육론은 전문 지식을 갖춘 농인 강사는 찾기 어렵고 청인의 경우 수어구사 능력에 있어서 농인 수강생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p>

2. 교원 양성기관 교강사 요구조사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원 양성기관 교강사 요구조사에는 총 30명의 교강사가 참여하였다.

1) 교수·학습 관련 현황

수어교육 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느냐는 질문에 ‘작성한다’는 26명(87%), ‘의뢰 기관에서 요청 시에만 작성한다’는 4명(13%)이 응답하여 대부분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 수어교육 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십니까?			
작성한다	26	87%	
작성하지 않는다	0	0%	
의뢰 기관에서 요청 시에만 작성한다	4	13%	

수어교육 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을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평가한다’는 63%, ‘평가하지 않는다’는 20%이며,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라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 A2. 수어교육 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을 평가하십니까?			
평가한다	19	63%	
평가하지 않는다	6	20%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5	17%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문답형’이 27%, ‘시연형’이 20%,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가 3%로 나타났다.

◆ A2a.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문답형	8	27%	
시연형	6	20%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3	10%	
기타	2	7%	
무응답	1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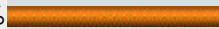


수어교육 후 강의 평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한다’가 57%, ‘시행하지 않는다’가 20%이며,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는 23%로 나타났다.

◆ A3. 수어교육 후 강의 평가를 시행합니까?			
시행한다	17	57%	
시행하지 않는다	6	20%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7	23%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도 검사’가 33%,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가 20%이며, ‘출석률’이 7%로 나타났다.

◆ A3a.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출석률	2	7%	
만족도 검사	10	33%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6	20%	
기타	2	7%	
무응답	10	33%	

“수어교육 시 교재(커리큘럼)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뢰 기관의 요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재구성’한다는 응답이 53%, ‘시판되고 있는 교재 중 과정에 맞는 것을 직접 선택’한다는 응답이 33%, ‘기관에서 제작한 교재(커리큘럼) 사용’이 30%, ‘기관에서 선정한 교재(시판 교재)’ 사용이 27%로 나타났다.

◆ A4. 수어교육 시 교재(커리큘럼)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기관에서 제작한 교재(커리큘럼) 사용	9	30%	
기관에서 선정한 교재(시판 교재)	8	27%	
의뢰 기관의 요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재구성	16	53%	
시판되고 있는 교재 중 과정에 맞는 것을 직접 선택	10	33%	
기타	5	17%	

◆ A4 - 기타 응답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교재, 강사가 직접 제작, 강원도협회 출판 교재, 시판교재에 언어교재에 맞는 내용을 첨가하여 재구성

교육 현장에서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의뢰 기관과의 사전·사후 업무협의’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내용 평가’가 23%, ‘교육 설계, 개설 및 운영’이 20%로 나타났다.

◆ A5. 교육 현장에서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의뢰 기관과의 사전·사후 업무협의	8	27%	
교육 설계, 개설 및 운영	6	20%	
학생 지도의 어려움	4	13%	
교육내용 평가	7	23%	
기타	5	17%	
◆ A5 - 기타 응답 (없음, 적절한 교재가 없음), 영상자료, 다음 단계 수준반 강사랑 협의를 진행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는 점			

한국수어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한국수어 교강사를 위한 자료 부족(교사용 지침서 등)’ (47%)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한국수어 교재의 부족’, ‘한국수어 교육자료 개발’ (17%) 역시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 A6. 한국수어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수어 교강사를 위한 자료 부족(교사용 지침서 등)	14	47%	
한국수어 교재의 부족	5	17%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0	0%	
한국수어 교육자료 개발	5	17%	
농문화에 대한 이해	1	3%	
한국수어 능력 평가	2	7%	
한국수어 교육 방법	1	3%	
한국수어 지식	1	3%	
기타	1	3%	

농인 혹은 청인 교강사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인 혹은 청인 교강사로서의 어려움
- 대상자의 수준이 다양하여 눈높이 맞추는 데 어려움
- 강사의 역량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
- 이론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가르칠 때 학생 수준의 개인차로 인해 학습내용 선정 및 지도가 어려움

농인 혹은 청인 교강사로서의 어려움
- 강의 교재 선정
- 교사용 지침서 등 부족하고 교재들이 대부분 옛날이라 새로운 변화 없고 단계별 교재 필요함
- 교재 부족 및 교육의 기준 애매성
- 한국수어지식
- 교육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네요.
- 자료 부족 및 등급 분류 어려움
- 특별히 없지만 기초반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
- 교사용 지침서 자료 확대
- 교육경력이 쌓이면서 어려움들은 자연스레 해소가 되지만 학생들이 농인과의 만남에서 수어를 자신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언어 활용(의미론, 담화론) 관련 연구가 없어서, 수어교육 시 근거 기반의 자료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경험과 사용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한국수어 교육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수어문법’ (50%), ‘농문화’ (27%) 순으로 많았다.

◆ A8. 한국수어 교육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어 어휘	3	10%	
수어문법	15	50%	
농문화	8	27%	
기타	4	13%	
A8. 기타 응답 - 용법, 수업운용 능력,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교수 방법			

수어교육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방법 선택’ (37%)이 가장 많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 선정’ (30%),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의 이해’ (20%), ‘적절한 교육자료 선정 및 구성’ (13%) 순으로 나타났다.

◆ A9. 수어교육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의 이해	6	20%	
적절한 교육자료 선정 및 구성	4	13%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 선정	9	30%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방법 선택	11	37%	
효과적인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설계	0	0%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47%)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교강사의 노력’ (20%)과 ‘현장에 맞는 한국수어 교육의 정책 개선’ (20%) 순으로 답변했다.

◆ A10.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계발을 위한 교강사의 노력	6	20%	
정기적인 연수(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 제공	2	7%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14	47%	
현장에 맞는 한국수어 교육의 정책 개선	6	20%	
기타	2	7%	





“한국수어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재교육 및 보수교육 등)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자격 유무 무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0%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10%는 ‘없다’고 답하였다.

◆ A11. 한국수어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재교육 및 보수교육 등)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자격 유무 무관)			
있다	27	90%	
없다	3	10%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 A11-2 (참여 의사 ‘없다’의 사유)	
기회 부재,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보 획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강사들 간의 교류와 교육이 필요함	

어떤 종류의 연수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국수어학, 농문화 이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47%) 종류의 연수를 가장 원하였으며, ‘교원 간 정보 교류 및 연구 발표, 토론을 하는 워크숍’ (17%), ‘교수법’ (13%) 등도 선호하였다.

◆ A11a. 어떤 종류의 연수를 받고 싶습니까?		
한국수어학, 농문화 이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14	47% 
교원 간 정보 교류 및 연구 발표, 토론을 하는 워크숍	5	17% 
교육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2	7% 
교육과정 개발	1	3% 
교수법	4	13% 
기타	1	3% 
무응답	3	10% 
◆ A11a.-6 (기타 응답) 수어의 용법에 대한 교육		

연수의 형태로는 ‘현장 대면 교육’ (40%)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30%),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20%)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 A11b. 희망하는 연수의 형태는?		
현장 대면 교육	12	40%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6	20%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0	0%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9	30% 
무응답	3	10% 

희망하는 연수의 방식은 ‘강의식’ (27%)과 ‘토론식’ (2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육실습 중심’ (13%)이 꼽혔다.

◆ A11c. 희망하는 연수의 방식은?		
강의식	8	27% 
토론식	6	20% 
교육실습 중심	4	13% 
시청각 활용	3	10% 
수업 참관식	1	3% 
프로젝트 중심	0	0%
문화 체험 중심	1	3% 
무관함	3	10% 
기타	1	3% 
무응답	3	10% 

2) 수어교원 1급 요구조사

향후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83%가 ‘취득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는 11%, ‘계획이 없다’ 는 6%이었다.

◆ B1. 향후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취득할 계획이다	24	80%	<div style="width: 80%;"></div>
취득할 계획이 없다	1	3%	<div style="width: 3%;"></div>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	17%	<div style="width: 17%;"></div>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수어교원으로서 다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세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식관리 능력	어학 지식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사회문화 지식(농사회·농문화 등)					
직무수행 능력	학생의 학습능력 평가를 위한 능력					
	교육 내용 구성 능력					
	교육 도구 활용 능력					
	교육자료 제작 능력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수업 운영 능력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이상에서 제시한 질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어학 지식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어학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가 63%, ‘중요하다’가 27%,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1.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어학 지식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10%	<div style="width: 10%;"></div>
중요하다 (4)	8	27%	<div style="width: 27%;"></div>
매우 중요하다 (5)	19	63%	<div style="width: 63%;"></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은 ‘매우 중요하다’가 63%, ‘중요하다’가 27%,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2.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10%	<div style="width: 10%;"></div>
중요하다 (4)	8	27%	<div style="width: 27%;"></div>
매우 중요하다 (5)	19	63%	<div style="width: 63%;"></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사회문화 지식(농사회 · 농문화 등)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사회문화 지식(농사회 · 농문화 등)’은 ‘매우 중요하다’가 80%, ‘중요하다’가 17%, ‘보통이다’가 3%로 나타났다.

◆ B2_3.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사회문화 지식 (농사회 · 농문화 등)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1	3%	<div style="width: 3%;"></div>
중요하다 (4)	5	17%	<div style="width: 17%;"></div>
매우 중요하다 (5)	24	80%	<div style="width: 80%;"></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0%, ‘중요하다’가 30%,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4.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10%	<div style="width: 10%;"></div>
중요하다 (4)	9	30%	<div style="width: 30%;"></div>
매우 중요하다 (5)	18	60%	<div style="width: 60%;"></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내용 구성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육 내용 구성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0%, ‘중요하다’가 30%,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5.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내용 구성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10%	<div style="width: 10%;"></div>
중요하다 (4)	9	30%	<div style="width: 30%;"></div>
매우 중요하다 (5)	18	60%	<div style="width: 60%;"></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도구 활용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육 도구 활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7%, ‘중요하다’가 30%, ‘보통이다’가 13%로 나타났다.

◆ B2_6.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도구 활용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4	13%	<div style="width: 13%;"></div>
중요하다 (4)	9	30%	<div style="width: 30%;"></div>
매우 중요하다 (5)	17	57%	<div style="width: 57%;"></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자료 제작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육자료 제작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3%, ‘중요하다’가 33%, ‘보통이다’가 13%로 나타났다.

◆ B2_7.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자료 제작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4	13%	<div style="width: 13%;"></div>
중요하다 (4)	10	33%	<div style="width: 33%;"></div>
매우 중요하다 (5)	16	53%	<div style="width: 53%;"></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실 활동 구성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실 활동 구성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7%, ‘보통이다’가 23%, ‘중요하다’가 20%로 나타났다.

◆ B2_8.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6	20%	<div style="width: 20%;"></div>
중요하다 (4)	7	23%	<div style="width: 23%;"></div>
매우 중요하다 (5)	17	57%	<div style="width: 57%;"></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수업 운영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수업 운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73%, ‘중요하다’가 17%,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9.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수업 운영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3	10%	<div style="width: 10%;"></div>
중요하다 (4)	5	17%	<div style="width: 17%;"></div>
매우 중요하다 (5)	22	73%	<div style="width: 73%;"></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교육과정 설계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0%, ‘중요하다’가 33%, ‘보통이다’가 7%로 나타났다.

◆ B2_10.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과정 설계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2	7%	<div style="width: 7%;"></div>
중요하다 (4)	10	33%	<div style="width: 33%;"></div>
매우 중요하다 (5)	18	60%	<div style="width: 60%;"></div>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항목의 경우, 수어교원으로서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7%, ‘중요하다’가 20%, ‘보통이다’가 13%로 나타났다.

◆ B2_11.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4	13%	<div style="width: 13%;"></div>
중요하다 (4)	6	20%	<div style="width: 20%;"></div>
매우 중요하다 (5)	20	67%	<div style="width: 67%;"></div>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영역별 교과목 예시를 제시하였다.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1순위는 ‘농문화와 농사회’가 30%, ‘언어 및 교육 기초’가 20%, ‘한국수어 실제’가 17%로 나타났다.

◆ B3_1.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1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6	20%	
한국수어학	4	13%	
한국수어 교육론	4	13%	
한국수어 실제	5	17%	
농문화와 농사회	9	30%	
한국수어교육실습	2	7%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2순위는 ‘한국수어학’이 30%, ‘한국수어 교육론’이 20%, ‘한국수어 실제’와 ‘농문화와 농사회’가 각각 17%로 나타났다.

◆ B3_2.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2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3	10%	
한국수어학	9	30%	
한국수어 교육론	6	20%	
한국수어 실제	5	17%	
농문화와 농사회	5	17%	
한국수어교육실습	2	7%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3순위는 ‘한국수어학’이 37%, ‘언어 및 교육 기초’가 27%, ‘한국수어 교육론’이 17%로 나타났다.

◆ B3_3.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3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8	27%	
한국수어학	11	37%	
한국수어 교육론	5	17%	
한국수어 실제	3	10%	
농문화와 농사회	3	10%	
한국수어교육실습	0	0%	

한편,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
수어문법
농인의 정체성, 수어문학(수어시) 이론과 실제
강의의 실제
수어문법
수어교수법, 강의계획서 작성 및 수업의 실제, 수어프로그램 운영
농문화와 농사회 그리고 비수지신호
수어 문학, 예술 관련 수어 어휘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및 실제
교수법의 실제 수어문법의 이해
수어문법
수어문화에 대한 상호작용, 수어평가론
수어문법, 강의 평가 관리
강의의 실제
직업과 윤리
수어문학
강의 설계 - 강의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수어교수법 및 강의평가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특히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영역별 교과목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1순위는 ‘농문화와 농사회’가 39%, ‘한국수어 실제’가 22%, ‘한국수어학’이 17%로 나타났다.

◆ B5_1.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1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3	10%	
한국수어학	6	20%	
한국수어 교육론	4	13%	
한국수어 실제	5	17%	
농문화와 농사회	10	33%	
한국수어교육실습	2	7%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2 순위는 ‘한국수어학’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언어 및 교육 기초’,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농문화와 농사회’가 각각 17%로 나타났다.

◆ B5_2.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2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5	17%	
한국수어학	9	30%	
한국수어 교육론	5	17%	
한국수어 실제	5	17%	
농문화와 농사회	5	17%	
한국수어교육실습	1	3%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3 순위는 ‘한국수어학’이 27%, ‘한국수어 교육론’ 23%, ‘언어 및 교육 기초’ 20%로 나타났다.

◆ B5_3.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3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6	20%	
한국수어학	8	27%	
한국수어 교육론	7	23%	
한국수어 실제	5	17%	
농문화와 농사회	1	3%	
한국수어교육실습	3	10%	

나아가 각급별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을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응답을 얻었다.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언어이해능력
수어학습법과 수강생과의 눈높이
한국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농사회와 농문화에 대한 지식, 수어교수전략
수어에 대한 지식, 교실 운영 능력
수어문법에 대한 지식
직무와 윤리(인성; 교육적 열정, 성실성, 협업능력), 지식(한국수어학, 수어교육학, 농문화지식), 수업운영(수어능력, 학습자관리, 교실환경조성, 수업계획과 준비, 수업진행, 학습자 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평가)
비수지신호 강화 중요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농문화의 이해, 수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강의설계 어떻게 하는지 중요
수어교수법
수어교수법, 수어 문법의 이해
강의설계
강의 설계, 농문화 이해, 수어 사용 능력, 수어교수법, 강의평가
수어사용능력
한국수어사용능력
수어사용능력, 문법에 관한 지식으로 수준별 맞춤 강의계획을 통하여 수강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어교수법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과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 사용 능력 및 강의 능력
수어 사용 능력, 강의 설계, 농문화 이해
수어사용능력, 수어교수법, 강의설계, 강의평가, 농문화 이해
수어강사로서 수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설계 및 수어 교수법

다음으로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문법
원활한 강의, 전문적인 지식
농학(Deaf Study)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수어와 농사회에 대한 지식과 전망 한국수어문법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수 능력
강의 설계, 강의 평가 등
언어이해능력
직무와 윤리(인성: 교육적 열정, 성실성, 협업능력), 지식(한국수어학, 수어교육학, 농문화지식), 수업운영(수어능력, 학습자관리, 교실환경조성, 수업계획과 준비, 수업진행, 학습자 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평가), 자기 개발(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 학회, 연수 등 연구활동 등)
수어어원 농식수어중심
농문화의 이해와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는 마음가짐
수어문법에 대한 지식 또 다양한 면으로 지식 습득 필요
수어교습법
수어문법의 이해 강의 운영
수어사용교육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언어이해능력
한국수어사용능력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1급2급 모두 교원의 자질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수어사용능력
수어교수법
수어 문법 및 비수지 표현, 관용표현에 관한 지식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심도 깊은 수어학 분야의 지식, 2급보다 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함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 상호작용
2급과 1급의 차이라고 한다면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경험치와 숙련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어사용 능력 및 언어이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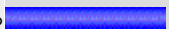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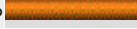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설정해 제시하였다.

항 목	순 위
1. 언어학 전문가	
2. 수어 정책 전문가	
3. 수어교육 전문가	
4.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5. 기타()	

그 결과,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1순위로는 ‘수어교육 전문가’가 43%, ‘농사회·농문화 전문가’가 33%로 나타났다.

◆ B7_1.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 - 1 순위			
언어학 전문가	4	13%	
수어 정책 전문가	3	10%	
수어교육 전문가	13	43%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1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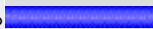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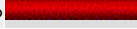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2순위로는 ‘언어학 전문가’가 40%, ‘수어교육 전문가’가 33%, ‘농사회·농문화 전문가’가 23%로 나타났다.

◆ B7_2.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 - 2 순위			
언어학 전문가	12	40%	
수어 정책 전문가	1	3%	
수어교육 전문가	10	33%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7	23%	
◆ B7_2 (기타 의견) 4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이 따로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미국수어교사협회 준거를 참고하기)			

한편 1급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43%가 ‘현장 대면 교육’을 원하였으며, 37%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을, 20%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8. 1급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현장 대면 교육	13	43%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6	20%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0	0%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11	37%	

1급 양성과정 교육 방식은 37%가 ‘강의식’을 선호하였으며, 33%는 ‘토론식’을, 10%는 ‘교육실습 중심’을 선호하였다. 강의 및 토론, 교육실습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 B9. 1급 양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강의식	11	37%	
토론식	10	33%	
교육실습 중심	3	10%	
시청각 활용	2	7%	
수업 참관식	1	3%	
프로젝트 중심	1	3%	
문화체험 중심	0	0%	
기타	2	7%	
◆ B9 (기타 의견) 강의 및 토론, 교육실습이 함께 포함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의 사항이나 의견
한국수어교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른 자격증과정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농인전문가 많이 배출 필요
우선 시급한 문제는 교재 부족 및 교사용 교재 부재로 급급한 1급 자격증보다 기본 바탕식으로부터 교재부터 제작을 시작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원제도가 교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수어사용능력이 평가가 되면 좋겠다.
수어통역 없이 실질적으로 수어강사가 꼭 필요함
현행 교원제도는 양성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자격증 수여' 방식이어서 수어 사용 수준에 상관없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점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임. 이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교사 양성이 아닌, 언어 교원 양성 과정이니만큼 언어사용 수준이 상당히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그것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예: 2017년 수어교원과정 개발 연구를 보면, 교원 교육의 참여 조건으로 수어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건의가 있었음). 특히 수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제1언어로서의 사용자보다 제2, 외국어로서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수어다운 수어 보급 및 수어 보존을 위해서 수어 사용 수준과 수어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특히 중요함. 수어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식)은, 2급 양성과정에서 특히 다뤄져야 한다고 봄

3) 일반 정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67%, 남성이 3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다.

◆ C1. 귀하의 성별은?			
남성	10	33%	<div style="width: 33%;"></div>
여성	20	67%	<div style="width: 67%;"></div>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0대가 30%를 차지하였다. 20대와 60대는 3%로 가장 적었다.

◆ C2. 귀하의 연령대는?			
20대	1	3%	<div style="width: 3%;"></div>
30대	4	13%	<div style="width: 13%;"></div>
40대	15	50%	<div style="width: 50%;"></div>
50대	9	30%	<div style="width: 30%;"></div>
60대 이상	1	3%	<div style="width: 3%;"></div>

응답자 중에는 농인 교강사가 57%, 청인 교강사가 43%를 차지하였다.

◆ C3. 귀하의 장애 유형은?			
농인	17	57%	
다른 장애	0	0%	
해당 없음	1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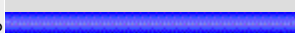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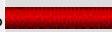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가 33%, ‘학사(졸업)’ 27%.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가 23%로, 학사 졸업 이상이 83%를 차지하였다.

◆ C4. 귀하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	1	3%	
전문학사(졸업)	4	13%	
학사(졸업)	8	27%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7	23%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10	33%	

응답자의 제1 전공은 ‘사회복지전공’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수어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기타’ 전공이 17%로 나타났다.

◆ C5. 귀하의 제1전공은?			
수어학전공	1	3%	
수어교육전공	5	17%	
수어통번역전공	4	13%	
언어학전공	0	0%	
사회복지전공	10	33%	
특수교육전공	5	17%	
기타	5	17%	


응답자 중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73%였다.

◆ C6.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여부는?			
자격증 있음	22	73%	
자격증 없음	8	27%	

응답자 중 수어교원 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중복 선택 가능)으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가 93%, ‘사회복지사’가 67%로 나타났다.

◆ C7.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은?(중복 선택 가능)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	28	93%	
사회복지사	20	67%	
직업재활사	1	3%	
언어재활사	0	0%	
자격 없음	1	3%	
기타	2	7%	

응답자의 수어 사용 경력은 ‘16년 이상’이 77%로 가장 많았다.

◆ C9. 수어 사용 경력은?			
1년 미만	2	7%	
1년 이상 ~ 3년 미만	0	0%	
3년 이상 ~ 5년 미만	2	7%	
5년 이상 ~ 10년 미만	1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2	7%	
16년 이상	23	77%	

응답자의 수어교육 경력(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총 교육경력)은 ‘16년 이상’이 37%로,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3%로 나타났다.

◆ C10. 수어교육 경력은?(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교육경력을 선택해 주세요)			
1년 미만	3	10%	
1년 이상 ~ 3년 미만	1	3%	
3년 이상 ~ 5년 미만	2	7%	
5년 이상 ~ 10년 미만	6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7	23%	
16년 이상	11	37%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과정은 ‘초급과정’ 이 87%, ‘중급과정’ 이 80%, ‘고급과정’ 이 63% 순이었다.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은 ‘센터/협회 소속의 수어 교실’ 이 80%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56%, 경기와 충남이 39%, 강원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10	56%	
부산	0	0%	
대구	1	6%	
인천	1	6%	
광주	0	0%	
대전	0	0%	
울산	0	0%	
세종	1	6%	
경기	7	39%	
강원	3	17%	
충북	1	6%	
충남	7	39%	
전북	1	6%	
전남	1	6%	
경북	0	0%	
경남	1	6%	
제주	1	6%	

3. 교원 자격 취득자 요구조사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교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요구조사에는 서울, 강원, 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86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취득 경험 관련 조사

먼저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31%), 소재지가 가까워서’ (27%)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기관의 명성 때문에(1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A1.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기관의 명성 때문에	10	12%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27	31%	
교수진이 우수해서	6	7%	
기관 시설이 우수해서	2	2%	
소재지가 가까워서	23	27%	
지인의 권유로	9	10%	
수강료가 적절(저렴)해서	2	2%	
기타	7	8%	

양성과정의 전체 만족도는 ‘만족’ 이 53%, ‘매우 만족’ 이 29%, ‘보통’ 이 14%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2. 양성과정의 전체 만족도는 어떠한지 고르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1)	2	2%	
불만족 (2)	1	1%	
보통 (3)	12	14%	
만족 (4)	46	53%	
매우 만족 (5)	25	29%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여 받은 응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양성과정에 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
수업할 수 있는 체계를 배울 수 있었음
체계적이다.
체계적인 운영, 교수진의 우수함~ 그리고 수강생들의 열의가 가득했던 교육이었음.
대체적으로 교수진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넓고 얇은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수한 강사진
경력 및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섭외하고 가르쳐 주셨고, 학생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 주었다.
줌으로 진행했지만 전체적 교육과정은 만족했습니다
과정이 알차고 유익했음
강사가 다양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선별된 강사진의 열정적 강의 교육원의 세심한 과정준비와 관리
다양한 강사진이 좋았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수진이 좋았습니다.
유능한 강사진, 다양한 교육내용
이론 수업은 괜찮았으나 실습기관을 수강생이 발품 팔아야 하는 게 힘들었다. 연계기관이 없어서 아쉬웠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대면교육 아니고 비대면교육 진행을 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교육일수가 적어서 만족
같은 지역 통역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친절함
직장 다니는 이유로 대면 수업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들었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기 속성과정이라 깊이가 좀 부족했다.
교수진 및 강의 내용 좋았습니다.
편향적 강사진 편성. 전문 교육원이 아니었기에 사업 연속성 없이 끝남. 청인 수강생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설
평소 접할 수 없는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와 수업과목별 체계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
강사진과 교육환경 우수
강사진 및 강의 환경
전반적인 강사진이 좋았습니다.
강사섭외와 교육내용, 원활한 운영이 좋았다.
비대면 제외해야 될 것 같음.
수어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체계적인 교육
너무 깊이 없이 수박겉핥기식 교육이었다.
꼼꼼하다
다양한 강사진 섭외와 처음~끝까지 불편함이 없었다.
교육과정, 강사진 모두 좋았음

양성과정에 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
수어교육의 역사 너무 짧아서
커리큘럼 체계성 부족
체계적인 배움
실습기관이 많지 않아서
자격획득까지 꼼꼼한 수업 진행
교육과정 시스템 좋았음.
양질의 수업
기관의 담당자가 교육과정을 잘 이끌어주심
섭외한 교수진도 우수했고, 관리나 교육생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짐

수강한 양성과정은 6개 영역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본인이 수강한 양성과정은 6개 영역이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그렇다’가 52%, ‘매우 그렇다’가 34%를 차지하였다.

◆ A3. 귀하께서 수강한 양성과정은 6개 영역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		
그렇지 않다 (2)	0	0%		
보통이다 (3)	9	10%	<div></div>	
그렇다 (4)	48	56%	<div></div>	
매우 그렇다 (5)	29	34%	<div></div>	

수강한 양성과정은 수어교원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필요하다’ (52%)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필요하다 (42%)’, ‘보통이다’ (6%) 순으로 나타났다.

◆ A4. 귀하께서 수강한 양성과정은 수어교원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지 않다 (1)	0	0%		
필요하지 않다 (2)	0	0%		
보통이다 (3)	5	6%	<div></div>	
필요하다 (4)	45	52%	<div></div>	
매우 필요하다 (5)	36	42%	<div></div>	

양성기관에서 수강한 양성과정은 수어교원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51%, ‘매우 그렇다’가 37%로 나타났다.

◆ A5. 귀하께서 수강한 양성과정은 수어교원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1	1%	
그렇지 않다 (2)	1	1%	
보통이다 (3)	8	9%	
그렇다 (4)	44	51%	
매우 그렇다 (5)	32	37%	

양성기관에서 수강한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적절성 여부에는 5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23%는 ‘보통이다’, 22%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 A6. 귀하께서 수강한 양성과정은 교육내용이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적절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	
그렇지 않다 (2)	4	5%	
보통이다 (3)	20	23%	
그렇다 (4)	43	50%	
매우 그렇다 (5)	19	22%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여섯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영역은 31%가 ‘한국수어학’이라고 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한국수어 실제’ (24%), ‘한국수어 교육론’ (17%)으로 답하였다.

◆ A7.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여섯 가지 영역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언어 및 교육 기초	1	1%	
한국수어학	27	31%	
한국수어 교육론	15	17%	
한국수어실제	21	24%	
농문화와 농사회	12	14%	
한국수어교육실습	10	12%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여섯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영역은 ‘한국수어교육실습’ (31%)이라고 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한국수어학’ 과 ‘농문화와 농사회’ (19%)라고 답하였다.

◆ A8.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여섯 가지 영역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언어 및 교육 기초	14	16%	<div></div>
한국수어학	16	19%	<div></div>
한국수어 교육론	11	13%	<div></div>
한국수어실제	3	3%	<div></div>
농문화와 농사회	16	19%	<div></div>
한국수어교육실습	26	30%	<div></div>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이 48%로 제일 많았고, ‘매우 만족’ 이 26%, ‘보통’ 이 24%, ‘불만족’ 이 2%로 나타났다.

◆ A9.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불만족 (1)	0	0%	<div></div>
불만족 (2)	2	2%	<div></div>
보통 (3)	21	24%	<div></div>
만족 (4)	41	48%	<div></div>
매우 만족 (5)	22	26%	<div></div>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달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일부 과목은 강사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업한다는 느낌을 받음
한국수어 문법교육론, 어휘교육론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겠으나...어려웠음
강사님이나 교수진은 청인강사님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청인강사 중에서 수어강의가 아닌 음성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좋아서
교강사의 가치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전문성
전문적인 선생님들로 너무 좋았다.
교원에 맞춤교육 현장에서의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줌
새로운 얼굴 새로운 지식이 많아서
수어를 잘 모르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충분한 준비와 맞춤형 강의
다양한 강사진이 좋았지만 수어교원양성과정인 만큼 수어로 수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교과별로 차별화된 교강사였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음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적절했음
농인강사의 경우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청인강사는 수어 완속도에서 아쉬움이 남음
다양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온라인 수업이라 조금 아쉬웠다.
전문 강사여서 좋았습니다.
과목명에 맞지 않은 교육내용. 지역마다 실습의 기준이 다름.
전문 강사나 현직 활동 강사 수업이어서 유익
강의준비
강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잘 이끌었다.
최고의 교강사를 만남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내용이 좋았지만 통역으로 인해 손실차이 있음. 청인강사가 수어로 직접 하셨으면 합니다.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었음
전문지식이나 심화교육 필요
교강사의 개인 편차가 심함
해박한 지식 전달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었기 때문
시간활용과 참여유도가 아쉬움
다양한 지식 제공
전문적 지식 부족
영역별로 적합한 강사진이 배정되어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음

수업 환경 및 시설은 학습하는 데 적당했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53%, ‘매우 그렇다’가 33%, ‘보통이다’가 14%로 나타났다.

◆ A10. 수업환경 및 시설은 학습하는 데 적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		
그렇지 않다 (2)	0	0%		
보통이다 (3)	12	14%		
그렇다 (4)	46	53%		
매우 그렇다 (5)	28	33%		

실습 기관(참관 및 교육)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31%, ‘보통이다’가 23%, ‘그렇지 않다’가 19%로 나타났다.

◆ A11. 실습 기관(참관 및 교육)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12%	
그렇지 않다 (2)	16	19%	
보통이다 (3)	20	23%	
그렇다 (4)	27	31%	
매우 그렇다 (5)	13	15%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관 혹은 강사의 실습 거절’이 16%, ‘소재지의 위치’가 10%로 나타났다.

◆ A11a.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소재지의 위치	9	10%	
기관 혹은 강사의 실습 거절	14	16%	
실습비 부담	0	0%	
실습지도자와의 이중적 관계	1	1%	
기타	2	2%	
무응답	60	70%	

실습 기관의 수는 선택하기에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33%가 ‘보통이다’, 22%는 ‘그렇다’, 21%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 A11b. 실습 기관의 수는 선택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13	15%	
그렇지 않다 (2)	18	21%	
보통이다 (3)	28	33%	
그렇다 (4)	19	22%	
매우 그렇다 (5)	8	9%	

교육기관은 농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으며, 31%는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 A12. 교육기관은 농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	
그렇지 않다 (2)	2	2%	
보통이다 (3)	27	31%	
그렇다 (4)	43	50%	
매우 그렇다 (5)	14	16%	

2급 교원 자격 취득 후 기대하는 점은 ‘취업 및 경제활동’ (28%), ‘1급 교원 자격 취득’ (23%)과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 (23%), ‘자아실현’ (19%) 순으로 나타났다.

◆ A13. 2급 교원 자격 취득 후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1급 교원 자격 취득	20	23%	
취업 및 경제활동	24	28%	
자아실현	16	19%	
취미 여가 활동	0	0%	
농민과의 의사소통	2	2%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	20	23%	
기타	4	5%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교강사 확보’ (35%), ‘실습 연계 기관 확충’ (29%), ‘학습자들의 수어능력’ (1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A14.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설 과목 추가 및 확대	6	7%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교강사 확보	30	35%	
학습자들의 수어 능력	16	19%	
실습 연계 기관 확충	25	29%	
학습정보 제공 확충	8	9%	
기타	1	1%	

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제시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
교육이론 설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론과 실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설명 부족
교육과정 자체가 수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어를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기본조건이겠지만,, 처음 교원양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을 때 수어를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기엔 어려움이 컸음. 특히 문법체계라든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 하는 용어 등에 관해서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음.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 참여해야 하는 이수시간 수행이 힘들었습니다.
먼 곳까지 오고 가느라 고생했어요.
위치적으로 제주도에서 춘천까지 가는 거리에 문제가 있었을 뿐~전반적인 교육과정이 너무 좋았다.
줌으로 진행되어 농인분들과 직접 교류하지 못했던 것
교원 실습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아 실습에 어려웠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교육을 100% 받아서 좀 아쉬웠음
농강사님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8시간 강의를 듣거나 수어를 보는 것이 굉장히 피로도가 심함 강의시간 배분이 필요할 듯
수어통역사 2분이 있는데 수준이 달랐는데 한 분이 수어통역 미흡으로 이론에 대한 충분한 전달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
실습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없음
실습기관이 없어서 힘들었고, 교원을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함
수어에 대한 기초 이론 지식 없이 양성교육에 바로 임해서 수업 따라가기 조금 어려웠음
실습기관을 찾고 먼 거리로 다니며 실습하는 것.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점 출석시간을 놓친 수업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녹화된 내용이 있었으면 추후 시간을 내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비대면의 한계
이수시간이 길어서 채우는 데 어려움을 느낌
코로나
기간이 짧아서 겉핥기식으로 배운 거 같아 아쉬웠다.
아직 참여한 적 없다.
교원양성기관마다 실습 및 교육인정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웠음. 교원양성과정의 목적을 모르겠음(수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 기대와 달리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교육, 수어 실기 강사 양성이 아닌 이론 강사 양성에 치우쳐 있음)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으로 생각보다 이수시간이 많았으나, 교원양성 위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됨
거리, 평일 수업
나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다
일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공부에 전념할 수 없어 아쉬웠다.
실습기관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네요.
충분한 교강사 인재 배출 및 양성, 실습기관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양성시간이 길다
없음
수어통역사의 수준차이로 인해 강의내용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부분 있었음.
없었음

교원 양성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
실습기관 참여 어려움
학습 내용이 어려움
실습기관 찾기 어려움
수업을 듣는 학습자 중 수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습자가 통역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습기관 찾기가 매우 어려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수업 부족
한 과목당에 농인강사 수 적음
실습기관의 거리
실습지의 부재
실습기관 연계
한국수어문법교과에 어려움을 느꼈음 참고도서나 공부방법에 대한 지도가 더 있었으면 함

2) 수어교원 1급 요구조사

향후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취득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는 24%, ‘계획이 없다’ 는 6%였다.

◆ B1. 향후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취득할 계획이다	60	70%	<div style="width: 70%;"></div>
취득할 계획이 없다	5	6%	<div style="width: 6%;"></div>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1	24%	<div style="width: 24%;"></div>

수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였다.

구분	세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지식관리 능력	어학 지식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사회문화 지식(농사회·농문화 등)					
직무수행 능력	학생의 학습능력 평가를 위한 능력					
	교육 내용 구성 능력					
	교육 도구 활용 능력					
	교육자료 제작 능력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수업 운영 능력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그 결과, 1급 수어교원으로서 ‘어학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가 47%, ‘중요하다’가 43%, ‘보통이다’가 10%로 나타났다.

◆ B2_1.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어학 지식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9	10%	<div></div>
중요하다 (4)	37	43%	<div></div>
매우 중요하다 (5)	40	47%	<div></div>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은 ‘매우 중요하다’가 51%, ‘중요하다’가 42%, ‘보통이다’가 7%로 나타났다.

◆ B2_2.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학 지식(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6	7%	<div></div>
중요하다 (4)	36	42%	<div></div>
매우 중요하다 (5)	44	51%	<div></div>

1급 수어교원으로서 ‘사회문화 지식(농사회·농문화 등)’은 ‘매우 중요하다’가 67%, ‘중요하다’가 27%, ‘보통이다’가 6%로 나타났다.

◆ B2_3.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사회문화 지식 (농사회·농문화 등)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5	6%	<div></div>
중요하다 (4)	23	27%	<div></div>
매우 중요하다 (5)	58	67%	<div></div>

1급 수어교원으로서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0%, ‘중요하다’가 40%로 나타났다.

◆ B2_4.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1	1%	
보통이다 (3)	8	9%	
중요하다 (4)	34	40%	
매우 중요하다 (5)	43	50%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육 내용 구성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2%, ‘중요하다’가 31%, ‘보통이다’가 7%로 나타났다.

◆ B2_5.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내용 구성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6	7%	
중요하다 (4)	27	31%	
매우 중요하다 (5)	53	62%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육 도구 활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45%, ‘중요하다’가 36%, ‘보통이다’가 19%로 나타났다.

◆ B2_6.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 도구 활용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0	0%	
보통이다 (3)	16	19%	
중요하다 (4)	31	36%	
매우 중요하다 (5)	39	45%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육자료 제작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0%, ‘중요하다’가 31%로 나타났다.

◆ B2_7.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자료 제작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2	2%	
보통이다 (3)	14	16%	
중요하다 (4)	27	31%	
매우 중요하다 (5)	43	50%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실 활동 구성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44%, ‘중요하다’가 34%로 나타났다.

◆ B2_8.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1	1%	
보통이다 (3)	18	21%	
중요하다 (4)	29	34%	
매우 중요하다 (5)	38	44%	

1급 수어교원으로서 ‘수업 운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62%, ‘중요하다’가 29%로 나타났다.

◆ B2_9.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수업 운영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1	1%	
보통이다 (3)	7	8%	
중요하다 (4)	25	29%	
매우 중요하다 (5)	53	62%	

1급 수어교원으로서 ‘교육과정 설계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53%, ‘중요하다’가 36%로 나타났다.

◆ B2_10.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교육과정 설계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1	1%		
보통이다 (3)	8	9%		
중요하다 (4)	31	36%		
매우 중요하다 (5)	46	53%		

1급 수어교원으로서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가 48%, ‘중요하다’가 38%로 나타났다.

◆ B2_11. 수어교원 역량 중요도 -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전혀 중요치 않다 (1)	0	0%		
중요치 않다 (2)	1	1%		
보통이다 (3)	11	13%		
중요하다 (4)	33	38%		
매우 중요하다 (5)	41	48%		

2급 자격 취득자들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을 도출하였다.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과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민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1순위는 ‘한국수어학’ 이 31%, ‘한국수어 실재’ 가 17%, ‘농문화와 농사회’ 가 16%로 나타났다.

◆ B3_1.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1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10	12%	
한국수어학	27	31%	
한국수어 교육론	10	12%	
한국수어 실재	15	17%	
농문화와 농사회	14	16%	
한국수어교육실습	10	12%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2순위는 ‘한국수어 교육론’ 이 30%, ‘한국수어학’ 이 20%, ‘한국수어 실재’ 가 17%로 나타났다.

◆ B3_2.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2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16	19%	
한국수어학	17	20%	
한국수어 교육론	26	30%	
한국수어 실재	15	17%	
농문화와 농사회	9	10%	
한국수어교육실습	3	3%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3순위는 ‘한국수어학’ 이 23%, ‘한국수어 교육론’ 이 22%, ‘한국수어 실재’ 가 20%로 나타났다.

◆ B3_3.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영역 - 3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16	19%	
한국수어학	20	23%	
한국수어 교육론	19	22%	
한국수어 실재	17	20%	
농문화와 농사회	8	9%	
한국수어교육실습	6	7%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들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강의의 실제
수어교수법(4)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교육 현장 이해
수어문법에 관한 내용 희망(디테일한 설명)
수강생의 특성에 따른 수어교수법
수어문자
강의의 실제(3)
강의평가, 강의 설계
수어문법, 농학생들과 직접 교류
강의 설계(3)
수어보존에 관한 연구론을 배우고 싶음.
수강생과의 상호 작용
수어문법, 강의평가
수어문법(8)
수어문법, 수어교수법, 교육자료 개발 방법
교육생과의 상호작용
수어교육 및 교육 참관(수어 외)
수어문법, 강의자료 제작방법
수어 문법/수어 교수법/강의의 실제/강의 설계/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문법, 수어교육과정, 수어실제,
강의의 실제, 수어교육의 딜레마
수어어원학, 수어교수법, 수강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어문법, 수어교수법
수어문법, 수어교수법, 수어문학
강의의 실제, 강의운영능력 개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현 교육의 실태
수어문학
문법, 교수법, 교수자료 제작
수어문법 수어문학 수어실제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문법, 수어어원, 평가능력
모두 다 중요함
수어교수법, 강의의 실제
한국 수어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문법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함
서로 학습에 대한 논의와 개발
수어교수법, 강의평가
수어교수법, 수어문법
수어문법, 강의설계
수어문법, 수어문학, 평가(교과테스트) 등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과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그 결과,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1순위는 ‘한국수어학’ 이 30%, ‘한국수어 실제’ 가 20%, ‘농문화와 농사회’ 가 14%로 나타났다.

◆ B5_1.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1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11	13%	
한국수어학	26	30%	
한국수어 교육론	10	12%	
한국수어 실제	17	20%	
농문화와 농사회	12	14%	
한국수어교육실습	10	12%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2 순위는 ‘한국수어 교육론’ 이 29%, ‘한국수어학’ 이 21%, ‘한국수어 실제’ 가 19%로 나타났다.

◆ B5_2.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2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14	16%	
한국수어학	18	21%	
한국수어 교육론	25	29%	
한국수어 실제	16	19%	
농문화와 농사회	9	10%	
한국수어교육실습	4	5%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의 3 순위는 ‘한국수어 교육론’ 이 27%, ‘언어 및 교육 기초’ 가 24%, ‘한국수어 학’ 이 20%로 나타났다.

◆ B5_3.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 - 3 순위			
언어 및 교육 기초	21	24%	
한국수어학	17	20%	
한국수어 교육론	23	27%	
한국수어 실제	9	10%	
농문화와 농사회	10	12%	
한국수어교육실습	6	7%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수어사용능력, 농문화의 이해
교수법 강의설계
언어이해능력과 수어교수법,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함.
수어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수어사용능력, 교수법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농문화의이해 및 언어 이해 능력
수어 사용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언어 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 사용 능력 및 강사의 자질
수어사용 능력, 수강생과 상호작용
수어교수법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수어 사용 능력
수어 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사용능력 수어문법지식 교수법
수어사용능력, 수강생과 소통방법, 농문화 청문화 이해, 교수법
수어교수법
강의 평가
수어교수법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사용능력,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농문화의 이해와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한국수어학, 수어교수법, 수어 능력
수어능력
기본적인 수어능력.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이해
수어사용능력, 교수법
수어 사용 능력/수어 문법에 관한 지식/농문화 이해/수어 교수법/수강생과 상호작용
수어교수법
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 교사로서의 역량, 수어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수어교육문법 지식, 수어사용 능력
수어사용능력, 수어문법에관지식, 수어교수법, 강의설계, 강의평가
예시로 든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가 1급보다 능숙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농문화 이해, 수어 사용 능력
수어사용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농문화 이해
수어사용 능력과 농사회 이해능력
수어능력
수어사용능력, 강의설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농문화의 이해, 강의 계획, 수어 사용 능력
강의 설계, 강의 운영능력
수어사용능력
한국수어사용능력
수어사용 능력이 탁월하여 언어이해, 농문화, 교수법, 문법, 강의 설계 모두 필요하다.
능숙한 수어사용 능력, 수화언어학에 대한 이해,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 사용 능력, 농 문화 이해,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사용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 사용 능력
전부 다
기본적인 수어교수방법
수어교수법
수어사용능력, 수어교수법,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문법에 대한 지식
수어사용 능력과 농문화 이해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수어교수법
수강생과 상호 작용
수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수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관계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강의 평가,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어사용능력
농문화 이해, 언어이해 능력
강사로서의 기본자세, 수어사용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설계 및 평가, 언어이해능력, 농문화의 이해,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어교수법

1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언어이해 능력, 언어학의 이해
언어이해능력 강의운용 등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과 강의설계, 강의평가에 관한 능력
언어이해능력, 상황에 적합한 수어 표현 실력, 강의 설계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사용능력 및 농문화의 이해, 언어의 이해 능력
강의 평가, 수어교수법
수강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과 소통 능력
수어사용능력
강의설계
수어 사용 능력과 수어학 지식
수어 교수법
수어교수법 강의설계 수강생과 상호작용
수어문법 강의평가 언어이해능력
수어문법
수어문법 지식
수어교수법, 문법
수어사용능력,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교수법과 수업계획, 상호작용
수어교습법
한국수어문법에 대한 이해, 교수제작법
수어능력
강의설계능력, 강사로서의 기본 품위

1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수어사용능력, 교수법
수어 사용 능력/수어 문법에 관한 지식/농문화 이해/수어 교수법/언어이해 능력/수강생과 상호작용/강의 설계/강의 평가
수어교수법
수어문법에 대한 지식
수어교수법, 수어사용능력
수강생의 상호작용
예시로 든 모든 능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정도가 2급보다 능숙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어사용능력, 교안작성 및 교수설계, 수업 운용 능력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평가,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수어 사용 능력과 농인과의 능숙한 대화 가능, 농사회 이해능력
수어능력 및 농문화 공감정도
강의설계, 언어이해능력, 수어문법
수어교수법, 수어문법, 상호작용 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언어이해능력
한국수어 평가론, 한국수어사용능력
1급이나 2급이나 똑같은 자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실제 계획 차수별 준비 발표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어문법, 언어이해능력, 평가능력
전문적인 지식
수어문법
전문지식과 심화교육 필요
강의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수어문법의 이해
강의설계
수어교수법
수어문법과 수어사용 능력을 수어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실제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농문화의 이해, 수어교수법
학습에 관한 연구와 개발
언어이해 능력, 농문화 이해
강의 설계, 교육 자료 개발
수어문법과 수어사용능력
수어 사용능력, 수어문법 지식, 교육법
강사로서의 기본자세, 수어사용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설계 및 평가, 언어이해능력, 농문화의 이해,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2급 강사와 동일하나 좀 더 다양한 경험치로 프로다운 마인드와 능력
언어이해 능력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시하였다.

항 목	순 위
1. 언어학 전문가	
2. 수어 정책 전문가	
3. 수어교육 전문가	
4.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5. 기타()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1순위로는 ‘수어교육 전문가’가 55%, ‘농사회·농문화 전문가’가 20%, 언어학 전문가’가 19%로 나타났다.

◆ B7_1.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 - 1 순위			
언어학 전문가	16	19%	
수어 정책 전문가	6	7%	
수어교육 전문가	47	55%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17	20%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2순위로는 ‘언어학 전문가’가 42%, ‘농사회·농문화 전문가’가 31%, ‘수어교육 전문가’가 19%로 나타났다.

◆ B7_2.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 - 2 순위			
언어학 전문가	20	42%	
수어 정책 전문가	4	8%	
수어교육 전문가	9	19%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15	31%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한 1급 양성과정 교육 형태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43%)이었고, 다음으로는 ‘현장 대면 교육’ (35%)이었다.

◆ B8. 1급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현장 대면 교육	30	35%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10	12%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9	10%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37	43%	

1급 양성과정 교육 방식은 33%의 응답자가 ‘토론식’을 선호하였으며, 21%는 ‘교육실습 중심’, 20%는 ‘강의식’을 선호하였다.

◆ B9. 1급 양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강의식	17	20%	
토론식	28	33%	
교육실습 중심	18	21%	
시청각 활용	8	9%	
수업 참관식	6	7%	
프로젝트 중심	6	7%	
문화체험 중심	1	1%	
기타	2	2%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응답이 도출되었다.

건의 사항이나 의견
자격 취득 후 직업연계가 필요. 자격증 활용의 폭이 좁음.(교육기관등...)
수어 교육과 직접적 활용이 가능한 즉. 바로 강사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강의를 필요
2급 교원을 우선적으로 수어강의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수어교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강원도의 교원양성 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교원 양성을 시행할 때 교육원마다 강사의 질 여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음. 강원도만큼 강사진이 좋은 곳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음. 강원도 외 지역에서 양성과정을 참여하는 경우에 부담이 있는데, 각 시도에 있는 양성기관의 교육 퀄리티가 큰 폭 없이 비슷하다면 어디서 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것임. 강원도가 만족스러워서 다른 기관에서 들어볼 생각을 못 했고, 1급 양성과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또 강원도로 갈 생각을 하면 조금 힘들긴 함. 그만큼 양성기관에서 교육 질이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면 함.
녹화방식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석인정이 안되더라도 복습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강의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급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수어교육 경력 300시간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한 점을 폐지해주세요.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의견
없음
교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없음
수어를 아는 것과 교수법은 다른 영역이라 교수법에 대한 지식, 수어연구에 대한 깊은 공감감이 평가될 순 없지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 및 양성과정수료 후 실습기관이 부족하여 실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교육의 질 또한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습기관의 교육의 질 검증 및 참관학생을 받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등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급 양성과정 시, 기존 강의식(이론)+시청각활동+수어강사님들과 강의팁, 강의방법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을 희망합니다. 유익하고 실제 교육 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어교원제도의 빠른 정착과 교원을 합격하고 나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수어능력이 검증되어야 함
수어교육학, 수화언어학 공부하신 농인강사를 육성하여 1기로 위촉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자양성
없음
2급 자격 취득자들이 모이는 교육이니 경험을 바탕으로 수어문법, 수어어원, 수강생 평가 등 다양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강의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수어통역없이 실질적으로 수어강사 반드시 필요함
학교에 수어과목이 개설되고 수어교원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어 2급 취득한 어설픈 수어 능력 갖는 자보다 수지한국어 아닌 한국수어 유능한 수어능력자 선정할 필요 합니다.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인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강의계획표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어강사로서 요구되어지는 바가 많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음. 제도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도 꼭 필요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강사에 대한 배려, 보호, 우대도 제도권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일반 정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9명(80%), 남성이 17명(2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았다.

◆ C1. 귀하의 성별은?				
남성	17	20%		
여성	69	80%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50대가 29%, 30대가 23%로 나타났다.

◆ C2. 귀하의 연령대는?				
20대	6	7%		
30대	20	23%		
40대	32	37%		
50대	25	29%		
60대 이상	3	3%		




응답자 중에는 농인이 37%, 청인이 62%를 차지하였다.

◆ C3. 귀하의 장애 유형은?				
농인	32	37%		
다른 장애	1	1%		
해당 없음	53	62%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학사(졸업)’가 41%,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가 28%,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가 13%로, 학사 졸업 이상이 82%를 차지하였다.

◆ C4. 귀하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	5	6%		
전문학사(졸업)	11	13%		
학사(졸업)	35	41%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24	28%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11	13%		

응답자의 제1 전공은 ‘사회복지전공’이 40%로 가장 많았다.

◆ C5. 귀하의 제1 전공은?			
수어학전공	2	2%	
수어교육전공	11	13%	
수어통번역전공	7	8%	
언어학전공	2	2%	
사회복지전공	34	40%	
특수교육전공	1	1%	
기타	29	34%	

응답자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는 양성과정(교육능력시험)이 49%, 양성과정(300시간 교육)이 40%이며, 학위과정을 통한 취득은 11%이었다.

◆ C6a. 수어교원 자격증 취득 경로는?			
학부 전공	2	2%	
학부 부전공	0	0%	
대학원 전공	8	9%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42	49%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교육	34	40%	

응답자 중 수어교원 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중복 선택 가능)으로는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87%, ‘사회복지사’가 73%로 나타났다.

◆ C7.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은?(중복 선택 가능)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	75	87%	
사회복지사	63	73%	
직업재활사	5	6%	
언어재활사	1	1%	
자격 없음	2	2%	
기타	10	12%	






응답자의 수어 사용 경력은 ‘16년 이상’ 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15년 미만’ 이 19%로 나타났다.

◆ C9. 수어 사용 경력은?			
1년 미만	2	2%	
1년 이상 ~ 3년 미만	1	1%	
3년 이상 ~ 5년 미만	8	9%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19%	
16년 이상	4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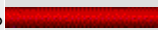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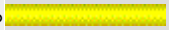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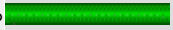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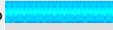

응답자의 수어교육 경력(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총 교육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 이 23%, ‘16년 이상’ 이 21%로 나타났다.

◆ C10. 수어교육 경력은?(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교육경력을 선택해 주세요)			
1년 미만	14	16%	
1년 이상 ~ 3년 미만	13	15%	
3년 이상 ~ 5년 미만	8	9%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2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	15%	
16년 이상	1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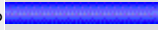















수어교육 경향이 있는 과정은 ‘초급과정’ 이 90%, ‘중급과정’ 이 65%, ‘고급과정’ 이 38%로 나타났다.

◆ C11. 수어교육 경향이 있는 과정은?(중복 선택 가능)			
초급과정	77	90%	
중급과정	56	65%	
고급과정	33	38%	
교원양성과정(이론)	12	14%	
교원양성과정(실습)	10	12%	
통역사양성과정 및 시험대비반 등	20	23%	
기타	12	14%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은 ‘센터/협회 소속의 수어 교실’이 86%로 가장 많았다.

◆ C12.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은?(중복 선택 가능)			
센터/협회의 수어 교실	74	86%	
복지관	33	38%	
초등학교	26	30%	
중학교	34	40%	
고등학교	35	41%	
대학교(원)	23	27%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22	26%	
민간기관(사설 학원)	16	19%	
기타	9	10%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38%, 강원이 34%, 경기도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 C13. 현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중복 선택 가능)			
서울	33	38%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4	5%	
광주	6	7%	
대전	1	1%	
울산	0	0%	
세종	1	1%	
경기	13	15%	
강원	29	34%	
충북	3	3%	
충남	6	7%	
전북	1	1%	
전남	2	2%	
경북	2	2%	
경남	1	1%	
제주	1	1%	

VI. 자문회의의 분석 결과

1. 1차 자문회의의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1차 전문가 자문회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반에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 ‘언어 전문가’ 등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서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와 농인으로서 한국수어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수어교원의 등급 및 영역별 교육 능력 수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과정 개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 자문회의는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Zoom을 통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문위원단은 다음 <표 VI-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VI-1> 1차 자문회의의 참석자

성명	소속	전문성	비고
참석자1	수어○○○ 대표	수어 전문가	농인
참석자2	○○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수어 전문가	농인
참석자3	○○수어교육원 교원	수어교육 전문가	청인
참석자4	○○수어문화원 연구원	수어교육 전문가	청인
참석자5	○○○○교육원 주무관	언어 평가 전문가	청인

2) 의미 단위 분석

- 자문회의 내용을 의미 단위에 따라 범주화 한 결과 ‘완성도 있는 교재를 활용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비롯한 3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다시 ‘교재 개발 필요’를 비롯한 24개의 하위 범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국수어 교원 1급 표준화 과정 개발 시 고려 사항’을 비롯해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VI-2>와 같다.

<표 VI-2> 범주화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 사항	교재 개발 필요	완성도 있는 교재를 활용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강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2급 과정의 부족한 부분 보완 필요	2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1급 과정에서 보완해 강의 품질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음
	수어 지도 방법 제시 필요	실질적인 수어 지도 방법 제시 필요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언어 및 기초 교육 영역의 급별 수준 구분 필요	2급에서는 교육의 일반원칙을 한국수어와 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수준이 필요하고, 1급에서는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
		1급에서는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됨
	한국수어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한국수어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필요
		1급에서는 수어 문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됨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이 요구됨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능력 필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교수할 수 있는 능력 필요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 및 농인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
		농문화와 농사회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함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됨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급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내용	실습 강화	1급 교육과정에 교육실습 과정 필요
		실습 위주의 교육
	깊이 있는 수어 문법 교육 필요	한국수어 문법 이수 시간 확대
	평가 부분 강화	평가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농문화 교육 이수 시간 확대	농문화에 대한 이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한국수어 습득을 위한 한국수어 문학 교육 필요	수어 문학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수지 한국어 사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어 문학 과목 개설
2급 교육 진행 시 문제점	강사의 틀린 문법 지도	문법 교육의 오류가 상당히 많음
	수어에 대한 강사의 잘못된 인식	수어에 대한 강사의 잘못된 인식 및 태도
	양성기관 강사의 전문성 미검증	강사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강사의 능력 검증이 필요함
		양성기관 강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
교육기관 대상 설문 시 주의점	전문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문항 추가	강사의 전문성과 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질문 추가
		전문성 관련 질문 중 ‘강사료’에 대한 질문을 ‘학위 취득’ 관련 질문으로 교체
	명확한 질문필요	명확한 질문으로 문항 구성 필요
	문항 작성 시 용어 선정 주의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감소시켜야 함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맞는 질문 용어 선정 필요
	응답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으로 구성	‘현장 투입’보다는 ‘강사 양성’으로 표현하고, ‘없음’이라는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음
		양성기관에서 이수생들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교원 대상 설문 시 주의점	참여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질문 문항 작성 시 참여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항 설계 필요	질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명확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응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추가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한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 필요
		수어교원을 하고자 하는 동기 및 과정에 대한 문항 추가

3) 의미 분석 결과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화 과정 개발 시 고려 사항

- 하위 범주로는 ‘교재 개발 필요’, ‘강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2급 과정의 부족한 부분 보완 필요’, ‘수어 지도 방법 제시 필요’가 있다.

① 교재 개발 필요

- 전문가들은 현재 2급 과정에서 강사마다 각자 준비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강의하다 보니 교육 내용에 큰 편차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있는 교재를 개발해 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하셔야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오니까 너무 편차가 컸습니다. (참석자 3)

② 강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2급 과정의 부족한 부분 보완 필요

- 한국수어교원 2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1급 과정에서 보완해 강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강사가 잘못 알고 있는 문법적인 부분과 수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수정 교육은 1급 승급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강의의 품질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2급에서 잘못 받은 교육을 1급에서 정정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참석자 3)

③ 수어 지도 방법 제시 필요

- 실습 기관의 기피 등으로 실습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1급 교육과정에 실습을 다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한국수어 지도 방법의 표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실질적인 한국수어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의 좋은 표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방식이 지금 강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참석자 3)

(2)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 하위 범주로는 ‘언어 및 기초교육 영역의 급별 수준 구분 필요’, ‘한국수어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이 요구됨’,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능력 필요’,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 및 농인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로 나타났다.

① 언어 및 기초교육 영역의 급별 수준 구분 필요

- 전문가들은 한국수어교원 2급 과정은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지만 1급 과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제2 언어 교육의 일반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2급 과정은 기본적인 능력이면 되지만 1급 과정은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급에서는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1급에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급에서는 교육의 일반원칙을 한국수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수준이 필요하지만, 1급에서는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5)

② 한국수어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 전문가들은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급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1급 과정에서는 한국수어 문법 등 한국수어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급 교육과정에서 언어학 개념이랑 다 배우고 있는데 1급에서까지 그런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요. 대략, 수어 문법에 대해 조금 더 확장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1)

③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이 요구됨

- 전문가들은 2급에서는 교육의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1급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능력과 더불어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1급 교원이라면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 대상에 따라 알맞은 교수법과 교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석자 5)

④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능력 필요

- 한국수어 실제 영역의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보다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중심으로 수어 표현에 집중하는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실질적인 한국수어 회화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업 내용을 보면 회화 중심의 강의보다는 그냥 수어 표현에 대한 주제(테마)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어 표현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수어 회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석자 1)

⑤ 농인의 의사소통 방식 및 농인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 전문가들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농문화와 농사회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농문화 그리고 청인 문화가 무엇인지 농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서로 그 부분에 문화 간 소통에 대해서도 어떤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쪽이 맞춰주는 식의 답안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를 때 그 중심에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 1급에서는 그런 영역을 더 고려하여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석자 1)

⑥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1급에서는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수어 관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급은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수어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석자 5)

(3) 1급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내용

- 하위 범주로는 ‘실습 강화’, ‘깊이 있는 수어 문법 교육 필요’, ‘평가 부분 강화’, ‘농문화 교육 이수 시간 확대’, ‘한국수어 습득을 위한 한국수어 문학 교육 필요’로 나타났다.

① 실습 강화

-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 40시간 안에 실습 시간을 강화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1급 이수 시간 교육할 때 집중해야 될 건 교육 중심 교수법과 관련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2)

1급에서 이 40시간 안에 교육실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활용 가능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1급에서 그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그것을 교육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실습 시간을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석자 5)

② 깊이 있는 수어 문법 교육 필요

- 전문가들은 2급 과정의 교육에서 강사들의 문법적 오류가 많으며, 개론 수준에서만 문법을 가르치고 있어서, 1급 과정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문법 교육과 잘못

알고 있는 문법에 대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급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개론 수준에서만 한국수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충분히 이해를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한국수어 문법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참석자 3)

③ 평가 부분 강화

- 전문가들은 한국수어를 가르친 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수어를 교육한 이후에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수어 교육론에서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 3)

④ 농문화 교육 이수 시간 확대

- 전문가들은 교원이 농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해 농사회 그리고 농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수 시간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사회 그리고 농문화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수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석자 2)

⑤ 한국수어 습득을 위한 한국수어 문학 교육 필요

- 전문가들은 수지 한국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수어 문학 교육을 포함시켜 농인들의 표현 방식을 습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어문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교과 과정 중에서 수지 한국어를 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기법 같은 것을 수어 문학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면 어떻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수어의 실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로 과목을 만들어서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한국문학이 있잖아요, 국어를 보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급을 40시간을 교육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그 40시간 중에 일부만이라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1)

(4) 2급 교육 진행 시 문제점

- 하위 범주로는 ‘강사의 틀린 문법 지도’, ‘수어에 대한 강사의 잘못된 인식’, ‘양성기관 강사의 전문성 미검증’, ‘수어교육 방향 개선 필요’로 나타났다.

① 강사의 틀린 문법 지도

- 2급 과정에서 강사의 한국수어 문법 교육에서 오류가 다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강사 자격증 취득 후 강의를 할 때 틀린 문법을 지도하게 되어 수강생들에게 잘못된 한국수어 문법을 교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내용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 결국은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의 문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문법적 오류가 많았어요.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이 일부 강사님들은 정말 저송하지만 한국수어 문법과 반대되는 걸 교육하셨어요. (참석자 3)

② 수어에 대한 강사의 잘못된 인식

-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라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농인 강사 스스로가 한국수어가 완벽하지 않은 언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며, 수지 한국어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농인 강사들의 수어에 대한 태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인 강사들조차 뭔가 수지 한국어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수어가 아직도 조금 뭔가 부족한 언어라는 생각을 피드백 받았

어요. 그러니까 제일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게 수어가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강사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어는 단어가 없어요. 맞들어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수어가 없는 이유는 농인으로 살면서 그만큼 필요한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들어지지 않은 것인데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우리 강사님들의 태도를 보면 ‘수어는 불완전한 언어고 한국어에 비해 단어가 많이 없어서 아직도 맞들어야 되는 언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참석자 3)

③ 양성기관 강사의 전문성 미검증

- 전문가들은 2급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이 전문 분야를 넘어선 분야까지 강의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어 전문 교육기관을 다녀보면 수어 전공 분야가 아닌 강사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자 1)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이 지금 2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략) 실제 수어 능력 부분하고 이론적 부분을 잘 분리하든가 아니면 그게 매칭이 잘 되는 강사님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하지만 문법 지식은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그 두 개를 같이 해버리니까 수강생들은 그 강사님들의 강사라는 위치 때문에 그 지식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참석자 3)

(5) 교육기관 대상 설문 시 주의점

- 하위 범주로는 ‘전문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 추가’, ‘명확한 문항 구성 필요’, ‘문항 작성 시 용어 선정 주의’, ‘응답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으로 구성’으로 나타났다.

① 전문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 추가

- 양성기관에서 강사의 전문성과 교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이 강의를 강사에게만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환경 관련해 (중략) 강사료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수어교원 양성과정에서 강사들은 주는 대로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질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게 학위 취득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학위’를 넣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석자 3)

② 명확한 질문 필요

- 모호한 질문보다는 명확한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응답자가 답변을 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항 3번을 보면 귀 기관의 설립일 및 한국수어 교육기관 인증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립일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회라면 설립일은 있으니까 작성하는데, 인증일 같은 경우가 이 한국수어 교육기관으로 인증이 한국수어교육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석자 4)

③ 문항 작성 시 용어 선정주의

- 전문가들은 질문 문항 용어 선정 시 일관성 있는 용어 선정과 더불어 기관의 현황에 맞는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문항 8번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귀 기관에서는 수어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초, 중급, 고급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다음을 보면 문항 8-3에서 수어 교실 이력의 수어교육, 이게 같은 수어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갑자기 ‘수어 교실’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은 개념이라면 용어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략) 방문 조사 질문지 중 운영 실태조사 사항 및 요청 자료에 학생/졸업 현황 및 졸업을 묻고 있는데, 비학위과정은 졸업보다는 수료 현황 및 수료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석자 4)

④ 응답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으로 구성

- 양성기관에서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관에서 응답할 수 있는 범위의 질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원과정을 이수한 사립의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수료자가 200명이 넘어서 그 200명을 일일이 다 자격증을 떼는지 안 떼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은 국어원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명단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만약에 저희가 저희 수료생 명단과 그 명단을 어떤 방식으로든 비교한다고 하면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고요. (참석자 4)

(6) 교원 대상 설문 시 주의점

- 하위 범주로는 ‘참여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항 설계가 필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추가’로 나타났다.

① 참여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가들은 참여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문항 구성면에서도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수어교원 1급 요구조사에서 갑자기 주관식이 되면서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꼭 포함해야 할 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적어야 할지 막연한데 예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마지막 장에 가면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 이런 것도 1급을 구분해서 해놓기는 했는데 뭐 적어야 할지 설문에 응답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략)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가에서 수어통역사, 사회복지사, 수어교원 자격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요. 교원 자격하고 거기에 취득 연도를 작성하게 한다가거나 이렇게 비슷한 문항은 좀 함쳐서 하나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참석자 4)

②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항 설계가 필요

- 질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응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평가가 시험일 수도 있고 강사를 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 건지가 조금 더... 평가를 학생들이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면, 그런 평가라는 것을 명기하든, 예를 넣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적으면 좀 더 답안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중략)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수어 교육의 어려움이나 보기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교육의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교육의 어려움일까? 가르칠 때 어려움인지 한국수어 교육의 어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참석자 4)

③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추가

- 전문가들은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수어교원을 하고자 하는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는 등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연수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했는데 ‘없다’를 체크할 경우 없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연수가 있는데도 왜 참여하지 않겠냐 참여하면 나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냐는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참석자 4)

수어교원들에게 수어교원이 된 이유나 과정, 학습 기간 혹시 이런 걸 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참석자 5)

2. 2차 자문회의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2차 전문가 자문회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 중간 단계에서 교재 집필 및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 ‘수어 전문가’, ‘언어 평가 전문가’ 등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서 연구해 온 학계 전문가와 농인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자문회의를 통해 영역별 교과목의 교보재 개발 및 한국수어교원 1급 승급에 필요한 교육 표준모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차 자문회의는 2024년 2월 6일(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Zoom을 통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문위원단은 다음 <표 VI-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VI-3> 2차 자문회의 참석자

성명	소속	전문성	비고
참석자1	수어○○○ 대표	수어 전문가	농인
참석자2	○○수어통역센터 농통역사	수어 전문가	농인
참석자3	○○수어교육원 교원	수어교육 전문가	청인
참석자4	○○대학교 교수	교육 전문가	청인
참석자5	○○○언어평가기관 대표	언어 평가 전문가	청인

2) 의미 단위 분석

- 자문회의 결과 ‘지표 선정의 어려움’을 비롯한 1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다시 ‘지표 마련 시 고려 사항’을 비롯한 6의 하위 범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표 마련 시 유의점’을 비롯해 4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VI-4>와 같다.

<표 VI-4> 범주화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지표 마련 시 유의점	지표 마련 시 고려 사항	지표 선정의 어려움
		2급과 1급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함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교재 집필 방향	이론보다는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교육이 요구됨
		기존 음성언어 위주의 교육에서 수어 언어학 중심의 교재와 교육으로 변화 필요
		농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이해 및 관심 필요
		교재 집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함
		이중언어 사전에 대한 이해 및 활용법을 익힐 필요가 있음
	교육 목표 제시	교육 목표 제시가 농인의 생활 경험에 부합해야 함
		교육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교재 수정	수어 및 설명 보완	수어 용어 확인
		수어 예시에 대한 설명 보완
		수어 표현 보완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교재 집필 시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용어 수정
향후 과제	2급 교육 내용 강화 및 강사 능력 향상	1급 과정에 수어 문법이 들어간 것처럼 향후 2급 과정에도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
		강사의 자질에 따른 문화 전달 능력 차이 해소 방안 필요

3) 의미 분석 결과

(1) 지표 마련 시 유의점

- 하위 범주로는 ‘지표 마련 시 고려 사항’ 이 있다.

① 지표 마련 시 고려 사항

- 전문가들은 언어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따로 봐야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대화 능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여 이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려움이 있으며, 2급과 1급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언어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이게 굉장히 교차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대화하고 답장하는 능력을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참석자 1)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2급과 1급에서 어떤 능력의 차이를 가진다는 부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5)

(2)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하위 범주로는 ‘교재 집필 방향’, ‘교육 목표 제시’ 가 있다.

① 교재 집필 방향

- 전문가들은 기존 음성언어 위주의 교육에서 수어 언어학 중심의 교재와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농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필요하며, 이론보다는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의 수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중언어 사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론에 맞춘 수어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인 생활에 맞춘 교육을 해야 하는지 현재 교육을 보면 이론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생활에 이 사람들이 수어 능력을 보자면 수어 능력은 사실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참석자 1)

2급에서는 음성언어를 위주로 교육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어 언어학이 있고 문법책도 나왔지만, 오히려 음성언어랑 유사한 것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음성언어와 수어의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거는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다들 못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석자 4)

농사회의 이슈와 경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1급 교육에서는 반영되어야 해요. (참석자 3)

1급 교재 집필을 할 때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 교과목당 집필진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참석자 3)

시범 사전은 표제어가 25개밖에 없어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다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하이브리드 사전은 영상이 메인이 됐거든요. 항상 형상이 메인이고 그 옆에 한글로 이것저것 조금 쓰여 있는데, 사실 별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사전은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전은 또 한국수어 맞춤치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범 버전이 나왔는데 이 사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참석자 4)

② 교육 목표 제시

- 전문가들은 교육 목표에 실제 농인의 생활이 반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의 목표가 실제적이어야 해요.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부합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해요. (참석자 3)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 교육 목표들이 조금 상술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교육 목표가 명시적으로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야 그게 이제 교육과정인 것이고 그냥 교육과정 중에 교재는 하나의 부분인 것이죠. (참석자 5)

(3) 교재 수정

○ 하위 범주로는 ‘수어 및 설명 보완’,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이 있다.

① 수어 및 설명 보완

○ 교재 집필 과정에서 사용된 수어 예시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수어의 정확한 표현, 어휘론 설명에서 사용된 수어 예시에 대한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08페이지 ‘구제치다’로 표현된 수어 의미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석자 2)

47페이지 ‘공이 크다’는 공에 공기가 가득 찼다는 의미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가 크다’는 자동차가 속도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설명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3)

126페이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동시적 결합한 경우로 제시된 수어 형태에 수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움직여야 내용에서 설명한 의미가 됩니다. 고정된 상태로 있다면 설명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참석자 3)

②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 전문가들은 교재 집필 시 일관성 있게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덴티티’를 ‘정체성’과 같이 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현재 교재 집필한 내용을 보면 ‘수어’와 ‘수어 언어’,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104페이지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 3)

(4) 향후 과제

○ 하위 범주로는 ‘2급 교육 내용 강화 및 강사 능력 향상’ 이 있다.

① 2급 교육 내용 강화 및 강사 능력 향상

○ 1급 과정에 수어 문학이 들어간 것처럼 향후 2급 과정에도 기본적인 수어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강사의 자질에 따라 문화 전달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수어 문학이 1급에서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2급에서도 기본적인 한국수어 문학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자 1)

강사면 각 문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하고 각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수강생들을 잘 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사의 자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석자 1)

Ⅶ.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모델 및 교(보)재 개발 결과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보)재 제작 과정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교(보)재 제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수어교원 2급 과정 및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전문상담교사, 미국수어교사,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원 자격)를 참고하였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통해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영역별 교육 시간, 1급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본 교재 제작을 위해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 ‘언어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이며, 현재 한국수어교원 2급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을 교재 집필진으로 구성하여 교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2023년 11월 1일(수)부터 2024년 1월 21일(일)까지 82일 동안 5개 영역 40시간에 해당하는 교재 초안을 집필하였다. 교재 집필진은 다음 <표 VII-1>과 같이 구성하였다.
- 이후, 2차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교재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교재를 수정·보완하였다.

〈표 Ⅶ-1〉 교재 구성 및 집필진

영역	내용	분량 (강의 시간)	전문성	비고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론(고정·생산적 수어) - 수어사전 - 도상성 - 수어의 공간사용 및 수어 동사 - 수어에서 비수지 역할 	10	강남대학교	홍성은
한국수어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고 발달하는가? - 제2 언어는 어떻게 배우는가? - 한국수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8	한경국립대학교	원성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평가 	2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이미혜
한국수어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문학 - 수어 문학 유형 - 시각적 토착문학(Visual Vernacular) -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 	4	강남대학교	변강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관용어에 대한 고찰 - 한국수어 관용어 교육 방법 	6	나사렛대학교	고인경
농문화와 농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인물로 본 농인 담론 - 농교육과 언어권 - 농학의 관점에서 본 농인 담론 - 농인의 정체성 - 농인의 문화 	5	한국농문화연구원	김유미
한국수어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수업 계획하기 - 한국수어 수업을 위한 활동 예시 - 강의 계획서 및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기 	5	한경국립대학교	원성옥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과정 교재 제작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Ⅷ-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교재 제작 절차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보)재 내용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보)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보)재의 제목은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구 교재(가안)”로 하였다. 교재에서 교과목별 순서는 ‘한국수어학 → 한국수어 교육론 → 한국수어 실재 → 농문화와 농사회 → 한국수어교육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교과목별 집필자를 제시하였으며, 모든 교과목 검토와 수정 보완은 집필진 및 연구원들의 교차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 한국수어교원 2급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1급 표준교육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교(보)재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삼았다.
 -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총체성을 띤 ‘교재’라는 모습으로 구현된다. 다시 말해 교재는 교육과정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반영하여 각각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실체, 즉 교육과정의 구현체(具顯體)가 된다(국립국어원, 2020).
 - 이런 측면에서 정교화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교재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는 접근은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전병만 외 역, 2017).
- 둘째,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문헌 연구, 실태조사(설문조사 포함)와 전문가 자문회의(1차, 2차)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2급 교육과정의 현실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하나, 현재 한국수어교원 2급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미흡하고 그에 따라 표준화된 2급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2급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가 있다.
- 둘, 본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교강사 대부분이 자신의 교수-학습 계획서 개방을 원하지 않았고, 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공시 자료에서도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이었다.
- 셋, 교강사가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주체가 되고 있었다. 어렵게 확보된 강의안과 교육(강의) 계획서 등에도 한국수어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특정 강사의 경우 여러 교육원과 대학원에서 강의하였는데, 교과목이 달랐음에도 실제 강의 내용은 모두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교과목의 취지와 달리 실제 강의 내용이 전적으로 교강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함을 방증한다.
- 넷, 기존의 한국수어 교육의 내용은 실제적인 교육 내용에 한국수어의 언어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교강사에 따라 정확성과 유창성, 수어문법 활용 등의 반영 정도가 제각기 다르고 내용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 다섯, 교강사 간의 수어 및 농문화 이해 정도와 농사회 참여 비중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실제 농인의 생활과 괴리된 내용이 교육되거나 교육 내용 속에 농사회와 농문화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 여섯, 한국수어 교육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 평가 능력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수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평가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한두 번 정도 의례적이거나 비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 일곱, 실태조사(설문조사 포함)와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한국수어교원 1급과 2급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교과목 또는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다. 한국수어학,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실제,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교육 실습, 이렇게 5개의 교과목이다. 이는 기존에 실시해 왔던 2급 교육과정에서 운영했던 교과목과 일치하였다.

○ 셋째, 한국수어교원 2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향 및 교육 목표를 정리하였다.

- **한국수어학**: 2급 교육과정의 ‘한국수어학’에서는 한국수어의 문법적 체계와 원리를 학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어교육을 진행하고자 시도하였다. 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수어가 지닌 문법적 특징을 올바르게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수어의 주요한 특징인 공간 활용, 비수지 기호를 통한 문법적 관계 표시, 역할전환, 어순 제약, 어휘적 방식을 이용한 시제 표현, 서술적 방식의 표현, 부정어 위치, 문장 확장 방식 등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국립국어원, 2021). 특히 일반언어학의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따라 음운론, 통사론, 형태론 그리고 의미론으로 문법서의 내용을 구성하여 문법 지식 항목을 선정하였다. 무엇보다도 수어의 특징인 공간성, 동시성, 도상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지식 항목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수어의 최소 단위인 수어소를 다루었다. 수어소를 수지 요소와 비수지 요소로 나누고 수지요소는 수형소, 수위소, 수동소, 수향소로, 비수지요소는 몸표지, 얼굴표지, 입표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수어소의 결합 특성과 이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기술하였다. 아울러 형태론도 다루었는데 형태소, 단어 유형, 단어 형성, 단어 변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형태소에서는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의미를 가진 수어소를 다루었다. 단어의 유형에서는 수지 단어와 비수지 단어로 나누어 각 단어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단어 형성에서는 순차적 결합과 동시적 결합으로 나누어 단어 형성 방식을 설명하였으며 단어 변형에서는 복수, 일치, 시제와 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통사론을 다루면서는 문장성분, 문장구조, 문장종결 부정법, 수어 양식과 동사, 역할전환을 강조하고 있었다.
- **한국수어 교육론**: 2급 교육과정의 ‘한국수어 교육론’에서는 한국수어 교육에서 다뤄야 할 교육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국립국어원, 2020a). 즉, 언어교육 방법 및 이론을 익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어교육 방법론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언어 교수 이론의 이해, 한국수어 교육학의 기본 개념 및 교육 원리 이해, 한국수어 어휘교육론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수어 문법교육론의 필요성과 방법, 평가(시험)와 관련된 주요 개념 이해 및 실습, 한국수어교원의 역할과 직업윤리, 한국수어 연구의 역사와 동향, 국내외 수어 교재의 비교와 탐색, 대상별, 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안 개발 등을 다루고 있었다.

- **한국수어 실제:** 2급 교육과정의 ‘한국수어 실제’에서는 한국수어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수어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한국수어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한국수어교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임을 전제한다. 이에 2급 자격을 취득한 한국수어교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언어 능력의 범위를 이해 능력, 표현 능력, 문법 능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국립국어원, 2020b). 수어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비수지기호, 강약, 공간 활용 등), 일상생활 어휘, 문장 학습을 통한 수어의 이해, 문맥 속에서 다양한 어휘의 의미 이해 및 수어 표현 확장, 이야기를 통한 공간 활용, 역할전환 등의 이해 및 표현, 분류사의 특징과 표현법 이해, 수어 문학에 대한 이해 및 표현 등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의 특성과 문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문화와 농사회:** 2급 교육과정의 ‘농문화와 농사회’에서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자가 농인의 정체성을 농인의 입장에서, 농인의 문화를 농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농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농교육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을 알 수 있게끔 하였다(국립국어원, 2017; 2019). 농인의 심리적 특성과 정체성, 사회문화적 특성, 생애주기에 따른 농인 삶의 특성, 한국 농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한국농아인협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역할, 기능 등을 통해 학습자가 농사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농인의 언어권과 수어언어법의 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한국수어교육실습**: 2급 교육과정의 ‘한국수어교육실습’에서는 한국수어 교육실습의 의의, 모의 수업 시 주의점 및 유의점, 강의 계획서 작성 및 수업계획서 작성 등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 수업지도 방법 및 적용, 학습자의 특성, 평가 방법, 내용 선정 방법, 교수 매체 선정, 수어 실습 평가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학습자가 모의 수어교육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한국수어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한국수어 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실습함으로써 수어교원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다.

○ 넷째,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작될 교(보)재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이상의 2급 교육과정의 심화 단계를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2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문헌 연구에서 다뤘던 ‘미국수어교사(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전문 자격 수준(Professional Certification)’ 과 ‘미국 외국어교육협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을 참고하였다.

- 먼저 ‘미국수어교사(American Sign Language Teacher) 전문 자격 수준(Professional Certification)’ 에서 지향하는 교사 역량은 하나, 미국수어(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이며 둘,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문 자격 수준의 ASL 교사는 ASL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의 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ASL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 자격 수준의 ASL 교사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자와 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다음으로 미국 외국어교육협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은 언어, 언어학, 비교(Comparisons) 문화, 언어 습득 이론 및 교수 활동 실현 역량 등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인증 기준은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과목별 핵심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 **한국수어학**: 어휘론에 대한 심화학습, 수어사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도상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 수어의 공간 사용과 수어 동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수어에서의 비수지 역할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활용
- **한국수어 교육론**: 언어의 습득과 발달에 대한 이해, 제2 언어 학습 및 교육 이론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 교육 내용의 핵심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 **한국수어 실제**: 한국수어 문학의 가능성과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 수어 문학의 유형과 실현 방법 모색, 시각적 토착문학의 재개념화와 재구조화,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 방법, 관용적인 수어 표현에 대한 이해
- **농문화와 농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농 인물과 관련 담론 이해, 언어적 권리로서의 농교육에 대한 이해, 농학의 개념과 농학 관점에서의 농 인간학 이해, 농 정체성과 농문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
-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 수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역량 강화, 실제적인 한국수어 수업의 활용 예시 공유, 강의 계획서와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활용

Ⅷ.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결과

1. 한국수어교원 및 국내 수어교육 전문가 대상 세미나 실시 결과

1) 한국수어교원 1급 세미나 개요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세미나는 2024년 2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강남대학교 샬롬관 204호와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오랫동안 수어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오거나 연구해 온 전문가 4명이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 구성원으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국수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수어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모델(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 교육 표준모델 최종안에 대한 수정·보완 및 고려 사항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그 결과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타당성은 물론 완성도 높은 1급 양성 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연구 지원 과정이 되었다.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전국
누구나!

2024. 2. 24. (토) 14:00-16:00
온라인 ZOOM 및 강남대학교 샬롬관 204호

14:10 - 14:30	주제발표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책임자)
14:30 - 15:20	패널토론	엄미숙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강사)
		김성원 (충남농아인협회 협회장)
		이미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강사)
15:30 - 16:00	종합토론	변광식 (수어인들레 대표)
		참석자 모두

참가신청

문의처 이기성 연구원 (010-8612-2356) / signteacher2023@gmail.com

[그림 Ⅷ-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포스터

- 세미나는 개회, 인사말, 주제 발표(연구 내용 및 경과, 연구 결과 등), 패널 토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Ⅷ-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세미나 발표 및 토의 현장 사진

2) 세미나 주요 내용 분석 결과

-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과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패널 1 :

-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대부분이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를 통해서가 아닌, 대학이나 기타 민간기관에서의 한국수어 교육 강사 경력만으로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이며 무엇보다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수가 482명으로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마련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 미국 전역에서 약 80%의 미국수어교원이 미국수어 커리큘럼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교재인 「Signing Naturally」가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의 구성 내용을 더욱 정교화하여 밀도 있게 개발하는 심화 연구과정이 필요함.
- ☞ 한국수어교원 등급 기준의 특징에 있어서 1급은 ‘전문 지식’, 2급은 ‘기본 지식’으로 해당하도록 각각 서로 차별화되어야 함은 물론 연계성도 갖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함.
- ☞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개발된 「한국수어문법」과 「농문화와 농사회」 등 관련 교재들의 집필진은 본 연구에서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과정을 위해 개발된 교재 초안의 집필진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용어를 정제화하는 작업을 통해 본 교재 초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도록 집필진 간 상호 교차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1급 한국수어교원의 질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역량 또는 전문성 등의 확보가 가장 강조되며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함.
- ☞ 한국수어 교육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세 가지로 의사소통의 기능, 지식, 태도를 꼽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수어 교육과정 모두 고수해 나가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패널 2 :

- ☞ 2급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수어교원들의 한국수어 숙달도 또는 전문 지식 능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표준 한국수어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수어교원 개인마다 각기 다른 한국수어 교재를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의 내용 모두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문항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강사가 모여 표준 한국수어 교육과정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고민을 해야 함.
- ☞ 학위과정(대학, 대학원)으로 2급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 중 실제로 한국수어 숙달도가 낮은 한국수어교원들이 존재하므로 한국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 강의 경력과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충족(40시간) 등과 함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한국수어교원 자격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수어교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나 현재 전국의 한국수어교육원 설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수어교육원 설립을 위한 조건의 장애물을 개선하여 한국수어교육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패널 3 :

- ☞ 한국수어교원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것과 달리 한국수어교원에 관한 연구 사업의 경우 비교적 역사가 짧을뿐더러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실제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수어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따라서 한국수어 교육 관련 자료 축적을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또는 한국수어교원 등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장기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에서 실시된 2급 한국수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관련하여 한국수어 교육 현장의 의견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잘 반영되었다고 보나, 실제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수어교원의 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연구기간 탓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수어교원의 수가 적어서 아쉬웠음.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 ☞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급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을 본 연구를 통해 집필된 교재 초안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이며 특히 본 연구 기간 자체가 촉박한 이유로 집필 지침이나 요구조사 결과를 세부 내용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집필할지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음.
- ☞ 실제로 한국수어 문법 교육이 활발히 시행되어 많은 한국수어교원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 오고 있으나 한국수어교원 개인이 각자 자신의 수업에서 어떻게 한국수어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한국수어 교수법을 설계할 것인지가 한국수어교원 양성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고민과 관련하여 실제 농인과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중요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농인과 대화할 수 있는 지식, 기능 그리고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수어 교육과정에는 그러한 총체적인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수어교원의 실제적인 기능 함양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음.
- ☞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음. 한국수어의 경우 청인들이 한국수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할 때 오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말뭉치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시 더욱 체계적인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봄.
- ☞ 현재 강원도 한국수어교육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2급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구성 내용을 보면 평가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으나 그 외 다른 지역의 한국수어교육원 곳곳에서 제공하는 2급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경우 평가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1급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기 모든 2급 한국수어교원이 평가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한국어교원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환경을 잘 구축해 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인 한국수어교원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가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널리 보급되어 실제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 교원 지도서 활용과 함께 통일된 형식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를 감안하면 한국수어 교육 현장으로의 단계별 보조 교육자료 영상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이런 교육과정 개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봄.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패널 4 :

- ☞ 연구 기간이 짧다는 한계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시범 교육의 내용이 가장 중요함. 이를 1급 관련 교재를 포함한 교육 시범 사업의 운영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한국수어의 실제’ ~~관~~ 영역에 ‘수어 문학’ 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어휘 중심의 한국수어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어 문학은 물론 표현의 유창성과 회화의 체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 설문조사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설문지를 꼽을 수 있음. 농문화에 부합되도록 연구를 설계하여 별도의 한국수어 설문지를 개발함으로써 농인 교원들의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시범 운영 결과, 강사가 음성언어로 직접 강의를 제공했을 때와 달리 한국수어로 직접 강의를 제공했을 때 더욱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일반적으로 한국수어교원의 언어 사용은 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문제점은 한국 농사회의 현실이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 그런 면에서 1급 한국수어교원을 위한 과목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다루는 것이 필수적임. 수지 한국어 또는 구화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접근성 관련 여러 문제점들을 토대로 교육 방법론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만 궁극적으로 1급 한국수어교원들이 한국수어 중심의 인식과 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보다 적절한 한국수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농사회에서 가장 알아야 한다고 생각함.
-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문화와 농사회’ 과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한국수어가 농인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비교 문화’와 같은 과목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농인과 청인 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위한 과목에 ‘비교 문화’란 과목을 포함시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농인 한국수어교원의 경우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론과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청중 1과 청중 2의 질문 :

- ☞ 1급 한국수어교원 자격 기준의 경력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대단히 부족하고, 한국수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청인 한국수어교원의 경우 협회와 유기적인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한국수어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청중 1과 청중 2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

-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리라고 봄. 특히 이 법적인 부분들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를 어떻게 잘 운용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해당 법 조항을 면밀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음.
- ☞ 「한국수화언어법」 관련 규정에 있어서 그 법적 기준을 바꿀 수가 없지만 수어교육 현장과 기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탄력적이면서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립국어원과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청중 3의 기타 의견 :

- ☞ 폴란드 방문 당시 약 25여 명의 강사가 수어통역 지원 없이 직접 국제수화로 수어교육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강사가 청인이었음.
- ☞ 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한국수어교원들조차도 한국수어가 가능한 분들임에도 굳이 수어통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며 한국수어교원 모두가 한국수어로 강의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람.
-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갖는다는 두 가지 조건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으로 봄. 한편, 한국수어교원의 윤리강령에 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수어교원을 위한 윤리강령을 더욱 다양한 색채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 한국수어 문학의 경우 1급 교육과정에 있었으나 2급 교육과정의 경우 없었기 때문에 2급부터 한국수어 문학을 포함하면 1급 교육과정에서 더욱 심화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 모든 한국수어교원이 동일한 양식의 교보재를 사용하면 좀 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보임.

패널 토론 및 질의·답변 주요 내용

청중 4의 기타 의견 :

- ☞ 1급 양성과정 40시간 중에서 10시간 또는 15시간 정도는 한국수어 회화 기술에 할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한국수어 문학의 경우 비중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결과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40시간)과 1급 양성 교재를 교원 양성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시범교육은 2024년 2월 15일(목)부터 2024년 2월 23일(금)까지 춘천 베어스호텔과 비대면(온라인 Zoom)으로 총 5회에 걸쳐 40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현장과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범 교육은 대면 교육 4회와 비대면 교육 1회로 운영하였다.



[그림 Ⅷ-3]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사진

- 시범 교육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 재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수어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한 20명을 대상으로 5일간 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였고,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과 양성 교재에 대한 설문(교육 만족도 및 개선 건의 포함)을 실시하였다.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개발
시범교육**

참가자모집

접수기간: 2024. 2. 13. (화) 18:00 까지

기 간	2024. 2. 15. (목) ~ 23. (금) / 5일 / 40시간 *자세한 일정은 다음 페이지 참조
장 소	강원디자인진흥원 (대면/평일), ZOOM (토요일)
참가대상	한국수어교원 2급 유자격자 20명 (선착순)
제공사항	연구참여 수당 지급 (25만원) 숙식, 자료집 제공
접 수	온라인 접수 (상단 우측의 QR코드 스캔)
문 의	강원특별자치도수어문화원 033-252-8746, 010-5026-8746 (전화, 문자, 영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개발
시범교육 강의일정**

	2월 15일(목)	2월 16일(금)	2월 17일(토) 비대면(zoom)	2월 22일(목)	2월 23일(금)
09:00	한국수어교육론 (이준우)		농문화와 농사회 (김유미)		
10:00		한국수어평가 (이미혜)	한국수어의 실제 '관용어' (고인경)	한국수어의 실제 '관용어' (고인경)	농문화와 농사회 (김유미)
11:00	한국수어학 (홍성은)				
12:00					
13:00	중식				
14:00					
15:00	한국수어학 (홍성은)	한국수어교육실습 (이미혜)	한국수어교육론 (이준우)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 문학 외' (변강석)	한국수어학 (홍성은)
16:00					
17:00					
18:00					

주1) 위 강의는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범교육으로 1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주2)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림 Ⅷ-4]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포스터

- 시범 교육은 1급 양성과정 교재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한국수어 교육론 교수자의 경우 집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교재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한 내부 연구진이 강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시범 교육의 세부 운영 일정은 다음 <표 Ⅷ-1>과 같다.

<표 Ⅷ-1>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세부 운영 일정

일자 시간	2월 15일(목)	2월 16일(금)	2월 17일(토) - Zoom 온라인 -	2월 22일(목)	2월 23일(금)
09:00~10:00	한국수어 교육론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의 실제 (관용어)	농문화와 농사회
10:00~11:00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평가)	한국수어 실제 (관용어)		
11:00~12:00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육론		
12:00~13:00					
13:00~14:00	점심시간				
14:00~15:00	한국수어학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의 실제 (수어 문학 외)	한국수어학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농인 11명, 청인 9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여성은 13명, 남성은 7명이다. 참여자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6명이고 강원권이 14명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의 참여 비율이 약 1대 2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 교육 운영 장소가 강원도 춘천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현재 수어교원 배출과 양성이 가장 활발한 지역을 시범 운영 장소로 고려한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지역 등 세부 현황은 다음 <표 VIII-2>와 같다.

<표 VIII-2>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육 참여자 현황

	성명	연령대	성별	지역	비고
1	정○○	40대	여	서울	청인
2	백○○	40대	여	서울	청인
3	석○○	40대	여	서울	청인
4	송○○	40대	남	경기	농인
5	허○○	40대	남	강원	농인
6	정○○	40대	여	서울	농인
7	이○○	40대	여	서울	농인
8	허○○	30대	여	강원	농인
9	최○○	50대	여	강원	농인
10	김○○	40대	여	강원	청인
11	전○○	50대	남	강원	농인
12	정○○	60대	여	강원	농인
13	진○○	50대	여	강원	청인
14	김○○	40대	남	강원	농인
15	정○○	40대	남	강원	청인
16	정○○	50대	남	강원	농인
17	민○○	40대	남	강원	청인
18	오○○	40대	여	강원	농인
19	김○○	40대	여	강원	청인
20	김○○	40대	여	강원	청인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결과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과목 수’는 참여자의 75%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1일 6~8시간으로 배정된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60%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강의 장소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55%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교수진 구성’은 참여자의 70%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2) 교육 운영 및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운영(진행, 출결 관리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95%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면 교육 운영’에 대해서 참여자의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온라인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60%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교강사와의 소통에 있어 즉시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과 기존 2급 양성과정의 수준 차이

‘한국수어학’과 ‘한국수어의 실제’의 경우 20%만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분명한 차이 및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80%가 응답하였다. ‘농문화와 농사회’의 경우 30%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분명한 차이 및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70%가 응답하였다. ‘한국수어교육실습’은 40%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0%가 분명한 차이 및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한국수어 교육론’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4) 교과별 주제(내용)의 적절성

교과별 주제(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수어학’은 90%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명(5%)이 보통, 1명(5%)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수어 교육론’은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5%가 보통, 1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수어 실제’는 8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10%)이 보통, 1명(5%)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농문화와 농사회’

는 6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명(25%)이 보통, 3명(15%)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수어교육실습’의 경우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명(25%)이 보통, 6명(30%)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5)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40시간)의 과목별 배정 시간의 적절성

교과목별 배정 시간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모든 교과목에서 20% 미만이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한국수어학’이 70%, ‘한국수어 교육론’이 65%, ‘한국수어 실재’ 70%, ‘농문화와 농사회’ 55%, ‘한국수어교육실습’ 50% 나타났다.

또한, ‘강의 시간이 적절하다’, ‘과목별 배정 시간이 적절하며 강의 듣기가 용이했다’라는 응답이 대체적이었으나 ‘수어학이나 한국수어 실재 교과목에 시간 배정이 더 늘어나 적절한 예시 등을 접하면 좋겠다’, ‘수어교육의 실재’, ‘교원 윤리 강령’, ‘고급 교수법의 실재’, ‘언어학’, ‘수어 문학과 실재’, ‘농윤리 이론과 토론’ 등의 교과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6) 1급 표준교육과정 과목별(내용) 난이도의 적정성

‘한국수어학’의 경우 7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명(25%)이 보통, 1명(5%)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수어 교육론’은 35%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명(45%)이 보통, 4명(20%)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수어 실재’는 75%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15%)이 보통, 2명(10%)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농문화와 농사회’는 6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20%)이 보통, 4명(20%)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수어교육실습’의 경우 45%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명(40%)이 보통, 4명(20%)이 부적정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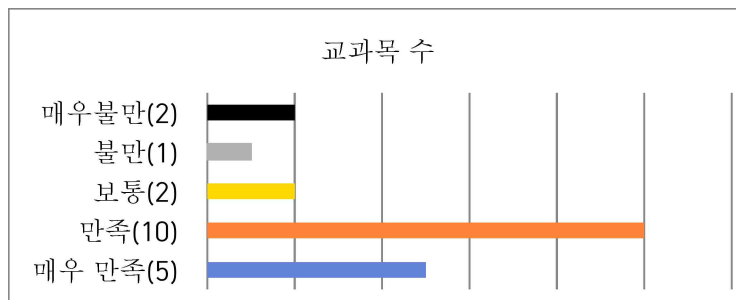
(7) PPT, 영상 자료 등 강의 전달 형식의 적정성

강의 시 PPT,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강의 전달 형식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80%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한국수어 실재’를 비롯하여 모든 교과목에서 55%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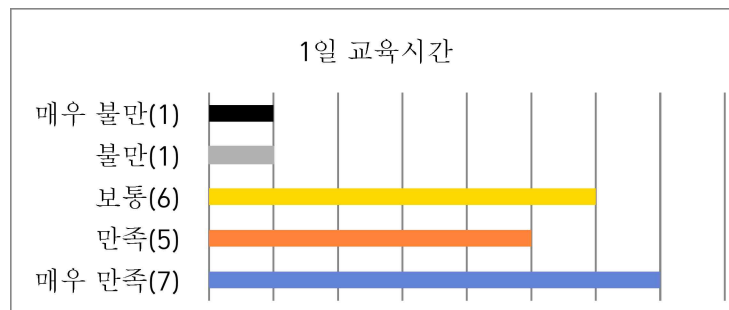
2)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참여자 만족도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 대한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교과목 수, 1일 강의 시간, 강의 장소, 교수진 구성, 통역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 의 세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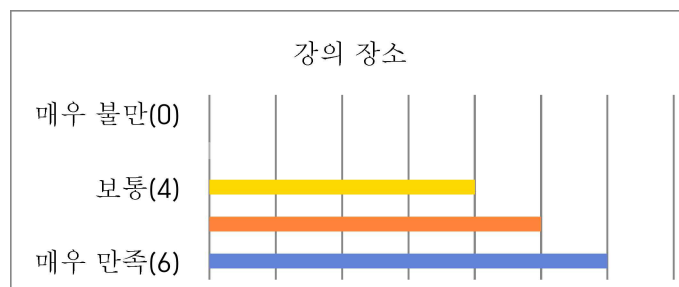
- 교과목 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2명, ‘만족’ 10명, ‘보통’ 2명, ‘불만’ 1명, ‘매우 불만’ 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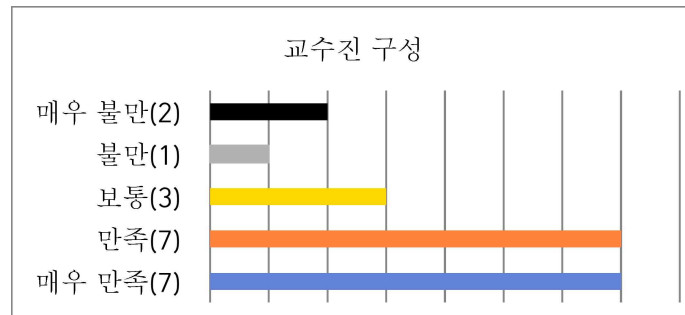
- 1일 교육시간(6시간~8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7명, ‘만족’ 5명, ‘보통’ 6명, ‘불만’ 1명, ‘매우 불만’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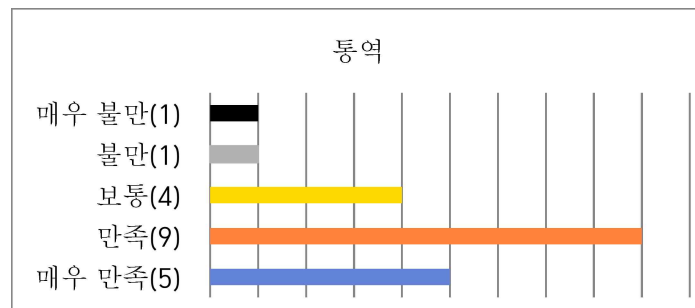
- 강의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6명, ‘만족’ 5명, ‘보통’ 4명, ‘불만’ 과 ‘매우 불만’ 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 교수진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7명, ‘만족’ 7명, ‘보통’ 3명, ‘불만’ 1명, ‘매우 불만’ 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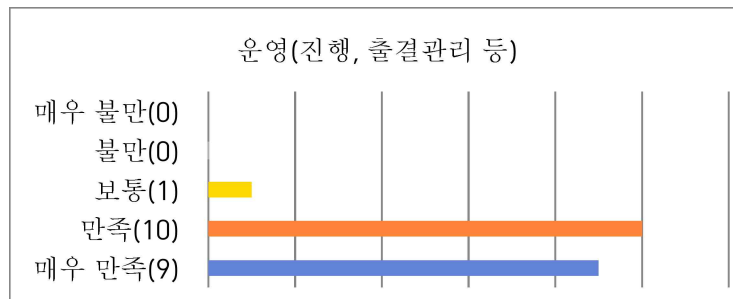


- 통역의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 5명, ‘만족’ 9명, ‘보통’ 4명, ‘불만’ 1명, ‘매우 불만’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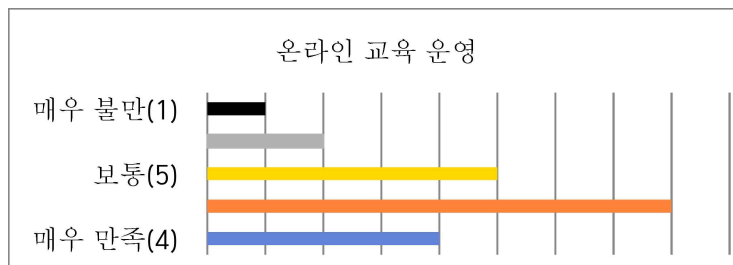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교육의 전반적인 교육 운영 및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운영(진행, 출결 관리 등), 온라인 교육 운영, 온라인 교육 수업 환경, 대면 교육 운영, 대면 교육 수업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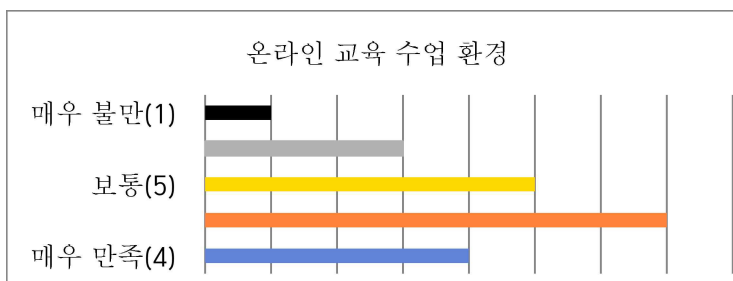
- 교육 운영(진행, 출결관리 등)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만족’ 9명, ‘만족’ 10명, ‘보통’ 1명으로 나타났고, ‘불만’과 ‘매우 불만’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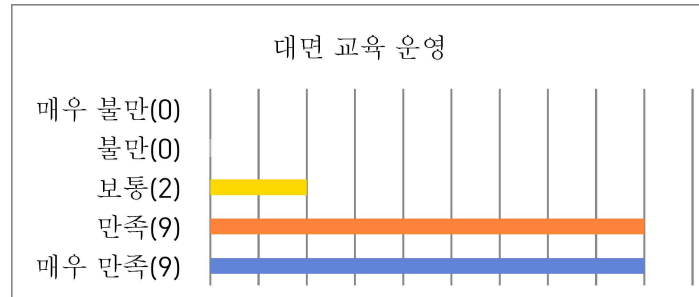
- 온라인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만족’ 4명, ‘만족’ 8명, ‘보통’ 5명, ‘불만’ 2명, ‘매우 불만’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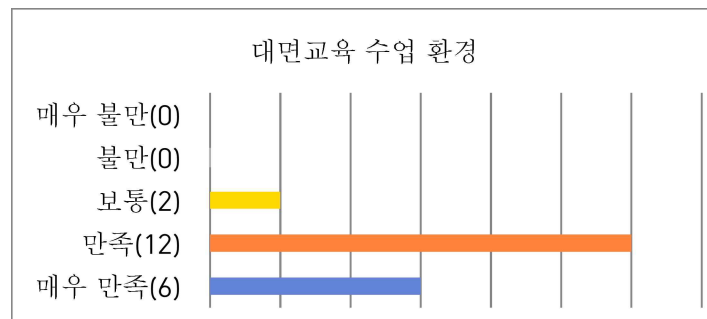
- 온라인 교육 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만족’ 4명, ‘만족’ 7명, ‘보통’ 5명, ‘불만’ 3명, ‘매우 불만’ 1명으로 나타났다.



- 대면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만족’ 9명, ‘만족’ 9명, ‘보통’ 2명으로 나타났고, ‘불만’과 ‘매우 불만’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어 교육 환경에서는 시각적으로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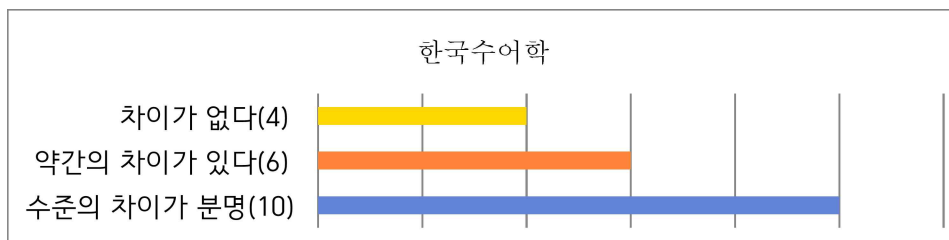


- 대면 교육 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만족’ 6명, ‘만족’ 12명, ‘보통’ 2명으로 나타났고, ‘불만’과 ‘매우 불만’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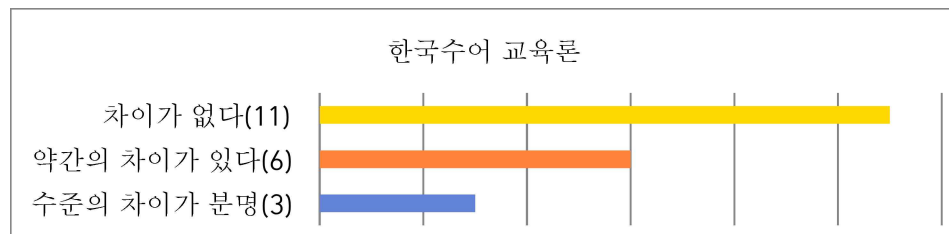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과 기존의 2급 양성과정의 교과목별 수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는 시범 강의에서 사용된 교보재의 이론이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으로 적절한지 즉,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는지 주관적인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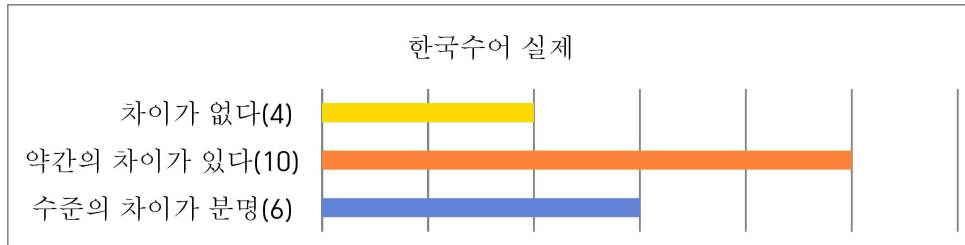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학’의 이론이 2급 양성과정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 10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 6명, ‘수준의 차이가 없다(2급 양성과정과 수준이 비슷하다)’ 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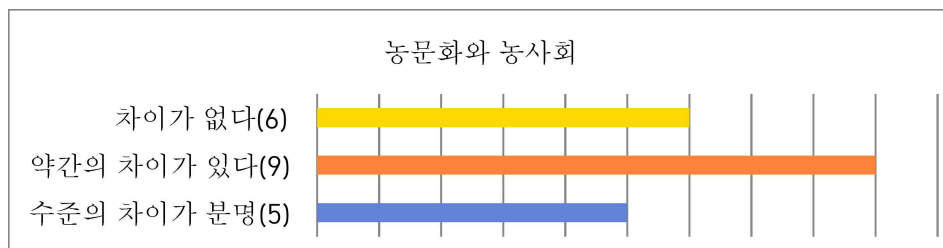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교육론’의 이론이 2급 양성과정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 3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 6명, ‘수준의 차이가 없다(2급 양성과정과 수준이 비슷하다)’ 1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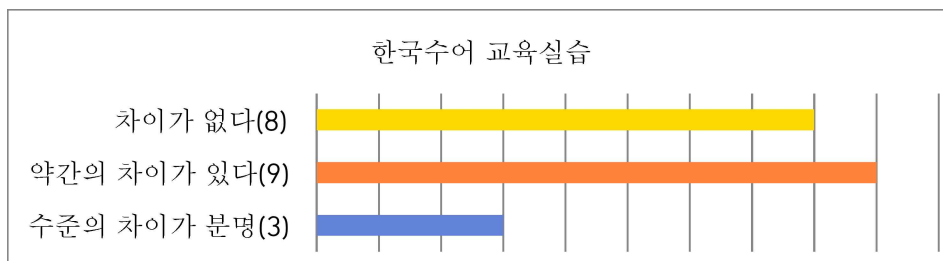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실재’의 이론이 2급 양성과정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 6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 10명, ‘수준의 차이가 없다(2급 양성과정과 수준이 비슷하다)’ 4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농문화와 농사회’의 이론이 2급 양성과정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 5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 9명, ‘수준의 차이가 없다(2급 양성과정과 수준이 비슷하다)’ 6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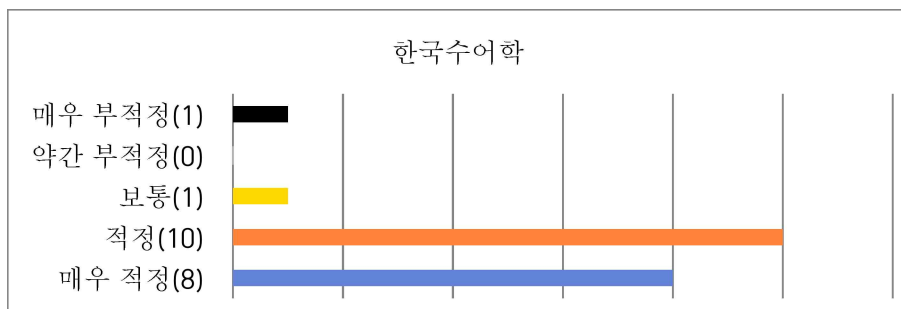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교육실습’의 이론이 2급 양성과정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다’ 3명, ‘약간의 차이가 있다’ 9명, ‘수준의 차이가 없다(2급 양성과정과 수준이 비슷하다)’ 8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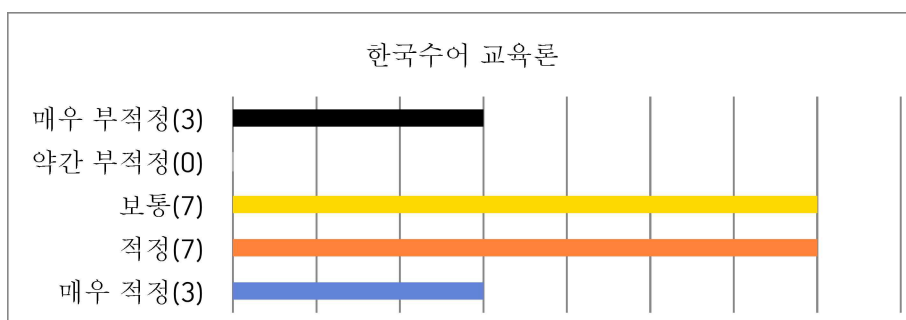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운영된 교과목별 주제(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는 시범강의에서 운영된 각각의 교과목들의 주제(내용)가 한국수어교원 1급에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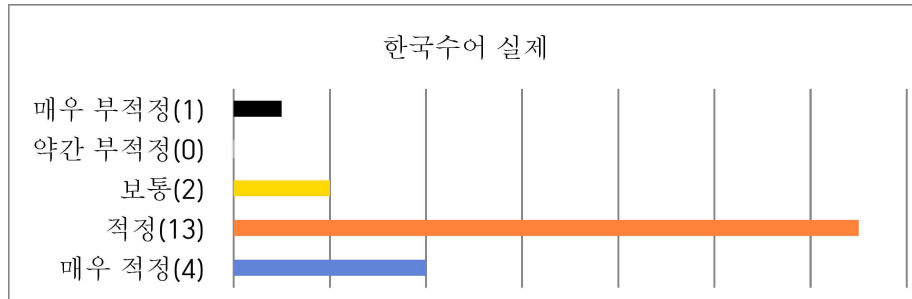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학’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정’ 8명, ‘적정’ 10명, ‘보통’ 1명, ‘약간 부적정’ 0명, ‘매우 부적정’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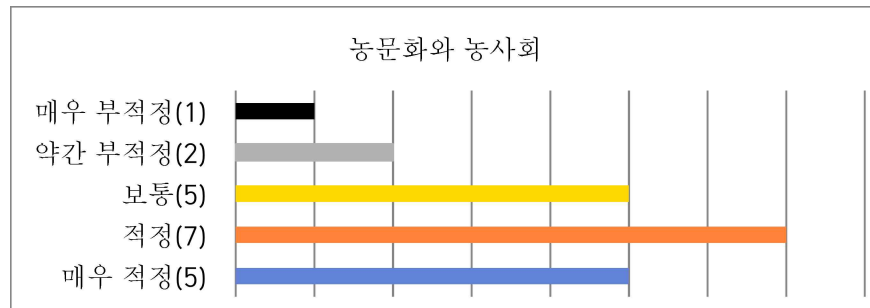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교육론’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정’ 3명, ‘적정’ 7명, ‘보통’ 7명, ‘약간 부적정’ 0명, ‘매우 부적정’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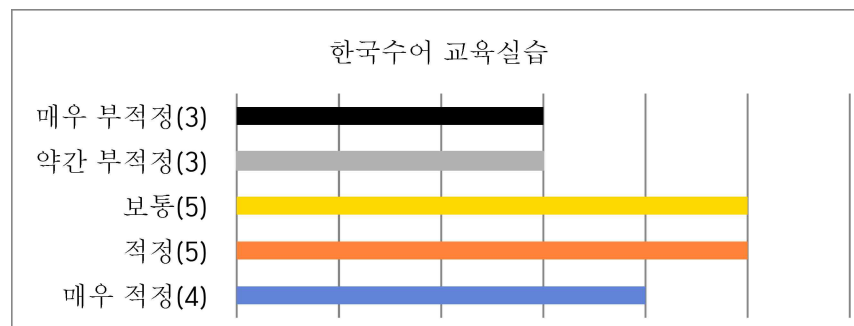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실제’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4명, ‘걱정’ 13명, ‘보통’ 2명, ‘약간 부적정’ 0명, ‘매우 부적정’ 1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농문화와 농사회’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5명, ‘걱정’ 7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정’ 2명, ‘매우 부적정’ 1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교육실습’의 내용이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4명, ‘걱정’ 5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정’ 3명, ‘매우 부적정’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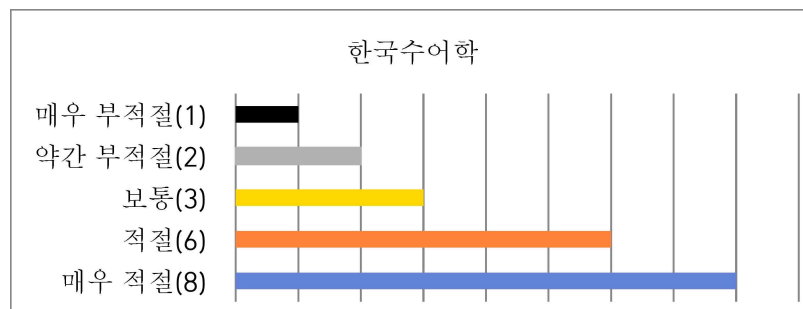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의 교과목별 시간 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는 시범 교육에서 운영된 교과목별 강의 배정 시수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는 ‘약간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에 응답을 한 경우, 과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배정 시간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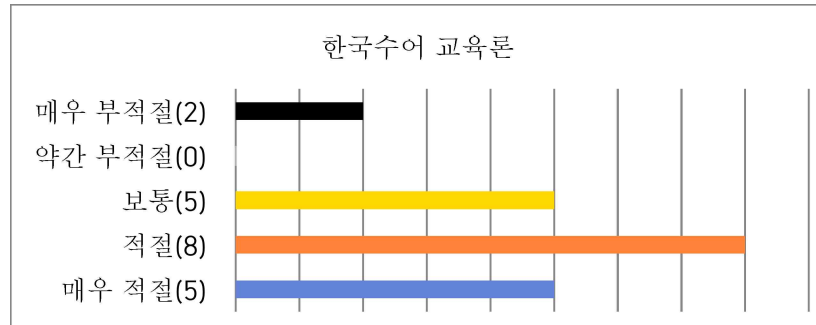
〈표 Ⅷ-2〉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과목별 배정 시간

교과목명	배정 시간	비대면 강의 시간
한국수어학	10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10시간	비대면 8시간
한국수어 실재	10시간	비대면 2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5시간	비대면 1시간
한국수어교육실습	5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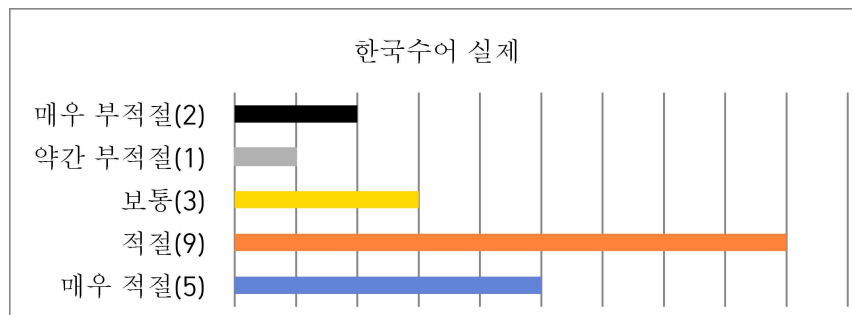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학’의 강의 배정 시간(10시간)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시수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8명, ‘적절’ 6명, ‘보통’ 3명, ‘약간 부적절’ 2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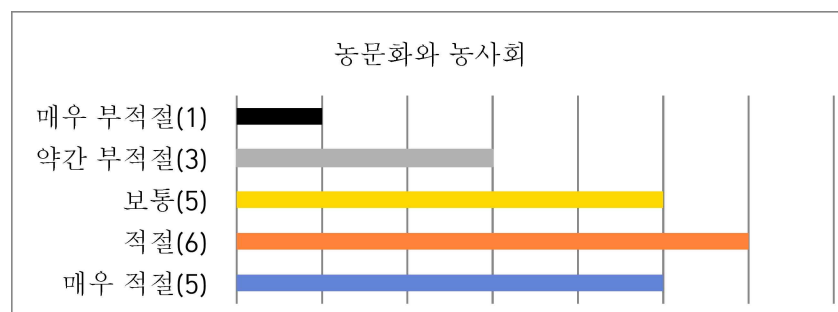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교육론’의 강의 배정 시간(10시간)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시수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5명, ‘적절’ 8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절’ 0명, ‘매우 부적절’ 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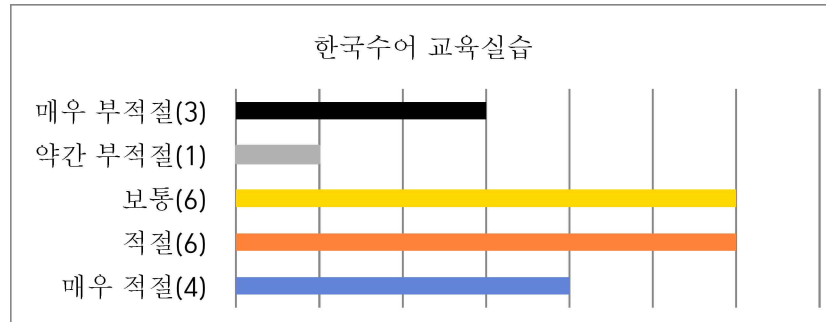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실제’의 강의 배정 시간(10시간)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시수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5명, ‘적절’ 9명, ‘보통’ 3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2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농문화와 농사회’의 강의 배정 시간(5시간)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시수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5명, ‘적절’ 6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절’ 3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교육실습’의 강의 배정 시간(5시간)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시수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4명, ‘적절’ 6명, ‘보통’ 6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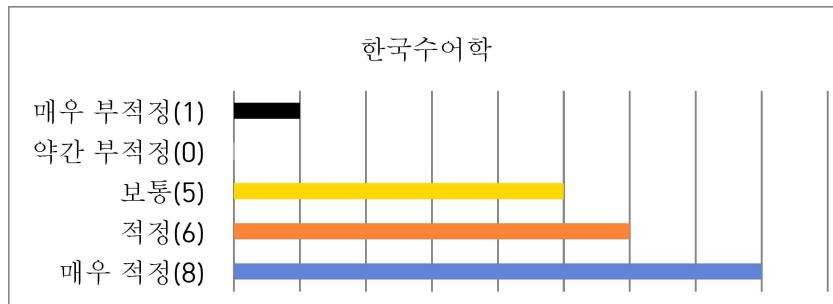


- 과목별 배정 시간이 ‘약간 부적절’ 하거나 ‘매우 부적절’ 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배정 시간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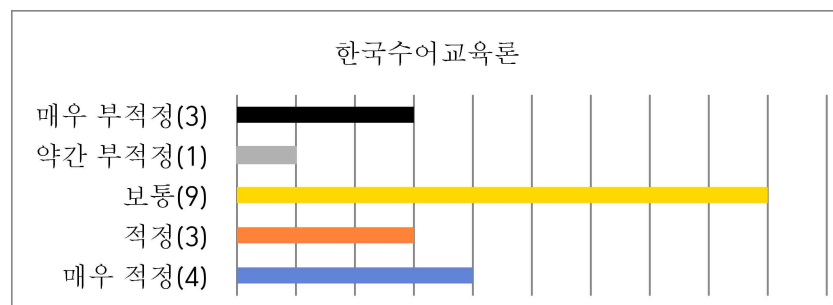
수어학이나 한국수어의 실제 교과목에 시간 배정이 더 늘어나 적절한 예시 등을 접하면 좋겠다.
 ‘수어교육의 실제’, ‘교원 윤리 강령’, ‘고급교수법의 실제’, ‘언어학’, ‘수어문학과 실제’, ‘농윤리 이론과 토론’ 등의 교과목이 신설되면 좋겠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의 교과목별 난이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는 시범 강의의 교과목별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이 갖추어야 할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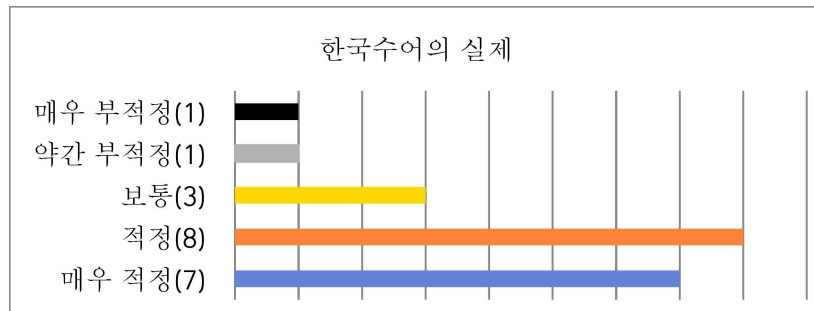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학’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의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8명, ‘걱정’ 6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정’ 0명, ‘매우 부적정’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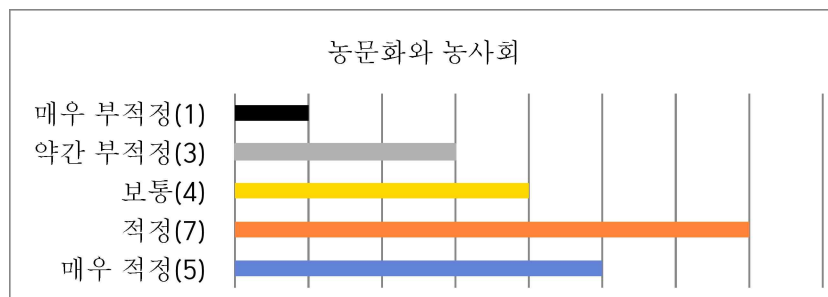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교육론’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의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4명, ‘걱정’ 3명, ‘보통’ 9명, ‘약간 부적정’ 1명, ‘매우 부적정’ 3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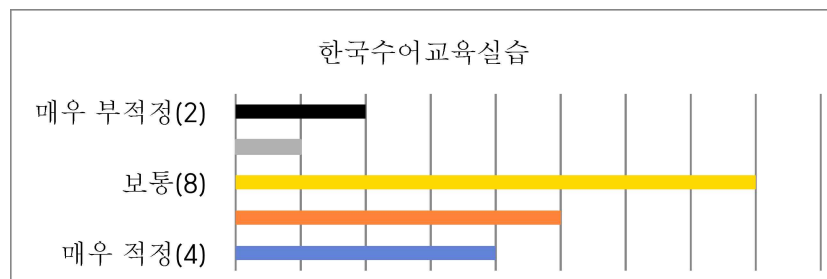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의 실제’ 강의 (내용)의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의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7명, ‘걱정’ 8명, ‘보통’ 3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 (내용)의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의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5명, ‘걱정’ 7명, ‘보통’ 4명, ‘약간 부적절’ 3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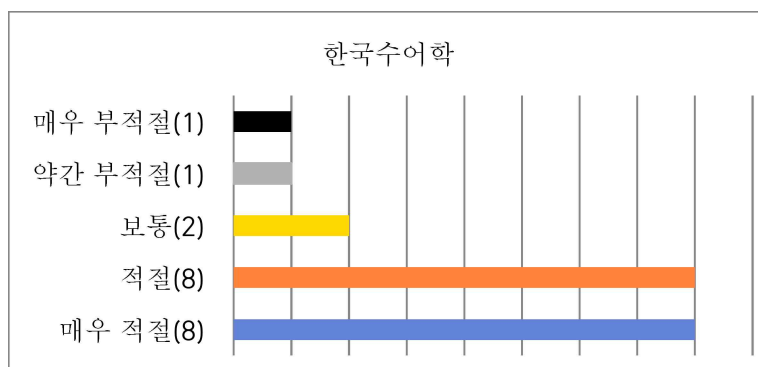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교육실습’ 강의 (내용)의 난이도가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의 학문적 지식수준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걱정’ 4명, ‘걱정’ 5명, ‘보통’ 8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2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사용된 교과목별 PPT, 영상 자료 등 강의 전달 형식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는 시범 교육에서 운영된 교과목의 강의 전달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이다.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학’ 강의의 전달 형식이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 양성과정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8명, ‘적절’ 8명, ‘보통’ 2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Ⅷ-5]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학’ 강의자료 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개발 시범교육
한국수어학

홍성은 (강남대학교)
2024.12.15. (11시-18시)
춘천베어호텔

1. 어휘론

- 1.1 수어 어휘
- 1.2 고정된 수어
- 1.3 생산적 수어
- 1.4 수어사전 표제어

2. 수어사전

- 2.1 한국수어, 한국어 단어 그리고 의미의 관계
- 2.2 한국수어의 의미와 한국어의 의미
- 2.3 단일언어사전과 이중언어사전
- 2.4 수한 시범사전
- 2.5 한수 시범사전
- 2.6 마무리

3. 도상성

- 3.1 형태와 의미
- 3.2 도상성의 정의와 종류
- 3.3 이미지 형성 기법
- 3.4 손의 기능, 한눈에 보기

고정된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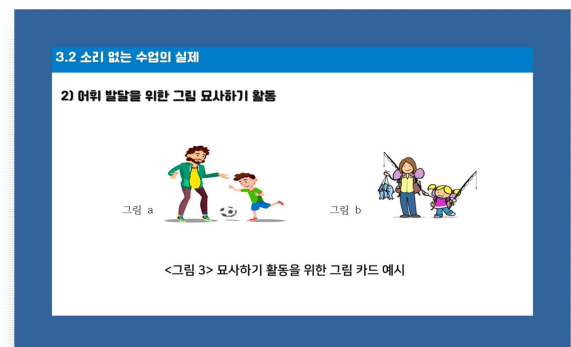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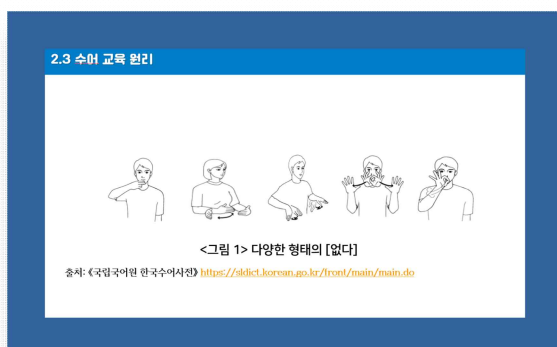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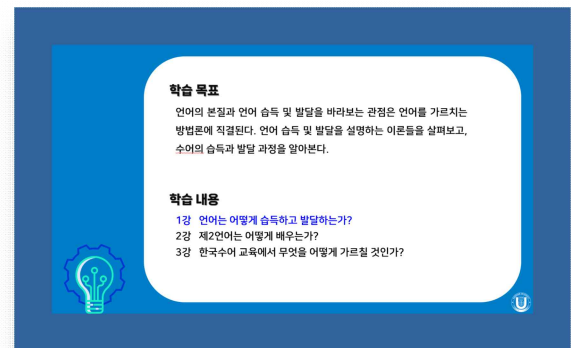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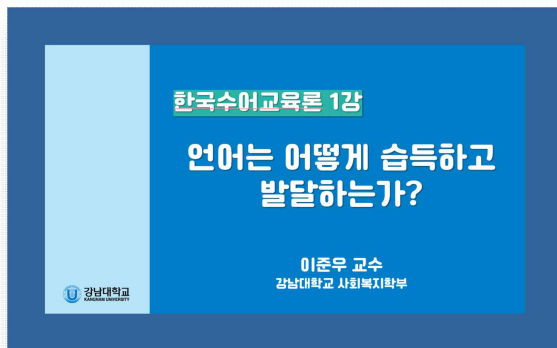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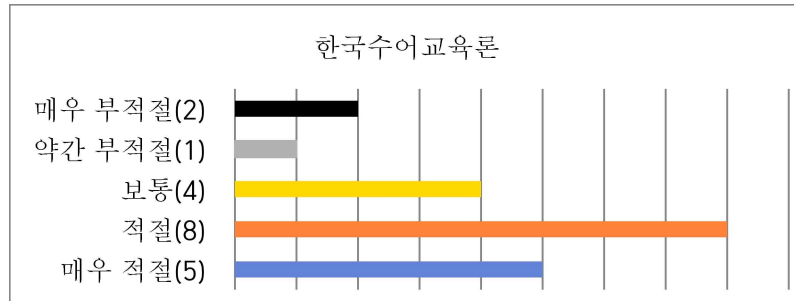
손이 도장 도구



그림 출처: Beecken et al. (2014, 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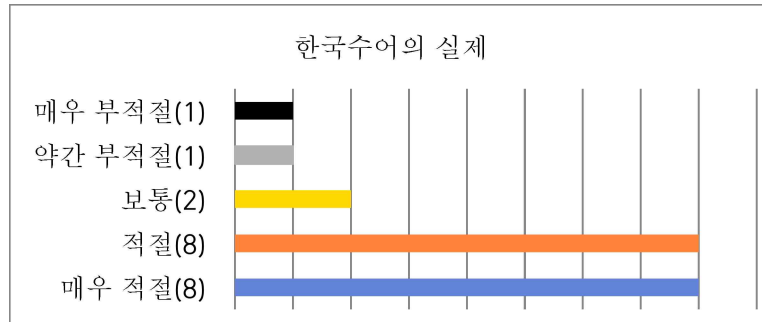
[그림 Ⅷ-6]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학' 강의자료 2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 교육론’ 강의의 전달 형식이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 양성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5명, ‘적절’ 8명, ‘보통’ 4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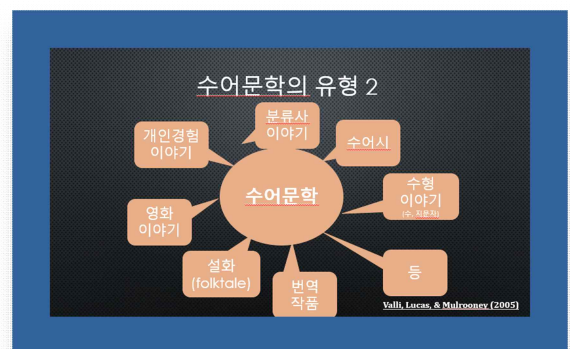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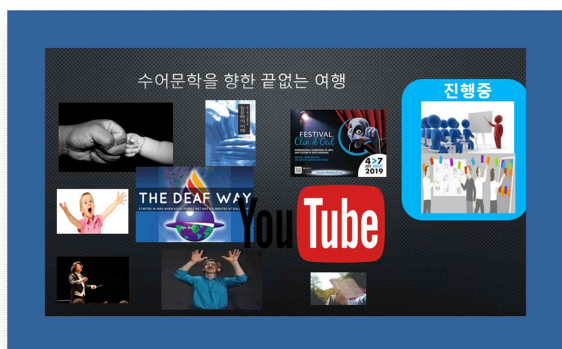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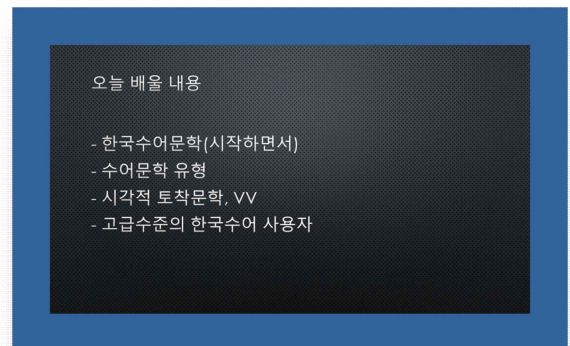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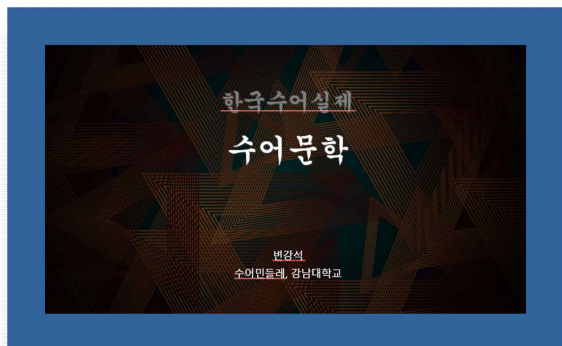


[그림 Ⅷ-7]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 교육론’ 강의자료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의 실제’ 강의의 전달 형식이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 양성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8명, ‘적절’ 8명, ‘보통’ 2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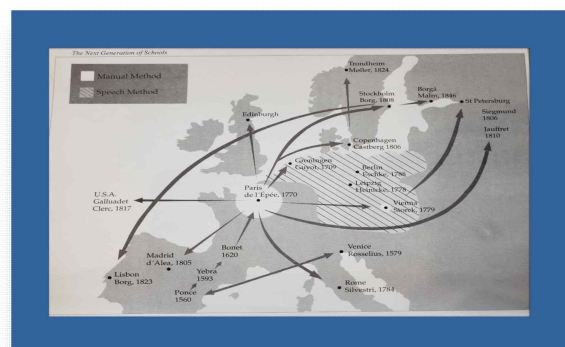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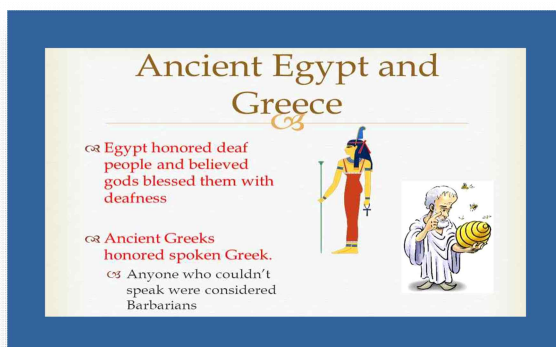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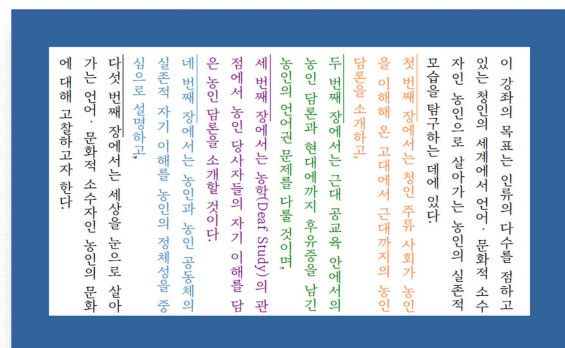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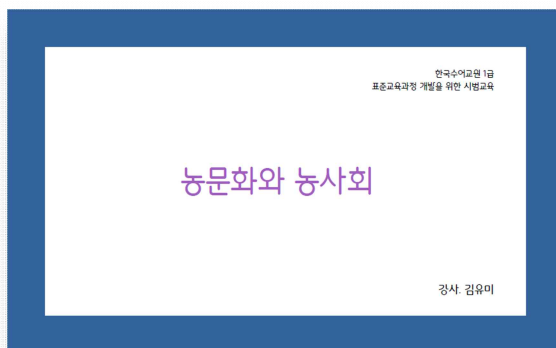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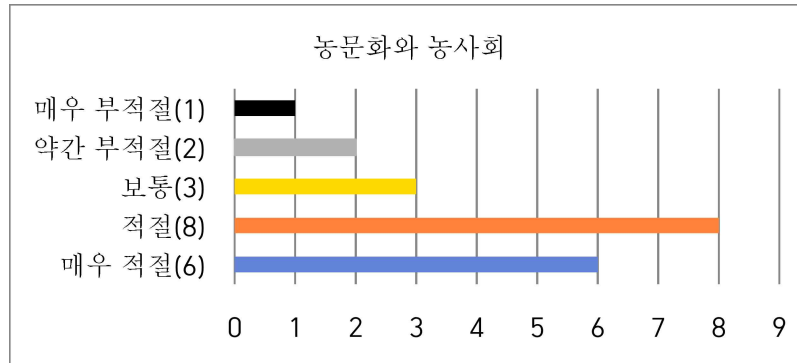


- ‘한국수어의 실제’ 강의 중 일부는 교보재 원고를 PPT로 편집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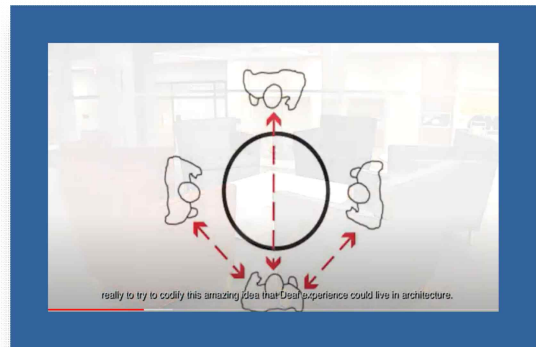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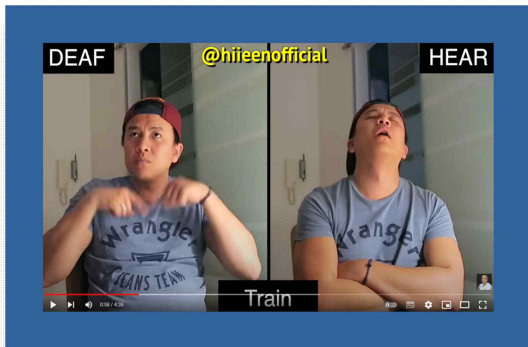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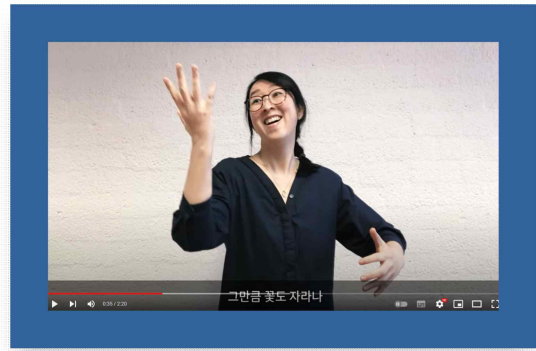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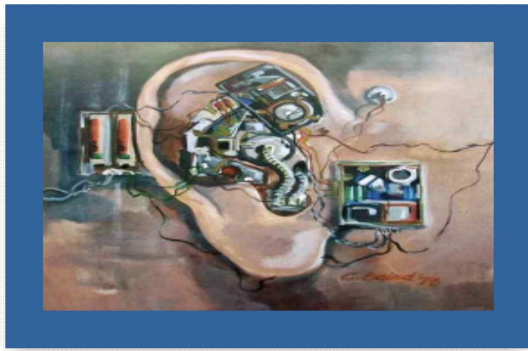


[그림 VIII-8]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의 실제’ 강의자료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의 전달 형식이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 양성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6명, ‘적절’ 8명, ‘보통’ 3명, ‘약간 부적절’ 2명, ‘매우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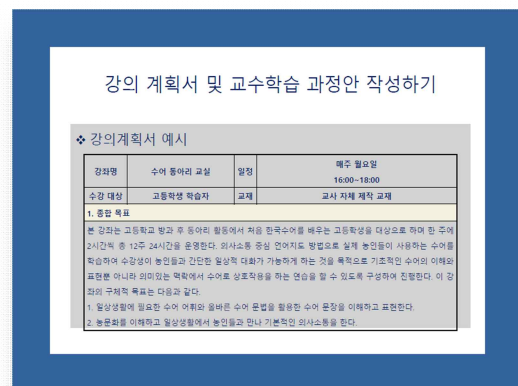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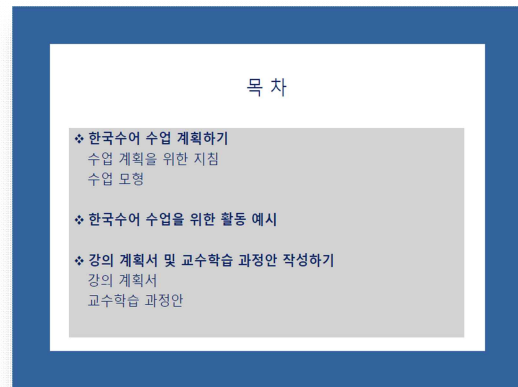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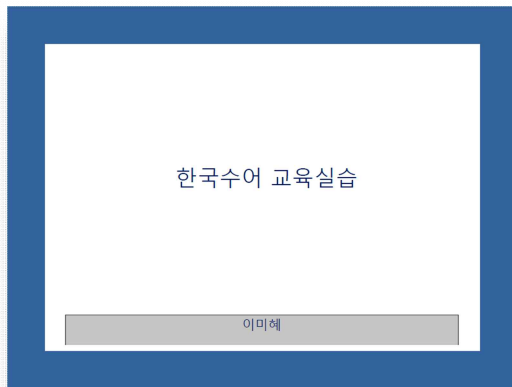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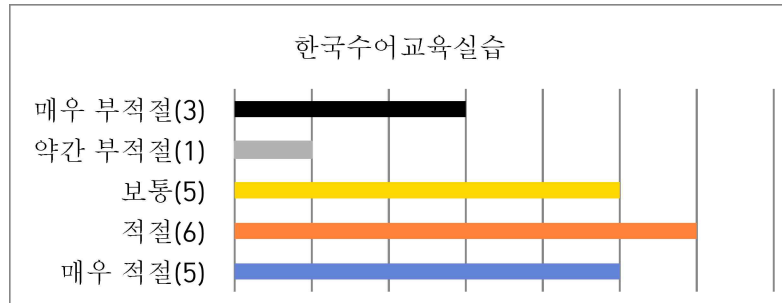


[그림 Ⅷ-9]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자료 1



[그림 Ⅷ-10]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농문화와 농사회’ 강의자료 2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에서 수강한 ‘한국수어교육실습’ 강의의 전달 형식이 한국수어교원 1급 교원 양성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적절’ 5명, ‘적절’ 6명, ‘보통’ 5명, ‘약간 부적절’ 1명, ‘매우 부적절’ 3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Ⅷ-11]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한국수어교육실습’ 강의자료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추가 교과목이나 교과목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추가 교과목이나 교과목 변경 등에 대한 의견	
교재 구성이나 편집 등 교재 편찬 방법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주는 시간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농의 윤리(오디즘, 데프후드, 데프게인) 토론화, 실제 추가	
관용어 대신 고급어휘 및 윤리강령	
(한국수어교원의) 윤리강령	
1급은 (2급보다) 난이도가 필요하여 수어교육 관련만 실습이나 기법 등등 필요합니다.	
2급 표준교육과정과 1급의 표준교육과정의 과목이 중복되지 않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필수와 심화 등으로 구분하여 수업과목이 중복되지 않거나 중복되더라도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1급) 교원 강사 섭외 시 농인강사나 수어사용자가 직접강의하면 좋을 것 같음. 교원1급 이수과목을 변경 비중도 중요도에 따라 편성하면 좋겠음. 예를 들어 수어문학 비중을 높이고 2급과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관용수어는 아직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은 거 같아 아쉬움.	
고급어휘수업에 대한 연구 예시도 교육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국수어교육의 실제, 한국수어 교재 활용법, 한국수어교육의 실태	
이론수업 시간은 각 과목당 5시간으로, 실제수업 시간은 15시간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시범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교수활동에 사용할 교재 제작 과정도 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 방법과 기술, (수강생과의) 소통을 능숙하기 위한 방법 등	
‘수어교육의 실제’, ‘교원 윤리 강령’, ‘고급교수법의 실제’, ‘언어학’, ‘수어문학과 실제’	
‘농윤리 이론과 토론’ 등의 교과목을 신설	

-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주요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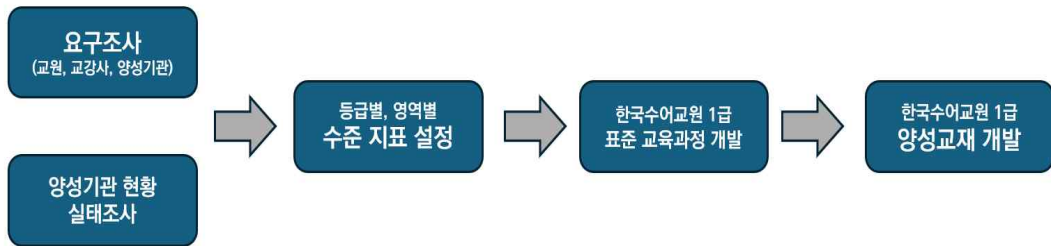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의 추가 교과목이나 교과목 변경 등에 대한 의견	
강의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질을 교사가 좌우한다는 것을 1급 표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했다. 훌륭한 강사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교육이었다.	
토익 관련 원어민 위원 100%이듯 한국수어교원 관련 위원 농석사와 농박사를 임명하면 좋겠음.	
한국수어교원 1급 교육받을 때 수어통역 없는 명강사께서 음성언어와 동시에 수어하시길 바라며 2급보다 더 세심한 심화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음.	
한국어교육론, 한국어평가론, 관용어는 거의 다 한국어 위주이고 농강사 수가 너무 적어서 아쉬움.	
강사님이 직접 수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어교원은 수어가 가능하신 교원강사님들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아요. 강사님들의 교수내용을 통역을 통해 전달 받는 것도 좋지만 수어로 직접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어문학은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좀 더 구분하여 2급 1급이 차이가 분명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5일간 강사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통역 없이 수어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로 섭외하였으면 합니다.	

IX. 결론과 제언

1. 연구 요약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한국수어교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동법을 통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교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전문성 있는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수어 교육기관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국수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 2곳, 대학원 5곳, 비학위 양성기관 8곳 등 전문 교육기관 15개소를 인증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35명의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배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2023년 12월 기준) 학위과정 136명, 양성과정 중 교육경력자(300시간) 252명, 검정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자 177명을 포함하여 총 565명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초 합격자 배출 이후 약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1급 자격 교원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4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임에도 1급 승급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 본 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실태조사,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1차), 한국수어교원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수립, 교육 능력 지표 검토 및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2차), 세미나 개최,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의 연구 내용으로 수행하였다.
-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 마련,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 조사·분석,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 개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을 하였다. 특히,

한국수어교원 1급 교보재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시범 운영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X-1]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체계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총 2번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은 농인 관련 연구자, 교육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농인과 청인의 구성 비율은 최소 40% 이상의 농인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등급별·영역별 교육 능력 지표, 실태조사에 따른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선점 및 발전 방안 등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에서는 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 시수 배정에 관한 의견, 영역·교과목 교보재 개발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영역별 수준 지표 수립과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각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협조를 받아 양성기관의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교강사, 교육기관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선점 및 발전 방안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한 교육 만족도,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교강사, 양성기관 현황과 요구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교육기관 9곳, 교강사 30명, 자격 취득자 86명이 참여하였다.

- 국내외 한국수어교원의 유사 자격 분석과 1차 자문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고 고려하여 한국수어교원의 등급별·영역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1급과 2급 수어교원의 요구 능력과 수준을 제시하고, 또한 등급에 따른 영역별 요구 능력과 수준을 마련하였다.
- 영역별 교육 목표 및 세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수 시간 배정안을 마련하여 승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산출된 세부 내용을 영역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1급 양성 교재로 집필하였다.
-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표준교육과정과 1급 양성 교보재를 강원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수어문화원의 기관 협조를 받아 1급 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한 20명을 대상으로 5일간 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과 양성 교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국내 수어교원 및 수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다시 등급별·영역별 수준 지표와 1급 양성 교육과정, 교보재에 반영하여 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2.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교육 능력 수준 지표(안) 제안

○ 한국수어교원 등급별 요구 능력 및 수준

구분	요구 능력 및 수준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서 최고 수준 능력 - 교육과정 개발, 평가, 언어학,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 언어 교육 방법론, 언어활동, 평가, 한국수어 언어학 지식 - 한국수어 능력, 교육과정, 교육계획 개발을 위한 교수에 대한 기본 지식

○ 한국수어교원 1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영역	요구 능력 및 수준
언어 및 기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하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분류사 활용 및 묘사, 역할전환, 공간 활용 및 묘사, 관용어 사용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전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한국수어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 - 한국수어 교수법과 교수 기술을 이해하고 교육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 오류에 대한 분석과 처리 능력
한국수어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 기술 및 농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농문화와 농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문화에 대한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심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라 한국수어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 활동 설계 및 구성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가공, 사용 능력,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교원 2급의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영역	요구 능력 및 수준
언어 및 기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한국수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법·어휘·의미·화용·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기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한국수어 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실시 능력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한국수어 교육 결과 평가 능력
한국수어 실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로 의사소통하고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과 전략 수행 능력
농문화와 농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심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한국수어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수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 능력 - 효과적인 교실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교수법 채택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및 수업 과제 설계 능력

○ 한국수어교원 등급에 따른 영역별 요구 능력 및 수준 비교

영역	1급 한국수어교원		2급 한국수어교원	
	요구 능력 및 수준	표준 배정 시간 (40시간)	요구 능력 및 수준	표준 배정 시간 (120시간)
언어 및 기초 교육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전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하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 교육학 및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 - 제2 언어 교육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수어와 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
한국 수어학	- 한국수어의 분류사 활용 및 묘사, 역할전환, 공간 활용 및 묘사, 관용어 사용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전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10시간	-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법·어휘·의미·화용·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 한국수어 언어학의 기본 지식 - 기본 수어 어휘, 수어 문법, 한국어와 수어의 문법적 차이 분석 능력	15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재 개발 능력 - 한국수어 교수법과 교수 기술을 이해하고 교육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 오류에 대한 분석과 처리 능력	10시간	- 교육의 기본 원리와 주요 내용에 대한 지식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실시 능력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한국수어 교육 결과 평가 능력	35시간
한국수어 실제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 기술 및 농인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10시간	-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언어적 활동 수행 능력 - 한국수어로 의사소통하고 교수할 수 있는 능력 - 한국수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과 전략 수행 능력	25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 농문화에 대한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심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5시간	- 농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핵심 가치, 사고방식, 의사소통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 - 농문화와 농사회의 특징에 대한 이해 - 농인의 심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15시간
한국수어 교육실습	- 한국수어 교수 분야의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교육 대상 및 교육 목표에 따라 한국수어 관련 이론을 실습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 활동 설계 및 구성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가공, 사용 능력,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 능력	5시간	- 한국수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 - 수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실 환경 및 분위기 조성 능력 - 효과적인 교실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교수법 채택 능력 - 합리적인 수어 교재 선택 및 수업 과제 설계 능력	30시간

3. 한국수어교원 추가 교육(40시간) 표준모델(안) 제안

-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1급 승급을 위한 영역별 이수 시간 40시간을 한국수어학 10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10시간, 한국수어 실제 10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5시간, 한국수어교육실습 5시간으로 각각 배정해 1급 표준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40시간이 1급 승급을 위한 양성과정 이수 시간으로 부족하니 이를 늘려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시범 운영에 참여한 참여자의 80% 이상이 배정 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1급 승급을 위한 양성과정 이수 시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 등급 및 영역별 권장 이수 시간

영역	1급 이수 시간(40시간)		2급 이수 시간(120시간)	
	필수 시간	선택 시간	필수 시간	선택 시간
언어 및 기초 교육	-	-	-	-
한국수어학	5~10시간	-	15시간	-
한국수어 교육론	15~20시간	-	35시간	-
한국수어 실제	-	10~20시간	25시간	-
농문화와 농사회	5~10시간	-	15시간	-
한국수어교육실습	5~10시간	-	30시간	-
총 계	30~50시간	10~20시간	120시간	

출처: 2018~2019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국립국어원, 2018.

○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 양성과정 이수 시간

영역	권장 이수 시간			표준모델	
	필수 시간	선택 시간	소계	교과목명	배정 시간
1. 언어 및 기초 교육	-	-	1급 필수 이수 시간 (40시간)	-	-
2. 한국수어학	5~10시간			한국수어학	10시간
3. 한국수어 교육론	15~20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10시간
4. 한국수어 실제	-	10~20시간		한국수어 실제	10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5~10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5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5~10시간			한국수어교육실습	5시간
총 계					40시간

※ 권장 이수 시간은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 제시된 권장 이수 시간임.

4.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수어교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한국수어 교육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했으나, 기존 한국수어 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확보하고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 대학 및 대학원은 물론이고 양성기관의 경우에도 자료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실제 자료 보관과 관리 운영 체계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메타 분석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와 같은 현황 파악을 통해 한국수어 교육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둘째, 한국수어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본격 진행과 아울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급과 2급이 차별화된 실제적인 표준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본 연구의 결과 한국수어 교육과정은 한국수어 교육의 철학 및 가치, 수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수어 교육의 계획과 실행 및 환류의 과정으로서 모든 한국수어 교육에서 실질적인 핵심 요소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농사회와 농문화의 현실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각급별 한국수어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용 교재 및 자료 등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이미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셋째, 한국수어교원 1급 승급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경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 한국수어교원 자격 1급 승급을 위해서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근무 경력과 300

시간 교육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급 자격 소지자들 중 상당수가 극소수의 일부 대학과 협회(수어통역센터 포함) 이외에 실제로 수어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학교 또는 수어교육 현장이 전무한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300시간 교육경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급 승급 조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실습 교육의 현장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300시간 교육경력 취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령 2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연수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참여자 본인의 강의 콘텐츠를 일정 시간(예: 10분~30분가량)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출한 후 이를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여 교육 역량을 인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수어교원의 질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적 저변의 확대도 필요함을 고려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한 잠재적 1급 승급 대상자들이 실제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농사회와 정부 등에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와 세미나에서도 참여자들이 실습과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교육 시간을 다각화하는 것이 과도기적 차원에서 수어교육 현장을 비롯한 실습 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넷째, 한국수어 교육과정을 담당할 우수 교강사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 1급의 경우는 물론, 2급 교육과정에서도 교강사의 자질과 역량 문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난제라 할 수 있다. 소수의 제한된 교강사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순회하듯이 강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교육기관이 달라도 교강사는 동일하여서 특정 교과목에서는 기관 간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본 연구의 결과 이들 교강사들 중 손에 꼽을 정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어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과 교육학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거나, 수어를 사용하거나 통역 또는 수어 강의를 할 수 없는 교강사가 교육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특정 교강사들에게 강의가 집중 의뢰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교강사에 대한 수업 불만족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수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교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강사 양성 및 재보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한국수어 교육 방법과 교재 활용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교육 방법 및 교재 활용의 재개념화 및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존 한국수어 교육의 방법은 강의 중심의 주입식 강의 형태였으며 PPT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수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자 간 상호 활동이 촉진되는 교육 또는 교수 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학습자가 스스로 수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재의 경우, 수어가 시각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책 형태의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디지털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다각적인 매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종이책 형태의 교재와 그렇지 않은 영상 기반의 교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한국수어 교육 방법과 교재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한국수어 교육 방법과 교재를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재개념화와 이를 통한 재구조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이며 효과적인, 좋은 교육 방법과 교재를 가정하고 기존의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되었거나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과 교재들을 살펴서 그 현황 및 개발·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전보다 나은 교육 방법과 교재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와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재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섯째, 한국수어 교육과 농문화 교육이 통합되고 융합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자가 수어 학습을 통해 농문화를 이해하고 농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수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한국수어 교육과정은 여전히 농문화 및 농사회를 적절하게 교육과정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인 학습자에게는 농사회 및 농문화와 농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친근감을 갖게 하고 농인 학습자에게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 외 문헌>

-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7).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농문화와 농사회: 한국 농사회의 이해.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9). 농문화와 농사회.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0a).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 이론.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0b). 한국수어의 실제.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1a). 한국수어 문법.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1b).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류연나(2020).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2015).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이기상(2020). 한국수어의 연구 동향 분석-국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Richards, J. C., & Rodgers, T. S. (2014). 전병만 · 오준일 · 김영태 옮김(2017). 언어 교육의 접근방법과 교수법(3판). 케임브리지.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SOL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0). Standards for the recognition of initial TESOL programs in P-12 ESL teacher education. TESOL International Association.

<국립국어원 보도자료>

- 보도자료(2018.12.21). 첫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발표.
- 보도자료(2019.08.06).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최초 실시.
- 보도자료(2019.12.06).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최초 합격자 33명 배출.

<온라인 자료>

강남대학교. <https://kangnam.ac.kr>

강남대학교 대학원. <https://grd.kangnam.ac.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수어교원. <https://sldict.korean.go.kr/kslteacher/main/main.do>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나사렛대학교 미래재활복지대학원. <https://grad.kornu.ac.kr>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교육전공. <https://cms.kornu.ac.kr/sl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미국수화교사연합회(ASLTA). <http://www.aslta.org>

안양대학교 글로벌대학원. <https://www.anyang.ac.kr/grad5>

조선대학교 대학원. <https://grad.chosun.ac.kr>

충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https://social.csu.ac.kr>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수어교육전공. <https://www.hknu.ac.kr/welfare/2548/subview>

부록 목록

- 목 차 -

〈부록 1〉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184
〈부록 2〉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청 자료 목록	382
〈부록 3〉 한국수어교원 교강사 실태조사지	383
〈부록 4〉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지	394
〈부록 5〉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학위 · 양성과정) 실태조사지	405

<부록 1>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한국수어학	-----	185
한국수어 교육론	-----	239
한국수어 실제	-----	277
농문화와 농사회	-----	312
한국수어교육실습	-----	366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한국수어학]

한국수어학

집필: 홍성은 강남대학교 교수

목차

1. 어휘론

- 1.1 수어 어휘
- 1.2 고정된 수어
- 1.3 생산적 수어
- 1.4 수어사전 표제어

2. 수어사전

- 2.1 한국수어, 한국어 단어 그리고 의미의 관계
- 2.2 한국수어의 의미와 한국어의 의미
- 2.3 단일언어사전과 이중언어사전
- 2.4 수한 시범사전
- 2.5 한수 시범사전
- 2.6 마무리

3. 도상성

- 3.1 형태와 의미
- 3.2 도상성의 정의와 종류
- 3.3 이미지 형성 기법
- 3.4 손의 기능, 한눈에 보기

4. 수어의 공간사용 및 수어동사

- 4.1 수어공간
- 4.2 수어동사

5. 수어에서 비수지 역할

- 5.1 비수지
- 5.2 입 움직임

표 목차

[표 5-1] 마우스 제스처 출현빈도

그림 목차

- <그림 1-1> 수어 어휘
- <그림 1-2> 고정된 수어
- <그림 1-3> 검지수형을 가진 생산적 수어
- <그림 1-4> 생산적 수어 수형 예시
- <그림 1-5> 고정된 수어와 생산적 수어 비교
- <그림 1-6> 한국수어 말뭉치에서의 생산적 수어 예시1
- <그림 1-7> 한국수어 말뭉치에서의 생산적 수어 예시2
- <그림 1-8> 독일수어 영상 캡처(조종사 이야기)
- <그림 1-9> 음성언어사전의 표제어 개수
- <그림 1-10> 수어사전의 표제어 개수
- <그림 2-1> 한국수어와 한국어
- <그림 2-2> ㅎ나국수어의 의미 관계
- <그림 2-3> 한국수어 [아버지]
- <그림 2-4> 한국어 [가방]의 수어단어
- <그림 2-5> 한국어 [벌레]의 뜻풀이
- <그림 2-6> 한국수어 [벌레]
- <그림 2-7> 한국수어 [벌레]의 뜻풀이
- <그림 2-8> 한국수어 [벌레]의 대역어
- <그림 2-9> 수한 시범 사전
- <그림 2-10> 수한 시범 사전의 표제어 정보
- <그림 2-11> 한국수어 [독일], [밤색]
- <그림 2-12>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의 수어 표현
- <그림 2-13> [통역]
- <그림 2-14> [알리다]
- <그림 2-15> 한수 시범 사전
- <그림 3-1> [어렵다]
- <그림 3-2> [먹다]
- <그림 3-3> [마시다]
- <그림 3-4> [화학]
- <그림 3-5> [교사]
- <그림 3-6> [비행기]

<그림 3-7> [독일]
 <그림 3-8> [사진기]
 <그림 3-9> [가렵다]
 <그림 3-10> [탁자]
 <그림 3-11> [삼촌]
 <그림 3-12> [배]
 <그림 3-13> [어른]
 <그림 3-14> [코]
 <그림 3-15> 두 기법 사용
 <그림 3-16> Langer 2005, 263
 <그림 4-1> 통사적 공간
 <그림 4-2> 도식적 공간 사용1 (3차원)
 <그림 4-3> 도식적 공간 사용2 (3차원)
 <그림 4-4> 도식적 공간 사용1 (2차원)
 <그림 4-5> 도식적 공간 사용2 (2차원)
 <그림 4-6> 3차원 도식적 공간
 <그림 4-7> 2차원 도식적 공간
 <그림 4-8> 뷰어 공간
 <그림 4-9> 뷰어 공간 ('책을 꺼내다')
 <그림 4-10> 도식적 공간
 <그림 4-11> 뷰어 공간
 <그림 4-12> 도식적 공간과 뷰어 공간을 동시에 사용함
 <그림 4-13> 수어공간
 <그림 4-14> [먹다]
 <그림 4-15> [놀다]
 <그림 4-16> [제안하다] '내가 제안하다'
 <그림 4-17> [제안하다] '누가 나한테 제안하다'
 <그림 4-18> [야단치다] '내가 누구를 야단치다'
 <그림 4-19> [야단치다] '누가 나를 야단치다'
 <그림 4-20> [미워하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
 <그림 4-21> [미워하다] '누가 나를 미워하다'
 <그림 4-22> [흠치다] '내가 무엇을 흠치다'
 <그림 4-23> [흠치다] '누가 나한테서 무엇을 흠치다'
 <그림 4-24> 개체 동사
 <그림 4-25> [웁기다]
 <그림 4-26> [키보드치다]
 <그림 4-27> 수어동사 유형
 <그림 5-1> [귀엽다]
 <그림 5-2> [아깝다]
 <그림 5-3> [당신] 또는 [그]
 <그림 5-4> [똥똥하다]
 <그림 5-5> [공]

<그림 5-6> [자동차]
<그림 5-7> 너 이사 갔어? (번역)
<그림 5-8> 아냐, 이사 안 갔어 (번역)
<그림 5-9> 한국수어말뭉치에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
<그림 5-10> [지하철]
<그림 5-11> [가능]
<그림 5-12> [징그럽다]
<그림 5-13> [아이스크림]
<그림 5-14> [어린이]
<그림 5-15> [어린이]
<그림 5-16> 조심하다
<그림 5-17> 마우딩과 수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림 5-18> M-add 예시
<그림 5-19> M-spec 예시

1. 어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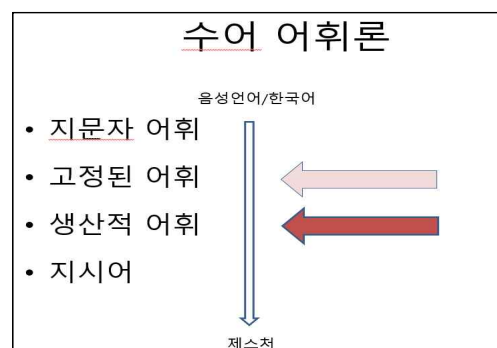
1.1 수어 어휘

어휘란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낱말의 총집합을 뜻한다고 한다. 한국어의 기준으로 어휘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래 있거나 우리말을 기초하여 만든 말, 한자어는 한자를 우리말 용어처럼 쓰는 말, 외래어는 영어처럼 외국에 들어온 말을 구어처럼 쓰는 것을 말한다.

수어 언어학에서는 수어의 어휘를 4종류로 구분한다 (Johnston & Schembri 2007).

- 고정된 어휘 농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어이며 맥락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어를 말한다. 고정된 수어의 의미가 굳어져서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는 수어이다.
- 생산적 어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변하고 수어 문법을 따라 수어의 형태도 변한다. 생산적 수어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수어라 할 수 있고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수어이다.
- 지시어는 어떤 대상 아니면 위치를 가리키는 수어이다. 지시 수어의 수형은 기술할 수 있으나 지시 수어의 수향, 수위, 수동은 매번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지시어는 검지 수형 또는 편 손의 수형이지만 무엇을 지시하는 것 따라 수향과, 수위와 수동이 다르다.
- 지문자 어휘는 한글을 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수어보다 한글에 가까운 전달 방법이나 농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수어에 속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위 어휘 분류는 폐쇄적인 그룹으로 보는 것 보다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 좋다. 연속체의 한쪽은 음성언어고 다른 끝에는 제스처가 있다.



<그림 1-1> 수어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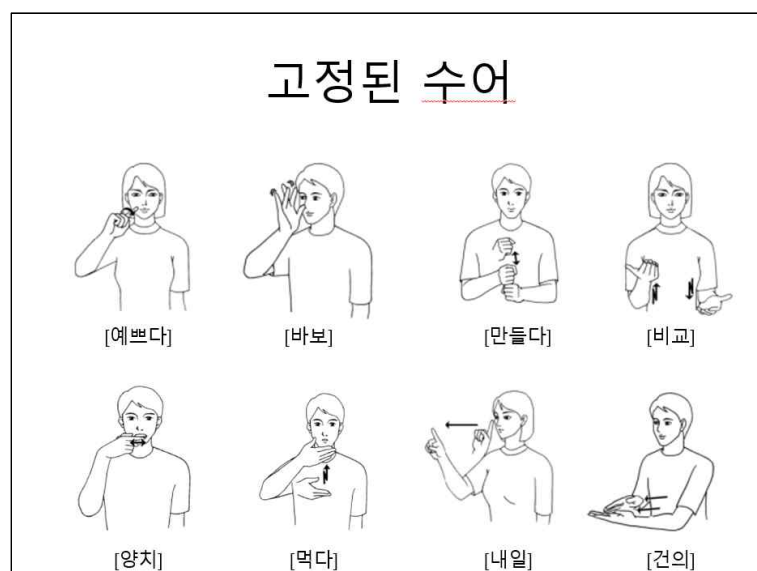
지문자는 음성언어 글자와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고정된 수어는 국어 단어와 유사한 개념을 가져서 청인들이 이해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생산적 수어는 음성언어에 없는 현상이라 청인들이 수어를 학습할 때 많이 어려워한다. 지시 수어 또한 수어 문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음성언어와 가까운 어휘를 청인들이 쉽게 배우고 제스처로 가까워질수록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수어 어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수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지문자와 지시 수어는 구분이 쉽지만 고정된 수어와 생산적 수어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정된 수어와 생산적 수어의 구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1.2 고정된 수어

고정된 수어는 농사회에서 관습을 통하여 자리 잡은 수어이다. 청인들은 고정된 수어를 볼 때 대응하는 한국어 낱말이 바로 생각이 날 것이다. 아무 맥락 없이 고정된 수어를 봐도 수어 사용자는 문제없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고정된 수어는 수어 문법에 따라 변형을 한다. 즉 문법적인 이유로 수어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들어 [먹다] 수어의 수동을 반복하면 ‘많이 먹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 고정된 수어를 사용할 때 공간은 조음 공간으로 간주된다. 즉, [먹다] 수어에서 손가락 방향이 조금 변경됐다고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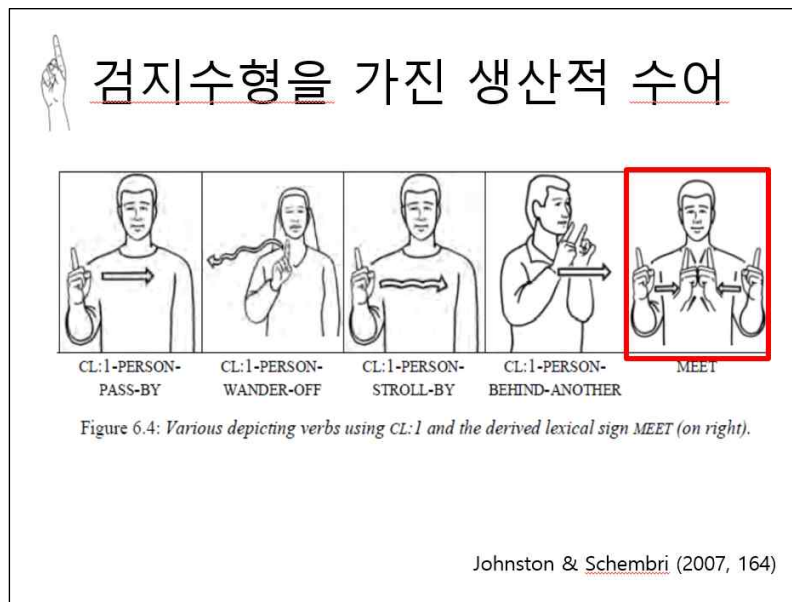
한국수어 고정된 수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림 1-2> 고정된 수어

1.3 생산적 수어

생산적 수어는 분류사라고도 한다. 생산적 수어 또는 분류사라는 현상은 많은 언어적 측면이 있어서 수어 언어학에서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 생산적 수어는 관습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맥락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어로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어휘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수어들은 능숙한 수어 화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번역을 할 경우 문장형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생산적 수어 하나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3> 검지수형을 가진 생산적 수어

호주에서 검지 수형을 가진 생산적 수어는 어떤 수향 및 수동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검지 수형은 수직으로 서 있는 물체를 표현하지만 많은 생산적 수어에서 검지 수형은 사람을 의미한다. 검지 수형을 가슴 오른쪽에서 앞에서 가슴 왼쪽으로 움직이면 ‘사람이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두 번째 그림처럼 검지 수형을 지그재그 동선으로 움직이면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방황하는 비수지가 표현 안 되면 같은 수어가 ‘지그재그로 걷다’라는 의미만 가질 수 있다. 생산적 수어는 방향, 수동, 비수지 중에서 하나만 변경해도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고정된 수어와 다르다. 고정된 수어에서 사용되는 공간은 조음 공간이지만 생산적 수어의 공간은 지형적이다. 즉,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배치하기 때문에 방향과 수동이 변경되면 물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된다. 3 번째 그림에서는 검지 수형이 편안한 방식으로 가슴 앞에서 이동하며 ‘산책 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4번째 그림에서는 양손에 검지 수형이 있으며 우세손의 검지형이 비우세손의 검지형 뒤에 이동한다. 이 수어는 ‘다른 사람 뒤에 걸어가다’ 또는 ‘사람을 따라가다’를 뜻한다. 마지막 그림

에서는 양손의 검지 수형이 가슴 앞에서 만나는 수어이다. 이 수어는 앞서간 수어와 다르게 생산적 수어가 아니고 고정된 수어이다. 앞서간 생산적 수어는 맥락 없이는 검지형이 정말 사람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특정한 이야기 맥락에서는 검지 수형은 걸어가는 기동을 표현할 수도 있음) 마지막 수어는 고정된 수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 (Johnston & Schembri 2007, 164).

생산적 수어는 고정된 수어보다 기록하거나 정리하기가 어렵다.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에서는 생산적 수어를 수형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어원, 2022).

생산적 수어 수형 예시					
타입명	수형	설명	예시		
1 일형1		1지만 편 형태로 알고 긴 물체 또는 그림을 나타냄		5 구형1A	1.2.3.4.5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가 벌어진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하며 아주 넓은 면 아니면 여러 개의 선을 나타내는 것
2 육형1		1지와 5지의 손가락이 퍼진 상태로 하나의 형태를 표현		6 구형2	1. 2. 3. 4. 5지를 모두 편 손이지만 마디가 구부러진 형태
3 육형2		1지와 5지의 손가락이 퍼져 있으나 마디가 구부러진 상태로 수어를 시작하는 것		11 구형3	5지와 1. 2. 3. 4지 손가락의 접촉이 있으며 손가락의 마디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
4 구형1		1. 2. 3. 4. 5지를 모두 펴고 손가락 사이의 벌어진 면이 없는 손으로 납작하고 평평한 면 아니면 구획을 나누어 줄 때 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12 구형4	5지와 나머지 손가락 끝의 접촉이 있고 '0'형으로 보이는 것
				13 십형1	1지와 5지의 손가락 끝이 동그랗게 붙어 있으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모두 펴져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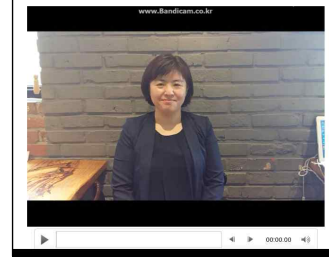
<그림 1-4> 생산적 수어 수형 예시

생산적 수어의 수형을 기반으로 수어 라벨 (타입명)을 정했다. 수형이 다양한 물체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검지형을 가진 생산적 수어는 가늘고 긴 물체를 표현할 수도 있으나 검지형 수형을 다른 각도로 흔들면 무엇을 그리는 붓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맥락 없이 생산적 수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하기 어려운 것이 생산적 수어의 특징이다.

따라서 생산적 수어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전에 우선 고정된 수어와 생산적 수어를 구분하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영상 재생을 하면서 각 나타나는 수어가 고정된 수어인지 생산적 수어인지 논의한다. (이 영상은 공주님이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입은 예쁜 드레스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된 수화와 생산적 수화



[왕자] 수어이다. 고정된 수어이다.



‘치마의 레이스’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이다. 양쪽에 편 수형은 레이스를 의미하고 함께 나타나는 수동은 레이스의 모양을 표현한다. 맥락이 없으면 이 생산적 수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드레스 어깨부분에 있는 퍼프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이다. 한국수어에서 ‘퍼프’라는 고정된 수어가 없고 생산적 수어가 있다. 사람들은 고정된 수어가 없으면 해당 수어가 없다고 오해한다. 사전에 등재하는 고정 어휘가 없어도 수어는 생산적 어휘를 통해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림 1-5> 고정된 수어와 생산적 수어 비교

생산적 수어의 하위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어말뭉치 연구에서는 생산적 수어를 수형으로 분류했다면 여기서는 생산적 수어를 표현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생산적 수어라는 현상은 음성언어에 없는 현상이라 수어 언어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분석 및 분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수어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분류를 소개하고자 한다(Johnston & Schembri 2007, 168-170).

- 가.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 나. 취급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 다.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종류는 4가지가 있다. 모든 개체 수형은 손으로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람, 비행기, 자동차 같은 하나의 개체(완전 단위)를 수형으로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가 있다. 다양한 수형으로 (엄지 수형, 새끼손가락 수형 등)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개체를 수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형이 개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개체 수형의 움직임은 곧 개체의 이동을 나타낸다.

둘째, 집단을 표현하는 수어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군중, 동물의 무리, 곤충 떼 같은 집단을 다섯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이다. 다리를 검지 수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머리를 주먹 수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넷째, 양을 나타내는 생산적 수어이다. 수형이 물의 양, 모래 더미 같은 개체를 표현한다.

취급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는 사람이 물건을 잡고, 조작하고 다루는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 손의 움직임이 곧 취급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취급 수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물건을 잡는 수형이 있다. 가방을 들 때 주로 주먹형을 사용하고 공을 잡을 때는 구부린 손을 사용한다. 물론 공의 크기 따라 수형이 변경된다. 사물의 크기와 모양과 무게 따라 그 사물을 잡는 손이 다르다. 컵을 잡는 손과 열쇠를 잡는 손이 다르다.

둘째, 물건을 조작하는 수형이 있다. 물건의 모양, 크기와 관계없이 물건을 어떻게 조작하는 것 따라 수형이 변경된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과 키보드를 치는 손은 다르다. 초인종을 누르는 수형과 유리창의 먼지를 긁어내는 수형은 다르다.

셋째, 도구, 장비, 악기 같은 것을 다루는 수형이다. 첼로를 다루는 손과 테니스 라켓을 다루는 손이 다르듯이 그것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의 수형도 다르다. 가위를 다루는 수형은 취급 수형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주로 검지와 중지를 편 개체 수형으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의 수형을 SASS(Size-and-Shape-Specifier)라고도 부른다.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수형은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표면을 수형으로 제시하는 생산적 수어가 있다. 표면은 주로 편 손으로 제시한다. 사물의 크기가 작으면 양쪽 수형으로 표면을 제시하며 두 손을 가깝게 배치한다. 두 손의 배치가 서로 멀면 사물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다. 또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편 손으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그리면 된다. 이때 손의 움직임은 표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사물 표면의 크기와 모양을 그려주는 것이다.

둘째, 길이와 둘레를 제시하는 수형이 있다. 예를 들어 구부린 9형의 수형으로 파이프라인과 기둥의 길이와 둘레를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모양의 형태를 제시하는 수형이 있다. 대칭형 모양이면 양쪽 검지수형으로 개체 형태를 그릴 수 있고 모양이 비대칭형이면 비우세손의 검지는 같은 위치에 유지하고 우세손으로 형태를 그린다.

소개한 생산적 분류를 실제로 사용하는 한국수어 말뭉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송미연 외 2020, 122

<그림 1-6> 한국수어 말뭉치에서의 생산적 수어 예시 1

첫 번째 사진에서 수어 화자가 생산적 수어를 우세 손에 편 수형으로 발화한다. 맥락에서 이 수어는 자동차와 같은 개체를 나타 낸다. 위에 소개한 개체(완전 단위) 수형이다. 한국수어에서 자동차는 주로 납작한 구형 수형으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수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비우세손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취급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중 잡는 수형이다. 우세손은 고정된 수어 [보다16]를 표현한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수어화자의 양쪽 손이 파도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이다.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중 표면 수형이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수어 화자가 양쪽 손으로 버스의 앞과 뒷 표면을 제시하며 버스에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출처: 송미연 외 2020, 122

<그림 1-7> 한국수어 말뭉치에서의 생산적 수어 예시 2

첫 번째 그림에서는 수어 화자의 양쪽 손이 고리가 올라간 눈썹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개체 수형 중 신체 부위 수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진에서 수어 화자가 비우세손은 고정된 수어 [전화1]을 발화하고 우세손은 옛날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는 손으로 해석이 된다. 도구를 다루는 취급 수형이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수어 화자가 양손에 검지 수형으로 단말기 화면 모양을 그린다.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이며 모양 둘레를 그리는 수형이다. 세 사진 다 생산적 수어는 검지 수형으로 표현되었으나 각각 다른 종류의 생산적 수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생산적 수어 분류는 한국수어에만 해당되는 분류가 아니다. 세계 모든 수어에는 생산적 수어가 있으며 생산적 수어의 수형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원리로 생산적 수어는 각 세계 수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농인이 각각 다른 나라 수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각 나라 수어의 고정된 수어는 많이 달라도 생산적 수어는 유사한 점이 많아서 소통이 가능하다.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독일 수어로 된 영상을 한국 농인과 청인에게 보여주며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살펴보았다. 농인은 90-100% 이해했고 청인들은 80-90% 이해했다고 한다.



<그림 1-8> 독일수어 영상 캡처(조종사 이야기)

1.4 수어사전 표제어

일반적으로 수어사용자는 수어 어휘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어 표제어와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림 1-9> 음성언어사전의 표제어 개수

언어마다 사전마다 표제어의 개수는 다르지만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개수는 42만 개가 넘는다. 독일어 사전 Deutsches Woerterbuch von Jacob Grimm und Wilhelm Grimm은 표제어가 330,000 정도 등재되어 있고 영국 영어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표제어 개수가 273,000 이며 미국 영어사전 Webster's Dictionary는 표제어 개수가 470,000가 된다. 이에 비해 수어사전 표제어 개수는 상당히 작다.



<그림 1-10> 수어사전의 표제어 개수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한국수어사전은 현재 표제어 개수가 3,600개 정도이며, 호주 수어사전은 표제어 개수가 4,790개, 덴마크 수어사전 표제어수는 2,000개 정도이다. 그리고 말뚱치 기반 독일수어사전은 표제어가 5,000개를 예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어사전의 표제어 개수가 음성언어 사전의 표제어 개수보다 적은 이유는 고정된 수어만 수어사전에 등재하기 때문이다. 수어를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수어의 형태 (수형, 수향, 수위, 수동 및 비수지)와 의미의 관계가 굳어져서 기술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적 수어는 수형과 수동이 맥락 따라 변하며 그 의미도 달라져서 기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할 수가 없다. 즉, 수어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해서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수어는 수어 문법을 따르는 수어 어휘이며 고정된 수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언어학적으로 복합적이며 흥미로운 어휘다. 생산적 수어를 이해 못 한다면 수어의 핵심 어휘 개념을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어원 (2022). 한국수어말뚱치 수집 및 분석. 최종보고서.

송미연, 홍성은, 강창옥, 원성옥, 변강석, 이현화 (2022). 한국수어의 생산적 수어 어휘에서 나타난 도상성 -이미지 형성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109-139.

Johnston, Trevor & Schembri, Adam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 출처: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

호주수어사전: <https://auslan.org.au/dictionary>

덴마크수어사전: <https://www.tegnsprog.dk/>

독일수어사전: <https://www.sign-lang.uni-hamburg.de/korpusdict>

Oxford Dictionary: <https://www.oe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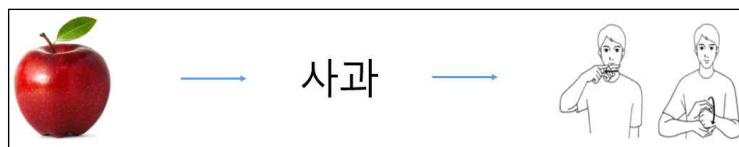
Webster's Dictionary: <https://www.merriam-webster.com/>

Das Deutsche Wörterbuch: <http://dwb.uni-trier.de/>

2. 수어사전

2.1 한국수어, 한국어 단어 그리고 의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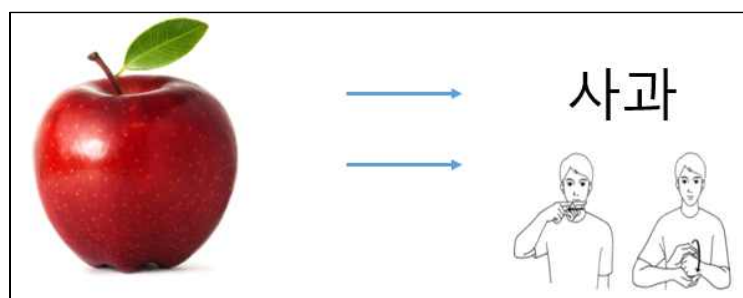
수어 의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수어를 자연언어로 보지 않고 수어를 수지 한국어로 즉 인공적인 보조언어로 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어는 글자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며, 그 의미는 국어 단어에서 파생된다고 가정한다. 즉 지시 대상, 한국어 단어와 수어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잘 못 생각한다(Johnston & Schembri 2007).



<그림 2-1> 한국수어와 한국어

위 그림에서 한국수어 [사과]는 한국어 단어 ‘사과’를 제시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어는 자연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어의 표현이 아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아래 그림 참고). 수어는 단순히 한국어 단어를 수지/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2-2> 한국수어의 의미 관계

한국수어가 한글처럼 실제로 한국어 단어만 제시한다면 한국어 단어에는 하나의 수어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수어에 한국어 번역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수어는 여러 개의 한국어 대역어를 가지고 있다. 한국수어 [아버지]는 한국어로 아빠, 부, 부친, 아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

0:02 / 0:03

0.5배속 1배속 해상도 선택 고화질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때며 1지를 접고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한국어 대응표현

아빠, 부, 부친, 아비, 아버지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2-3> 한국수어 [아버지]

또한 한국어 단어 가방은 가방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개의 수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방, 배낭, 솔더백 그리고 여자 핸드백).

<p>가방</p>	<p>가방</p>
<p>가방</p>	<p>가방</p>

출처: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한국어 표제어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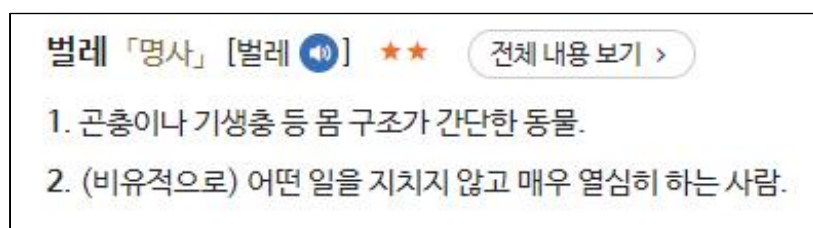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어 [가방]의 수어단어

한국수어는 자연언어기 때문에 수지한국어와 달리 한국어와 일대일 관계를 갖지 않는다.

2.2 한국어의 의미와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일대일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한국수어 사전들은 한국어 단어에 대응되는 수어를 하나로 국한하여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전 사용자에게 한국어에 하나의 수어가 대응되고,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의미가 일치한다는 한국수어 어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현화 202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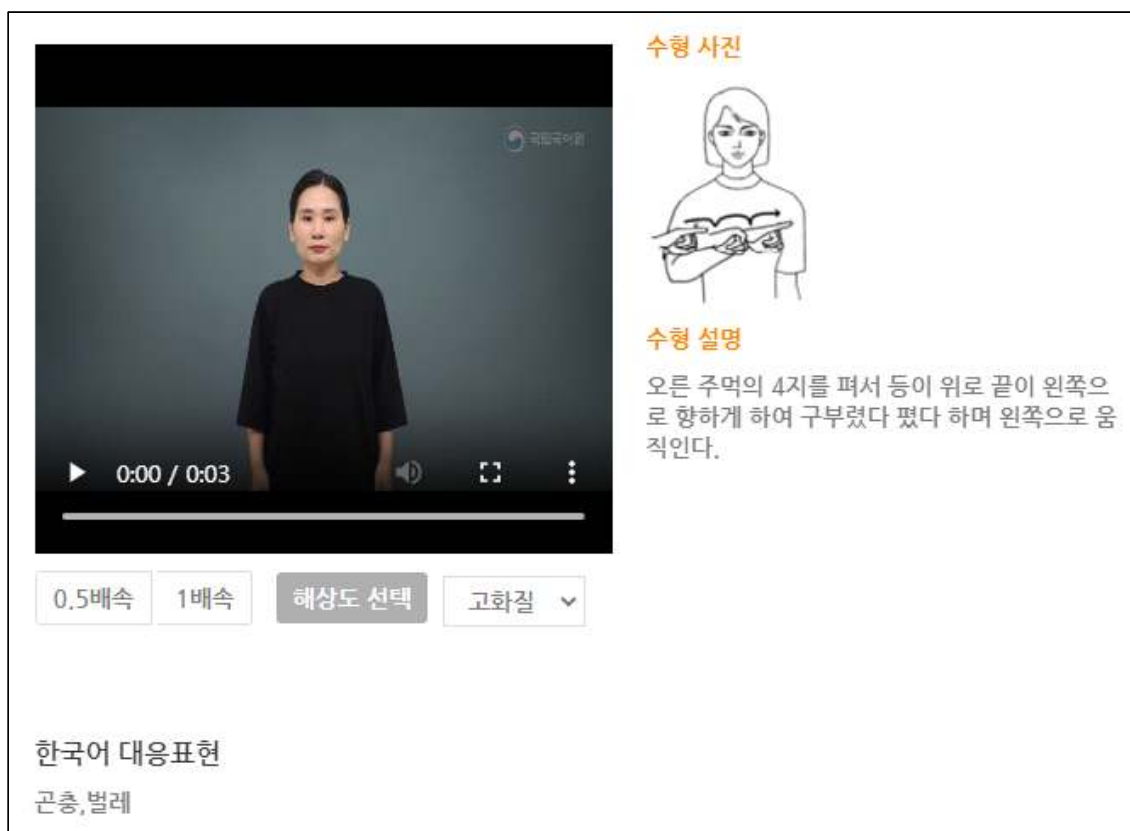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어 단어 ‘벌레’를 한국어 기초사전에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의미가 제시된다.



출처: 한국어 기초사전

<그림 2-5> 한국어 [벌레]의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벌레’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된다.



<그림 2-6> 한국수어 [벌레]

한국수어 [벌레]의 대응표현이 곤충과 벌레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사전 사용자는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되는 의미들이 [벌레] 수어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수어 [벌레]를 농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면 한국어 단어 벌레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벌레] 수어는 곤충과 기생충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병원균, 바이러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어이다.

	한국어 대응표현	뜻풀이
	1. 벌레, 곤충, 기생충, 회충	1. 곤충이나 기생충 등 몸 구조가 간단한 동물.
	2. 병원균	2. 병의 원인이 되며 몸에 해로운 균
	3. 바이러스	3. 유행성 감기, 소아마비 등의 감염성 병원체가 되는 아주 작은 미생물.
	4. 컴퓨터 바이러스	4. 컴퓨터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출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 자료

<그림 2-7> 한국수어 [벌레]의 뜻풀이,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벌레라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일을 지치지 않고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의미는 수어로 [공부] [벌레]라는 합성어로 흔히 표현되어서 다른 표제어로 정리가 된다. 벌레 예시를 통해서 수어의 의미와 한국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3 단일 언어사전과 이중 언어사전


사전은 낱말의 뜻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낱말과 대응하는 다른 나라 말을 제시하기도 한다. 첫 번째는 단일 언어사전이고 후자는 이중 언어사전을 말한다. 사전에서 찾으려고 하는 단어 또한 등재된 낱말을 표제어라고 하고, 그 표제어의 뜻을 뜻풀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언어인 경우 대역어라고 한다. 표제어와 뜻풀이가 같은 언어로 제시되어 있으면 단일 언어사전이고 표제어와 뜻풀이 또는 대역어가 다른 언어로 제시되어 있으면 이중 언어사전이다. 이중 언어사전은 양방향성이 존재한다. 한영사전은 한국어 표제어를 영어로 대역하고 영한사전은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대역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수어사전들이 단일 언어사전과 이중언어사전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0.5배속 1배속 해상도 선택 고화질

한국어 대응표현
곤충, 벌레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오른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구부렸다 폈다 하며 왼쪽으로 움직인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2-8> 한국수어 [벌레]의 대역어,

위 그림에서 수어 영상이 수어 표제어라고 하면 뜻풀이는 한국어 대역어 또한 대응표현으로 제시된다. 이것만 보면 위 수어사전은 이중 언어사전 같지만 이중 언어사전은 양방향으로 편찬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수어사전은 수어를 한국어로 대역하지만 한국어를 수어로 대역하는 것이 없다. 외국에서도 수어사전을 위와 같은 혼합형 사전으로 많이 편찬한다. 하지만 이런 혼합형 사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시범적으로 편찬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이하 수한-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이하 한수-사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2.4 수한 시범 사전 (<https://sldict.korean.go.kr/demondicKor/main.do>)

수한-한수 시범 사전은 앞으로 편찬될 수한-한수 사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편찬한 웹사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수어 말뭉치에 기반하여 만든 사전이며 실제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담았다. 수한사전은 수어 표제어 26개가 등재되어 있고 한수 사전에는 한국어 표제어 25개가 등재되어 있다.



<그림 2-9> 수한 시범 사전

우선 수한 사전을 소개하도록 한다. 이 사전은 크게 한국수어 표제어부와 한국수어 의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부에는 표제어 관련 정보가 보이고 의미부에는 그 표제어가 가진 의미 정보가 보인다.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시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표제어

한국수어 표제어

1
2
2

1
수어문자
3
수형그림
4
입모양
5

0:03 / 0:03

11
부가정보

8
비슷한 형태의 수어

9
동음이의어

7
한국수어 용례

6
1) 없다
뜻풀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일어나지 않음.
7
올래 반역문
나는 학교에서 수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뺨을 보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나는 스마트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0
관련어
동의어
반의어

6
2) (물건이나 돈이) 없다
뜻풀이 물건이나 돈 등이 없음.

수어문자

<그림 2-10> 수한 시범 사전의 표제어 정보

- 205 -

1번은 수어 표제어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옛날 한국수어사전에는 수어 영상 안에 혹은 그 밑에 한국어 단어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상이 표제어인지 한국어 단어 또는 글로스가 표제어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어를 제시할 때는 오직 영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보다는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어의 형태 (수형, 수향, 수위, 수동과 비수지)를 더 정확히 보여준다. 수어 표제어 영상은 일반 속도로 재생하던가 느린 속도로 재생할 수 있다.

2번은 표제어의 변이형을 보여준다. 변이형은 표제어와 조금 다른 수어 형태를 가졌지만 동일한 수어이기 때문에 표제어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예를 들어 [질문하다] 수어에서 검지가 이미를 접촉할 때 오직 검지만 편 수형으로 수어를 할 수도 있지만 검지와 엄지가 편 수형으로 수어를 할 수 있다. 엄지가 퍼졌던 접혀있던 같은 수어이며 수어의 의미는 동일하다. 많은 변이형은 지역별,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수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변이형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가 다양한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수어 변이형이 있어도 소통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는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3번에서는 표제어를 수어문자(SignWriting)로 표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어문자는 미국 Vallerie Sutton 여사가 만든 수어표기법이다. 수어언어학과 수어연구에서는 많은 수어표기법이 있지만 그 중 수어문자가 제일 배우기 쉽고 수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어사전에 수어표기법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어영상은 수어가 잘 보이지만 영상은 글자가 아니어서 배열도 안 되고 검색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 한국수어사전에서는 수어를 글로스로 표기했다. 그런데 글로스는 (예: [벌레]) 한글로 표기 때문에 수어를 한국어 단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수어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수어를 글로스로 표기하면 수어는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수어와 한국어 단어가 일대일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한다. 수어문자는 글로스와 달리 수어의 형태를 담은 표기법이다. 수형, 수동, 수향, 수위, 비수지 같은 요소들이 다 표기된다. 수어를 한국어로 표기하지 않고 수어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수어가 독립적인 언어인 것을 잘 보여주고 그 표기법이 한국수어사전에 있는 것은 사전편찬자들이 수어중심 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번은 표제어의 첫 수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수어문자를 몰라도 수형으로 수어를 검색 할 수 있다.

5번은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입 모양을 보여준다. 모든 수어가 특정한 입 모양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수어는 반드시 특정한 입모양과 함께 나타나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수어 학습자는 그 입모양을 수어 배울 때 함께 배우는 것이 좋다.

6번에서는 표제어의 의미를 볼 수 있다. 의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 2), 3)으로 구분 한다. 수어 [벌레] 같은 경우 의미가 4개가 있으니 1), 2), 3), 4)로 나열이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수어의 의미와 한국어의 의미는 다르다. 오해가 없도록 수어의 의미를 수어 문자로 기록하면 좋겠지만 수어 문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한 농인들도 생각을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익숙하니 수한-사전에서 수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 단어의 의미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수어의 의미를 한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수한-사전에서는 표제어의 의미를 대부분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보여준다. 한국어 대응표현은 해당 수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제일 잘 어울리는 한국어 대역어 또는 한국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딱 한 단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개의 대응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필요할 경우 수어 표제어의 의미를 뜻풀이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낱말의 뜻을 알기 쉽게 밝히는 것을 뜻풀이라고 한다. 위에 예시를 사용하자면 수어 [벌레]의 첫 번째 뜻풀이는 ‘곤충이나 기생충 등 몸 구조가 간단한 동물’이다. 일반적으로 뜻풀이보다 한국어 대응표현이 학습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수한 사전에서는 수어 표제어의 의미를 한국어 대응표현으로 보여준다.

7번에서는 6번의 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용례(예시문장)를 수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벌레]의 4번째 의미가 컴퓨터 바이러스니까 수어 표제어 [벌레]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의미가 잘 보여주는 예시문장이 보여질 것이다. 용례는 표제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영상 아래쪽에는 수어 용례를 수어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수어문자를 잘 아는 사람은 영상 재생을 안 하고도 수어 문장을 알 수 있다.

수어 학습자는 수어 용례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오른쪽에 용례의 한국어 번역이 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한국어 문장을 용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수어 영상에서 보여지는 수어가 용례이고 영상 옆에 보이는 한국어 문장들은 수어 용례에 대한 번역문일 뿐이다.

8번은 수어 표제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수어를 보여준다. 수어가 비슷해 보여 학습자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수어라고 할 수도 있다. 8번에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 수어 영상이 재생된다.

9번은 동음이의어를 보여준다. 동음이의어는 수어 형태가 같으나 뜻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는 별도 표제어로 등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밤색] 수어는 동음이의어이다. 물론 2차 전쟁 때 독일 군인들은 밤색 군복을 입어서 밤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역사가 있었겠지만, 이 두 수어의 연결고리는 현재 농인들이 잘 인식하지 않아서 사전에서는 [독일]과 [밤색]을 표제어 2개로 처리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2-11> 한국수어 [독일], [밤색]

10번에서는 관련어를 볼 수 있다. 관련어는 동의어와 반의어로 구분이 되는데 동의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수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에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의 수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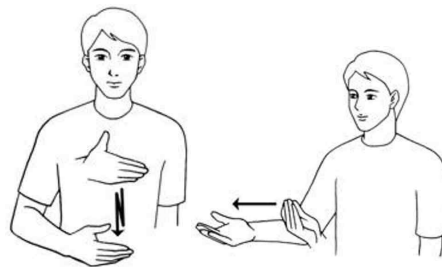
<그림 2-12>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의 수어 표현

각 수어의 형태는 다르나 뜻은 다 같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동의어다. 물론 동의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 동의어의 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의미는 같다.

동의어와 반의어는 표제어별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미별로 제시된다. 표제어가 2개의 의미가 있다면 의미마다 해당되는 동의어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수어 [소개]는 통역, 사회, 변호의 의미도 있고 소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알리다]라는 수어는 두 번째 의미 ‘소개’에만 해당되는 동의어다.



<그림 2-13> [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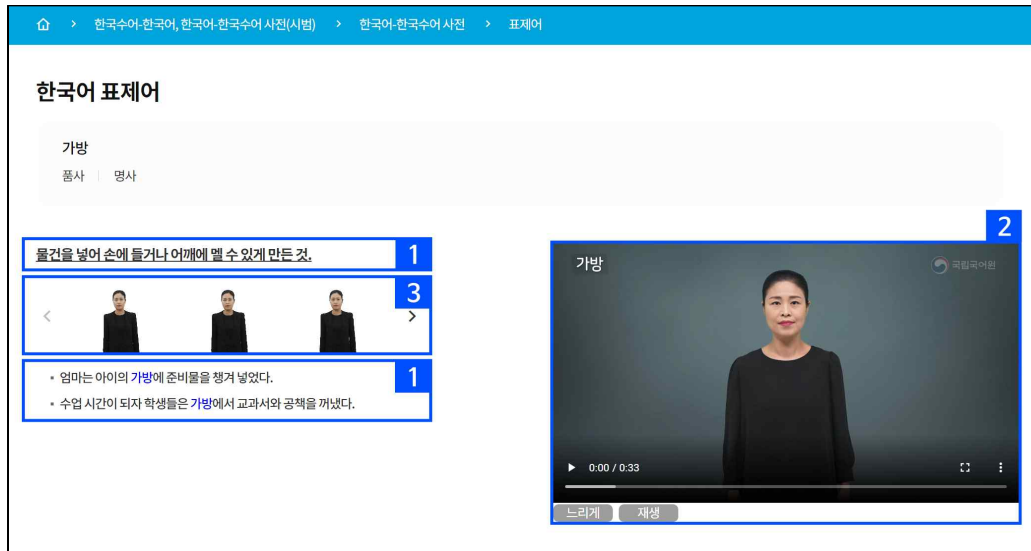


<그림 2-14> [알리다]

11번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부가 정보를 볼 수 있다. 수어 학습자한테 수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어 형태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두 손으로도 사용 가능함) 아니면 문법 정보가 보일 수도 있다 (비교 대상의 위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는 정보 일 수도 있다(예: 첫 번째 의미는 친숙한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음).

2.5 한수 시범 사전 (<https://sldict.korean.go.kr/demondicKor/main.do>)

한수-시범사전도 수한-시범사전처럼 크게 표제어부와 의미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부에서는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의미부에는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의미정보가 보인다.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정보는 다른 많은 국어사전에 이미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국어기초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고려대 국어사전 등) 한수-사전에서는 표제어부 정보가 비교적 간략하다.



<그림 2-15> 한수 시범 사전

1번에서는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뜻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갖은 경우 각 의미는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표제어 의미를 잘 보여주는 용례도 있다. 표제어가 한국어라 용례도 한국 문장이다. 다른 국어사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용례를 볼 수 있으나 한수-사전의 특징은 한국어 표제어의 뜻풀이와 한국어 용례를 2번에 있는 수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는데 한국수어가 더 편한 언어일 경우 2번에 보이는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다. 2번의 수어 영상은 뜻풀이와 용례를 함께 설명한다. 농인들이 수어로 무엇을 설명할 때 항상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문화가 있어서 뜻풀이와 용례를 한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수어 영상 자막에 한국어 뜻풀이와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3번에서는 한국어 표제어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표현이 보인다. 의미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각 의미마다 수어 대응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2.6 마무리

기존의 한국수어사전들은 대부분 한국어 표제어에 대응되는 수어가 하나로 제시되어 있어서 사전보다는 어휘집 수준으로 기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현화 2021).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와 한국수어 표제어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정리하였다. 각 의미에 해당하는 대응표현과 용례를 제시하면서 표제어의 이해와 용법을 넓혔다. 또한 수어 표제어의 형태를 수어 영상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표제어와 용례를 수어문자로 표기하여 수어가 독립적인 언어라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그 외 수어 표제어의 수형과 입모양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수어, 동음이의어와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시범사전은 처음으로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제시하며 수어 학습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전이다.

참 고 문 헌

- 이현화 (2021). 한국수어 사전의 편찬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의미학 72, 199-223.
- Johnston, Trevor & Schembri, Adam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 출처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사전 (시범):

<https://sldict.korean.go.kr/demondicKor/main.do>

3. 도상성

3.1 형태와 의미

모든 언어기호는 형태(형식)와 의미(내용)로 나뉜다. 의미는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형태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는 형태고 우리가 고양이를 들을 때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동물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옆집에 예쁘게 피는 꽃은 의미라 할 수 있고 그 꽃을 ‘꽃’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는 형태이다.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특성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고양이라는 동물과 단어 ‘고양이’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듣고 동물 고양이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학습해서이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고양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무 상상을 못 할 것이다. 또한 동물 고양이가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단어로(예: cat, Katze) 표현된다는 것은 의미와 형태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어에서도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자의성에 기반한 수어들이 많다. 예를 들어 [어렵다] 수어는 우세손으로 볼을 꼬집는 형태인데 한국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림3-1>.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1> [어렵다]

3.2 도상성의 정의와 종류

도상성은 자의성의 반대개념이다. 형태와 의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도상성이라 한다. 한국어에서는 의성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딱똑딱 의성어는 시계의 소리를 흉내 냄으로써 형태와 의미 간 유사성이 있다. 한국수어에서는 [꽃] 수어가 손이 피어가는 꽃을 표현하고 있어 의미와 형태 간 유사성이 잘 보인다.

언어학에서 의성어외 양적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과 거리적 도상성이라는 것도 있다(임지룡 2004).

양적 도상성은 정보 양이 많을수록 단어가 길어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언어는 복수를 표현할 때 형태소가 추가되든가 단어가 더 길어진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다. ‘사람’보다 복수형 ‘사람들’이 길다.

순서적 도상성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이 언어구조에 반영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들어가고 문을 열었다”는 시간적 순서에 어긋나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장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순서적 도상성을 반영한 문장이다.

거리적 도상성은 거리가 멀수록 단어가 길어진다는 특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서도 관계가 멀어질수록 단어도 길어진다.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길고 외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더 길다.

Johnston(1989)은 Klima & Bellugi(1979)을 인용하면서 수어의 도상성을 정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의 수어는 도상성이 직접적이고 투명하다. 같은 사회 및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수어를 보고 의미를 알 수 있는 수어이다. 한국수어 같은 경우는 예시로 [먹다] 또는 [마시다]가 있다<그림3-2, 그림3-3>. 도상성이 이 정도로 강한 수어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호주 수어 같은 경우 수어사전 중 5%의 수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Johnston & Schembri 2017,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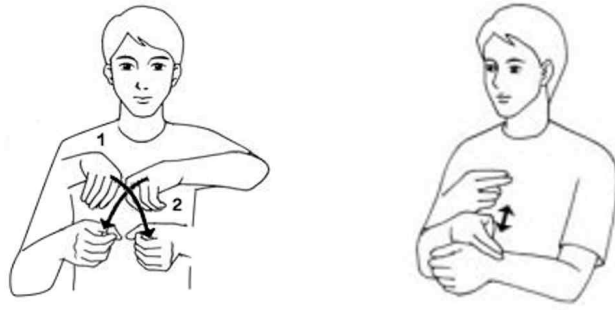


<그림 3-2> [먹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3> [마시다]

두 번째 그룹의 수어는 처음 볼 때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의미를 알게 되면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명확하다. 한국수어 예시는 [화학]이다<그림3-4>. 이 수어는 실험관에 있는 액체를 붓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번 이해가 되면 화학이란 의미와 연결이 쉽게 된다. 수어 자체는 도상성이 강하지만 첫 번째 그룹의 수어는 지시하고자 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면 2번째 그룹의 수어는 지시하고자 하는 개념과 가까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어는 2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 [화학]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5> [교사]

세 번째 그룹은 수어의 도상성이 투명하지 않다. 예시로 한국수어 [교사]가 있다(그림3-5). 이 수어에서는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2지 옆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두 번 두드린다(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해당 표제어 수형 설명). 이것이 흔히 일제 시대 교사 옷의 두 줄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 의미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형태와 의미 관계를 어원적으로²⁾ 해석하고자 하지만 수어의 어원을 근거 있게 기술하기는 몹시 어렵다. 이는 옛 수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네 번째 그룹의 수어는 도상성이 전혀 없다. 오래전에는 도상성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의미와 형태 간에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수어를 말한다. 예시로 위에서 언급한 [어렵다] 수어가 있다<그림3-1>.

3.3 이미지 형성 기법

수어언어학에서는 학문 초기 때 수어가 언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어언어학자들이 도상성 보다는 자의성을 강조하였다. 음성언어는 자의성이 강한 언어기 때문에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더 드러나게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상성은 수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다. 그래서 수어 도상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상성이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도 중요하지만 수어를 제시할 때 어떤 기저 이미지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형성되는지를 알면 도상성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도상성을 잘 설명하는 독일 이미지 형성 기법³⁾(Langer 2005; Koenig, Konrad & Langer 2008)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어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어형태와 의미의 우연한 유사성을 가지고 어원을 설명하는 것을 민간어원이라고 한다. 실제의 어원은 엄밀한 어원학적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3) 독일 이미지 형성 기법은 국립국어원 (2020)과 송미연 외 (2020)에서도 기술이 됐다.

3.3.1 대체 기법

손이 사물 혹은 사물의 주요 부분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수어에서 수형이 비행기의 모양을 표현한다<그림3-6>. 손이 즉 비행기가 되는 셈이라 수위, 수향 그리고 수동이 곧 비행기의 위치, 방향 그리고 움직임을 뜻한다. 대체 기법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수어는 손이 군인의 헬멧 끈을 묶어주는 장치를 표현한다(그림3-7). 그 이미지에서 장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독일] 수어는 수동이 없다. 또한, [독일] 수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일부만 손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기법에서는 사물과 유사한 수형을 사용하며 그 수형의 공간 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3-6> [비행기]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7> [독일]

3.3.2 취급 기법

손이 사물을 만지거나 잡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표현한다. 이 기법에서는 손이 손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어의 수동이 곧 손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기] 수어에서 우세손은 사진기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하고 비우세손은 사진기를 받치는 손이다(그림3-8). 여기서 사진기는 결국 손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포인트이다. [사진기] 이미지에서는 사진기를 다루는 손을 표현하는 도상성이다.

취급 기법은 사물 없이도 이미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가렵다] 수어에서는 우세손이 비우세손을 긁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여기서도 두 손은 실제로 손을 표현한다(그림3-9).



<그림 3-8> [사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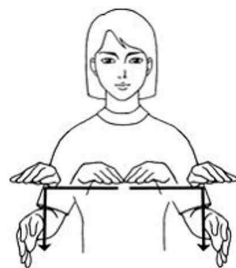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9> [가렵다]

3.3.3 스케치 기법

손이 연필 혹은 붓 같은 스케치 도구가 되며 수동을 통해서 사물의 모양을 그린다. 수형은 대부분 편 손 아니면 검지 수형이 많이 사용된다. 예시로 [탁자] 수어가 있다<그림3-10>. [탁자] 수어에서 양손이 가슴 중간 위치에서 밖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은 사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임이 없는 탁자의 면을 그리는 움직임이다. [삼촌] 수어 같은 경우 비우세손이 나타내는 숫자 3은 한자의 한 부분을 대체 기법으로 표현하고, 우세손의 편 검지 또는 검지 손가락 끝이 붓이 되어 한자 ‘寸’을 쓰듯이 하는 동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케치 기법에 해당한다(송미연 외 2020, 119). [삼촌] 수어에서는 삼촌이라는 친척 기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기저 이미지로 표현한 도상성이다<그림3-11>.

스케치 기법에서는 그리고자하는 사물 따라 수형이 달라진다. 작고 1차원 또는 2차원적인 사물은 주로 검지수형으로 표현하고 크고 3차원적인 사물은 주로 편 손으로 표현을 한다. 수형이 결국 선 굵기를 정하는 셈이다. 붓이 두꺼우면 굵은 선을 그리고 붓이 얇으면 얇은 선이 그려지듯 말이다. 스케치 기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탁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탁자라는 사물을 대체 기법으로 표현하던가 취급 기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수동의 속도가 기저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 기법에서 수동이 빨라지면 사물이 빨리 움직인다는 표현이 되고 취급 기법에서 수동이 빨라지면 손이 그 만큼 빨리 움직여진다는 뜻이지만 스케치 기법에서는 수어를 느리게 표현하거나 빨리 표현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 3-10> [탁자]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11> [삼촌]

3.3.4 도장 기법

손 전체 또는 손 한 부분이 도장이 되어 어디에 압인의 흔적을 남겨 이미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배] 수어는 오른 손이 야간 구부려 외손등을 두드리면서 <그림3-12> 왼손의 손가락 끝이 배에 패턴을 표현 한다. 손 끝이 도장이 되어 압인으로 흔적을 남기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여기서 (대체 기법과 달리) 손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미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압인하기 전의 짧은 수동만 이미지에 기여를 한다. 도장 기법으로는 오직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만 형성할 수 있다. 수동을 빠른 속도로 수행해도 이미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장 기법은 다른 기법 비해 빈도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수화 (한국농아인협회, 2009)

<그림 3-12> [배]

3.3.5 측정 기법

손 혹은 손가락이 사물의 크기, 길이, 넓이나 높이 또한 어떤 범위의 경계를 표현한다. 예시로 [어른] 수어가 있다<그림3-13>. 측정 기법에서 사용되는 수형은 대부분 무표 수형(unmarked hand shapes)으로 표현 된다(예: 펼친 수형, 검지 수형). 측정 기법에서 사용되는 수형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모양을 보여 주지 않고 그 사물의 크기, 길이, 넓이나 높이를 나타낸다. 큰 사물은 편 손으로 작은 사물은 검지 손가락 또한 검지와 엄지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측정 기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할 때 수동은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수동은 크기를 강조할 경우 (생각보다 크기가 크던가, 작을 경우)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어른] 수어) 아니면 대략적인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 나타난다. 수동의 속도는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13> [어른]

3.3.6 지시 기법

손 혹은 검지가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실재하는 혹은 가상의 대상의 위치로 주의를 끌던가 무엇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르키는 기능을 한다. 예시로 수어 [코]가 있다<그림3-14>. 지시 기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할 때는 소수의 수형만 사용한다. 주로 검지 수형 아니면 편 손으로 무엇을 가리킨다. 지시 기법은 다른 기법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그림3-15>. 우세손에는 대체 기법을 사용하며 (예: 사람을 나타내는 엄지 수형) 우세손에는 지시 기법을(예: 검지 수형으로 가리킴) 사용한다.



<그림 3-14> [코]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3-15> 두 기법 사용

3.4 손의 기능, 한눈에 보기

여기서 설명된 형성 기법 6개는 수어에서 나타나는 도상성을 손의 기능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따라 이미지 형성 기법은 다르다. 이미지 형성 기법을 한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3-16>을 살펴보도록 한다.

각 형성 기법마다 손의 역할이 다르다. 물고기의 꼬리를 제시하는 스케치 기법에서는 손이 선을 그리는 스케치 도구의 기능을 하고 취급 기법에서는 손이 칼을 들고 물고기를 잡는 손을 모방한다. 대체 기법에서는 손이 물고기를 대체하여 표현하니 손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측정 기법에서는 손이 물고기의 크기를 보여주는 측정 도구의 기능을 한다. 또한, 도장 기법에서는 손이 물고기의 패턴을 압입하는 도장의 기능을 한다. 이처럼 이미지 형성 기법을 활용하는 수어의 공통점은 수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림 3-16> Langer 2005, 263

형성 기법 6개를 통해서 수어의 도상성을 손의 기능 따라 분류하며 수어가 가진 기저이미지 형성 방법을 자세히 기술 할 수 있게 도와준다. 6가지의 형성기법은 수어의 도상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규칙적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분류사 수형을 배울 때 알게 된 수형의 도상성은 생산적 수어에만 제한됐지만 이미지 형성 기법은 고정된 수어를 포함한 모든 수어 어휘에 도상성을 설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수어의 도상성은 음성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
- 송미연, 홍성은, 강창옥, 원성옥, 변강석, 이현화 (2022). 한국수어의 생산적 수어 어휘에서 나타난 도상성 -이미지 형성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109-139.
- 임지룡 (2004). 국어에 내재한 도상성의 양상과 의미 특성. 한글 266, 169-200.
- Johnston, Trevor (1989). Ausland Dictionary: A Dictionary of the Sign Language of the Australian Deaf Community. Sydney: Deafness Resources Australia.
- Johnston, Trevor & Schembri, Adam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ma, Edward & Bellugi, Ursula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Koenig, Susanne / Konrad, Reiner / Langer, Gabriele (2008). What's in a sign. Theretical Lessons from Practical Sign Language Lexicography. In J. Quer (Ed.), Signs of the Time: Selected Papers from ISLR 8. Seedorf: Signum, 379-404.
- Langer, Gabriele (2005). Bilderzeugungstechniken in der Deutschen Gebaerdensprache. Das Zeichen 70 (5). Signum, 254-270.

4. 수어의 공간사용 및 수어동사

4.1 수어공간

음성언어학과 수어언어학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두 언어는 생성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성언어는 음성-청각 양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수어는 시각적-공간 양식을 사용한다. 손을 움직여 공간에서 언어적 기호들이 생성되는데 주로 수어화자 앞의 공간을 사용한다.

4.1.1 조음공간

수어는 공간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말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구강을 조음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수어의 단어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조음 공간이 있다(국어원 2021, 112). 따라서 모든 수어는 조음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은 음운론적 차원에서 변별자질을 가진 수위소이기도 하다.

4.1.2 통사적 공간 (syntactic/abstract space)

공간 안에 위치가(또는 수위가) 형태론적 차원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수화언어학에서 전통적으로 공간을 지형적 공간과 통사적 공간으로 분류한다.

통사적 공간이란 수어 공간의 어느 위치를 가리킨 후 지시 대상(사람, 사물, 개념, 장소 등)을 표현하여 그 가리킨 위치와 지시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위치 설정(localization)을 하는 것이다(Johnston & Schembri 2007). 위치 설정을 하면 해당 위치는 지시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시 대상의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문법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어화자가 어느 위치에 A라는 사람을 설정하고 수어를 하다가 그 위치를 지시 수어, 시선, 일치 동사를 활용해 다시 가리키면 A를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A의 실제 위치는 상관이 없다. 수화언어학에서는 설정한 위치를 가르키는 것은 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설정한 위치를 지시함으로써 수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제시하는 것이라 이를 통사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림 4-1>은 수어화자 왼쪽에는 남자를 오른쪽에는 여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4-1> 통사적 공간

4.1.3 지형적 공간 (topographical space)

통사적 공간에서는 위치를 임의로 설정하지만 지형적 공간에서는 사람, 사물, 장소의 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설정이 덜 자유롭다. 지형적 공간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식적 공간(diagrammatic space)이고 하나는 뷰어 공간⁴⁾(viewer space)이라고 한다. 도식적 공간에서는 수어화자 몸 앞의 공간이 꼭 축소된 모델처럼 사용된다. 그리고 그 축소된 모델 안에서 사람과 사물을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를 활용하면서 실제 개체의 위치와 배치를 그대로 담는다. 어떻게 보면 실제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물의 위치와 배치를 작은 무대에서 모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 2에서는 두 자동차를 생산적 수어로 표현하며 도식적 공간을 사용한다. 뒷 차가 앞 차를 따라가는 장면을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로 표현한다. 그림 3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라가는 장면을 도식적 공간에서 표현한다. 여러 사람들은 다섯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수형으로 표현하고 한 사람은 검지수형으로 나타낸다. 그림4-2과 4-3에서는 실제 장면을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로 작은 무대에서 표현하는 것이라 도식적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도식적 공간 사용 1 (3차원)



<그림 4-3> 도식적 공간 사용 2 (3차원)

그림 4-2와 4-3은 도식적 공간을 3차원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림 4에서는 도식적 공간을 2차원적으로 사용한다. 2차원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어화자가 큰 지도 앞에 서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림 4-4와 4-5에서 비우세손은 국경선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림 4-4에 우세손은 한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4-5에 우세손은 바다에 있는 섬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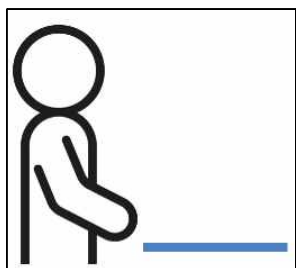
<그림 4-4> 도식적 공간 사용 1 (2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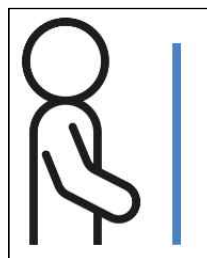
<그림 4-5> 도식적 공간 사용 2 (2차원)

4) 한국수어문법(국어원 2021, 112)에서는 이를 ‘구경꾼 공간’이라고 하나, 구경꾼이라 하면 수어화자가 장면에 개입하지 않는 시청자의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주며 도식적 공간과 혼동이 될 수 있어 (그림 10,11 참고) 여기서는 ‘뷰어 공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3차원 도식적 공간에서는 수어화자 앞에 있는 무대에서 무엇을 배치했다면 (그림4-6) 2차원 도식적 공간에서는 수어화자 앞에 있는 벽에 지도를 상상하여 무엇을 배치하는 것이다<그림 4-7>. 일반적으로 수어에서는 2차원 도식적 공간보다는 3차원 도식적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림 4-6> 3차원 도식적 공간



<그림 4-7> 2차원 도식적 공간

뷰어 공간은 수어화자가 표현하고자하는 장면에서 하나의 인물이 되어 그 장면에 참여 또는 구경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실물 크기로 표현하고 수어화자는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뷰어 공간에서는 취급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가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그림 4-8에서는 수어화자가 직접 총을 손에 들고 누구를 총살하는 장면을 표현한다. 수어화자가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의 역할을 하면서 뷰어공간을 사용한다. 그림 4-9에서는 수어화자가 책을 책장에서 꺼내는 표현을 한다. 구부린 수형으로 책을 실제로 꺼내는 모방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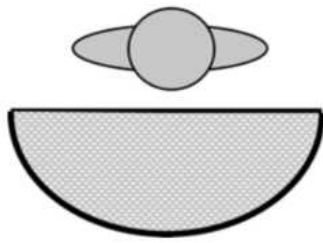


<그림 4-8> 뷰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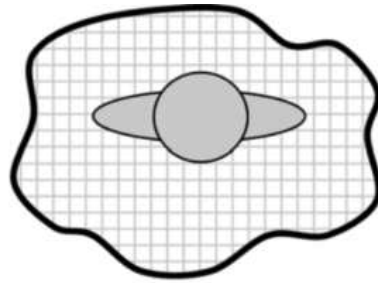


<그림 4-9> 뷰어 공간 ('책을 꺼내다')

수어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도식적 공간과 뷰어 공간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수어를 한다. 도식적 공간에서는 수어화자가 해설자의 위치라 본인은 장면에 개입하지 않는다<그림4-10>. 그런데 뷰어공간에서는 수어화자가 장면에 들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어화자 앞에 있는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화자 옆과 뒤에 있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그림4-11>.



<그림 4-10> 도식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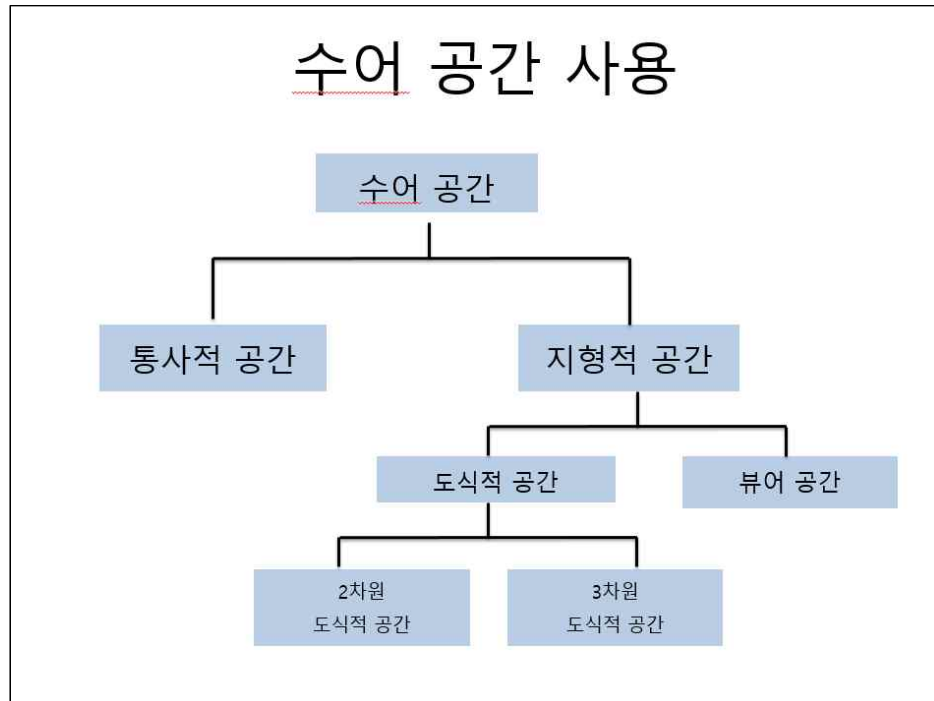
<그림 4-11> 뷰어 공간

수어 공간 사용을 이미지 형성 기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도식적 공간에서는 대체 기법을 사용하고 뷰어 공간에서는 취급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도식적 공간과 뷰어공간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2에 보면 우세손은 개체를 표현하는 수어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나타내면서 도식적 공간을 사용한다. 우세손은 취급을 표현하는 수어로 가방을 매는 것을 나타내며 뷰어 공간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이 가방을 매고 걸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2> 도식적 공간과 뷰어 공간을 동시에 사용함

<그림4-13>은 다양한 수어 공간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수어공간은 일반적으로 통사적 공간과 지형적 공간을 구분한다. 통사적 공간은 공간을 추상적으로 사용하다면 지형적 공간은 실제 공간에 있는 거리, 배치, 방향을 반영하여 사용한다. 지형적 공간은 도식적 공간과 뷰어 공간으로 나뉜다. 도식적 공간은 수어화자가 해설자의 시각으로 장면을 바라보며 수어를 표현한다면 뷰어 공간에서는 수어화자가 한 인물의 역할을 맡아 환경을 실제 크기로 표현한다. 도식적 공간은 2차원 표현도 가능하지만 주로 3차원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그림 4-13> 수어공간

4.2 수어동사

수어언어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어동사를 3개로 나눈다. 이 3개의 동사유형 용어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기서는 일반동사, 일치동사 그리고 생산적 동사⁵⁾로 구분을 한다.

4.2.1 일반동사

일반동사는 동사유형 중 형태론적으로 제일 단순한 동사이다. 예시로 [먹다] <그림4-14>와 [놀다] <그림4-15>가 있다. [먹다] 수어를 사용할 때 누가 먹던 항상 수위가 수어화자 입 앞이다. 대화 속 상대방한테 ‘식사하셨어요?’ 물을 때 [먹다] 수어를 상대방 입 앞에서 하지 않는다. 즉, 일반동사는 주어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놀다]도 마찬가지다. 내가 놀던, 친구가 놀던 [놀다] 수위는 수어화자 배 앞이다. 일반동사는 신체 접촉이 자주 있다. 예시로 [먹다], [공부하다], [자다]가 있다. 신체 접촉이 있다는 것은 수어의 수위가 신체 부분이라던가 신체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신체 접촉이 있는 수어는 수위를 바꿀 수 없다. 신체 접촉이 없는 수어로 [놀다], [살다], [운동하다]가 있다.

5) 한국에서는 생산적 수어가 분류사 (남기현 2012) 또는 공간동사(국어원 2021)로 많이 알려졌다 .



<그림 4-14> [먹다]



<그림 4-15> [놀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4.2.2 일치동사

일치동사는 일반동사와 달리 주어와 목적어 따라 수어의 형태가 변한다. 예를 들어 [제안하다] 동사는 수어화자가 주어인 경우 수동의 경로가 가슴 앞에서 시작하고 앞으로 이동한다<그림 4-16>. 그런데 수어화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제안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우세손의 손끝 방향도 반대로 바뀌고 수동의 경로가 수어화자 향으로 온다<그림4-17>.



<그림 4-16> [제안하다]
'내가 제안하다'



<그림 4-17> [제안하다]
'누가 나한테 제안하다'

수어 수동의 시작하는 위치가 주어를 표시하고 수동의 끝점이 목적어를 나타낸다. 수어동사가 수동 경로가 없는 경우는 손바닥 방향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야단치다] 동사에서는 뚜렷한 경로가 없지만(여러 개의 내부 수동만 있음) 손등이 주어를 표시하고 손바닥 방향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19>.



<그림 4-18> [아단치다]
'내가 누구를 아단치다'



<그림 4-19> [아단치다]
'누가 나를 아단치다'

일반적으로 일치동사의 경로 시작점이 주어를 나타내고 경로 끝점이 목적어를 나타내지만 주어와 목적어 표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역방향 일치동사가 있다. 역방향 일치동사 예시로 [미워하다]와 [흠치다]가 있다. [미워하다] <그림 4-20>에서 수어화자가 주어인데 수어의 경로는 수어화자에서 시작하고 몸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수어화자 쪽으로 이동한다. 즉, 경로 시작점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이며 경로 끝점이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가 된다. [흠치다]도 마찬가지다.



<그림 4-20> [미워하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



<그림 4-21> [미워하다]
'누가 나를 미워하다'



<그림 4-22> [흠치다]
'내가 무엇을 흠치다'



<그림 4-23> [흠치다]
'누가 나한테서 무엇을 흠치다'

역방향 동사를 포함한 모든 일치동사는 통사적 공간을 사용한다. 즉, 주어와 목적어의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일치동사는 위치 설정을 하며 수어화자는 그 위치를 추후 다시 언급할 수 있다.

4.2.3 생산적 동사⁶⁾

생산적 수어는 지형적 공간을 사용한다. 즉, 사물과 인물의 위치, 배치와 서로 간의 거리가 표현되고 그 공간 안에서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생산적 수어는 이미 어휘론에서 기술했듯이 아래와 같이 나뉜다(Johnston & Schembri 2007).

가. 개체를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나. 취급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다.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생산적 수어

어휘론에서는 생산적 수어의 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생산적 수어의 수동을 살펴봐야 한다. 개체 동사의 수동은 개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엄지수형으로 사람 또는 남자를 표현하는 개체 동사의 경로는 실제 사람 또는 남자의 경로를 모방하는 것이다. 개체 동사의 경로가 지그재그이면 지시체인 사람 또는 남자가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4-24>의 개체 동사는 사람의 위치와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체 동사는 도식적 공간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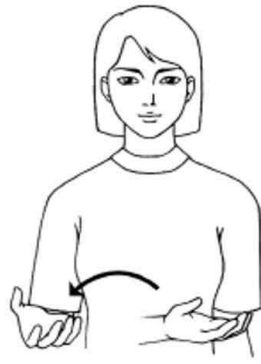


<그림 4-24> 개체 동사

취급 동사는 뷰어공간을 사용하며 환경은 실제 크기로 표현된다. 취급 동사는 수어화자가 무엇인가를 손으로 다루는 것을 표현한다. 취급 동사의 수동은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옮기다] 수어의 수동은 실제로 무엇을 옮기는 손의 동선을 표현하는 것이다<그림4-25>. [키보드 치다] 수어의 손가락 움직임을 실제로 손이 키보드를 칠 때 움직이는 손가락을 나타낸다<그림4-26>.

크기와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의 수동은 무엇의 이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수동으로 모양 또는 사물의 크기를 그리는 것이다.

6) 생산적 동사는 어휘론에서 기술한 생산적 어휘와 동일하다가 할 수 있다. 어휘론에서는 생산적 어휘의 생산적인 측면이 중심이 됐다면 여기서는 생산적 어휘의 동사사용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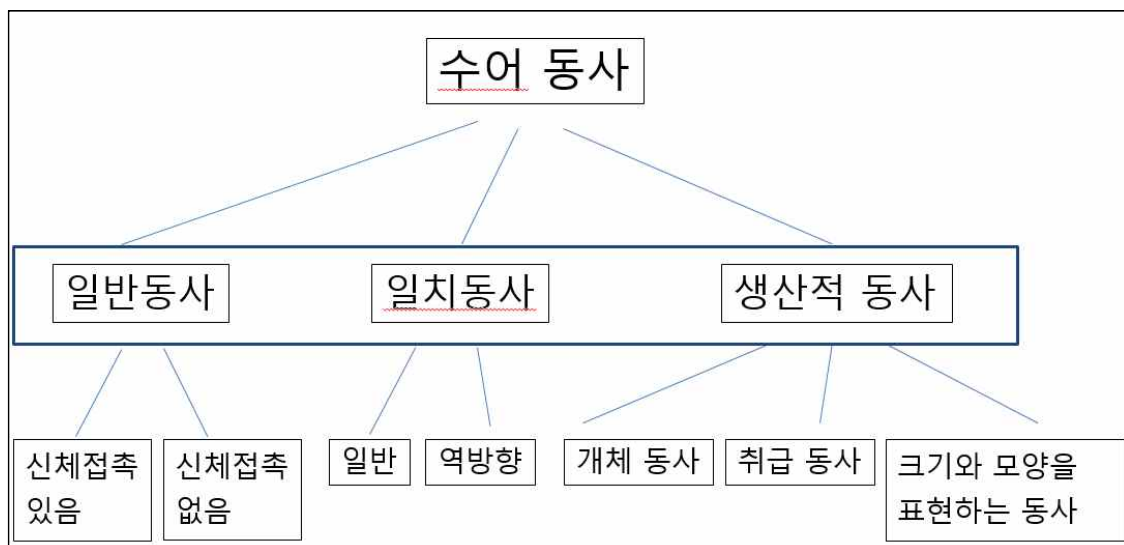
<그림 4-25> [옴기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4-26> [키보드치다]

4.2.4 마무리

수어 동사의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4-27>과 같다.



<그림 4-27> 수어동사 유형

언어학자들은 수어동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각 유형마다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각 유형마다 기반하는 도상성 또한 다르다. 특히 생산적 동사는 수형과 수동의 도상성이 강하다. 개체 동사는 대체 기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취급 동사는 취급 기법을 활용하며, 크기와 모양을 표현하는 동사는 스케치 기법을 활용한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

국립국어원 (2021). 한국수어문법.

남기현 (2012). 한국수화의 기호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Johnston, Trevor & Schembri, Adam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rmiss, Pamela (2012). Use of sign space. In. Pfau, Roland, Steinbach, Markus and Woll, Bencie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412-431.

그림 출처

- 국립국어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 ‘영상 방과 방 사이’ 영상 중.

- 국립국어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 ‘암살’ 영상 중.

- Papaspyrou et al. (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aerdensprache aus der Sicht gehoerloser Fachleute. Seedorf: Signum-Verlag. CD-Rom 영상 중.

- Permiss, Pamela (2012). Use of sign space. In. Pfau, Roland, Steinbach, Markus and Woll, Bencie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419.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ong, Sung-Eun (2009).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zu Kongruenzverben in der Koreanischen Gebaerdensprache. Seedorf: Signum.

- 국립국어원 (2020). 한국수어의 실제. ‘야생마 길들이기’ 영상 중.

5. 수어에서 비수지의 역할

5.1. 비수지

비수지는 손을 제외한 수어를 발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음자를 뜻한다. 머리와 신체, 얼굴에 있는 눈썹, 눈, 코, 볼 그리고 입이 비수지 표지이다. 각 표지는 혼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표지와 함께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미 수화언어학의 초기에부터 학자들은 비수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음성언어와 비교할 때 수어에서는 비수지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어에서 비수지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음성언어와 수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수지로 언어화자의 감정표현, 대화규제, 언어화자가 다른사람의 역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수지가 있다.

비수지 표지는 언어화자의 감정표현을 나타낸다. 언어화자의 솔직한 감정일 수도 있고, 언어화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솔직하지 않은) 감정표현일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표현일 수도 있다. 인간의 감정표현은 비언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권 따라 다르지만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쁨, 놀라움, 슬픔, 분노, 두려움과 혐오를 구분한다.

또한, 비수지 표지는 대화규제의 역할도 한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비수지 표지도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은 상대방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화 중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의 내용을 전혀 따라갈 수 없다든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비수지 대화 규제 중 눈맞춤이 특히 중요하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동시에 말하지 않고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은 눈맞춤을 통해서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화자가 다른 사람을 모방할 때 의도적으로 비수지를 사용한다. 음성언어에서는 누구를 모방할 때 주로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도 있지만 모방하고자하는 사람의 얼굴표정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수어에서는 특히 구성된 행위(constructed action)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감정표현으로 나타나는 비수지 표지, 대화 규제로 나타나는 비수지 그리고 누구의 역할을 하느라고 나타나는 비수지는 음성언어에서도 나타나고 수화언어에서도 나타난다.

5.1.1. 음운론적 역할

음성언어와 달리 비수지 표지가 수어에서는 음운론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비수지가 수어를 구분해주는 즉,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한다. 변별자질이 있다는 것은 음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화언어 기초에서 배웠듯이 수형, 수향, 수위와 수동은 수어소이고 비수지도 수어소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5-1>과 <그림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엽다]와 [아깝다] 최소대립

쌍에서는 수형, 수향, 수위와 수동은 동일하나 비수지만 다르다. 비수지로인해서만 두 수어의 구분이 가능하나 비수지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시는 상대방을 가르키는 [당신]과 3인칭을 가르키는 [그] 수어이다<그림5-3>. 두 수어는 수형, 수향, 수위와 수동이 동일하다. 물론 상대방의 위치 따라 수향과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수어의 형태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두 수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 접촉이다. 검지 수형을 상대방에게 가르키며 상대방을 쳐다보아야 '당신'의 의미가 있다. 같은 위치에서 각도 및 방향 변경 없이 수어를 하고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수어의 의미는 '그'가 된다.



<그림 5-1> [귀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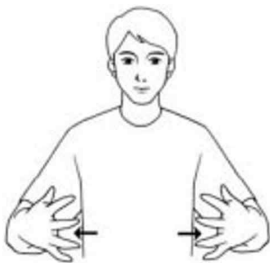
<그림 5-2> [아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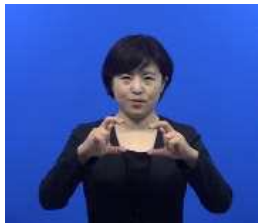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3> [당신] 또는 [그]

5.1.2. 어휘적 역할

특정한 수어는 비수지가 따라 오는 경우가 있다. [슬프다] 수어를 할 때는 얼굴표정 또한 슬프고 [기쁘다] 수어를 할 때는 얼굴표정이 기쁘고 밝다. 주로 감정과 관련된 수어의 비수지가 수어의 의미를 얼굴표정으로도 표현하지만 감정과 관련 없는 수어도 있다. 예를 들어 [싫다] 수어 할 때는 턱을 좌우로 움직인다 <그림5-4>. 여기서 턱의 움직임은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비수지라고 할 수 있다. 비수지가 어휘적 역할을 할 때는 손으로 발화되는 수어의 의미를 그저 복사하는 것이다. 어휘적 역할을 하는 비수지는 수지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비수지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그림 5-4> [똥똥하다]



<그림 5-5> [공]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6> [자동차]

5.1.3. 형태론적 역할

비수지가 행태론적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비수지가 형태론적 역할을 할 때는 어휘적 역할과 달리 자기만의 의미가 있다. 손이 수어를 하고 비수지는 손의 의미와 다른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그림5-5> 수어를 하면서 입술을 내밀고 볼을 부풀리면 공이 크다는 표현이다. 즉 비수지는 부사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비수지를 다른 수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그림5-6> 수어에 입술을 내밀고 볼을 부풀리면 맥락 속에서 자동차가 크다는 뜻이다. 비수지가 특정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형태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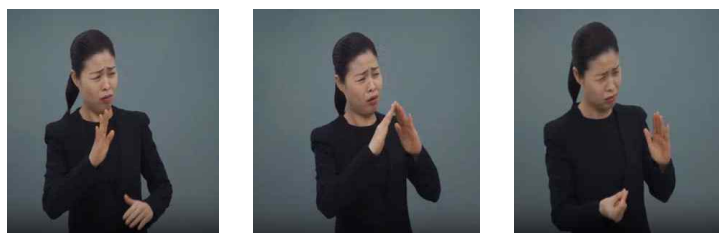
5.1.4. 통사론적 역할

비수지가 통사론적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평서문의 경우 얼굴표지는 중립 상태이지만, 의문문의 경우에는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며 턱은 당겨진다(국어원 2021, 70). 그림 5-7에서 의문 비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7>7) 너 이사 갔어? (번역)

또한 부정문에서 비수지는 부정어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체 문장에서 나타난다. 그림 5-8에서 전체 문장에 눈썹이 내려져 있다. 이것이 부정을 표현하는 비수지 중 하나이다 (국어원 2021, 181)



<그림 5-8>8) 아냐, 이사 안 갔어 (번역).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어에서 비수지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비수지가 발화 할 때 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비수지가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기능이 여러 개의 비수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수어와 결합하는 것 따라 비수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에서 비수지 표지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다.

7)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용례 중

8)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용례 중

비수지 중 제일 연구가 잘 된 것이 입의 움직임이다. 수어에서 입의 움직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5.2 입 움직임

5.2.1 마우스 제스처⁹⁾

입의 움직임을 마우스 제스처와 마우딩으로 나눌 수 있다. 마우스 제스처는 수어를 발화할 때 해당 한국어 단어의 전체 아니면 일부 발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마우스 제스처는 수어의 의미 또는 해당 한국어 단어와 관계가 없는 입 움직임을 말한다. 마우스 제스처에는 입술, 볼, 혀, 턱과 치아까지 포함된다. 그림 9에서 한국수어말뭉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우스 제스처는 대부분 생산적 수어와 함께 나타난다.

연번	입모양	기호	
1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작게 벌림	O1	
2	입 모양에 관계없이 중간정도로 벌림	O2	
3	입 모양에 관계없이 가장 크게 벌림	O3	
4	입을 모으면서 입술을 내밀	B	
5	입이 좌우로 벌어지고 이가 보임	H1	
6	입이 좌우로 크게 벌어지고 이가 보임	H2	
7	입을 다물	-1	
8	입을 더 세게 다물	-2	
9	양쪽 입 꼬리가 약간 내려감	^1	
10	양쪽 입 꼬리가 많이 내려감	^2	
11	왼쪽 입 꼬리만 올라감	<	
12	오른쪽 입 꼬리만 올라감	>	

연번	입모양	기호	
13	왼쪽 볼에 바람을 넣음	(~	
14	오른쪽 볼에 바람을 넣음	~)	
15	양 볼에 바람을 넣음	(~)	
16	양 볼에 바람을 뱉)~(
17	볼 안쪽에서 혀로 볼을 밀어냄	o>	
18	아랫니만 보임	M	
19	윗니만 보임	W	
20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움직임	-	-
21	양악을 엇갈리게 움직임	Z	
22	양 볼의 바람을 내뿜음	(=)	
23	입 안쪽에서 혀를 약간 깨물	C	
24	내민 혀를 입 안으로 집어 넣음	UJ	

<그림 5-9> 한국수어말뭉치에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

각 마우스 제스처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되는 설명도 옆에 있다. 마우스 제스처 기호는 각 나타나는 마우딩을 주석할 때 사용되는 기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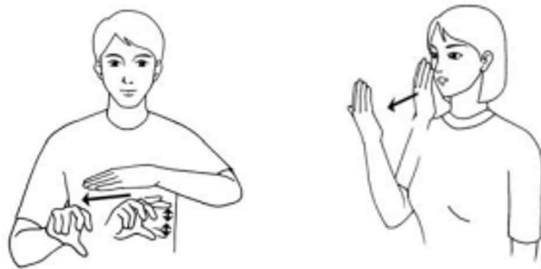
9) 마우스 제스처 내용은 이현화 외 (2018a)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0) 기호는 한글 키보드에서 가능한 기호로 선정하였으며 나름대로 도상성을 살려 만들었다. 예를 들어 15번과 16번의 괄호는 볼을 뜻하고 괄호 사이에 있는 하이픈은 입을 표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마우스 제스처를 Crasborn et al. (2008)은 기능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부사적인 마우스 제스처(A-유형)

이 유형은 입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는 수어에 부사적 정보를 추가한다. 모양, 성질, 정도, 상태 등을 표현하며 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종류의 비수지는 형태소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그림 10) 수어를 하면서 입을 반복적으로 다물었다가 여는 마우스 제스처(-O3~)가 병행하면 지하철의 이동을 표현하면서 수어에 부가적 의미를 더한다. 부사적인 마우스 제스처는 영어 단어 ‘adverbial’을 기 반하여 A-유형이라 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0> [지하철]

<그림 5-11> [가능]

나. 의미가 없는 마우스 제스처(E-유형)

이 유형은 수어와 함께 나타나지만 추가적인 또는 독립적인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도 특정 수어와 함께 필수로 나타나며 마우스 제스처가 누락되면 해당 수어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자기만의 의미가 없는 입 움직임은 손의 움직임을 흉내내어 꼭 ‘메아리’ 같아서 영어 단어 ‘echo’의 첫 글자를 빌려 E-유형이라고 한다. 한국수어에서는 [가능]<그림5-11>수어를 할 때 입이 다문 상태에서 여는 마우스 제스처(-O3)가 E-유형 마우스 제스처이다.

다. 얼굴표정을 나타내는 마우스 제스처(W-유형)

이 유형은 독립적인 입 움직임 보다 얼굴 표정의 한 부분으로 보는 마우스 제스처이다.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징그럽다]<그림5-12> 수어에 병행하는 마우스 제스처는 징그러운 얼굴표정에 일부라서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W-유형 마우스 제스처는 영어로 ‘whole-face’ (얼굴 전체)라는 표현에서 첫 글자 W를 따서 이름을 만들었다.



<그림 5-12> [징그럽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3> [아이스크림]

라. 입의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4-유형)

이 유형에서는 입이 입 자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던가, 씹던가, 외치던가 즉 입이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5-13>에 제시된 [아이스크림] 수어를 할때는 입이 아이스크림을 핥아서 먹는 흉내를 한다.

4-유형 마우스 제스처는 다른 의미를 가진 수어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리] 수어를 하면서 마우스 제스처는 무엇을 외치는 흉내를 낼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요리하면서 외친다’라는 의미가 된다. 입의 역할을 하는 마우스 제스처는 영어로 ‘mouth for mouth’라는 표현에서 ‘for’를 동일한 발음을 가진 숫자 ‘four’ 4를 따서 4-유형명을 만든 것이다.

한국수어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마우스 제스처의 출현빈도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1] 마우스 제스처 출현빈도

분류	빈도	%
E	904	67.0
A	255	18.9
W	150	11.0
4	42	3.1
합계	1,351	100

출처: 이현화 외 (2018, 227)

한국수어말뭉치에서 주석이 된 마우스 제스처 1,351개 중 독립적인 의미가 없는 E-유형 마우스 제스처가 904개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부사적인 의미를 가진 A-유형이 255개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난다. 얼굴표정에 일부로 발화되는 W-유형 마우스제 스처는 150개로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입의 역할을 하는 4-유형 마우스 제스처는 42개로 제일 작게 나타난다.

5.2.2 마우딩¹¹⁾

한국수어에서 마우스 제스처의 현상은 많이 알려졌지만 마우딩이라는 현상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마우딩은 한국수어와 함께 나타나며 해당 한국어 단어를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를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마우스 제스처는 주로 생산적 수어와 나타났다면 마우딩은 주로 고정된 수어와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린이]<그림14> 수어를 하면서 입으로 소리 없이 “어린이” 모양을 하는 것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4> [어린이]

한국수어말뭉치¹²⁾ 자료를 통해서 청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농인들이 마우딩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사용이 체계적이고 언어적 기능을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즉 마우딩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에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한국수어의 마우딩 현상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수어말뭉치 자료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 발화된 수어 중 30%는 마우딩과 함께 나타난다. 또한 마우딩은 주로 고정된 수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특히 강연, 뉴스 같은 종류의 수어를 할 때 마우딩의 출현빈도가 높다. 마우딩이 나타나는 경우 수어의 해당 한국어 단어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그림 5-15>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그림 5-16>.

11) 마우딩 내용은 이현화 외 (2018b)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2) 한국수어말뭉치 수집과정에서는 규칙상 청인이 참여하지 않는다.



마우딩: 어린이



마우딩: 조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5> [어린이]

<그림 5-16> 조심하다

또한 마우딩이 수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정한 경우 마우딩이 수어하나 이상의 수어를 넘어서 길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5-17>에서 제시된 예시에서는 [학교] 수어에 ‘학’ 마우딩만 나타나고 [지시]수어를 할 때 ‘교’ 마우딩이 나타난다.



수어 글로스:
마우딩:

[학교]
학



[지시]
교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7> 마우딩과 수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나 이상의 수어를 넘어서 길게 발화되는 마우딩이 다음 수어까지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수어언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스프레딩(spreading)이라고 한다. 스프레딩은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수어를 더 가깝게 묶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 또는 어절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사적인 기능을 가진 마우딩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우딩은 추가적인 의미나 구체화의 기능을 가졌다.

추가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는 수어의 해당 한국어 단어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어로 [의미]를 하면서 입으로는 ‘뭐’라는 입모양을 하는 것이다. ‘뭐’라는 뜻은 수어 [의미]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동시에 발화가 되면서 ‘의미가 뭐예요’라는 의미가 표현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마우딩은 M-add라고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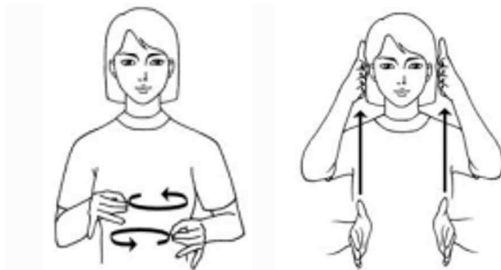
수어 글로스: [의미]

마우딩: 뭉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8> M-add 예시

또한 마우딩은 수어를 더 구체화 시키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수어를 하면서 마우딩은 ‘삼풍백’으로 특정한 백화점의 상호를 표현하는 것이다. 마우딩이 수어를 구체화하는 경우 이것을 M-spec이라고도 한다(영어: specify).



수어 글로스:

마우딩:

[백화점]

삼풍백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그림 5-19> M-spec 예시

한국수어말뭉치에서 마우딩을 살펴봤을 때 3.123번의 마우딩 중 105번(3.3%)는 마우딩이 추가정보를 제공해주던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출현율은 낮지만 한국수어에서 마우딩은 수어와 중복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수어에서 마우딩은 음성언어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농인들의 수어사용을 분석하면 마우딩이란 비수지는 다른 비수지처럼 언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또한 수어학습자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2021). 한국수어문법. 국립국어원.
- 이현화, 원성옥, 허일, 홍성은 (2018a). 한국수어의 마우스 제스처. 건지인문학 제22집, 259-285.
- 이현화, 원성옥, 허일, 홍성은 (2018b). 한국수어의 마우딩. 수어학연구. 제1권 제1호, 1-17.
- Becker, Claudia; von Meyenn, Alexander (2012). Phonologie. Der 머류며 gebaerdensprachlicher Zeichen. In: Eichmann, Hanna; Hansen, Martje; Hessmann, Jens (Eds.) Handbuch Deutsche Gebaerdensprache. Sprachwissenschaftliche und anwendungsbezogenen Perspektiven. Seedorf: Signum-Verlag, 31-59.
- Crasborn, Onno; van der Kooij, Els; Waters, Dafydd; Woll, Bencie; Mesch, Johanna (2008). Frequency distribution and spreading behavior of different types of mouth actions in three sign languages. Sign Language & Linguistics 11-1: 45-67.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 교육론

집필: 원성옥 한경대학교 교수, 1장-3장
이미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교수, 4장

목 차

1.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고 발달하는가?
 - 1.1 언어 습득 및 발달 이론
 - 1.2 수어 습득 및 발달
2. 제 2언어는 어떻게 배우는가?
 - 2.1 제2언어 습득 모형
 - 2.2 언어 교육 접근법
 - 2.3 수어 교육 원리
3. 한국수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3.1 시각언어에 접근하기
 - 3.2 소리 없는 수업의 실제
 - 3.3 의사소통 게임
 - 3.4 과업중심 언어지도
 - 3.5 수어 이해와 수어 표현 지도
 - 3.6 문법 지도
4. 한국수어 평가
 - 4.1 평가의 개념 및 기능
 - 4.2 언어 평가의 개념
 - 4.3 언어 평가의 목적과 기능
 - 4.4 평가의 요건
 - 4.5 언어 평가에 대한 관점
 - 4.6 언어 평가 문항의 유형
 - 4.7 향후 과제

그림 목차

- <그림 2-1> 다양한 형태의 [없다]
- <그림 3-1> 보고 따라 그리기 활동을 위한 자료 예시
- <그림 3-2> 묘사하기 활동을 위한 그림 카드 예시
- <그림 3-3> 이어진 그림 이야기 예시 그림 카드
- <그림 3-4> 사물 조작하기 장벽 게임
- <그림 3-5> 수어마블 게임 예시

이 강좌의 목표는 한국수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수어는 어떻게 습득되고 발달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한국수어라는 언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언어교육 방법을 고찰한 후, 실제 한국수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1.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고 발달하는가?

언어의 본질과 언어 습득 및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론에 직결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언어 습득 및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수어의 습득과 발달 과정을 알아본다.

1.1 언어 습득 및 발달

언어 습득과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어교육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성인의 언어를 모방함으로써 언어가 습득된다고 믿는 교사는 모방과 반복 연습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언어 습득과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언어교육 방법론에서 강조하는 바도 달라진다. 언어 습득과 학습 이론은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론의 근거가 되며 그에 따라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 기법이 결정된다.

언어 습득과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입장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생득론적 입장, 그리고 기능주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언어 습득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언어 습득 이론은 생득론적 입장과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언어 습득은 기능주의적 언어관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고에서는 언어 습득과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의 주요 관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한다.

1)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관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만 관심을 둔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습관의 형성으로 인해 학습된 것인데 그 과정을 객관적 과학주의 방법론을 통해 설명한다. Pavlov의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은 기계적 반복에 의한 학습을 증명한 것이다. 이후 Skinner는 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극과 보상에 의한 강화를 통해 촉진되는 학습을 작동적 조건반사라는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렇게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모방”과 “반복 연습” 그리고 “보상”을 통하여 특정 행동이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즉, 학습은 반복 연습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반복 연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상에 의한 강화라고 설명한다.

유아의 언어 습득도 마찬가지다. 자극과 모방과 강화에 의해 언어 습득도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Skinner(1956)는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원성옥 강운주, 2002. 재인용). 첫째는 ‘Mand’반응이다. 이 Mand라는 용어는 명령(command)와 요구(demand)에서 가져온 것으로, 유아의 발성에 대해 양육자가 명령과 요구로 반응함으로써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의도 없이 “무 무”라는 웅얼이를 할 때 양육자가 그것을 “물”을 달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고 아기에게 물을 주면, 아기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이 되면 그 아기는 물을 원할 때마다 “무”라는 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Tact’ 반응이다. 이 용어는 접촉(contact)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아기의 우연한 발성과 접촉을 연결시켜 접촉한 사물의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양육자가 반응하므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우연히 물을 만지면서 “무”라고 소리를 내었을 때 양육자는 아기가 “물”이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해석을 하고, “우리 아기가 물이라고 말했네.”라고 칭찬하면서 기뻐하며 안아 주거나 뽀뽀를 해 주는 등의 보상을 준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아기는 자기가 접촉한 물과 “무”라는 소리를 연결시켜 물이라는 단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자 속의 쥐가 우연히 막대를 건드려 먹이를 얻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 차차 먹이를 원하면 막대를 누를 줄 알게 되는 원리와 같다.

세 번째는 ‘Echoic’ 반응이다. 이는 어른의 소리를 아기가 그대로 흉내 내어 반향(echoic)하므로 그 단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아기는 “무”라고 할 때마다 양육자가 “아, 물”이라고 하면, 그 “물”에 가까운 소리를 점점 흉내 내기 시작한다. 이때 양육자가 안아 준다거나 하는 보상을 해 줌으로 점차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공통된 입장을 취하는 언어학파는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으로 경험주의 또는 행동주의 언어학이라고도 한다(장신재, 1996).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표출 부분만을 보면서 언어 습득은 자극과 반응 등의 개념을 기초로 한 모방과 반복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습관으로 본다.

이렇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언어 습득을 보는 심리학자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문법 규칙의 습득도 어휘 획득과 마찬가지로 자극과 모방 그리고 보상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반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어순과 같은 문법 규칙을 습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언어교육에서 따라하기, 반복하기, 암기하기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상을 위한 강화와 같은 기법들은 이 행동주의 이론과 구조주의 언어학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습득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무한한 문장을 생성하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즉, 이 이론은 언어의 창조성이 무시되고 있다. 또한 모방이나 반복 연습에 의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면, 양육자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문화에 따라 언어 습득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언어 습득 과정을 보면 그 습득 시기나 단계가 비슷하다는 언어 보편성을 가진다.

행동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 언어학 관점에서 본 언어 습득 이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추상적이고 복잡적이다. 또한 동물과 다르게 상징적인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므로, 동물의 행동 학습 이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을 인간의 언어 습득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둘째, 강화나 보상이 일시적으로 유아의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나, 단순한 모방과 강화에 의해서만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들어보지 못한 말을 유아가 어떻게 배우는가?’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셋째, 단순한 대치

를 통해 문형을 습득하는 것과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관련시켜 설명할 수가 없다. 즉, ‘언어의 심층 구조를 연결하는 추상적 체계를 어떻게 배우나?’와 같은 질문에 행동주의 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

2) 인지주의 심리학과 생득론적 입장

인지주의 심리학은 앞서 말한 행동주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행동주의에서는 자극, 반응, 보상, 반복 연습 등을 학습의 기본 개념으로 하여 언어 습득이 모방, 암기 등을 통한 습관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인지주의는 학습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통찰, 사고, 논리 전개 등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에 관심을 갖고 이 사물의 원리인 지식의 습득은 생각이나 통찰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인지주의 심리학자인 Piaget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언어 습득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언어 발달도 인지 발달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내재된 능력을 바탕으로 후천적 경험에 의해 발달된다고 보았다. 즉,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나 문법을 근본적인 언어 지식으로 보고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습득한다고 하였다.

Austin(1958)과 같은 인지주의 심리학자는 범주화라고 하는 지적 능력을 통해 식별과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언어도 습득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물고기나 새 같은 네 발이 아닌 것을 배제하고 네 발 달린 모든 동물을 ‘개’라고 부르는 과잉일반화 단계를 거친다. 그러다가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도 개와는 다른 것들은 배제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개들을 일반화시켜 가면서 ‘개’라는 단어를 습득한다. ‘아빠’라는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초기에는 모든 남자 어른을 ‘아빠’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아빠와 아저씨를 구분하여 부른다. 물론 이 때 유아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빠와 아빠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언어 습득이 타고난 선천적 능력에 의해 그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생득론이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언어습득기제(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며, 누구나 언어에 노출되기만 하면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언어를 추상적이고 사고적인 관점으로 보고, 타고난 선천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점에서 생득론은 인지주의 심리학의 언어 습득 이론과 비슷하다. 그러나 생득적인 언어습득기제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지적인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생득론의 대표적인 언어학자는 Chomsky이다. 그는 모든 언어는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심층 구조란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으로 언어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이며 의미와 관련된 문장의 구조(보편 문법)을 말한다. 표층 구조란 구문 규칙에 의한 문장의 외형적인 구조로 각기 언어마다 다르다. 유아는 언어를 습득할 때 모든 언어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자신이 노출된 언어의 표층 구조로 바꾼다. 이렇게 심층 구조에서 표층 구조로 바꿀 때 작용하는 것을 변형문법이라고 하며, 이런 변형문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언어습득기제라고 한다.

생득론에서는 단순히 언어에 노출되기만 하면 그토록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

장한다. 어떤 언어든지 발달 과정에는 언어 공통적인 보편 문법(심층구조)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보편적인 발달 순서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언어 습득 역시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에 언어 습득이 더 쉽게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방과 반복 연습보다는 언어의 풍부한 노출과 적절한 시기에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나 문법의 지도를 강조하는 것은 인지주의 심리학과 생득론적 언어 습득 이론을 반영한 언어 교수법이다.

3) 인본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 언어관

행동주의 심리학이 학습 활동 영역을 심리 동작 영역에 두고 반복 연습과 습관 형성을 강조하였다고 하면, 인지주의 심리학은 학습 활동을 인지적 영역에 둔다. 반면에 인본주의 심리학은 학습 활동의 중심을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에 두고 있다. 인간은 정의적 영역에 의해 인간 전체로 배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는 Rogers인데, 그는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습의 원칙은 맥락과 의미의 이해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진실된 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권오랑 김영숙 역, 2012).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도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진정한 의사소통, 그리고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언어 교육관은 사회적 전체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능주의적 언어관과 비슷하다. 기능주의자들은 언어는 의미 전달이 그 주요 목적이므로 언어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 습득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언어의 형식만이 아니라 기능을 중요시한다. 언어의 기능은 의미의 전달이다. 의미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기능주의 언어학자인 Hymes(1972)는 생득론에서 말하는 언어수행과 언어능력이라는 개념에 대응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문장이라는 언어외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보았다. 언어 수행 속에서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의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첫째는 문법적 능력이다. 이 능력은 문법에 맞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둘째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다. 어떤 문장은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이나 관습을 모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다녀 왔니?” “큰 집에 다녀 왔어.”라는 대화에서도 단순히 큰 아버지 댁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끼리는 형무소를 갔다 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담화 능력이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전체 내용 속에서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여자는 착하다.”라는 문장도 어떤 담화 속에 그 문장이 있느냐에 따라 정말 착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라는 문장도 앞과 뒤의 문장 맥락에 따라 ‘나를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학생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넷째는 전략적 능력이다.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끝내는지 어떻게 화제를 바꾸는지를 아는 것도 의사

소통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생득론자들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엄마 물”과 같은 문장을 주축어와 개방어로 보고 첫 문법 단계의 출현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언어의 형식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기능주의 학자들은 비판한다. Bloom(1976)은 언어의 의미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위 두 단어의 연결은 의사소통에서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행위자-행위의 의미 기능으로 엄마가 물을 마시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는 소유자-소유 기능으로 저 물이 엄마의 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셋째는 행위자-대상으로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중요시하고 언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므로,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어 교육방법론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 언어학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1.2 수어 습득 및 발달

90%의 농아동은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따라서 이들의 수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수어 환경(수지 부호 형태)에 노출된 청인 부모 밑의 농유아도 동시성(주체와 서술어를 동시에 발화하는 분류사 수형)이 드러나는 수어의 형태를 발화한다(Gee와 Mounty, 1991). 예를 들면, [자동차]+[가다]라는 수지 한국어에만 노출된 농유아도 시간이 흐르면 두 개의 수어 단어를 나열하지 않고 자동차와 가다를 동시에 발화하게 된다. 이는 시각언어인 수어에도 생득론에서 주장하는 보편 문법 구조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수어 역시 언어 발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즉, 수어를 사용하는 농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아동은 언어 양식이 시각언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청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언어 환경에 놓이며 비슷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 한국 농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므로 본 장에서는 미국 농 유아의 미국 수어 습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언어도 어떤 나라의 언어든지 공통적인 발달 과정을 가지므로 한국수어 습득 발달 지표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 초기 조음 발달 특성

수어에서 혀와 입처럼 조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손, 손가락, 몸, 시선, 얼굴 등이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어린 유아는 조음기관에서 다양한 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미세한 조절이나 통제가 어려워 모국어의 모든 음운을 바르게 조음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발달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즉, 복잡한 음운의 조직은 모음 중성화, 대치, 동화 등의 절차를 거쳐 단순화시켜서 습득하다가 만 7세 경에 어려운 음운까지 정확하게 조음하게 된다(김진우, 2001). 이러한 음운 습득의 순서와 형태는 인간의 선천적인 기제에 의해 어떤 언어에서든지 유사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졌다.

수어의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성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어의 조음기관은 음성언어의 조음기관인 혀나 입보다 비교적 통제가 쉬워 음성언어보다 빨리 발달한다. 그러나 수어에서도 음성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조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소위 아기식 말(baby talk)이 존재한다.

수어의 수형은 그 습득 과정에 따라 무표 수형(unmarked handshapes)과 유표수형(marked handshapes)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무표 수형이란 단순한 손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조음이 쉬우며, 유표 수형이란 미세한 손가락의 통제가 필요하므로 조음이 어렵다. 따라서 수어 습득 과정에서 무표 수형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유표 수형으로 분화해 가는 과정을 밟았다. 또한 농아동의 수어 습득 과정을 보면, 음성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대치, 중성화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즉, 음성언어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조작이 어려운 유표 수형은 무표 수형으로 대치하거나, 모음이 중설모음으로 대치하는 모음 중성화가 있듯이 수어에서도 미분화 중간음에 해당하는 부정형 수형이 보였다(김칠관, 1999). 이는 수어는 손과 손가락이 조음기관에 해당하여 혀나 구강의 통제에 비해 쉽기는 하지만 운동적 수준이 아니라 언어적 기능으로 볼 때는 음성언어와 같은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아가 음성언어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음운적 오류 형태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오류 형태를 보면 음성언어의 발달 과정과 같다. 즉 수어언어 발달 과정에서도 음성언어처럼 대치, 생략, 첨가,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Liddell & Johnson, 1989)

도리고에 다카시(鳥越 隆士, 2001)는 일본 수어 발달 과정에서도 보면, 음성언어에서처럼 유아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수어 표현 즉 아기식 수어(baby sign)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마치다]라고 하는 수어의 경우 조음이 어렵기 때문에 농 유아들은 단순화시켜 수어를 한다고 하였다. 즉, 원래 [마치다]는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도록 위로 편 두 손의 손끝을 모으면서 아래로 내린다. 그런데, 농 유아들은 아래로 내리는 움직임은 없이 그냥 편 손을 모아 쥐기만 하거나, 손을 모아 쥐지 않고 단순히 손을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수형과 수동이 동시에 변화하지 못하고, 수동 없이 수형만이 먼저 나타나거나 수형 없이 수동만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기(繼起)적 출현을 먼저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기식 수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 수어에서는 발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12개월경 [먹다]라는 수어를 할 때 보면, 1에서 4지까지의 손가락을 붙여서 그것을 입에다 갖다 대어야 하는데, 손가락을 다 벌린 채 손바닥을 입에 갖다 대는 것과 같은 아기식 수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어 발달 과정

McIntire(1977), Maxwell(1980), Schlesinger와 Meadow(1972), 그리고 Fischer(1973) 등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된 수어 습득 발달 지표는 다음과 같다(Luetke-Stahlman, 1998).

생후 3개월경 수어를 사용하는 농부모 밑의 농 유아는 수어 용알이를 하였다. 그리고 영어 지문자T 수형이 가능하다. 이는 음성언어 발달에서 유아들이 용알이를 하고 모국어의 음운과 비슷한 소리를 발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 후 6개월경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우물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첫 수어 단어는 9개월에 출현하는데, 늦은 경우는 12개월 첫 수어 단어를 발화하기도 한다. 이는 음성언어가 12개월을 전후로 하여 첫 단어가 출현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아마도 혀와 입의 조음운동보다 손의 조동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나타나는 첫 단어는 수동 없이 수형만 나타나다가 나중에 수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즉, 동시에 수형과 수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형이 먼저 나타난 후에 수형과 수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11개월에는 30개 정도의 수어어휘를 이해하였다. 13-14개월에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 의미의

NO라는 수어를 하고, 두 개의 수어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음성언어에서 한 단어 문장이 나타난 후에 두 단어 문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6개월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였으며, 17개월에는 HOME? CAR? 와 같은 질문을 하는 등 의문문을 산출하였다. 18개월에는 수어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기식 수어가 아니라 성인이 하는 수어와 거의 비슷한 수어를 산출하였다. 19개월에는 참조, 요구, 코멘트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수어를 산출하였다. 22개월에는 수어 절을 산출하고, 모양이 비슷한 수어 단어들을 변별할 수 있었다.

23-24개월에는 ‘손가락으로 지시하기(pointing)’ 체계에 숙달하여 행위자, 수동자, 소유격 등의 다양한 의미 표현을 하였다. 수어에서 ‘손가락으로 지시하기’는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수어 공간을 지시하면 그 공간이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등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따라서 이 손가락으로 지시하기의 출현은 음성언어에서의 문법형태소의 출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는 한국어 발달에서 아동들이 처음에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보문식 문장으로 말하다가, 점차 조사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6개월에서 30개월에는 보다 복잡한 수어 문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위에서 보이는 지문자 단어들도 따라해 보는 등 지문자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0개월에서 34개월에는 분류하기, 명명하기 실제 사람과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문문과 부정문의 형태도 표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발달 순서는 음성언어의 발달 순서와 유사하다.

2. 제2언어는 어떻게 배우는가?

2.1 제2언어 습득 모형

수어 교육은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1언어로서의 교육과 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로서의 교육이 있다. 이 장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수어 교육의 실재를 들어가기 전에 제2언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가설이 실제 수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Krashen & Terrell (1983)은 다음의 5가지 가설을 통해 제2언어 학습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습득과 학습을 구별하고 학습은 습득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습득은 실제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 언어를 사용함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된 언어는 유창한 발화를 가져온다. 반면 학습은 구조화된 교육 방법론을 통해 얻어지는 언어로 문법 체계의 정리와 같은 것이다.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언어는 의식적으로 문법을 생각하며 발화를 해야 하므로 유창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어 교육에서 우리는 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언어 교육 방법론을 자연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제2언어를 습득할 때에도 모국어 습득하는 순서와 유사한 순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에 제2언어 교육에서 이 자연적 순서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작위적인 문법의 체계의 학습 순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수어 교육을 위해서 농아동의 수어 습득과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순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가설은 감독자 가설로 습득은 목표 언어의 유창성을 가져오고 학습은 감독자의 기능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런 대화 상황에서는 규칙을 생각하며 발화할 시간이 없으므로 구조적인 방법인 학습이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생각하면서 발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역할은 언어의 형식에 초점을 맞출 때 필요하다. 즉, 언어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어 교육에서 자연적 접근법을 통해 수어를 습득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의 교정을 위해 구조적인 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어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입력 가설이다. 언어 습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다음 수준의 언어를 입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국어 습득에서 문법과 관계없이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화 형태인 단순형을 사용하여 유아와 양육자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제2언어 습득에서도 단순형의 표현을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 가설은 많은 논란이 있다. 다만 유아의 초기 언어 습득과 발달 과정에서 보면 언어 이해는 가능하나 언어 표현은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기를 거치는 현상처럼 충분한 입력을 통해 제2언어습득을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어 교육에서도 교실 안에서 최대한 음성언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제스처나 도상성이 강한 수어 표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 양식을 통한 충분한 의사소통은 학습자의 수어 습득을 도울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설은 정의적 여과기 가설이다. 정의적 요인인 동기, 자신감, 걱정 등은 언어습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높은 동기와 자신감 그리고 낮은 걱정은 더 많은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수어 교육에서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활동과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조금만 도와 주면 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 계획을 짜야 하며,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이 가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무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습득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서 무의식과 의식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입력이 언어 습득의 열쇠이므로 침묵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침묵의 시기를 영원히 가지는 학습자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으며, 실제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만으로도 제2언어를 유창하게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2.2 언어교육 접근법

언어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어떤 언어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근간으로 한 교수 방법과 인지주의 심리학과 생성주의 언어학을 근간으로 한 교수 방법,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 언어학을 토대한 교수 방법 등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쳐 출현하였다. 같은 언어관에 입각한 교수법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점도 많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관에 입각한 교수법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언어관이 혼합되어 개발된 교수법들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생겨났다.

이러한 언어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방법에서부터 직접적 방법(direct methods), 청화식 교수법 등을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인 교수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체 언어 학습법, 암시적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등이 있다(장신재, 1996). 그 후 최근에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지도를 위한 다양한 교수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언어 교수 방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으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첫째는 구조적 접근법(structured approaches)으로 Krashen 가설에서 말하는 언어 '학습'을 위한 교수법들을 총칭하는 접근법이다. 둘째는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es)으로 Krashen 가설에서 말하는 언어 '습득'을 위한 교수법들을 총칭하는 접근법이다.

1) 구조적 접근법(structured approaches)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언어습득 이론을 기반으로 언어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을 총칭하여 구조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이 접근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경험-분석적 교수 모형을 사용한다.

이 접근법의 대표적인 것은 문법번역식 교육법과 청화법이다. 문법번역식 교육은 매우 고전적인 교수법으로 주로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기초로 문법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단어 목록의 형태로 많은 어휘를 가르친다. 수어 교육에서 한국어 단어와 수어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해서 가르치는 고전적 방법은 일종의 문법번역식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청화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육군에서 군인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특별히 실시하면서 계획된 것이다. 이 교수법은 제2언어 교육을 위한 언어 분석도 음소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음운 표기 등 구조주의 이론에 대한 적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방과 반복 연습에 의존하는 이 방법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문형을 암기하여 자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부분에서 전체에 이른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즉 발음, 단어, 문형의 순서대로 학습하고 암기하여 새로운 언어 습관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교육의 결과는 습관 형성과 규칙의 내재화, 구조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의 획득에는 문법번역식 번역에 비해 효과적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창조성을 무시함으로써 그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구조화된 교수 모형들은 문법 규칙 등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언어를 규정적인 것으로 분석적으로 다룬다. 즉, 엄격하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직접적인 모방, 기억, 훈련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그 언어의 정확한 형태를 문법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를 통해 언어의 유창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조화된 방법들을 사용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실제 등에 나타난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목표 언어의 문장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초언어적 상징(metalinguistic symbol)을 사용하거나, 학생 자신이 산출한 언어를 “훌륭한 목표 언어 형태”와 비교하여 평가할 때 도와준다. 2) 교사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목표 문장 형태나 문법 형태를 강조한다. 3) 학생이 문장을 산출하기 전에 문장 형태를 분류하거나 범주화하는 능력이 보여주는 이해와 인지 정도를 본다. 4) 언어 교수는 대상 학생의 경험, 흥미, 환경적 요구에 기초한다. 각 교육 과정은 기본 문장 형태의 제시 순서와 복문의 도입 순서가 다양하다. 또한 언어 구조 형태를 도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초언어적 상징도 다양하다.

구조적 접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수전략은 Muma(1971)와 Wiig & Semel(1984)이 제시한 모델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첫 번째 모델은 정-오 모델(correct-incorrect model)로 학생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찾아내고, 제시된 문장이 알맞은 것이 되기 위해 특정 구조를 사용할 지 안 할 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완성하기 모델(completion model)이다. 이것은 제시된 문장에서 빠진 부분의 단어를 채워 넣게 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통사 구조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치 모델(replacement model)이다. 이것은 완성된 문형을 제시하고 단일 구나 요소를 선택하여 대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모델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문장을 확장 시키거나 복문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다섯 번째는 뒤섞인 문장(scrambled sentences)으로 마구 놓여진 단어와 구를 순서대로 놓아서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난이도는 조작해야 하는 구조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된 구조의 복잡성을 증가시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모델(revision model)은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문장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장들을 재배열하고 수정하여 비슷한 의미의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들은 수어 교육에서도 학습한 단어와 문장을 다양한 형태의 수어문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평가 활동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접근법은 모국어와 목표 언어의 대조 분석과 귀납적 설명, 집중 연습을 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발화 기술을 강조한다. 둘째 설명과 오류수정, 모방에 의한 발음 학습을 한다. 셋째, 6-8명 정도의 학생과 전형적인 모국어 화자, 언어학자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단위 학습을 한다. 넷째, 설명과 함께 귀납적 문법 학습을 한다. 다섯째, 대화문의 문맥에서 새로운 어휘를 학습한다. 여섯째, 대화문의 모방과 암기를 강조한다. 일곱째, 모국어의 사용을 절제한다.

수어 교육에서도 엄격하게 짜여진 순서에 의해 교사의 수어를 보고 따라 하는 연습 그리고 단어와 문장의 암기를 강조하고, 수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오류를 보일 때 정확한 문법 형태를 획득하도록 하는 교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면 구조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수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이 접근법만으로는 유창한 수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es)

자연적 접근법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아니라고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2언어도 습득하게 해야 하므로 언어를 전체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모국어의 습득 순서와 같은 순서로 언어를 발달시키고자 한다. 즉 앵무새처럼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언어가 아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사용을 권장하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Groth, 1958: 원성옥 강운주(2002)에서 재인용)

언어 규칙은 명시적으로 교수되는 것이 아니며, 암기나 언어 훈련 없이 노출, 모방, 확장 등을 통해 규칙들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언어 교수법들을 총칭하여 자연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연적 접근법에 의한 언어 교수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에 기초하여 고안된 실제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형태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주므로 귀납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언어 원리들을 습득하게 한다.

이 접근법의 시작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최초의 반작용으로 Pestalozzi에 의해 주창되어 1850년 경에 Marcel, Heness, Suaveur 등과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그 후 Krashen과 Terrell(1983)에 의해 신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은 앞에서 설명한 Krashen의 5가지 가설에 기반한 교수 모형들로 그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교육의 목표는 당면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다. 둘째, 언어교육은 학습자의 문법 지식이 차츰 수정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넷째, 언어습득의 성공요인은 인지적 요인이 아니라 감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수 모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은 형태보다 내용을 강조하며 주로 의사소통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많은 어휘의 습득과 이해력 개발을 처음부터 강조한다. 셋째, 구조(문법) 연습은 수업 시간 이외에 하도록 한다. 넷째, 오류수정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므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발화를 수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의사소통 중심 교수는 모국어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직접 교수법과는 달리 수업에서 목표 언어를 사용하지만 간단한 문법 설명을 위해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른 방법은 문법 설명이나 반복 훈련과 연습은 과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 문법 형태(구조)

연습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교실 수업 후에 스스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습과 교실 내의 의사소통 활동이 결합되어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창성을 강조하여 교사가 오류 수정을 자제하므로 오류가 굳어져서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게임, 질문하고 답하기, 이야기하기, 그리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들을 고안하여 수어를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수 목표와 내용의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농유아의 수어 발달 연구가 필요하다. 수어 발달 연구 결과는 수어 교육에서의 내용 선정, 즉 어휘와 문장의 선정 및 배열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3 수어 교육 원리

수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용해온 교재(materials)들이 교수 방법이나 접근법에 확실하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수어 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재가 수어 단어와 문장의 목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대부분의 수어 교육이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수업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원성옥 강운주(2002)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을 위한 수어 교육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어 수업에서 농 사회와 농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사회의 어떤 측면에 대한 토론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농사회를 방문하거나 농사회 행사에 참여도 한다. 이는 수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이기 때문이다. 수어 의사소통 능력은 수어 어휘와 문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 뿐 아니라,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농문화와 농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언어 교육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에 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어 수업에서는 최대한 수어에 많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수어 강좌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수업에서 음성언어(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거나 문자로 써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목표 언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것이 어휘나 문법의 발달에 긍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주당 3-6시간 정도의 수어 수업에서 교사가 수어 대신 음성언어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한국어에 해당하는 수어 단어를 하나씩 손갈로 떠다 먹이듯이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은 수어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방법을 결코 터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음성언어로 생각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수어로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시각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르다. 학습자들은 수어 수업의 초기부터 시각으로 의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셋째, 수어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수어로 의사소통할 욕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활동 자체가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것이어야 하며 수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수화 강좌에 처음 참여한 사람은 수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최소한

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욕구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결코 수어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가 없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이러한 수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수어로 의사소통하겠다는 욕구로 변화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화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성공적이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조화된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의미있고 흥미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방 활동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의사소통 게임과 같은 교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수어 교육을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의사소통 활동이 필요하다. 대화문의 모방과 반복은 그 자체로는 의사소통이 아니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대화 상황, 즉 스크립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어문 스크립터는 학습자들에게 수어에 대한 의미있는 노출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수어 문법 형태에도 많이 노출시킴으로 수어 의사소통 능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섯째, 언어 학습은 특별히 성인들의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의식적인 과정이며 교사가 산출해 내는 말의 모방만은 아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수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을 더 오래 기억하고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의미있는 의사소통 기회를 가진 후에 최소한도의 설명이 뒤따르면 훨씬 효과적이 된다. 즉 학습자들이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갖지 않게 하려면 교사는 수어 문법이나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제공은 수업 시간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수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분명한 내용의 전달이 되므로 바람직하다.

여섯째, 어떤 언어 교육에서든 제재와 활동은 목표 언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교실에서 배울 때 실제로 목표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 방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어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수어 어휘 빈도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어의 자연스런 사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제재와 활동들이 농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 형태와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어는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1>의 '없다'라는 의미의 수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그 형태에 따라 의미역에 차이가 있다. 아래의 없다라는 의미의 수어 어휘 중 첫 번째 것은 가장 무표적인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외의 수어 단어는 물론 '텅비다' '가진 것이 없다' 등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한국어 단어로 대응해서 지도하기 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수어 어휘가 사용되는지를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있는 맥락 안에서 수어 어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다양한 대화문(스크립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sldict.korean.go.kr/front/main/main.do>

<그림 2-1> 다양한 형태의 [없다]

이 외에도 같은 형태의 수어가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어의 의미와 사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 농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일곱째, 학습 과정에는 오류가 발생하며 이것은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것이다.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완벽한 수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사는 학습자들이 하는 실수의 형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러한 오류가 나오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오류의 형태와 원인의 분석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진보를 했는지 아닌지, 더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습자의 잠재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어휘에서의 오류는 주어진 어휘를 지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산출할 때의 곤란에 기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것은 교사가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수용과 표현에서의 준비(시각적 변별, 시각적 기억 등)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오류는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교정도 쉽다. 그러나 어휘의 오류는 어휘의 의미 영역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것은 보다 복잡한 것으로 교사의 교수 방법이나 학습자의 탐색 능력에 기인할 수 있다. 교사가 수어 어휘나 문장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을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제공하는 식으로만 가르칠 때 이러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수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1 시각언어에 접근하기

수어는 시각 언어이다. 따라서 수어 교육의 입문반에서는 시각 양식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과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시각 언어 접근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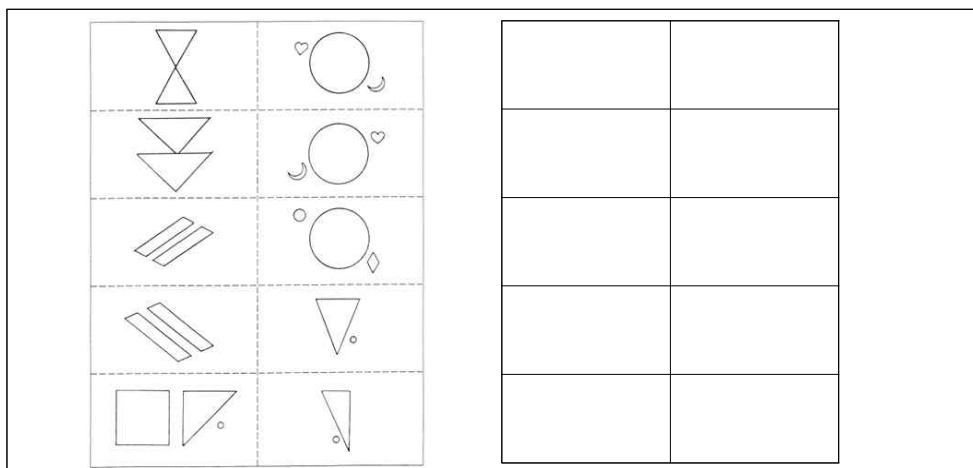
1) 시선 맞추기와 모방하기

수어는 시각을 통해 수용하고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청인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상대자와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명 거울 게임(mirror game)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사가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마주 보고 선다.
- 먼저 교사가 어떤 동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그대로 따라 한다.
- 행동을 따라 한 사람이 교실의 다른 한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서로 마주 보고 선다.
- 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면 불러 나온 사람이 따라 한다.
- 행동을 따라 한 사람이 교실의 또 다른 사람을 불러 위와 같이 따라하기 게임을 한다.

2) 보고 따라 그리기

이 활동 역시 시각적 조망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은 <그림 3-2>와 같은 한 세트의 그림 종이를 사용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빈 칸이 있는 종이를 제공하고 교사가 앞에서 표현하는 도형을 보고 학생들이 주어진 종이에 그리는 활동을 한다. 다음에 학생들이 둘씩 짝지어 한 세트의 그림을 나누어 가진 후 한 사람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그리는 활동을 한다. 이어 다른 세트의 도형 그림을 나누어 주고 그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그림 3-1> 보고 따라 그리기 활동을 위한 자료 예시

3.2 소리 없는 수업의 실제

이 절에서는 수어 수업에서 한국어(학습자의 모어인 음성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수업의 절차를 소개하고 설명한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대답 대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교수 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업의 실제이다. 첫 학습 어휘에서부터 교실 내에 있는 대상들과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절대로 수어와 말을 동시에 해서는 안되며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물이나 그림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상황과 세팅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만약 어떤 어휘의 의미가 대상이나 그림의 사용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면, 교사는 제스처나 마임을 사용한다. 교사는 절대로 한국어 단어를 제시하거나 음성언어로 번역을 채 주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실의 수업은 교실 밖 실제 일상적인 상황들로 전이되어 학습자의 수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어휘와 구문 습득을 위한 활동 중심의 수업은 사물이나 그림 활용하기, 그림 묘사하기, 순서대로 그림 이야기 배열하기 등이 있다. 어휘 발달을 위한 사물과 그림의 활용은 목표로 하는 수화 언어만을 사용하여 주어진 그림이나 사물의 이름을 익히는 것이고, 그림 묘사하기는 어떤 행위나 모양, 성질이 드러나는 간단한 그림을 보고 수어로 묘사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그림 이야기 배열하기는 순서가 있는 그림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수어로 이야기 해보는 활동과 수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순서대로 그림을 배열하는 수용 활동이 있다.

다음은 Baker-Shenk와 Cokely(1980)가 제시한 교사가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수어만을 사용하여 수어 어휘와 구문 발달을 꾀하는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은 사물과 그림 카드 활용하는 활동, 그림 묘사하기 활동, 이어진 그림 이야기를 활용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수업 활동에 대한 지침은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제시 활동의 절차, 연습을 위한 상호작용적 제시 활동의 절차, 그리고 마지막 배운 내용을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한 제언으로 구성된다.

1) 어휘 발달을 위한 사물/그림카드 활용하기

이 활동의 목표는 학습자가 어휘를 발달시키고 어떤 요구에 수어를 사용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한국어로 설명을 달지 않고 목표로 하는 어휘를 직접 학습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처음에 그 어휘에 노출되고 모방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질문이나 명령에 반응하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수어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어휘를 지도할 때는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어휘를 배우도록 한다. 즉, 추상적 개념의 어휘 역시 한국어 단어로 번역하지 말고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맥락 안에서 의미를 추론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목표 어휘를 지도할 때는 유의어와 반의어, 상위어와 하위어 등을 함께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a) **준비:** 교사는 목표로 하는 어휘세트를 확인하고 각 어휘에 대한 사물이나 그림을 수집한다.

b) **제시:** 교사가 교실로 모든 사물을 가지고 온다. 적절한 시기에 사물을 무작위로 책상 위에 놓는다. 교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첫 번째 사물(책)을 가리키고 해당하는 수어(책)를 한다. 같은 수어를 두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한다.

2) 학생들을 향해 제스처나 시선을 통해 교사가 하는 수어를 따라 하게 한다.

3) 다음 사물로 가서 1)과 2)를 반복한다.

4) 세 번째 사물로 가서 1)과 2)를 반복한다.

5) 첫 번째 사물로 되돌아가서 그 사물을 가리킨다. 얼굴 표정과 제스처로 학생들이 지시하는 사물에 대한 수어를 해 보도록 시킨다.

6) 학생들이 그 수어를 하면 두 번째 사물이나 세 번째 사물로 가서 5)를 반복한다.

7) 교사가 모든 사물들에 대해 위와 같은 절차를 다 진행한 후에 몇 개의 사물을 무작위로 지적하고 제스처나 얼굴 표정으로 해당하는 수어를 하도록 시킨다. 이 때 한 사람씩 지적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집단으로 반응하게 할 수도 있다.

8) 학생들이 7)을 쉽게 대답하게 되면, 교사는 사물을 다시 재배치한다(세 개의 책과 세 개의 공와 세 개의 연필 등... 또는 빨간 책과 갈색 공, 검은 연필 등)

9) 교사가 한 책을 가리키고 빨간 책이라는 수어를 한다. 그것을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하고 학생들이 따라 하게 한다.

10) 교사가 각 사물(빨간 책, 갈색 공, 검은 연필)을 가리키고 단계 9)를 반복하고, 나머지 사물에 대해서 같은 절차로 실시한다.

11) 교사가 사물을 지적하고, 제스처나 얼굴 표정으로 학생들이 해당하는 수어를 하게 한다.

12) 교사가 각 사물에 대해 9) 10) 11)을 반복한다.

13) 교사가 7)단계(몇 개의 사물을 무작위로 지적하고 제스처나 얼굴 표정으로 학생들이 알맞은 수어를 하도록 시킴)를 한다.

14) 교사가 특정 사물(검은 공)을 지적한 후에 수어로 [빨강] [차?]라고 질문을 한 후에 대답 [아니오]를 한다(이 때 부정적인 얼굴 표정과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오'라는 수어를 함). 교사는 빨간 차를 가리킬 때까지 다른 사물을 가리키며 [빨강] [차?]라는 수어를 계속한다. 마지막 빨간 차를 지적할 때의 대답은 [예]라고 한다(긍정적인 표정과 고개를 끄덕임).

15) 다른 사물을 사용하면서 이 질문과 대답 절차를 계속한다.

c) 상호작용적 제시 활동: 제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어 어휘에 숙달되면 교사는 목표 어휘에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고안된 일련의 명령이나 질문을 한다. 또한 새로운 어휘를 이 절차 속에서 소개할 수도 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1) 교사가 특정 학생을 지적한 다음에 그 학생이 교실 앞으로 나오도록 제스처를 한다.

2) 교사가 [나][너][빨강][책][주다]라는 수어 문장을 한 후에 빨간 책을 그 학생에게 내민다. 교사가 다른 사물을 가지고 이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한다(이 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주다라는 수어의 수형이 달라지는 문법 요소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유인물로 제공하거나 마지막에 간단히 설명을 함).

3) 교사가 학생에게 [너][나][빨강][책][주다]라는 수어를 한 후 학생과 시선을 맞추고 기다린다. 만약 학생이 교사에게 빨간 책을 주지 않으면, 제스처를 사용하여 학생을 도와준다. 학생이 빨리 반응할 때까지 다른 사물을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한다.

4) 다음의 연습에서는 몇몇 명의 학생들을 불러 내어 한다.

5) 학생 수가 충분할 때는 두 명의 학생을 교실 앞에 나오게 한다.

6) 교사가 한 학생에게 [빨강][공] [너] [얼굴이름] [주다]고 수어를 한다. 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그 공을 주면,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검은 차를 그에게 주라] 또는 [검은 차를 나에게 달라]라는 수어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어휘를 바꿔가면서 학생이 숙달되어 빠르게 반응할 때까지 계속한다.

7) 다음에 교사는 학생 세 명을 앞으로 불러 내고 그 중 한 명을 교사를 대신하게 한다. 한 학생이 교사를 대신하여 ‘누가 누구에게 사물을 주라’고 수어를 하면 그에 따라 두 학생이 사물을 주고 받게 한다. 수어를 하는 교사의 역할을 세 학생이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

8) 교사는 학생들을 세 명씩 짝짓게 하고 7)의 절차를 계속하도록 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이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d) **제언:**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나에게 준다] [내가 그에게 준다]의 수어문장으로만 제한시켜 하지 않는다. [보여주다] [던지다]와 같은 동사들도 소개하고 대치하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사물이나 사물의 그림도 다양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이 매 수업마다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의 수어 구문에 많이 노출되게 한다. 음성언어(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이 가지는 이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특정 행위를 포함한 수어 지시나 질문에 응답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사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배운 수어 어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이점은 어휘를 의미있는 맥락 상황에서 획득하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표현 기술을 획득하기 전에 이러한 수용 기술을 개발시키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점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길어야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 내에서 매우 많은 학생들이 빨리 연습하고 경험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화시킬 수 있다.

2) 어휘 발달을 위한 그림 묘사하기 활동

이 활동은 수어로 사건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킨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만화 그림이나 사진 자료가 효과적이다. 모든 묘사와 상호작용은 목표 언어인 수어로 이루어진다.

a) **준비:** 교사는 여러 가지 특정한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선택한 후에 이러한 그림에서 수업시간에 초점을 맞출 목표 어휘 목록을 만든다. 목표 어휘는 [아들] [딸] [엄마] [아빠] [공차다] [낚시하다] [공] [물고기] 등이다. <그림 3-2>은 그림 묘사하기 활동을 위한 그림 카드의 예시이다.

b) **제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첫 번째 그림 카드를 ppt로 제시한다. 몇 초동안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게 한 후에 다음의 절차를 진행한다.

1) 교사가 그림의 주요 인물 중 하나를 지정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수어 [아빠]를 한다. 그 수어를 2-3번 정도 반복한다.

2) 학생들에게 제스처와 움직임을 통해 앞의 교사의 수어를 따라하게 한다.

3) 다음의 주요 인물인 [아들]에 대해서도 1)과 2)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사물 [공]도 위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이 수어를 하게 한다.

4) 교사가 한 인물([아빠])를 지정한 후에 제스처와 의문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아빠]라는 수어를 하도록 한다.

5) 학생들이 [아빠] 수어를 하면, 교사는 그림의 다음 인물을 지적하고 4)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공]이라는 어휘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익히도록 한다.

6) 학생들이 모든 주요 인물과 목표로 하는 어휘들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수어를 산출할 때까지 이 절차를 계속한다.



<그림 3-2> 묘사하기 활동을 위한 그림 카드 예시

7) 교사는 그림의 인물의 특성에 대해 한 번에 한가지만을 묘사한다. 이 때 가능하면 비교나 대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아들] [키작다], [아빠] [키크다]를 하고, [아빠] [서있다]와 [아들] [공차다]라는 수어를 짝을 지어 한다. 이 때 이전 수업에서 색깔 이름 수어를 배웠다면 인물의 옷 색깔을 표현해 보게 할 수도 있다.

8) [아들][키작다]와 같이 한 인물을 묘사한 후에 학생들이 그것을 모방하게 한다.

9) 다음에 교사는 학생들이 [예]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아들][키크다?]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고, [아들][공차다?]라는 질문에는 [예]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10) 목표로 하는 인물과 묘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일관성 있고 빠르게 대답할 때까지 이 질문-대답 절차를 계속한다.

11) 다음에 교사는 다음 그림으로 바꾸어서 1)에서 10)까지의 절차를 반복한다. 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3장 정도의 그림이 적당하다.

c) 상호작용적 제시: 학생들이 제시 절차에 숙달하면 목표어휘를 강화하고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는 지시나 질문을 시작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2) 교사가 의문을 나타내는 안면 표정과 함께 [아들] [무엇?]라는 수어를 하고 학생은 그림에서 아들을 지적하도록 한다. 다음에 다시 [아빠][무엇?]라는 질문에 학생이 아빠를 가리키도록 한다. 이때 학생이 대답을 못하면 교사는 아들을 가리키고 [아들]이라는 수어를 반복해 준다.

3) 학생이 바르게 답할 때까지 2)의 절차를 반복한다.

4) 한 번에 여러 명의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5) [무엇?]이라는 질문에 학생이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한다.

6) 다음은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 낸 다음에 [공차다] [누가?]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게 한다.

7) 학생이 답을 하지 못하면 교사는 아들을 가리킨 다음에 [아들] [공차다]라는 수어를 해 준다.

8) 교사는 [크다] [누가?]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게 한다.

9) 학생이 [누가]라는 질문에 맞게 대답할 때까지 도와준다.

10) [누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앞에서 익힌 수어문장을 표현할 때까지 6)과 7)의 절차를 반복한다.

11) 이러한 질문에 학생들이 숙달되게 대답을 한다고 느껴지면, 학생을 앞에 나오게 하여 [누가?]와 [무엇?]라는 질문을 섞어가며 하고 학생이 적절하게 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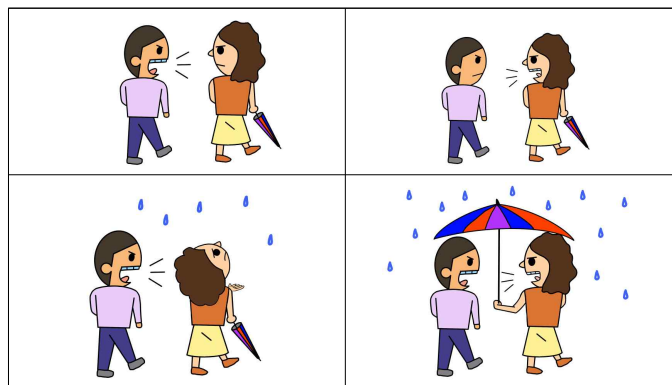
12) 학생들을 짝 지어 주어서 서로 이런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한다.

d) 제언: 목표 어휘와 질문의 형태는 교사가 사용하는 그림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대상 학생들의 특성(나이, 수준 등)에 따라 목표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질문의 형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어떤 인물 형태에 대한 만화나 그림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잡지나 그림책과 같은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을 찾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사가 인물이나 행위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림을 약화해서 그린다면 오히려 어휘의 확장에는 도움이 된다.

3) 이어진 그림 이야기를 이용한 활동

이 활동의 목적은 어휘를 확장시키고 시각적 기억의 발달을 돕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을 설명문과 같이 보다 길고 많은 한국수어 문장에 노출시킨다.

a) 준비: 사건의 순서가 있는 이어진 이야기 그림 세트를 준비한다. 이 활동을 위한 자료로는 대화가 없는 4컷짜리 만화도 좋다(그림3-3 참조). 대화가 있는 만화인 경우는 대화를 지우고 사용한다. 그림의 장 수는 이야기 내용이나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3> 이어진 그림 이야기 예시 그림 카드

b) 제시: 순서에 따른 이야기가 있는 그림 세트에서 한 장을 교사가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잘 보이도록 제시한 다음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여기서는 목표 어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교사는 아

무 그림이나 선택하여야 한다. 나중에 학생들이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할 것이다.

- 1) 앞의 그림 묘사하기 활동에서 제시한 1)에서 10)단계의 절차를 그대로 실시한다.
- 2) 나머지 그림 각각을 가지고 위의 절차를 반복한다.

c) 상호작용적 제시:

- 1) 학생들이 목표 어휘와 문장에 친숙해지면 교사는 한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2) 탁자 위에 주어진 4-6개로 이루어진 이어진 이야기 그림을 놓는다. 이 때 교사는 대상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그림 이야기의 장 수를 조절할 수 있다.
- 3) 교사는 그림 중 하나에 대해 간단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수어로 묘사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학생이 집도록 한다.
- 4) 다른 나머지 그림에 대해서도 3)과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때로 교사는 학생에게 새로운 다른 목표 어휘를 첨가시키기도 한다. 즉 예를 들어 노래하는 그림과 먹는 그림 두 장만 있고 앞 절차에서 학생이 [먹다]는 배웠고 [노래하다]라는 단어는 모를 때, 교사가 [노래하다]라는 수어를 사용해도 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제외시켜 노래하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학생은 상대적으로 [걷다]라는 수어에 노출된다.
- 5) 최대한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반복한다.
- 6)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을 둘 씩 짝지어서 서로 한 사람은 수어로 그림을 묘사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집게 할 수도 있다.
- 7) 그림 하나 하나에 대한 간단한 수화 묘사를 보고 학생들이 해당하는 그림을 잘 찾으면 한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8) 연결된 이야기 그림들 중 교사는 2개 내지는 3개의 그림을 선택해서 수화로 묘사한 다음에 학생에게 해당하는 그림을 묘사한 순서대로 배열하게 한다. 이 때 묘사의 순서는 실제 그림 이야기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으나, 학생은 교사가 묘사한 순서대로 꼭 그림을 배열하게 해야 한다.
- 9) 다시 그림을 제 자리에 놓고, 새로운 그림을 묘사한다. 이 때 그림의 수는 먼저 보다 1장 내지 2장 정도 늘려 가면서 모든 그림에 대한 묘사를 계속한다.
- 10)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 위의 절차를 반복한다.

d) 제언: 이 활동은 여러 형태로 변형시켜서 할 수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림 세트를 나누어 주고 앞에서 교사가 묘사대로 학생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둘씩 짝지어 한 사람이 그림 이야기를 수어로 묘사한 대로 다른 한 사람이 그림 카드를 배열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학생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림 이야기 세트를 순서대로 배열한 후에 수어로 이어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그림 이야기가 순서를 바꾸어도 되는 내용이면 학생들이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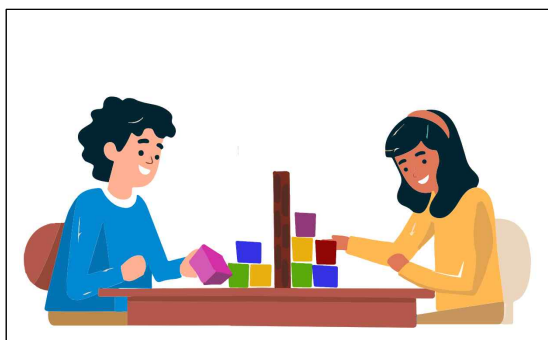
3.3 의사소통 게임

게임이란 기본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승패가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에 용이한 활동이다. 따라서 사물 조작하기와 같은 활동도 가장 정확하고 빨리 하는 팀에게 상을 주면 의사소통 게임이 될 수 있다.

사물 조작하기는 교사가 수어로 지시하는 대로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사물을 배열해 놓는 수용

적 활동과 교사와 역할을 바꾸어 학생이 직접 사물을 조작하면서 그 내용을 수어로 하여 교사가 그대로 사물 조작하게 하는 표현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대상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 조작하는 사물의 종류와 개수를 조절한다.

이 활동을 장벽 게임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즉, 둘씩 짝지은 학생들은 상대의 사물이 보이지 않게 책상 가운데를 막고 각자 자기 앞에 교사로부터 받은 같은 세트의 사물을 놓는다(그림3-4 참조). 그 후 한 사람이 자신의 사물을 조작하면서 수어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수어 설명을 보고 자기 책상 앞에 놓은 사물을 조작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대로 조작한 팀이 이기게 된다. 이 게임은 사물뿐 아니라 그림카드와 붙임 딱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림 3-4> 사물 조작하기 장벽 게임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 수어 전달하기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그림 카드 보고 수어로 묘사하는 활동을 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그림 보고 묘사하기 활동 후에 게임을 위해 학생 수에 따라 2~3개 팀으로 나눈다. 맨 앞에 있는 학생은 교사로부터 받은 그림 카드를 보고 다음 학생에게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한다. 다음 학생은 그 다음의 학생을 돌려 세우고 앞 학생의 수어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맨 마지막 학생은 교사로부터 받은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린 팀이 이긴다.

동물, 색이름 등 어휘 학습이나 지문자 학습 후에는 빙고 게임을 통해 연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빙고판을 인원수대로 만들어 번갈아 가면서 교사가 하는 수어 단어를 보고 빙고 게임을 실시하면 흥미롭게 어휘를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블게임의 수어 버전도 할 수 있다. 하나의 수어 강좌를 마친 후에 그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구성된 마블 게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 강좌를 마무리하면 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3-5>은 한국복지대학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만든 한국수어마블 게임이다. 마블게임을 위한 게임판, 게임말, 미션 카드, 지숫자 주사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수어마블 게임 예시

3.4 과업 중심 언어지도

의사소통 중심지도의 틀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 중 하나가 과업 중심 언어 지도이다. 물론 이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지도가 다른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있는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지도 방법에서 과업(Task)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에 비중을 두면서 학습자에게 언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다. 과업 중심 지도에서는 목표 과업과 교육적 과업을 구분한다. 목표 과업이란 교실 밖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적 과업은 교실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과업 중심 지도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담고 있다(권오랑, 김영숙 역. 2012).

- 의미가 일차적이다.
- 해결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가 몇 가지 있다.
- 비교 가능한 실제 세상의 활동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 과업 완수가 얼마간은 우선적이다.
- 목표 과업에 따른 교육적 과업은 아주 구체적이며 그 하나하나가 목표 과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 각 교육적 과업이 일정 수준에 오른 학습자들은 진정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시킨다.
- 과업의 평가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인터뷰에서 개인 정보 제공하기”라는 목표 과업이 있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실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활동이 교육적 과업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 취업 인터뷰 시나리오에 있는 목표 어휘와 문장 익히기:시간과 시각 표현 등 포함
- 예/아니오 의문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표지를 이해하고 질문을 이해하는 연습하기
- [무엇?] [언제?]와 같은 wh-의문문 형태를 익히고 사용하는 연습하기
- 2~3개 정도의 취업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해하기
- 하나의 취업 인터뷰 모형을 선택하여 연습하기: 교사와 학생 한 명씩
- 취업 인터뷰를 시뮬레이션하여 역할극 하기: 짝을 이룬 학생

3.5 수어 이해와 수어 표현 지도

언어 활동은 크게 이해(수용) 활동과 표현활동으로 나뉜다. 물론 의사소통은 이해와 표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해와 표현 활동을 위한 지도에서 그 강조점이나 활동의 유형은 다르다. 이 절에서는 이해 활동인 수어보기 지도와 표현활동인 수어하기 지도 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살펴 본다.

1) 수어 이해 지도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어 이해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수어 이해 활동 유형은 수어 이해 지도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수어 이해 정도를 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반복형: 영상이나 교사가 하는 수어를 그대로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다.

-집중형: 학생들에게 수어 문장이나 긴 담화를 보여주고 비수지 표지, 시선, 축약형, 문법 구조 등의 특정 요소에 주목하게 하는 활동이다.

-반응형: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활동으로 교사의 질문이나 지시, 요구 등에 즉각적으로 답하게 한다. 이 때 학생의 수준에 따른 수어 영상을 보여 주고 내용에 대한 질문하기, 분명히 해주도록 요구하기, 이해 확인하기 등을 통해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선택형: 상대적으로 긴 담화(수어연설, 수어방송, 수어 이야기 등)를 보여 주고 긴 담화 속에 있는 사람 이름, 날짜, 특정 사건이나 사실, 위치, 상황, 맥락, 주제와 결론 등과 같은 특정 정보를 찾아내게 하는 활동이다.

-확장형: 집중형과 달리 총체적인 이해 능력 함양을 위해 전체적인 메시지와 의도 찾는 활동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토의하기 등과 같은 다른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상호작용형:위의 다섯 가지 유형 모두를 포함하는 진정한 의사소통적 교류 활동이다.

다음은 초급 단계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어 이해 지도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실제 교실에서 지도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비수지 표지의 차이 이해하기: 비수지의 패턴을 구분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눈썹을 올리면 1번, 시선을 내리면 2번, 턱의 움직임이 있으면 3번, 고개의 움직임이 있으면 4번 등 다양한 비수지의 움직임을 집중하여 보고 표시하게 한다. 이 활동은 수어 이해를 위한 미시적 기술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음소(수어소) 식별하기: 보여주는 수어 단어쌍을 보고 수형, 수동, 수위, 수향, 비수지 등이 같은 지 다른 지 표시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 역시 수어 이해를 위한 미시적 기술 향상을 위한 것이다.

-공간 식별하기: 주어진 그림(물건이나 도형의 다양한 위치 등)에 대한 표현을 보고 해당하는 그림 찾게 하는 활동이다.

-수어(영상) 보고 세부적인 내용 선택하기: 어휘 수준에서는 교사나 다른 학생이 하는 수어를 보고 일치하는 그림 고르게 하는 활동부터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어 일기예보 영상을 보고 특정 지역의 날씨 맞추기, 시각을 알려 주는 문장을 보고 일치하는 시각 고르기, 광고 영상을 보고 제시된 가격 써 보기, 자기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전달한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차트에 기입하기 등의 활동이다.

-정서적 반응 식별하기: 주어진 영상 보고, 수어를 하는 사람의 감정을 골라 보게 하는 활동이다.

-일치하는 그림 찾기: 그림을 묘사하는 간단한 수어 문장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 고르게 하는 활동이다.

-대화 내용 이해 하기: 수어 대화 문장을 보고 그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고르게 하거나, 여러 개의 그림카드 중 바탕 그림이 대화의 내용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 보게 하는 활동이다.

-방향(길 찾기): 길을 안내하는 수어문을 보고 그 과정을 지도에 표시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비슷한 단어를 범주별로 구분하기: 구매 목록 속의 수어 어휘를 보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연결해 보는 활동이다.

-단어 연상 의미망 구성하기: 수어 어휘를 보고 연상되는 수어 어휘를 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다음은 중급 단계에 있는 학생을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어 이해하기 지도 기법이다.

-빠른 속도의 수어 문장 인식하기: 빠른 속도의 수어 문장을 보여 주고 그 문장 속에 있는 혹은 없는 단어를 고르게 하는 활동이다.

-빠른 속도의 수어 문장에서 비수지 표지 인식하기: 빠른 속도로 제시되는 수어 문장에 나타난 비수지 표지(눈모양, 입모양, 턱이나 고개 모양) 찾아 보게 하는 활동이다.

-생산적 수어 이해하기: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생산적 수어(분류사) 표현을 보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게 하는 활동이다.

-수어 대화문을 보고 세부적인 정보 찾기: 다양한 수어 대화문 영상을 보여 주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 보게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사장과 비서가 일정을 조정하는 대화를 듣고 캘린더에 일정을 표시해 보게 한다. 비행 일정을 알리는 수어 영상을 보고 비행기 일정표에 편명, 목적지, 출구 번호, 출발 시각 쓰기 등을 써 보게 한다. 상점(물품구매) 관련 대화를 보고, 상품의 위치, 상품명, 가격, 수량 등에 대한 답을 쓰게 한다. 고객과 자동차정비소 직원의 짧은 수어 대화문을 보고 수리할 부분, 이유, 예상 비용을 써 보게 한다.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활용하기: 배경이 있는 짧은 수어 뉴스와 배경이 없는 수어 뉴스를 본 후에 이 둘의 차이점을 토의해 보는 활동이다. 이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토의 활동의 수준을 조정한다.

-요지와 관련된 세부 정보 찾기: tv시청(참석했던 농아인협회 행사 등)과 관련한 두 사람의 수어 대화문을 보고 그 두 사람이 시청한 tv프로그램명과 출연 배우 이름, (행사 내용, 참여자 등) 등을 찾아 보는 활동이다.

-추론하기: 부분적인 수어 대화문을 보고 농문화와 농사회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내용을 추측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고급 단계에서의 수어 이해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 기법은 다음과 같다.

-문장을 마치는 휴지 찾기: 빠른 속도의 수어 뉴스나 수어 이야기 등의 담화 영상을 보고 문장을 마치는 휴지를 찾아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비수지 표지 찾기: 빠른 속도의 수어 뉴스나 수어 이야기 등의 담화 영상을 보고 문법 기능을

하는 비수지표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이다.

-수어 뉴스나 수어 강의를 보고 구체적 정보 찾기: 이는 인지와 학습에 필요한 고급 수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수어로 하는 뉴스나 강의 영상을 보고 주제나 내용을 찾아 보게 하는 활동이다.

-수어 강의 요지 파악하고 추론하기: 수어 강의 영상을 보면서 중요 단어와 세부 내용을 메모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이때 강의의 앞 부분만 보여 준 후에 강의의 주제를 예측해 보게 하고 다음 강의를 보면서 예측한 내용이 제시되는지를 판별해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2) 수어 표현 지도

언어 이해와 표현 활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어 표현 지도 역시 해당 수업에서 강조점이 달라질 뿐 수어 이해 지도와 분리되어 지도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특별히 수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 원리이다.

-지도 목표에 따라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라. 상호작용을 강조한 학습 활동에만 치중하면 문법 등 수어의 정확성과 관련된 지도 요소를 빠뜨리기 쉽다. 따라서 수어의 정확성을 다루는 활동부터 메시지 중심의 상호작용과 의미 유창성을 다루는 활동까지 다양한 요구를 유념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둠 활동이나 게임을 할 때도 그 과업에서 필요한 어휘와 올바른 문장 구성을 위한 문법 요소가 있으므로 그 언어적 요소를 학생들이 인지하면서 수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동감 없는 기계적 연습을 반복하여 학습자들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해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복 훈련도 가능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기법을 적용하라. 언제나 학습자가 수어를 배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학습자가 수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즐겁지 않은 학습 활동을 할 때에도 그것이 학습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왜 특정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학습자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면 대부분 효과가 있다.

-유의적 맥락 속에서 진정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라. 이것은 앞에서부터 여러 번 언급하였다. 유의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고안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진정한 언어 사용의 실제 맥락을 고려한 수업 활동은 교사의 노력과 창의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교사의 노력과 창의력은 학습자들이 수어 수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게하고 수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반복 훈련조차도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문법 지도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적절한 피드백과 교정을 제공하라. 오류 교정과 피드백은 학습자들의 수어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와 횟수로 하여야 한다. 너무 잦은 오류 교정은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 의지를 꺾는다. 학생이 보이는 오류가 수어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교사는 잊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피드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어보기와 수어하기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용하라. 앞에서 우리는 수어 이해 활동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분리해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이해와 표현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했다. 앞에서 제시한 이해 지도 기법을 사용할 때 수업 활동이 상호작용적으로 일

어나도록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즉, 수어 이해 지도 시에 수어 표현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구두 의사소통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상호작용은 대부분 교사가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은 시킬 때만 말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대화를 시작하고, 화제를 정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통제하고, 화제를 변경하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말하기 활동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말하기 책략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라. 수업 시간에도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책략을 인식하고 연습할 기회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엇?] 등 분명히 해 주도록 요구하기, [미안해][다시] 등 반복해서 말해주도록 요구하기, [맞다] 등의 수어 표현과 더불어 고개 끄덕임 등 얼굴 표정 대화 유지를 위한 표현 활용하기, 상대방의 주의를 요구하기 위해 손짓 또는 살짝 건드리기,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 말하기, 상대방에게 단어나 구를 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몸짓 등의 시각적 표현 사용하기와 같은 책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어 회화 수업 같은 경우는 정보교류적 활동을 통해 실시하라. 일종의 정보차 활동(한 학생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 학생을 둘 씩 짝지어 판매원과 손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손님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는 상품 카탈로그나 백화점 전단지를 제공하고 판매원 역할을 하는 학생에게는 주문을 받는 양식을 제공한다. 판매원은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 기록하고 손님에게 주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손님 카탈로그에 있는 상품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 2~4개 정도를 선택하여 주문하게 하고 상대방이 주문을 정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게임도 회화 수업의 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6 문법 지도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의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소통 중심 언어지도에서는 적절하게 문법에 초점을 맞춘 지도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을 위한 수업에서 문법 형태에 대해 명시적이고 짧은 설명과 함께 적절한 기법으로 문법 형태에 학습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적절하게 문법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의미하고 의사소통적인 맥락에 내포되어 있다.
- 의사소통적목표에 긍정적으로 공헌한다.
- 유창하고 의사소통적인 언어 속에서 정확성을 증진시킨다.
- 언어학적인 전문용어로 학습자들을 압도하지 않는다.
- 가능한 생기 있고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학습자가 곤란을 겪는 형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명시적인 문법 지도는 초급보다 중급 이상에서 더 효과적이다.
- 의사소통 활동에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어 의사소통에서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형태가 굳어지지 않도록 정확성을 위한 지도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어지도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법에 초점을 맞춘 지도의 기법에 유의하여 수어 문법 요소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법 요소로 수어의 분류사 수형을 지도하고자 할 때,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 요소를 음성언어로 설명하고 단어나 문장 수준에서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방식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 지도에서는 문법 요소가 나타나는 대화문을 통해 의미있는 의사소통 활동 속에서 문법 요소를 배울 수 있게 해 준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영상을 보여 주고 학생들과 위와 같은 형식의 대화를 연습하면 자칫 기계적이 되기 쉬운 반복 훈련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수어 대화문 영상>

(꽃다발, 펜, 두꺼운 책, 얇은 책 다양한 모양의 컵이 있다.)

교사: (두꺼운 책을 가리키며) 책을 읽고 싶다고 한다. [지시] [책] [읽다] [싶다]

학생: 두꺼운 책을 드릴까하고 묻는다. [지시] [책] [주다?]

교사: (손잡이컵을 가리키며)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한다. [커피] [마시다] [싶다]

학생: [지시][주다?]

또한 최소대립쌍 단어를 지도할 때에도 기계적인 연습보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활동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수어 대화문 영상>

교사: [어제][닭][먹다]

학생: [닭][먹다][함께][누구?]

교사: [어제][경찰][만나다]

학생: [경찰][만나다][왜?]

참 고 문 헌

- 권오랑 김영숙 역(2012).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 3판). 서울: (주)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김진우(2001). 언어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김철관(1999).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 인천성동학교.
- 원성옥 강운주(2002). 수화교육개론, 서울:농아사회정보원
- 장신재(1996). 제2언어학습과 교육-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서울:신아사.
- 鳥越 隆士(2001). 手話、ことば、ろう教育 全日本聾啞連盟 日本手話研究所
- Baker-Shenk, & Cokely, D.(1980).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grammar and culture. Wasington, DC.: Clerc Books, Gallaudet University Press.
-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Gee, J.P., & Goodhart, W.(1985) Nativization, linguistic theory, and deaf language acquisition. Sign Lanruage Studies 49:291-342.
- Gee, J. P., & Mounty, J. L.(1991), *Nativization, Variability, and Style Shifting in Sign Language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of Hearing Parents*. In Siple, P. & Fischer S.D.(Ed)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Volume 2: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odhart, W. (1984) Morphological complexity, ASL, and the acquisition of sign language in deaf children. Ph.D. diss., Applied Psycholinguistics Program, Boston University.
- Krashen, S. & Terrell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 Lidell, S., & Johnson, R. (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59-278.
- Luetke-Stahlman, B. (1998). *Language Issues in Deaf Education*. Hillsboro, OR: Butte Publications, Inc.
- McAnally, P. L., Rose, S. & Quigley, S. P. (1994) Language Learning Practices with Deaf Chidren. Austin, TX: Pro-Ed.
- Rivers, W. M. (1964). The psychologist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bin, D.I (1977)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ment of grammar. In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ed. C. A. Ferguson and D. I. Slobin.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 Supalla, S.(1991).Manually Coded English: The Modality Question in Signed Language Development. In Siple, P. & Fischer S. D.(Ed)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Volume 2: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cox, S. & Wilcox, P. P. (1997). Learning to See. -Teaching American Sig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2nd Ed.). Washington, D. C.: Gallaudet University Press.

4. 한국수어 평가

성공적인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재,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민병곤·이성준, 2016: 67).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전 한국수어와 관련된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공인 민간 수어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과 비공인 민간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 인정시험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2019년부터 제1회 한국수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이 시행되었고 한국수어 능력 검정시험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수어와 관련된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평가에 대한 논의는 8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의 개념과 언어 숙달도 평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장은아, 2011: 352-354; 이경·성아영, 2021 재인용: 200). 반면 한국수어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허일(2002)이 형성 평가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해 다루었고 최상배 외(2018a)가 진행한 교사용 한국수어능력 평가인증 척도 개발과 이준우 외(2019)가 진행한 한국수어능력 검정 시험 기초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 수어 교육 현장에서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정수연·강창욱(2017)은 수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가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내에서 수어 교육 평가는 하지 않거나, 또는 한두 번에 걸쳐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지필 평가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강사가 메모하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수행평가에서는 강사가 아닌 다른 농인을 섭외해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고 관찰하는 방식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평가에 대한 기록이 없고 학습자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연·강창욱, 2017: 28-29). 이처럼 국내 수어 교육 현장 일부에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해도 전문적인 평가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수어 관련 평가는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 미국수어 숙달도 인터뷰, 일본 전국수화검정시험, 영국 수어 자격 기준 등에 기반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이준우외, 2019: 9-11).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한국수어 교원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용어의 개념, 평가의 목적 및 기능 등을 제시하고 수어 평가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4.1 평가의 개념 및 기능

평가는 교육 과정의 목표가 잘 설정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과정이 적절한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해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가 잘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4.2 언어 평가의 개념

언어 평가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 등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장은아, 2019: 437-438). 언어 교육에서 평가는 학습 목표, 교과 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능력 파악, 학습 동기 부여, 교육 과정의 가치 판단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원진숙, 1992; 강승혜 외, 2006; 이경·성아영, 2021 재인용: 200).

4.3 언어 평가의 목적과 기능

언어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과 기능을 장은아(201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진단
- 2) 학습자 선발
- 3) 학습자의 총체적인 숙달도 등급의 확인
- 4)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부여
- 5) 교육프로그램 평가와 교수요목 설계의 기초 자료 제공
- 6) 언어 교육의 연구 자료로서 공헌(장은아, 2019: 438-439).

4.4 평가의 요건

현대의 평가에서 평가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가 있으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타당도

타당도란 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장은아, 2019: 440)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내용타당도와 구인 타당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1) 내용타당도

평가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교과 내용의 중요한 요소들을 문항 내용이 다루고 있는가와 평가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로 구별된다(장은아, 2019: 440). 따라서 수어 평가 역시 교원이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출제해야 하며 중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출제하여야 내용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2)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는 평가가 타당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평가 내용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은아, 2019: 441). 앞으로 다양해지는 한국수어와 관련된 평

가에서 통역 능력, 교육 능력, 언어 능력 평가가 분명한 경계를 가지되 각각의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뢰도

신뢰도란 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시험 신뢰도와 채점 신뢰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시험 신뢰도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여 평가를 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다. 시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문항 수 : 많은 수의 문항으로 평가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② 문항 난이도 : 난이도가 적절할 때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문항 변별도 :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문항 변별도가 높을수록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2) 채점 신뢰도

채점을 하는 사람의 채점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채점자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로 구분된다(장은아, 2019: 442-443).

3) 실용도

실용도란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경우 투입되는 인력과 장소, 시간, 자원 등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고부담 시험에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지현숙, 2017: 51-52). 고부담 시험이란 평가의 결과가 취업 등 의 중요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험으로 수어통역사 시험과 한국수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자들의 취업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고부담 시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4.5 언어 평가에 대한 관점

언어 평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언어 능력을 하나의 통합된 언어(unity of language)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지만, 근래에는 언어 사용(의사소통)에 내재 된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관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언어평가 도구의 개발은 최신의 언어 능력 및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개발되어야 하며 계속되는 이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개선되고 타당화되어야 한다(Canale & Swain, 1980; Bachman, 1990; 민병곤·이성준, 2016 재인용: 87).

현대의 언어 평가는 학습자들이 실세계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총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가의 능력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평가를 지향한다(지현숙, 28). 한국수어평가 역시 형식적인 1회성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습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평가를 시행하되 실재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추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6 언어 평가 문항의 유형

언어 평가 문항의 유형은 언어 능력을 이루는 구성 요인 즉 구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구인은 발음, 유창성, 내용조직, 범위, 높임법 등이 될 수 있고 쓰기 평가에서 구인은 내용 지식, 조직성, 문법 정확성, 맞춤법 등이 될 수 있다(지현숙, 2017: 59). 한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언어 기능 외에 어휘와 문법 영역에서도 다양한 문항 유형이 있다.

최상배 외(2018b)는 수어 능력을 평가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수어 단어 지식, 정확한 수어 문법 구사 능력, 농문화에 대한 이해도, 주제에 맞는 토론 능력, 소집단에서 진행되는 자유 대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2018a)에서는 청각장애 학교 교사의 수어 능력 평가와 인증을 위한 한국수어능력 평가인증 척도로 평가 영역을 수어 표현, 수어 수용, 수어 단어, 전체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수어 표현 능력은 비수지 신호 정보, 수어 공간 사용, 유창성, 교사 역할 수행으로 범주화하였고, 수어 단어 능력은 수어 단어, 지화가 포함되며, 전체적인 요소는 메시지 처리, 메시지 명료성, 화용 능력으로 범주화하였다(이준우 외, 2019: 7).

이준우 외(2019)의 한국수어 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한국수어 평가에서 이해는 ‘객관식’, 표현은 ‘직접 수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 결과 제시된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이해 영역

- (1) 공간 이해 능력
- (2) 공간 활용 능력
- (3) 관용표현 이해 능력
- (4) 내용 추론 능력
- (5) 내용 파악 능력
- (6) 문장 구조 이해 능력
- (7) 반의어 이해 능력
- (8) 부정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 (9) 분류사 이해 능력
- (10) 비수지 기호 이해 능력
- (11)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 (12) 상황에 맞는 표현 능력
- (13) 어휘 이해 능력
- (14) 어휘 활용 능력
- (15) 유의어 이해 능력
- (16) 일치 동사 이해 능력
- (17) 접속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
- (18) 지문자 이해 능력
- (19) 지숫자 이해 능력
- (20) 형태 이해 능력

2) 표현 영역

평가 목표는 주제에 맞는 설명, 비수지 기호, 어휘, 유창성, 정확성으로 평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적 소재에 대한 설명
- (2) 분류사 활용 및 묘사
- (3) 역할 전환
- (4) 공간 활용 및 묘사
- (5) 관용어 사용
- (6) 농사회에 대한 이해

4.7 향후 과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농인 당사자의 언어권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면서 한국수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수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교육의 품질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내 수어 교육은 수어 단어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한국어 대응 표현을 학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수어 교육 현장에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가 시행됨으로써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통해 수어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먼저 한국수어 평가의 구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한 문항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어휘나 문법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농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 위주의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행될 한국수어 능력 검정시험의 문항은 환류 효과를 통해 수어 교육 현장에 반영될 것이다. 출제자 또한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며 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평가가 긍정적 환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적 환류 효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농인 사회에서 적절한 수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출제위원 양성, 평가자 양성 등의 과제도 있다.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할 때 평가자 개인의 주관의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문항 등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자의 일관된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지표도 필요하다(정진, 2021: 232-233).

또한 체계적인 한국수어 능력 평가를 통해 수어 단어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에 기반한 교육, 학습자들이 학습 초기부터 한국수어의 문법과 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수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수어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구성 요소 그리고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의 과제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 민병곤·이성준(2016).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vol. 37, 65-93.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연구소·언어교육원 공편(2019).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②.
- 이경·성아영(2021).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제18권 제2호.
- 이관식. 제3회, 제4회 한국어 능력시험 어휘 평가 연구, 인문학 연구, 제4호, 249-268.
- 장은아(2019).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2019.
- 정수연·강창욱(2017). 한국수화언어 교육과정 구성 특징과 실현 환경.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제8권 제2호, 17~43.
- 지현숙(2017). 『한국어 평가론』, 한글파크.
- 최상배 외(2018a).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수어능력평가 운영 매뉴얼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 최상배 외(2018b). 농인 대상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제9권 제1호, 117~134.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 한국수어 실제]

한국수어 실제

집필: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 1장-4장
고인경 나사렛대학교 교수, 5장-6장

목 차

1. 한국수어 문학 (시작하면서)

- 1.1 수어문학 발전 배경
- 1.2 국내 수어문학 공연의 시작
- 1.3 수어문학의 정의와 개념
- 1.4 수어문학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
- 1.5 수어문학과 한국수어교원

2. 수어문학 유형

- 2.1 수어문학 유형의 예시
- 2.2 수어문학의 형태와 내용

3. 시각적 토착문학 (Visual Vernacular)

- 3.1 토착적 시각문학의 정의
- 3.2 토착적 시각문학과 판토마임의 비교
- 3.3 토착적 시각문학을 참고하며 한국수어가 가야 할 방향

4.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

- 4.1 고급수준의 언어사용
- 4.2 문학적 장르의 이해
- 4.3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 4.4 문화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
- 4.5 창의적 표현
- 4.6 언어의 아름다움 감상

5. 한국수어 관용어에 대한 고찰

- 5.1 한국어의 관용 표현
- 5.2 한국수어 관용어

6. 한국수어 관용어 교육 방법

- 6.1 관용어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
- 6.2 관용어에 어울리는 상황 찾도록 하기
- 6.3 한국수어 관용어 구분하기
- 6.4 관용어가 포함된 에피소드를 이해하고 관용어를 넣어 이야기해 보기
- 6.5 한국수어 관용어의 특징 이해하기

표 목차

[표 3-1] 판토마임과 토착적 시각문학 비교

[표 5-1] 관용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

그림 목차

<그림 2-1> 수형 스토리

<그림 3-1> 판토마임

<그림 5-1> 한국수어 관용어로 보이는 표현들

<그림 6-1> 관용어 예시(돈+올다)

1. 한국수어 문학 (시작하면서)

농인들이 창작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수어문학 작품들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수어 1급 교원들은 수어문학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농인사회는 아직까지 수어문학에 대한 개념 형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어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1 수어문학 발전 배경

한국수어는 농인 사회의 존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농인이 두 명 이상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한국수어는 계속 활용될 것이다. 2022년 현재 한국에는 약 42만5천명의 농인이 있다. 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수어는 여전히 활발한 언어로 남아 있다. 지역적 방언의 존재로 다양한 표현의 한국수어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은 한국수어를 풍부하고 활기찬 언어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농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수어는 여전히 활발한 언어로 남아 있으며 지역적 방언의 존재로 다양한 표현의 한국수어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은 한국수어를 풍부하고 활기찬 언어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농인들은 서로 글로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하며, 구비문학의 형태로써 수어문학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비문학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부족하여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한국수어의 수어문학 발전과 유지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1.2 국내 수어문학 공연의 시작

국내에서 수어문학 공연이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2019년 수어민들레를 통해서였다. 이와 동시에 국립국어원에서 수어문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자들에게 창작과 표현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수어문학이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농인 예술가들은 수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공연하는 플랫폼을 확장하게 되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수어민들레는 수어문학 워크숍을 주로 온라인에서 주관하며, 2022년에는 한국수어의 수어시가 '수어민들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로 공개하였다. 이로써 수어 사용자들은 시각적으로 수어시를 경험하며 수어문학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록과 연구를 통해 수어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고등 교육 수준에서도 수어문학을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남대학교는 2022년부터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박사과정에서 <수어문학개론>강의를 개설하여 수어문학의 이론과 실재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탐험하며, 수어문학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1.3 수어문학의 정의와 개념

수어문학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시각적 예술 형태로, 몸 전체를 사용하여 강력하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는 고정적 수어어휘뿐만 아니라 생산적 어휘와 패턴을 창조하며 수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또한, 문자문학과 대조적으로 수어문학은 고정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닌 생생하고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림 그리기나 영화와 유사하게 관람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수어문학은 농인문화에서 개인적 경험 및 감정 표현의 출구로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각적 표현과 미적인 측면을 통해 농인이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수어문학은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수어문학은 농인의 언어와 문학으로서 세계관을 보여주는 독특한 방법이며, 공연 예술로 정의되며 학문적 지식과 문화 소통을 통한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래 2장에서는 수어문학의 다양한 유형을, 3장에서는 토착적 시각문학에 대한 것으로 언어학적 표현적인 면에서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1.4 수어문학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

수어문학은 수어 사용자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수어 사용자들은 언어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는 수어문학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적 감각과 예술적인 향유를 경험할 수 있다.

1.5 수어문학과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 1급 교원은 수어문학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수어 표현의 예를 보여주고, 수어를 통한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학적 측면에서 수어를 즐기며 학습할 수 있다. 수어문학은 교육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더하며, 수어 교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5.1 언어의 풍부한 사용 증가

수어문학은 언어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감상을 촉진하여 언어학습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수어문학은 수어의 다양한 표현을 소개함으로써 언어의 풍부한 사용을 증가시킨다.

1.5.2 문학적 분석 능력 향상

수어문학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문학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학 작품의 언어적 특징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3 문화적 이해

수어문학은 특정 문화와 농인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학문적인 지식과 함께 문화를 매개로 하는 소통을 촉진한다.

1.5.4 창의성과 감수성 개발

수어문학은 농인문화에서 개인적 경험 및 감정 표현의 출구로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각적 표현과 미적인 측면을 통해 농인이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수어문학은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촉진시킨다.

1.5.5 언어적 즐거움 제공

수어문학을 통해 언어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며, 언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수어문학 유형

2.1 수어문학 유형의 예시

Sutton-Spence, R. & Kaneko, M. (2016)에 따르면, 수어문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농인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 농인의 언어로 구성된 문학으로 발전해왔다. 아래 소개하는 수어문학은 영국수어의 수어문학 유형을 한국수어의 예시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어의 수어문학 유형은 작품 수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2.1.1 수어시 (Sign Language Poetry)

수어시는 수어로 작성된 시로, 공연적인 예술의 일종이다. 이는 수어 단어와 구조를 활용하여 창조되며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한국 예시로는 '우리는 좋은 친구', '희망꽃' 등 수어민들레(창작자: 손청)에서 선보인 수어시가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친구'는 농인 시인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1인칭은 농인으로, 3인칭은 청인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청인과 농인의 삶을 탄탄한 구성과 반복적인 운율을 통해 감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1.2 설화 (Folklore)

네러티브, 유머, 언어게임을 통해 전승되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형태로, 농인 사회에서 다양한 이야기 형태로 전해진다.

한국 예시로 '별뚱별에 소원을'은 별뚱별에 소원을 빌 때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하는 유형(청인, 농인, 코다)에 따라 소원의 결과물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유머적인 소재와 함께 다룬 작품이다. 이 이야기는 각자 사용하는 언어생활의 생물학적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수어민들레(창작자: 손청)에서 창작한 작품이다.

2.1.3 웅변 (Oratory)

시적이거나 극적/연극 스타일/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논픽션 연설, 발표, 회담을 의미하며, 무대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목표로 한다.

한국 예시로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정치적 활동 중에 '농아인 권리대회' 등의 행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연설이 있다.

2.1.4 자전적 이야기 (Autobiography)

네러티브나 사실적 개인 경험을 다루며, 논픽션으로서 개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예시로는 장태순의 '빈 도시락'을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통학 중 항상 주변인들의 주목을 받는 자신이 미남일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경험을 다룬 자서전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주변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은

자신이 미남일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왔다. 그러나 어느 날 빈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가는 도중 수저가 도시락에 부딪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주목하는 이유가 애초에 미남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청각장애가 있어 그 도시락 소리를 인식하지 못한 오해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농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5 연대기 (Chronicles)

창조적이거나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특정 시대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다루는 유형이다.

한국 예시로는 1980년대의 농인 학교 기숙사에서 나오는 유령 이야기 등이 연대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1.6 종교문학 (Religious literature)

종교문학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신앙 경험을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는 수어로 표현된 종교적 내용을 다루는 유형으로, 종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농인이 종교문학을 통해 성서 번역가나 목사로 활동한다. 종교 기관은 연극을 통해 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연극은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특히 폼트 형태의 연극을 통해 종교 기관은 메시지를 농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소통하며, 가벼우면서 유쾌한 분위기에서 종교 경험을 나눌 수 있다.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에서 번역된 성서의 수어 버전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1.7 기타

문학번역 (Literary Translation): 문학번역(Literary Translation)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문학작품을 한국수어로 번역하여 농인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현재까지는 외국수어를 한국수어로 번역하는 공식적인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작업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문학작품이나 자료를 한국수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주로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수어 영상도서'를 들 수 있다.

수형 스토리 (Handshape Stories): 수형이 지숫자나 지문자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2002년 Deaf Way 국제행사에서 보고 국내에 가지고 오면서 시작된 유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엄태욱이 만든 지문자 수형 스토리인 '인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는 초등학생 1학년, 2는 중학생 2학년, 3는 고등학생 3학년, 4는 대학생 4학년, 5는 졸업, 6은 용접하기, 7은 (상태나 상황)이 불품없다. 8은 치매, 9는 늙다, 10은 눈감다]로 지숫자를 이용하여 인생의 과정을 표현하며, 이는 농인과 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공통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짧지만 감동적인 수형 스토리는 충격적인 한 예시로 평가된다.

1	2	3	4	5
				
[초등1학년]	[중등2학년]	[고등3학년]	[대학4학년]	[졸업하다]
6	7	8	9	10
				
[용접하다]	[불품없다]	[치매걸리다]	[늙다]	[눈감다]

<그림 2-1> 수형 스토리, 출처: 변강석 2010. 149

2.2 수어문학의 형태와 내용

2.2.1 형태

수어문학의 형태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 많은 예시와 함께 형식적 특징 및 구조화된 이야기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수어문학의 형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문학적 구조 (Literary Structure): 수어문학은 다양한 문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어시에서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형태의 수어로 표현할 수 있고,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은 수어는 개인의 경험을 다양한 수어체로 구성할 수 있다.

해학적인 언어: 수어의 특징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수어의 특수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수어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동시성: 수어는 비우세손과 우세손 양쪽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어 여러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여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다. 이는 수어로만 가능한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동시에 여러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비수지 요소 활용: 수어의 비수지 요소를 통해 농인들의 특별한 능력이나 특이한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수어로 감각적인 요소들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적이고 다양한 수어문학의 형태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과 구조화된 이야기의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어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2.2 내용

수어문학은 이미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지만,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은 수어문학의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예시이다.

억압/차별 (청능주의): 농인사회의 특별한 경험과 농인들이 마주치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농인들의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정치: 정치적인 이슈나 활동을 수어문학을 통해 다룸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어로 전달한다.

농인/청각장애인: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 주제를 다루어 농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소개한다.

감각적 경험: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어 수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감각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탐색하고 수어문학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2.3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

한국농인사회 구성원과 농인 스토리텔러들은 주로 내용에 민감성을 두고 있으며, 형태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인 스토리텔러들 간의 형식적 특징과 구조화된 이야기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어문학의 형태적 특성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수어문학을 형성할 수 있다. 수어문학은 내용과 형태의 조화로 풍부한 이야기를 창출한다. 내용 위주의 민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어의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수어문학의 지평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수어문학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새로운 수어문학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착적 시각문학(Visual Vernacular)

3.1 토착적 시각문학의 의미

토착적 시각문학은 단순히 수어문학의 한 장르로서가 아니라, 언어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문학을 나타낸다. 한국수어가 다양한 문학 장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토착적 시각문학도 다양한 형태의 수어표현(마임, 영상적 기법, 분류사활용 등)을 통해 수어시, 이야기, 노래 등 다양한 장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다양성은 움직임의 강도, 도상적인 수어, 제스처, 그리고 표정과의 조화로 인해 가장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형성한다.

장거리 촬영, 클로즈업, 파노라마 등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며, 캐릭터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관점과 설정을 효과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다양한 거리, 각도, 시각에서 장면을 제시하여 시각적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토착적 시각문학"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기술의 본질을 나타내며, 귀가 아닌 눈을 통한 인식을 강조하여 특정 농인사회에 속하는 독특한 언어로 간주된다.

시각적 토착문학은 수어의 특징인 도상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형식으로, 도상성은 형태가 표현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수어자가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개념, 사물 또는 활동의 특성(수어공간 사용, 역할전환 사용, 분류사 사용 등)을 반영한다. 그러나 특정 수어의 도상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국제 농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의 [뚝다]나 [위로하다]는 한국 농인에게는 도상적인 표현이지만, 미국농인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국수어의 [강아지/개]는 강아지 귀의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맵핑하여 표현하는 반면 중국수어의 [강아지/개]는 멍멍 짖을 때 나타나는 강아지 손의 움직임과 입술이 "왕왕" 소리를 흉내내는 동작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나 한국 농인들은 중국수어의 손의 움직임과 입술의 동작을 통해 강아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이는 나라마다 수어의 도상성의 정도에 따른 이해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각적 토착문학을 사용할 때, 국제적으로 이해 가능한 도상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높은 역량이 필요하여, 이는 국제적으로 공유 가능한 시각적 언어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판토마임을 배운 적이 없어도 판토마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착적 시각문학이 특정 언어의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각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착적 시각문학은 다양한 수어를 넘어 이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는 언어의 제약을 넘어 국제적으로 공유 가능한 예술 형식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예술 형식은 구어 언어로의 번역이 어려우며, 시각적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구어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고유한 시각 언어로서 농인 커뮤니티에 속하는 예술 형태임을 강조한다.

3.2 토착적 시각문학과 판토마임 비교

토착적 시각문학과 판토마임은 각각 독특한 특징과 차이를 보이며 비교될 수 있다. 마임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인 판토마임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공연 형식으로, 특유의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몸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여 표현된다. 이와는 달리 토착적 시각문학은 수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 예술로, 언어의 다른 버전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수어민들레의 무대 공연행사에서 선보인 토착적 시각문학 공연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일부 관객은 이 공연이 판토마임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림 3-1> 판토마임, 출처: Mime - ET the Mime - The Car (유튜브)

이에 따라 이 섹션에서 유튜브의 판토마임 ‘Mime - ET the Mime - The Car’를 소개하면서, 토착적 시각문학과 언어학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 판토마임과 토착적 시각문학 비교

	판토마임	토착적 시각문학
도상성 사용	Yes	Yes
공간이동 제약	No	Yes
언어적 공간사용	No	Yes
관점 변화(역할전환)	No	Yes
언어학적 요소	No	Yes
취급 분류사 사용	Yes, 취급분류사보다는 실제행위처럼 하나의 행위	Yes
개체 분류사 사용	No	Yes
영상적 기법 사용	No	Yes
제스처 사용	Yes	No
국제적 이해	Yes(모든사람)	Yes(특정 수어 아는 사람만)

3.2.1 공통점

토착적 시각문학과 판토마임은 모두 도상성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예를 들어, 판토마임에서 자동차 문을 열거나 핸들을 잡을 때의 동작은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도 나타나는 등 서로 유사하다.

3.2.2 차이점

이야기 전달 방식: 판토마임은 전체적이고 연속적인 사건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만, 토착적 시각문학은 세분화된 정보의 흐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공간 이동: 판토마임은 무대 전체를 활용하여 비고정적으로 공간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토착적 시각문학은 무대위에서 고정적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언어적 공간 활용: 판토마임은 언어적 공간을 사용하지 않지만, 토착적 시각문학은 언어적 공간(수어공간)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표정: 판토마임의 얼굴 표정은 대상의 추상적 표현에 기초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토착적 시각문학은 다양한 표정을 통해 이야기 속의 역할 전환이나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둔다.

역할전환과 관점 변화: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는 역할전환과 관점 변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판토마임에서는 무대의 공간 이동을 통해 캐릭터 구분에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언어학적 요소 사용: 판토마임은 주로 실제적인 행위나 제스처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언어학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토착적 시각문학은 언어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를 또한 표현할 수 있다. 문을 열거나 하는 동작에 해당하는 표현은 판토마임과 토착적 시각문학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문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은 수어나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만 가능하다.

표현의 구체성 : 한국수어의 [운전하다]가 판토마임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움직임의 구체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수어의 [운전하다]를 ‘운전하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판토마임에서는 ‘(자동차가 좌우로 주행하게) 핸들링하다/운전하다’로 해석되어 더 구체적이다.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는 제스처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위 언어학적 요소의 구체성을 적용할 때 생산적 표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영상적 기법 사용: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는 구체적인 자동차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수어로 자동차의 개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판토마임에서는 자동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체를 마치 만져보는 듯한 동작으로 마임을 사용하여 내 앞에 자동차의 물체를 상기시키는 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토착적 시각문학은 다양한 영상적 기법을 통해 3D로 표현하거나

물체를 내 앞에 위치시키거나, 의인화하여 자신이 그 물체가 되는 듯한 표현도 가능하다. 더불어 장거리나 단거리, 관점에 따른 물체의 변화를 나타내거나 클로즈업, 파노라마, 슬로우모션 등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제스처 사용: 판토마임에서는 제스처가 공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토착적 시각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스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항상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수어를 모르는 청인이 관람할 때 제스처의 요소가 추가되는 방법으로 공연하는 예술가가 있다. 관객의 상황과 장소 그리고 예술가 또는 수어 표현자의 역량에 따라 토착적 시각문학의 언어학적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

국제적 이해 가능성: 판토마임은 배운 적이 없더라도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토착적 시각문학은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어인만이 즐길 수 있으며, 이를 모르는 경우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3.3 토착적 시각문학을 참고하며 한국수어가 가야 할 방향

이전 섹션에서는 판토마임과 토착적 시각문학의 도상성을 국제적으로 이해 가능한 표현으로 소개하였다. 이는 수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토착적 시각문학'을 잘못된 지식으로 '마임'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상적인 표현에 대한 빠른 이해력에서 언어적으로 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이는 유의미한 문학적 표현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토착적 시각문학은 판토마임의 구체성, 영상적 기법, 그리고 개체 분류사를 통해 더 많은 생산적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수어문학의 작품을 풍부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토착적 시각문학을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현재의 한국수어 관련 공연은 대부분 수지한국어의 수어노래로 제한되어 있어 한국어의 틀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이 있다. 수어 통역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한국수어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한국어의 영향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적 토착문학은 강력한 시각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탁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수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수어의 시각적인 특성은 토착적 시각문학을 통해 한국수어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째로, 토착적 시각문학은 시각적으로 표현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한국수어는 도상적 표현과 더불어 자의적 표현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가 시각적이라 추상적 개념의 표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오히려 시각적이고 도상적인 특성을 통해 한국수어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토착적 시각문학을 언급하였다.

한국수어는 각자의 경험, 감정,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수어문학은 농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시각적 표현뿐만 아니라 은유와 비유를 통한 추상적인 표현을 도상적

이거나 자의적으로 가능케 한다.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수어문학은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수어의 다양한 표현 수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은유적으로 풀어내며 독특한 예술성을 나타낸다. 교원으로서 토착적 시각문학과 수어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수어문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언어학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수어문학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예술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4.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

4.1 고급수준의 언어사용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휘, 복잡한 주제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하며, 전문적 용어나 표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유창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과 이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역시 규칙이 있는데,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2 문학적 장르의 이해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는 수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알고 있거나 이해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어시, 설화, 정치 작품, 자서전, 웅변 등 다양한 형식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4.3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고급 수준의 사용자는 수어문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학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4.4 문화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는 농인의 문화적 이해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작품은 종종 특정 시대나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창의적 표현

고급 수준의 한국수어 사용자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어문학에서는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을 통해 미학적 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4.6 언어의 아름다움 감상

고급 수준의 사용자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어문학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통해 높은 예술성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감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론

한국수어 1급 교원들은 수어문학의 다양한 측면과 장르를 이해하며 언어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수어의 미적 특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1급 교원은 수어문학을 창작하고 생산하는 능력도 요구되며, 학문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여 수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은 수어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제공하여 수어문학의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교육과 함께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농민사회가 한국수어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이해를 얻을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원의 높은 전문성과 수어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청인사회의 수어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통해 청인사회는 한국수어의 다양성과 풍부한 예술성을 인정하고, 수어 사용자와의 소통에서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로써 농민사회와 청인사회 간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풍부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은미 (2019).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 방안 연구 -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79, 293-323
- 변강석 (2010). 한국수어와 친구되기. 충남농아인협회.
- Sutton-Spence, R. & Kaneko, M. (2016) *Introducing sign language literature: Folklore and creativ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국가통계포털 (2023). kosis.kr/

5. 한국수어 관용어에 대한 고찰

개인이나 기관이 출간한 한국수어 교재나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관용어’ 또는 ‘관용 표현’과 관련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 관습적인 말을 의미하며, 관용어는 관용 표현의 하위 분류 개념이다. 한국수어 관용어 또는 관용 표현이라고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우똥할 때가 있다. 한국수어 학습 초급자들이 잘 모르는 한국수어 표현이거나 한국어로 바로 대응되지 않는 수어 표현일 뿐 두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의 형태론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 어휘를 두고도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동시적 결합이 맞는지 아닌지, 명사-동사 쌍인지 아닌지 등 한국수어 어휘의 구조와 실현 방법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수어에 관용어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이 관용어이며, 관용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수어 교원으로서 관용어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수어 관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한국수어 관용 표현 교육’이라는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한국어의 관용어 개념과 한국수어 관용어와 관련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5.1 한국어의 관용 표현

5.1.1 개념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사회에서 두루 사용되어 온 관습적인 말이다. 또한 그 단어의 구성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5.1.2 한국어 관용 표현의 종류

① 속담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말로, 오랜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지혜가 담긴 교훈성과 풍자성이 있는 말이다.

(한국어 속담 예시)

a.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② 관용어

속담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교훈성과 풍자성이 있는 말은 아니다.

(한국어 관용어 예시)

b. 손발이 맞다.

: 함께 일을 하는 데 마음이나 의견, 행동 방식 등이 서로 맞다.

5.1.3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

속담이나 관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 ①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있고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②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③ 자신의 의견을 쉽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④ 하려는 말을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 ⑤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해 상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⑥ 표현 속에서 생활 모습과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5.1.4 관용 표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구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 전체가 낱말처럼 사용된다. 만약 표현을 고쳐 사용하면 관용적인 의미가 사라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관용어 예시)

c. 미역국을 먹었다.

: 시험에 떨어졌다는 의미

→ 해장국을 먹었다. (관용적 의미 ×)

⇒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관용적 의미 ×)

5.1.5 속담인지 관용어인지 구분하기

속담과 관용어 모두 관용 표현에 속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속담에는 삶의 오랜 과정에서 얻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교훈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그 유무로 속담과 관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속담 예시)

d.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교훈적 내용 ○

: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의미로,
말을 삼가야 함을 이르는 말

(한국어 관용어 예시)

e. 발이 넓다. -교훈적 내용 ×

: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음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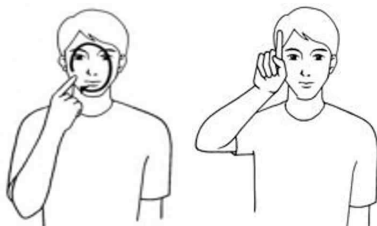
※ [활동1] ‘식은 죽 먹기’는 속담일까요, 관용어일까요?

5.2 한국수어 관용어

5.2.1 개념

한국수어 관용어도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한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뜻을 짐작하기 어렵고, 농사회에서 하나의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교훈성이나 풍자성은 지니지 않은 말이다.

(한국수어 관용어 예시)



: ~스럽다, ~같다

(관용어가 없는 한국수어문 예시)

f.



: 당신은 깡패 같다.

(관용어가 있는 한국수어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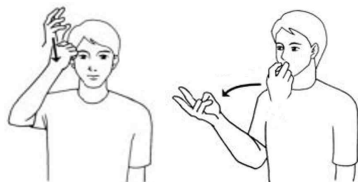
g.



: 당신은 깡패 같다.

※ [활동2] 아래 제시된 한국수어 관용어를 보고 용례를 만들어봅시다.

<한국수어 관용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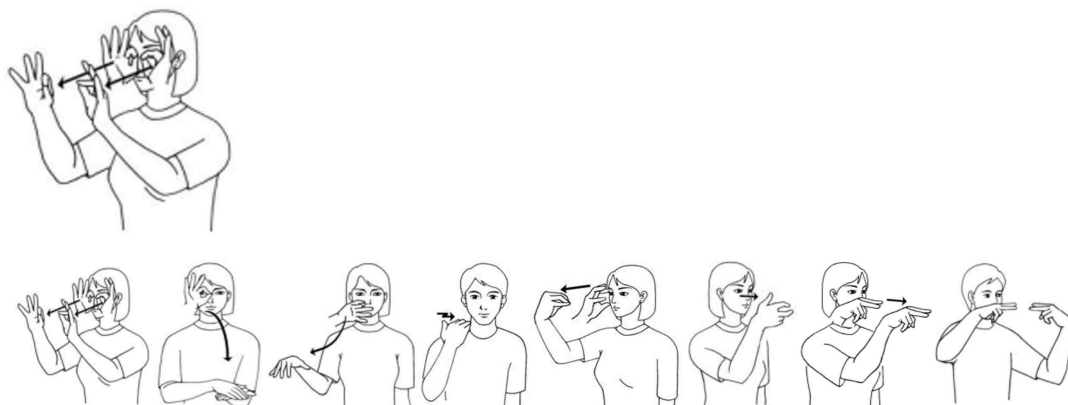


: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 기억력이 좋다

5.2.2 한국수어 관용어 교육 오류 유형

① 한국수어 어휘장

예)



: 보다, 봤다, 못 봤다, 안보이다, 찌다, 노력보다, 응시하다, 마주보다

② 한국수어 동형이의어

예)



: 회색

쥐가 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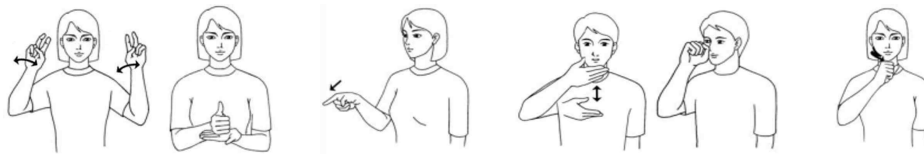
근근이 운영하다

③ 한국어로 바로 대응되지 않는 표현

예) 한국수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와 1:1로 익힌 경우



h.



: 사장님은 (이 음식을) 맛있어하시며 자주 드신다.

④ 초급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표현

예)



: 딱 맞다 / 아부하다 / 손해보다

⑤ 한국어 관용 표현을 의역

눈 깜작할 사이

한국어 관용 표현



한국수어 표현

※ [활동3] 한국수어 관용 표현 교육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더 찾아봅시다.

5.2.3 한국수어 관용어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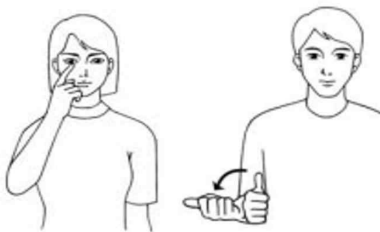
한국어 관용 표현에서 속담과 관용어를 구분하고, 관용어와 일반 문장을 구별하듯이 한국수어 관용어를 구별할 수는 없을까? 한국수어 관용어에 대한 조사와 분석, 개념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한국수어 관용 표현 교육’이라는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한국어의 관용어 개념과 한국수어 관용어와 관련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최소한의 한국수어 관용어 구별 기준>


- 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였는가?
- ② 결합한 의미가 새로운가? 즉, ‘A+B=AB’가 아닌 ‘A+B=C’인가?
- ③ 농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④ 표현에 지혜가 담겨 있거나 교훈적 또는 풍자적인가?

(1) 관용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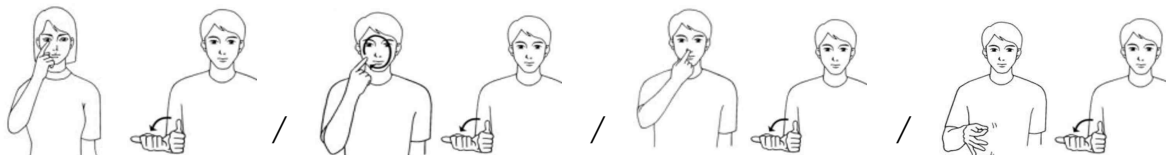
예)




위 표현은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로, 글자가 작거나 시력 또는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고 있다. ‘교육 오류 유형③’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를 한국어와 1:1로 연결하여 ‘죽다’로 소리 내고 익혔기 때문에 ‘안보이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해되지 않고 ‘눈이 죽었다.’라고 이해되어 한국수어 관용어라고 판단하고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없다, 아니다’ 등과 같은 한국수어의 부정 표현 중 하나일 수 있다. 한국어 관용어 ‘미역국을 먹었다.’가 ‘해장국을 먹었다.’로 단어를 바꾸면 관용적 의미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국을 먹었다는 의미가 되듯이  대신  이나  또는  로 바꿔보면 각각 ‘표정이 없다, 냄새를 못 맡는다, 돈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  와 쓰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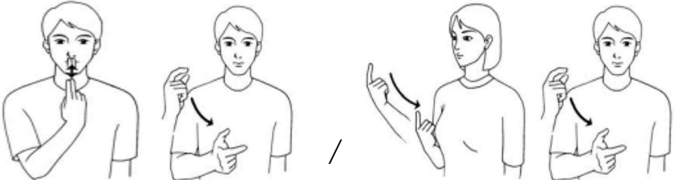



라서  는 ‘<최소한의 한국수어 관용어 구별 기준> ②’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관용적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수어 관용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적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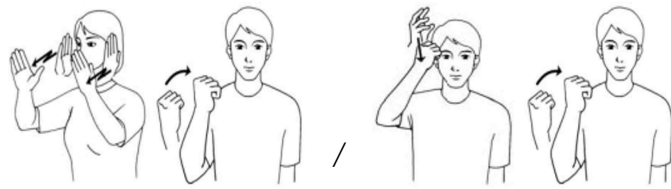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위 예들이 ‘눈이 아프다, 안색이 좋지 않다, 냄새 때문에 괴롭다, 돈이 없어 힘들다’와 같은 의미가 아닌지 의문을 갖을 수도 있다. 이는  수동의 빠르기와 비수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교육 오류 유형③’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형이의어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표 5-1] 관용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

 ~하지 않다	 감기가 안 낫는다 / (기다려도) 안 온다
 (상대를) 대하다	 봐주다 / 바보 취급하다
 ~안되다(아니다)	 잘못보다 / 길이 막혔다(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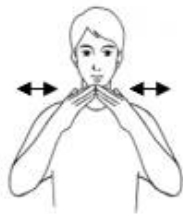
잘하다, 좋다



공부를 잘하다 / 기억력이 좋다

(2) 2개의 단어가 동시적 결합한 경우

예)



위 표현은 '성관계를 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집이 흔들린다.'라는 뜻이다. 수형이 주어 '집'을 나타내고 수동이 서술어 '흔들리다'를 나타내 2개의 단어가 동시적으로 결합하였으며, 1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국수어 표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또는 한국어 문장성분에 빗대어 한국수어를 보지 않고 '집이 흔들린다'라는 의미의 한 단어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집'과 같은 건축물에 한정된 '흔들리다'라는 동사로 보기도 한다.

1개의 형태소에 2개의 단어가 동시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는 한국수어 표현의 예)



(비행기가) 날다

/




(새가) 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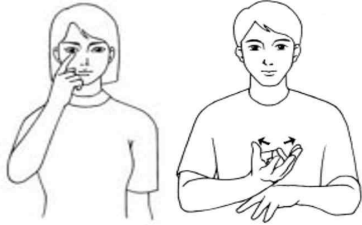




(산을) 오르다, 등산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관점 중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한국수어 관용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최소한의 한국수어 관용어 구별 기준> ②~④'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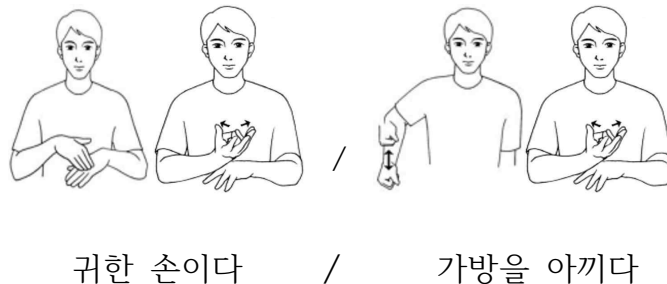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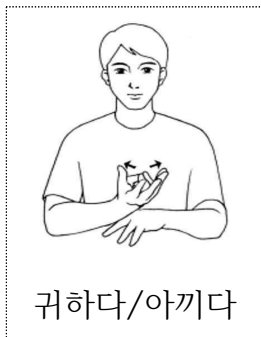
(3) 한국수어 관용어로 볼 수 있는 경우

예)




위 표현은 ‘눈썰미가 좋다.’라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대부분 ‘눈이 보석이다.’라고 표현한다.  를 한국어와 1:1로 연결하여 ‘보석’으로 소리 내고 익혔고, ‘눈썰미가 좋다.’ 또는 ‘잘 본다’라는 의미와 바로 연결되지 않아 한국수어 관용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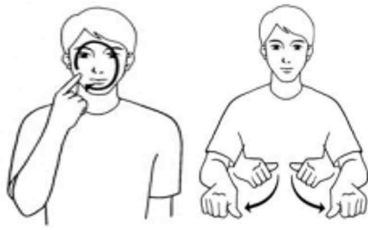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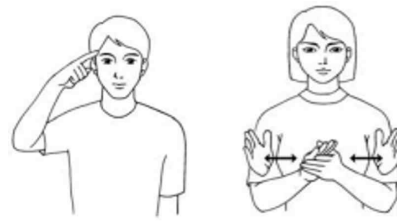
는 ‘보석’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위와 같이 ‘귀하다, 아끼다’와 같은 형용사로도 쓰인



다. 그러나  과 결합하게 되면 ‘잘한다, 뛰어나다’와 같은 의미가 되므로 한국수어 관용어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망신을 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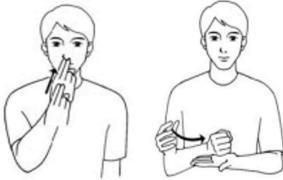


스스로 알아서 하다

<그림 5-1> 한국수어 관용어로 보이는 표현들

※ [활동4] 아래 제시된 표현이 한국수어 관용어인지 아닌지 논의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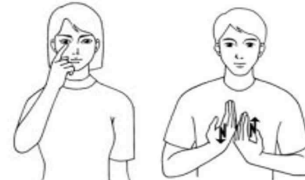
<제시1>



<제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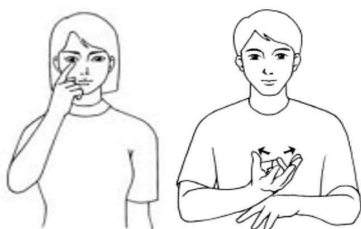
<제시3>



6. 한국수어 관용어 교육 방법



6.1 관용어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기

6.1.1 한국수어 관용어 제시하기



6.1.2 예를 들어 설명하기

▶ 상황 예시

교원: 이 표현은  과  이 합쳐져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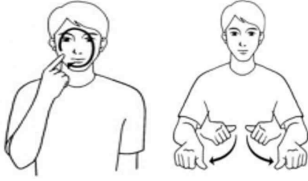
학생: ① ‘눈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요.
 ② ‘눈이 보석처럼 예쁘다.’요.
 ③ ‘눈이 보물처럼 귀하다.’요.

교원: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이므로 새로운 뜻으로 굳어졌겠죠? 이 표현은 바로 ‘잘 알아본다, 눈썰미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6.2 관용어에 어울리는 상황 찾도록 하기

6.2.1 한국수어 관용어 제시하기



6.2.2 삽화를 보여주고 적절한 상황 고르도록 하기

▶ 상황 예시

교원: 이 표현은  과  이 합쳐져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 학생: ① 어떤 동상에서 ‘얼굴 부분이 깨졌다.’요.
② 성형수술을 한 뒤 ‘얼굴이 망했다.’요.
③ ‘얼굴을 다쳤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교원: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이므로 새로운 뜻으로 굳어졌겠죠? 이 표현은 바로 ‘망신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A

B



6.3 한국수어 관용어 구분하기

6.3.1 두 가지 표현 제시하기



6.3.2 관용어를 고른 뒤 선택한 이유를 말해 보도록 하기


▶ 상황 예시


교원: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A와 B 각각 두 개의 단어가 결합 되었지만 하나만 관용어입니다. 어느 쪽이 관용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 B가 관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생: 직역해봤을 때, A는 ‘말이 영똥하다.’, B는 ‘말이 가볍다.’라고 해석됩니다. A는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B는 ‘말’은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곧이곧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습적인 말이라고 배웠으니 B가 관용어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교원: 관용어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B가 관용어가 맞습니다. 가 ‘말’,

가 ‘영똥하다, 이상하다’라는 단어이며, 결합하여 A ‘영똥한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각 단어의 의미가 결합 된 뒤에도 유지되었으므로 관용어가 아닙니다.

는 ‘가볍다’라는 단어이며, 두 단어가 결합해 B ‘쉽게 말을 한다.’는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6.4 관용어가 포함된 에피소드를 이해하고 관용어를 넣어 이야기해보기

6.4.1 관용어가 포함된 에피소드를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그림 6-1> 관용어 예시(돈+올다),

출처: 유튜브 채널 '홍' <https://www.youtube.com/watch?v=i1eZX0A2B4c&list=PL8UOBrrUEz5ezRzcp7Ka02sn4Tw6br8U0&index=1>

6.4.2 내용을 이해하고 관용어 찾기

▶ 상황 예시

교원: 지금부터 한 에피소드가 담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용을 이해하고, 관용어도 찾아보세요.

(동영상 시청 후)

차를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학생: 10년 되었습니다.

교원: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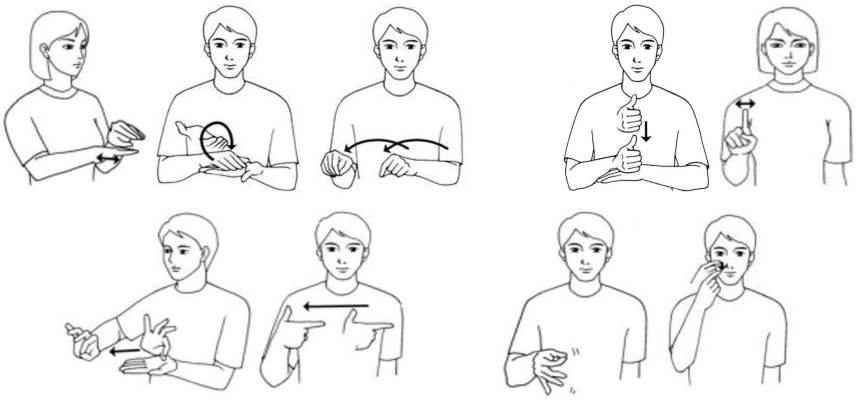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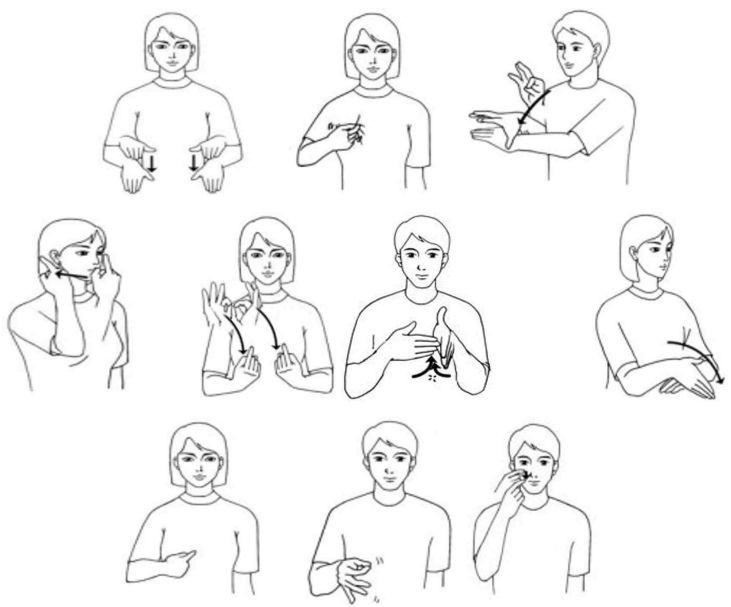
학생: 100만 원이요.

교원: 위 에피소드에서 사용한 관용어는 무엇이었나요?

학생:

교원: 맞습니다. '돈이 아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고, 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도 표현해 보세요.

학생: (답변 예시)

<p>주요 내용 요약</p>	
<p>자신의 경험</p>	

6.5 한국수어 관용어의 특징 이해하기

6.5.1 ‘눈’과 관련한 관용어 제시하기





▶ 상황 예시

교원: A에서 은 ‘눈’이라는 단어고, 은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 학생: ① ‘눈이 귀신처럼 생겼다.’요.
② 물귀신처럼 ‘눈귀신’일까요?
③ ‘당신은 악마의 눈을 가졌다.’요.

교원: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관용어는 ‘귀신같이 재빠르게, 잘 알아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B를 살펴보겠습니다. 은 ‘눈’이라는 단어고, 는 ‘무섭다, 두렵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 학생: ① ‘눈이 무섭게 생겼다.’요.
② 잘 모르겠습니다.

교원: 네, B는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또는 ‘시선이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일 때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 관용어와 같죠?

6.5.2 한국어 관용어와 한국수어 관용어의 차이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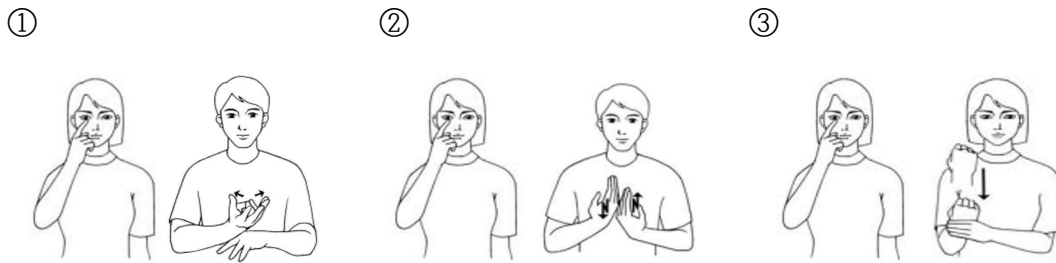
▶ 상황 예시

교원: 한국어 관용어는 신체어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수어 관용어도 신체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눈’입니다. 한국수어 관용어는 한국어보다 눈과 관련된 표현이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① 수어가 시각언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② 농인은 눈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원: 모두 일리 있는 추측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과 관련한 관용어는 무엇인가요?

학생: (답변 예시)



교원: 모두 좋습니다. 한국어 관용어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매개로 한 것과는 달리 한국수어 관용어는 ‘눈, 코, 입, 손, 얼굴 등’에 집중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수어가 시각을 중요한 매개로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시선 처리가 편한 부분의 표현이 더 풍성하게 발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이정옥, 2005).

참 고 문 헌

- 김철관(1999). 이디엄 현상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 남기현(2018).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60.
- _____(2020). 한국수어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68.
- _____(2021). 한국수어에서 관용어와 다의어 구분 문제. 한국어 의미학, 74.
- 손천식(1999). 한국수화의 관용표현.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32-41.
- 이정옥(2005). 한국 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인영(2020). 농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어 관용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용례로 알아보는 관용수어
<https://www.youtube.com/watch?v=PN5Uom2J6Zc>
- 관용수어: 취미
<https://www.youtube.com/watch?v=N6HH4VRtm0U>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 기초수어 [보다2] 관용표현
<https://www.youtube.com/watch?v=HlpWGoaztaA>
- 돈 아깝다(돈+올다)
<https://www.youtube.com/watch?v=i1eZX0A2B4c&list=PL8UOBrrUEz5ezRzcp7Ka02sn4Tw6br8U0&index=1>
- 슬기로운 수어생활-관용구(눈)
https://www.youtube.com/watch?v=bzmzN4UvAeU&list=PLdmmEzQAHLOMWCN3_NDZoyK2b6M-Gu-Xd&index=12
- 한국수어 [쥐]에 관한 관용표현
<https://www.youtube.com/watch?v=-CA8uSb4zPk>
- 한국수화의 관용구
<https://www.youtube.com/watch?v=vPcubnXBoiA&t=93s>
- 6강 관용수어반
<https://www.youtube.com/watch?v=Dt9bcLzVmoM>
- 제12강 관용표현
https://www.youtube.com/watch?v=_smftTWx2vg&t=70s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농문화와 농사회

집필: 김유미 한국농문화연구원 원장

목 차

1. 역사와 인물로 본 농인 담론

- 1.1 고대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 1.2 중세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 1.3 근대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2. 농교육과 언어권

- 2.1 문화전쟁
- 2.2 농교육, 수화법의 시작
- 2.3 방법론으로서의 수어
- 2.4 농교육 방법론, 논쟁의 서막
- 2.5 독립 신생 국가 미국의 농교육
- 2.6 농교육국제회의(ICED)의 역사

3.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서 본 농인 담론

- 3.1 청각장애인(deaf) 대 농인(Deaf)
- 3.2 보는 사람(seeing person)
- 3.3 데프후드(Deafhood)
- 3.4 데프 게인(Deaf Gain)

4. 농인의 정체성

- 4.1 청각장애- 농인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
- 4.2 의료·병리의 대상으로 자란 이들
- 4.3 언어·문화적 존재로 자란 이들
- 4.4 언어·문화적 존재로 넘어오는 이들
- 4.5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
- 4.6 농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 4.7 농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

5. 농인의 문화

- 5.1 농문화(Deaf Culture)의 정의
- 5.2 농문화를 담은 예술과 농인의 창작물
- 5.3 농문화의 실재
- 5.4 수어시-농문화의 꽃

표 목차

- [표 1-1] 기록상 최초의 농인, 퀸투스 페디우스
- [표 1-2] 고대 히브리 율법
- [표 1-3] 고대 철학자들의 농인 담론
- [표 1-4] 중세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 [표 1-5] 근대의 세계관
- [표 1-6] 근대의 농인 담론
- [표 2-1] 미국의 농교육자
- [표 3-1] 농인 담론의 주요 인물
- [표 3-2] deaf(청각장애인) 대 Deaf(농인)
- [표 5-1] 예술의 영역에서 보는 농문화
- [표 5-2]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

그림 목차

- <그림 2-1> 지문자
- <그림 2-2> 레페
- <그림 2-3> 하이니케
- <그림 2-4> 수화법과 구화의 전파경로
- <그림 2-5> 밀라노 회의(1880) 관련 사진과 그림
- <그림 3-1> 데프니스에서 데프후까지의 차원적 단계와 각 단계의 주요 용어
- <그림 4-1> 농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 <그림 5-1> 농문화가 담긴 예술 작품들
- <그림 5-2> 수어시 예시
- <그림 5-3> 데프조크(Deaf joke) 예시
- <그림 5-4> 수어문학(VV) 예시
- <그림 5-5> 데프스페이스(에파타 성당)
- <그림 5-6>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1
- <그림 5-7>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2
- <그림 5-8>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3
- <그림 5-9>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4
- <그림 5-10>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5
- <그림 5-11> 갈로뎃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6
- <그림 5-12> 수어민들레와 함께하는 수어문학 포스터
- <그림 5-13> 한국수어-수어시 작품

이 강좌의 목표는 인류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청인의 세계에서 언어·문화적 소수자인 농인으로 살아가는 농인의 실존적 모습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청인 주류 사회가 농인을 이해해 온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농인 담론을 소개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근대 공교육 안에서의 농인 담론과 현대에까지 후유증을 남긴 농인의 언어권 문제를 다룰 것이며, 세 번째 장에서는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서 농인 당사자들의 자기 이해를 담은 농인 담론을 소개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농인과 농인 공동체의 실존적 자기 이해를 농인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세상을 눈으로 살아가는 언어·문화적 소수자인 농인의 문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역사와 인물로 본 농인 담론

1.1 고대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¹³⁾

1) 고대 이집트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고대 이집트에서 농인은 학대나 방치, 학살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농인은 신들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존재라고 믿었으며 농인의 침묵과 행동 특성은 신비적인 분위기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농인들은 공손한 대접을 받았으며 상형문자와 수어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어 상형문자와 수어가 조합된 체계를 통해 교육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Per Erikson 1993: 12)

2) 고대 그리스·로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공동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자연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던 때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유기와 학대, 학살이 자행되었다. 농인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유기와 학대, 학살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노동력으로 소모되었다. 한편, 소극적으로나마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주장하고 실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1) 고대 그리스

그리스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아테네에서는 농인을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여 죽여도 된다고 믿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특유의 심미(審美)사상이 있어서, 농인이 외관상 특별한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이상한 발성과 몸짓이 추하다고 생각하였다.

(2) 고대 로마

13) 고대의 농인담론은 Per Eriksson(1993)과 Giulio Ferreri(1906), 그리고 아래의 출처를 참조할 것.


<https://deafhistory.eu/index.php/deaf-history>

http://www.ead.ee/foreign_deaf_history

<https://www.bridgesfordeafandhh.org/deaf-history>

로마인들도 그리스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로마인들은 농인을 ‘지적 장애’로 취급하여 특권과 의무에서 배제하였다. 말(음성언어)을 못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농인은 투기장과 연회에 동원되거나 귀족계급에 의해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1] 기록상 최초의 농인, 퀸투스 페디우스


<p>퀸투스 페디우스 (Quintus Pedius) BC 5년 전후</p>		<p>로마의 화가이자, 기록으로 남은 역사상 최초의 농인(13세에 사망 추정). 그의 교육은 농아동 교육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대(大)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가 쓴 《자연사Historia Naturalis》에 기록이 남음(Per Erikson 1993: 16)</p>
---	---	--

(3) 언어신수설(The Divine source theory of language origin)

고대와 중세 당시 인간의 언어는 신이 내린 한 개의 기원에서 유래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며 모방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음성언어가 불가능한 농인을 언어가 없는 존재, 즉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게 하는 철학적 논거가 되었다.

3) 고대 히브리(유대민족)

[표 1-2] 고대 히브리 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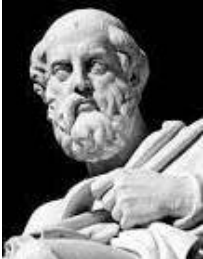

	<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11)</p> <p>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4)</p>
---	---

고대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장애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은 장애인을 도태되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 법에서 농인은 어린아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분류되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못하였다.

4) 고대 철학자들의 농인 담론

물론 고대의 철학자 사상가들에게 농인은 담론의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어록으로 남아있는 내용 중에서 농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을 뿐이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들의 입을 통해 나온 농인에 대한 생각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농인 담론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3] 고대 철학자들의 농인 담론

<p>소크라테스 Socrates (BC470-BC399)</p>		<p>농인은 몸짓,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¹⁴⁾</p>
<p>플라톤 Plato (BC424-BC348)</p>		<p>사람이 가진 모든 지능은 태어날 때 존재하며,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말이 사람의 지능에 대한 유일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이다.</p>
<p>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BC384-BC322)</p>		<p>선천적으로 언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농인에게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이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p>

1.2 중세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¹⁵⁾

중세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로마서 10:17)’라는 성경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농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별을 받고 있다고 믿었다. 동시에 농인들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 자선과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14)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책 「Cratylus」 34절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했는데, 헤르모게네스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만약 우리에게 목소리도 언어도 없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설명하고 싶다면, 우리는 농아처럼 손과 머리와 다른 지체들로 우리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출처: GIULIO FERRERI, THE DEAF IN ANTIQU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NOVEMBER, 1906, Vol. 51, No. 5 (NOVEMBER, 1906), pp. 460-473(471)

이 대목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농인도 선천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언어를 위해 손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15) 중세의 농인 담론은 Per Eriksson(1993)과 아래의 출처를 참조할 것.

<https://deafhistory.eu/index.php/deaf-history>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농인이 자선과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부모가 권력을 가졌거나 부유한 경우에 위탁을 받았으며, 이후 성직자 조직들을 통해 자선의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농인들이 점차 늘어났다.

[표 1-4] 중세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p>성 아우구스티누스 St. Augustine (AD 354-430)</p> 	<p><i>청각장애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i> <i>농인들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몸짓과 신호는 ‘보이는 말씀’과 같다.</i></p> <p>교부(敎父) 아우구스티누스는 농인이 듣지 못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청각장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으로 만들어내는 몸짓과 신호를 눈에 ‘보이는 언어’로 간주했다. 그는 이를 라틴어 베르바 바시비라(verba visibila¹⁶⁾)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농인들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는 농인들에게 시각적인 언어로 말을 걸 수 있고, 그를 통해 농인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깨달음을 갖고 있었다.(Per Erikson 1993: 18-19)</p>
<p>로마대법전 Justinian Code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AD 534)</p> 	<p>로마대법전에는 청각장애에 대한 5가지 범주가 열거되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어날 때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인 사람 2. 출생 후에 성장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된 사람 3.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지만 언어장애는 아닌 사람 4. 청력을 잃게 되었지만 언어장애는 없는 사람 5.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인인 사람 <p>태어날 때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인 사람은 로마사회에서 권리도 의무도 없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없었다. 반면에 말을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법적 권리도 가졌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하고, 유언을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법과 구별은 이후 로마법에 근거한 대부분의 법전에서 유지되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토지와 소유권은 농인 대신에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갔다.(Per Erikson 1993: 21)</p>

16) 라틴어 verba visibila는 ‘보여지는 말씀’이란 의미로 기독교의 성례전 중에 성만찬(성체성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 중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한복음 1:14)’라는 ‘성육신’ 사상, 즉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였다’라는 교리에 근거한다.

1.3 근대의 세계관과 농인 담론



인류사의 암흑기로 평가받는 중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의 영향을 저물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다. 다음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을 만든 변화의 동인이다.¹⁷⁾(엄미숙 2020: 457-462)

[표 1-5] 근대의 세계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중세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신(神)중심에서 인간(人間)중심, 내세주의에서 현세주의, 교회중심에서 개인중심, 권위주의에서 이성주의로 환원하게 만들었다.
인문주의	중세의 편견과 미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대사조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가능성을 열어두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왔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정신은 구원이 빈부, 성별, 능력, 계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였으며 이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보통교육 개념의 근간이 되었다.
의학의 진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장애아동에 대한 종교적 이해가 아닌 과학적 이해와 그에 따른 교육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농인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⁸⁾

[표 1-6] 근대의 농인 담론

루돌프 아그리콜라 Rudolf Agricola (AD 1443-1485) 네델란드		<p><i>농인과 맹인은 감각기능의 대체를 통해 교육이 가능하다</i></p> <p>그는 농인이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말하기의 능력과 사고의 능력이 분리된다는 이론을 주창했다. 그의 주장은 기록상 농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인 견해 중 하나이다.</p>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AD 1483-1546) 독일		<p><i>농인이나 맹인이나 지적장애인이자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i></p>

17)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는 엄미숙(2020)을 참조할 것.

18) 근대의 농인담론은 Per Eriksson(1993)과 아래의 출처를 참조할 것.

<https://deafhistory.eu/index.php/deaf-history>

<p>제로니모 카르다노 Geronimo Cardano (AD 1501-1576) 이탈리아</p>		<p>농인은 자신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p> <p>농인의 추리 능력을 인정한 최초의 의사 그에게는 농인 아들이 있었고, 그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농인이 수어와 글쓰기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p>
<p>솔로몬 알베르티 Salomon Alberti (AD1540-1600) 독일</p>		<p>그는 의사였으며, 의학적으로 청각장애를 연구하여 농인에 대한 최초의 책인 「Deafness and Speechlessness」를 1591년에 출간하였다. 그는 듣기와 말하기의 기능이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농인은 말(음성언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며 사고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농인이 듣는 기능 없이도 독순을 할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독해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p>
<p>페드로 폰스 드 레옹 Pedro Ponce de Leon (AD 1520-1584) 스페인</p>		<p>당시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 침묵 서약을 했다. 그들의 거주 공간에서, 그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지판을 발명했다. 이들 중 한 명인 페드로 폰스 드 레옹이다.</p>
<p>후안 파블로 보넷 Juan Pablo Bonet (AD 1573-1633) 스페인</p>		<p>페드로 폰스 드 레옹의 농교육에 영향을 받았으며, 1620년 알파벳 지문자를 출간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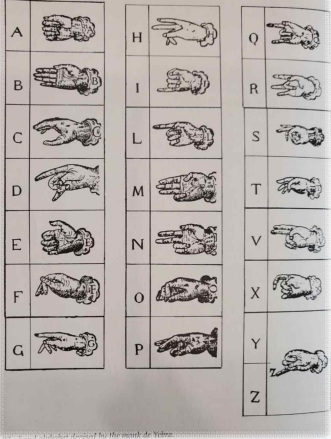
2. 농교육과 언어권

- 수어와 구어의 충돌

2.1 문화전쟁

수어와 구어의 담론은 결국 농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제이며 이 논제의 결론에 따라 농아동에 대한 교육방법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농인을 의료·병리적 관점으로 규정하면 주류사회의 언어생활 즉 음성언어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교육이 구성되며 구어주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반면 농인을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농인의 언어권 보장이라는 명제가 따라오게 되고 교육철학은 수어주의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사실 근대교육의 시작부터 이미 농교육자들은 경험적 지식을 통해 수화법을 지지하였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구어주의의 힘은 막강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랜 기간 농교육은 수어주의와 구어주의의 논쟁 속에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어주의의 정당성은 농인 당사자들의 주장이 힘을 갖기 시작한 최근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결국 농교육의 역사는 수어와 구어, 두 언어의 문화적 전쟁사(戰爭史)라 할 수 있다.

2.2 농교육, 수화법¹⁹⁾의 시작

	
<p>스페인의 수도사들에 의해 고안된 지문자</p>	<p>멜키오르 데 예브라의 영향을 받은 후안 파블로 보넷(보네)의 지문자</p>

<그림 2-1> 지문자

19) '수화법'이란 수어에 대한 법령이 아니라, 교육방법론으로서 수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수화'라는 용어는 '수어'로 변경하는 추세이나, 본 농교육 역사를 다루는 장에서는 과거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원)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지문자 매뉴얼이다.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지문자가 사용되어 왔으며, 수도원에서는 일찍이 13세기에 지문자가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수도사들은 농민과의 의사소통과 교리교육에도 지문자를 사용하였다. 지문자는 특수한 종교적 목적(교리교육과 고해 등)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후 농민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1) 멜키오르 데 예브라(Melchor de Yebra, 1526-1586)

수도사 멜키오르는 농민과의 의사소통과 교육을 위한 스페인 지문자 매뉴얼을 책자로 펴냈는데 그 원형은 남아있지 않고 보넷에 의해 계승 및 개정되었다. 이 지문자는 20세기에 미국 농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여 오늘날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형의 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페드로 폰스 드 레온(Pedro Ponce de Leon, 1520-1584)

페드로 폰스 드 레온은 농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선천적 농민에게 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귀족 가문의 농아동에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여 말하고, 죄를 고하여’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3) 후안 파블로 보넷(Juan Pablo Bonet, 1573-1633)

보넷은 지문자를 농아동이 스페인 말(음성언어)을 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농아동의 주변 사람들이 수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손가락으로 철자를 쓰거나 필기하라고 주장하였으며, 농아동들에게는 대답할 때 구어로 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교육 가능성 탐색과 개인교수의 시대

스페인 16세기 말~17세기 초반에 걸쳐 농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지도를 실시한 농교육의 선구자와 같은 국가이다. 그러나 부유한 귀족 가문의 자녀들에게만 개인교수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농교육 방법론과 관련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2.3 방법론으로서의 수어

농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각 주요 인물을 현대적인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그들의 공과(功過)를 왜곡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어느 인물과 교육기관이든, 교육방법론으로 수어를 선택했든 구어를 선택했든, 그 교육의 목적은 모국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대교육에 이르기까지 농교육 과정에서 모국어의 듣기-독순, 말하기-발화 단계를 과감하게 외면한 인물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음성언어인 구어를 습득하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언제나 농교육의 핵심 목표였으며 그 방법론으로 수어를 허용하거나 활용하는 곳, 수어를 배제하는 곳이 있었을 뿐이다.

2.4 농교육 방법론, 논쟁의 서막

1) 레페와 수화법

레페(Charles-Michel, abbé de l'Epée, 1712-1789)

1760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농학교 교육을 실시(파리농학교)

수화법(manualism) 옹호자



<그림 2-2> 레페

레페는 종교적 자선정신에서 농아동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농아동을 보호, 구제, 교육하였다. 그는 1760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농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구화법이 자신의 교육목적 실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농인의 교수방법으로 '자연수화'의 기초 위에 모국어(불어)의 어법에 따른 수화법(manualism)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레페의 수화법은 프랑스수어(FSL)를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수어(ASL)와 다른 많은 나라의 수어에 영향을 주었다.

2) 하이니케와 구화법 1778년 하이니케농학교(구화법)-독일

하이니케 Samuel Heinicke(1727-1790)

1778년에 독일 라이프치히에 세계 최초로 공립 농학교인 하이니케농학교를 설립

구화법 신봉자



<그림 2-3> 하이니케

그는 1778년에 세계 최초로 공립 농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구화법의 확실한 신봉자였다. 그는 수화법을 지팡이에 비유하며, 보행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지팡이 자체도 하나의 장애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곽정란 2019: 106, 김병하 2002: 46에서 재인용)

그는 농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선생님의 목을 느끼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 일명 "독일식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파리농학교의 수화법과 하이니케농학교의 구화법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된다.

3) 레페와 하이니케 간의 서신²⁰⁾

레페(Charles-Michel, abbé de l'Épée) (1712-1789)		하이니케(Samuel Heinicke) (1727-1790)	
	프랑스, 수화법		독일, 구화법
레페가 하이니케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中 내용 일부		레페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하이니케의 답장?	
<p>당신이 만일 『<i>Instruction of the Deaf and Dumb by Systematized Signs</i>』라는 제목 아래 출간된 나의 작품을 읽었더라면(아쉽게도 프랑스어로 쓰여있지만), 비엔나 농인들의 교사에게 쓴 당신의 편지에서 당신은 그가 차용한 방법에 대해 그렇게 많은 반대 의견들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p> <p>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어는 당신이 추정하는 상형문자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수어가 묘사하는 대상에 대한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인 관계를 가진 수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p> <p>당신이 우리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항상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내지 말라고 지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의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반대했지만, 나는 솔직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수년 동안 전적으로 헌신해온 것과 같은 일에 헌신한 학식 있는 신사가 라이프치히의 아카데미에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p> <p>(말미에 책의 사본을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을 함)</p>		(레페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하이니케의 답장이 있었음은 레페의 두 번째 편지 내용에서 확인됨)	
레페의 두 번째 편지 中 내용 일부		두 번째 편지에 대한 하이니케의 답장 (1782년 7월 12일) 中 내용 일부	
<p>나는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고, 당신은 불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둘에게 더 나은,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언어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보낸 나의 첫 번째 편지도 원래의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프랑스어를 이해했었다면 당신의 편지에 쓰지 않</p>		<p>나의 교수법은 명확하게 발음되고 발성된 언어와 청각 결함을 대체하는 미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p> <p>내가 만약 당신과 나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면, 당신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내가 사는 도시에 와서 적어도 6개월을 이</p>	

20) 레페와 하이니케의 서신 전문은 Per Eriksson(1993)을 참조할 것. (pp. 92-120)

<p>왔을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내 편지와 내 책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p> <p>페레이르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정신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정신적 영양분 없이 지내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발전에 극도로 해롭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페레이르는 용서해 줄 것입니다.</p> <p>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돌봄의 대상이 마치 인간이 아니라 무지한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더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영혼들을 12개월, 심지어 15개월 동안 단순한 언어 훈련을 시켜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p> <p>당신은 편지 말미에 농인 200명에게 말하도록 가르쳤고, 이들이 인간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예술가와 장인들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련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할 거리입니까?! 농인들은 우리의 개입 없이 견습 기간을 거쳐서 숙련된 교수들로부터 사실상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견습 기간을 마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p>	<p>곳에서 보내야 합니다.</p> <p>만약 당신이 내가 지도할 때 수어(finger-language)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념을 구축하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합니다. 내 학생들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는 소리와 문자입니다. 현재 나와 내 아들들만 농아인의 교육을 위해 내가 고안한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p>
<p>레페의 세 번째 편지(마지막 편지) 中 내용 일부</p>	<p>-</p>
<p>내가 하면 기껏 해봐야 2주면 되는, 농인 담당 여교사²¹⁾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 6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념들을 결합하기 위해 수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최근에 당신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p> <p>당신의 방식대로라면, 농인은 자신들의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충실한 필경사에 불과할 것입니다.</p>	<p>(레페의 세 번째 편지에 대해 하이니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음)</p>

21) 레페의 서신에서 ‘여교사’는 당시 기숙제 학교들이 그러하듯이 농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여성이었기에 나온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레페와 하이니케 두 사람이 나눈 편지의 전문을 보면 두 사람의 서신에는 모두 상대에 대해 정중하고 신중한 태도가 묻어난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수화법과 구화법이라는 자신들의 교육이념과 경험에 대해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두 사람은 정중한 문장으로 그러나 예리하고 예민하게 수화법과 구화법에 대한 각자의 신념을 논리와 증거를 대며 논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하이니케의 구화법에 대한 소개와 논증은 특별한 대목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개발했다는 구화법의 진면목은 서신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그 교수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니케 구화법의 실체를 편지를 통해 가늠하기는 어렵다.

반면, 레페는 그의 서신을 통해 하이니케의 구화법이 왜 농인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이 아닌지, 자신의 교수법(수화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서신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레페가 농인에 대한 이해와 농인을 향한 기독교적인 사랑이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레페는 파리농학교 출신 농인들의 존경과 기림을 받았다. 실제로 당시 파리농학교를 졸업한 위대한 농인 학자인 베르디에(Ferdinand Berthie, 1803-1886)는 레페의 수화법이 가진 한계, 즉 방법론적 수화였음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드 레페 기념사업을 주관할 만큼 레페를 존경하였다. (김칠관·윤병천 2014: 22-24)

4) 수화법과 구화법의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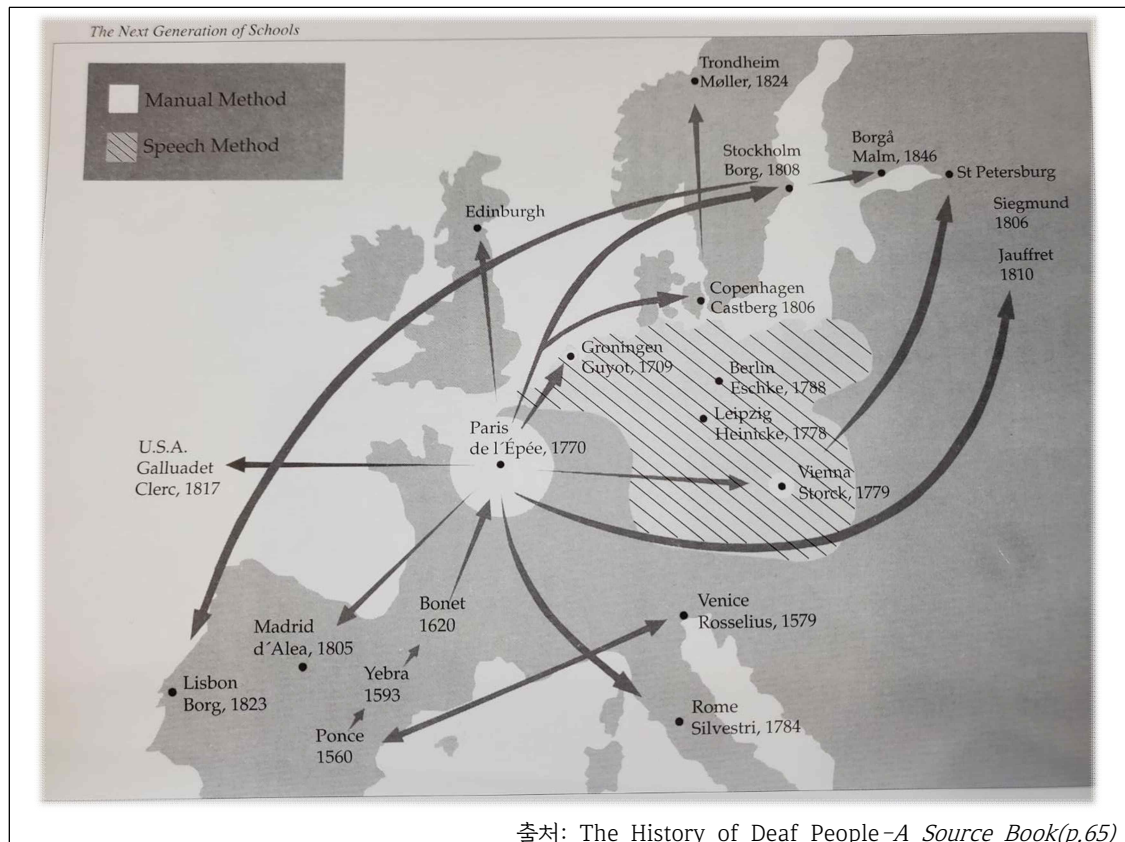
레페와 하이니케의 출현을 기점으로 파리농학교의 수화법과 독일농학교의 구화법은 격렬한 논쟁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2.5 독립 신생 국가, 미국의 농교육

(1) COBBS학교. 1815~1816

1760년, 토마스 브레이드우드(Thomas Braidwood)(1715-1806)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농인을 위한 첫 번째 학교를 열었다.

미국 버지니아로 이주한 볼링(Bolling)가(家)에는 선천성 농(聾)을 가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태어났다. 볼링(Bolling)가(家)는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브레이드우드(Braidwood)농학교로 자녀를 유학 보내다, 국가적 개인적 여러 여건들로 인해 미국 내에 농학교를 세우고 싶어했다. 결국에는 토마스 브레이드우드(Thomas Braidwood)의 손자인 존 브레이드우드(John Braidwood)와 손을 잡은 계기로 1815년 3월 볼링(Bolling)가의 농장에서 코브스(COBBS)농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오래 존속되지 못하고 1816년 가을 폐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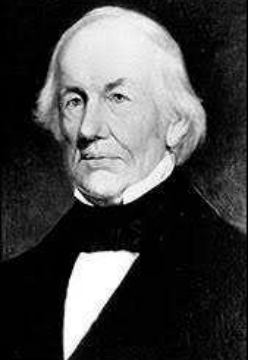

출처: The History of Deaf People-A Source Book(p.65)

<그림 2-4> 수화법과 구화법의 전파경로

(2) 코네티컷 양육원. 1817~

1817년 코네티컷주 하트포트Hartford에 설립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현대적 기숙제 학교의 원조이다. 후일에 미국 농학교로 개명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표 2-1] 미국의 농교육자

코즈웰(1761-1830) Mason Fitch Cogswell	갈로뎃(1787-1851) Tomas Hopkins Gallaudet	로랑 클레르(1785-1869) Laurent Clerc
		
<p>-예일대 졸업. 내과의사 딸인 앨리스(Alice)가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학교 설립에 힘썼다.</p> <p>농학교 개교를 위해 정치적 재정적 지원망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였다.</p>	 <p>-예일대 졸업. -앤도버(Andover) 신학대학 졸업 농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간 유럽에서 브레이드우드(영국)에게 부담을 느낀 반면 레페의 제자들(프랑스)에게 감화와 영향을 받았다.</p>	<p>‘미국 농인의 사도(The Apostle of the Deaf in America)’라고 불리는 그는 왕립파리농아원 교사였으며 미국 농인의 역사상 가장 명성 있는 농인으로 여겨진다. 갈로뎃과 함께 코네티컷 양육원을 설립하였으며 미국 농교육에 헌신하였다. 프랑스 수어를 사용하였으며 미국수어의 2/3이 프랑스수어와 같은 기저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p>

2.6 농교육국제회의(ICED)의 역사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of the Deaf

- 비극의 서막에서 현재까지

(1) 1878년 파리 회의

파리 회의에서는 농아동 교육을 위해서는 수어와 지문자로 교육하기보다는 “똑똑한 발성법과 독순술을 해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불과 27명이었지만 수어주의자와 구어주의자의 논쟁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2년 후 보다 큰 회의가 소집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구어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자본과 권력과 종교의 협조를 끌어내며 여론을 이끌었다.

밀라노 회의에 후원을 끌어온 사람은 스위스 출신 조세프 마리우스 마그네트(Joseph Marius Magnet)로 그는 전직 교사로서 구어주의 신념에 따라 일했던 사람이었다. 프랑스의 구어주의자들은 수어는 문법이 결핍되고 모국어 이해를 방해한다는 보고서를 내도록 정부를 설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이 농교육계를 완전히 지배해서 밀라노회의에 구어주의 깃발을 가져갔다.(장진석 역 2007: 186)

(2) 1880년 밀라노 회의

밀라노 회의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농교육자 164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143명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참석자 164명 중 청인이 163명이었고 농인은 단 1명이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들로 넘쳐난 이 회의에서 농아동 교육에 수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미국 대표들은 거의 소외되었다. 결국 미국인 다섯 명과 리처드 엘리엇(Richard Eliot), 총 6명만 밀라노 선언에 반대투표를 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다. 유일한 농인 참석자인 제임스 데니슨(James Denison), 그리고 에드워드 마이너 갈로뎃(Edward Miner Gallaudet), 토마스 갈로뎃(Thomas Gallaudet), 아이작 루이스 피트(Isaac Lewis Peet), 찰리스 스토타드(Charles A. Stoddard), 이들은 모두 회의 당시에 수어주의를 옹호하였다.(장진석 역 2007: 187) 결과적으로 밀라노 회의는 ‘농아동들이 수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방향을 공인한 것처럼 해석되었고 이러한 결정은 대중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교육제도와 농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p><그림 2-5> 밀라노 회의(1880) 관련 사진과 그림</p>		
<p>출처(좌):https://www.handspeak.com/learn/238/ 출처(중):https://bostinnovation.com/the-milan-conference-of-1880-a-watershed-moment-for-the-deaf-community/ 출처(우):https://www.nancyourke.com/milan1880onthetable.htm</p>		

(3) 수어의 암흑기

1880년 밀라노 회의 이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학교들은 농아동을 위한 교육 방법을 수화법에서 구화법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갔다. 그 결과, 농인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수어는 사실상 박해받았으며 수많은 농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학교에 다니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교사 몰래 나눠야 하는 교육환경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또한 이 수어의 암흑기를 보내며 작가, 예술가, 변호사와 같은 농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4) 2010년 밴쿠버 회의

2010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21회 농교육국제회의는 밀라노 회의와는 또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기억될만한 회의로 남게 되었다. 밴쿠버 회의에서는 농교육에서 수어 사용 금지를 결의한 1880년 밀라노 회의를 철회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자 대표자들은 농아동 교육에 있어서 수어의 금지가 인권 및 헌법상의 권리를 차별하고 침해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의 성명 전문이다.

◎ 제21회 농교육 국제회의의 밴쿠버 성명 ◎ 새로운 시대: 농인의 참가와 협동

농교육국제회의(ICED)실행위원회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농사회는 공동으로 아래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표명한다.

기본 방침의 표명

세계적으로 많은 농시민은 ‘농’이라는 것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는 일반인의 이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은 농인을 비롯하여 ‘다른 존재’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경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를 향한 농인 시민의 참여가 방해받거나, 배제되고 있다. 많은 농인이 의사결정, 고용기회, 질 높은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시민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농시민은 교육, 경제활동, 정치, 예술, 문학 분야에서 자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인이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언어적·문화적 소수파로서 인지되는 것은 농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농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인지하여 사회에 참여할 것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880년 밀라노 농교육국제회의(ICED) 회의의 결의

1880년 밀라노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농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시 참가자는 전 세계의 농교육과 농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세계의 농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어 사용이 배제되었다.
- 세계 농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가져 왔다.
- 세계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교육 대책과 입안 과정에 농시민이 배제되었다.
- 취업 훈련, 재교육 등 경력 개발 분야에서 정부의 입안, 정책 결정, 재정적인 원조에 농

시민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농시민이 다양한 경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막아, 많은 농인이 자신의 꿈을 좇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 농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수어의 사용을 금지한 1880년 밀라노 회의의 결의를 모두 철회한다.
- 밀라노 회의가 미친 유해한 모든 영향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세계 모든 국가가 역사를 기억하고 모든 언어와 모든 의사소통 형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한 협정>

우리들은 여기서 선언하고 서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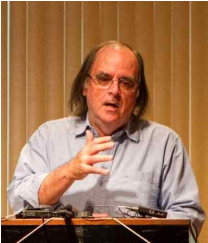



- 유엔(UN)의 제 원칙에 기반하여 특히 교육은 언어와 학문적, 실용적, 사회적 지식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기한, 유엔(UN)의 '장애인권리조약'의 원칙을 비준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세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세계농연맹은 2007년 제15회 마드리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특히, 다언어적·다문화적 교육에 평등하며 적절한 참여 촉진을 지지하는 결의를 인정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국가가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언어에 자국 농시민의 수어를 추가하고, 다수파인 청인의 언어와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유아, 농아동, 농청년을 둔 부모들이 농문화나 수어를 이해하는 데 농시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아동 중심 접근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농인 및 청인 가족을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유아가 지역 및 전국의 농인 조직, 농학교와 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시민이 자기 자신들의 인권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모든 농시민이 자랑스러운, 자신에 찬,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Vancouver 2010, "A New Era: Deaf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https://www.kestner.de/n/verschiedenes/presse/2010/ICED-StatementofPrinciple.pdf>)

출처: 광정란, 농문화와 농사회-‘제6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교재), 국립국어원, 2019. 108-110쪽

3.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서 본 농인 담론

[표 3-1] 농인 담론의 주요 인물²²⁾

	제임스 우드워드 (James Woodward)	벤 바한 (Ben Bahan)	패디 랫드 (Paddy Ladd)	바우만&머렐 (H-DIRKSEN L. BAUMAN JOSEPH J. MURRAY)
학자				
이론	청각장애인 대 농인 (<u>d</u> eaf vs <u>D</u> eaf)	보는 사람 (seeing person)	데프후드 (Deafhood)	데프 게인 (Deaf Gain)

3.1 청각장애인(deaf) 대 농인(Deaf)

- 제임스 우드워드(James Woodward)²³⁾

오늘날 농학(Deaf Study)에서 영어표기의 소문자 d와 대문자 D를 통해 병리학적 관점에서의 농인(deaf)과 언어·문화적 관점에서의 농인(Deaf)을 구분하는 방식은 1972년에 제임스 우드워드(James Woodward)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deaf’는 청각학적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 혹은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대문자로 시작하는 Deaf는 청각학적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거나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하나의 언어(수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에 버금가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어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농인’으로 번역되기에 구분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영어도 음성언어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문자언어로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통해 이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22) 이미지 출처

<https://images.app.goo.gl/ube9ALbosNmMsi578>

<https://images.app.goo.gl/5LxSjXFUwxZ8gu1TA>

<https://images.app.goo.gl/Q2VbhLn7d5C2CZfx9>

<https://images.app.goo.gl/SZ87iCtDiku53fbT7>

23) 제임스 우드워드는 청인(hearing person)으로, 1969년부터 1995년까지 갈로뎃Gallaudet대학에서 수어 및 농문화에 대한 언어학적, 인류학적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이후 태국, 베트남, 홍콩 등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수어학 연구 등에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 그는 마노아Mānoa 하와이 대학교 언어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인 하와이 수어를 문서화하는 프로젝트를 지휘하였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수어의 역사적 비교 관계, 멸종 위기에 처한 수어에 대한 기술(記述) 및 문서화이다.

(내용 출처: <http://www.georgetownslrl.com/james-woodward.html>)

[표 3-2] deaf(청각장애인) 대 Deaf(농인)

용어구분	한국어 번역	개념
deaf	청각장애인 ²⁴⁾	<p>청각학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혹은 그런 사람</p> <p>소문자 d로 시작하는 ‘deaf’는 청각장애가 청각적 경험의 거의 전부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로 어린 시절이나 노년기에 청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사람으로 주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공동체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들은 자신이 사회화를 겪은 청인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남고 싶어하며 그러한 자격을 유지하기를 선호한다.(Paddy Ladd 2003: xvii)</p>
Deaf	농인	<p>청각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 문화적 차원에서 수어와 농문화를 공유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p> <p>대문자 D로 시작하는 ‘Deaf’는 태어날 때부터 농인(Deaf)이거나 아동기에(때로는 후기에) 청각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며, 농인 집단의 수어, 공동체 및 문화는 그들의 주요 경험과 충성도를 보여준다. 이들 중 다수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적 소수자들과 유사하다고 인식한다.(Paddy Ladd 2003: xvii)</p>

3.2 보는 사람(seeing person)

- 벤 바한(Ben Bahan)

“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무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능력을 초점을 두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싶다.”(변강석 2010: 293)

벤 바한(Ben Bahan)은 그의 에세이 『seeing person』에서 농인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seeing person(보는 사람)’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청인’으로 번역되는 ‘hearing person’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러한 명명(命名)은 농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농인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사고의 틀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농인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농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활방식, 문제 해결방식, 사고방식 등에 대해 문화와 양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화상전화기, 방송 자막 수신기, 경광등 초인종 등은 농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장치들이며, 시각언어인 수어도 농인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농인이 유능하기 때문에, 즉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언어인 것이다.(변강석 2010: 293)

24) 우리나라에서는 청각 기능적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전농’, ‘완농’의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벤 바한의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 농인들의 정체성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보는 문화’의 주체인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농인 담론의 바탕이 되었고 농인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론과 기초가 되었다.

3.3 데프후드(Deafhood)

- 패디 랫드(Paddy Ladd)

데프후드(Deafhood)는 데프니스(deafness)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다. 패디 랫드(Paddy Ladd)는 그의 저서 『농문화의 이해-데프후드를 찾아서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를 통해 농문화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으로 데프후드(Deafhood)를 이야기하였다. 그의 저서에서 패디 랫드는 ‘세상 속에 존재(being-in- the-world)’하는 농인(Deaf)의 실존적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1990년에 이 용어를 고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Paddy Ladd 2003: xviii)

그는 데프후드(Deafhood)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어인들은 농인(Deaf)으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농인(Deaf)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상실²⁵⁾의 문제는 의미 있는 현실이 아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그들은 편안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언어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온 것이다. 더구나 농인들은 한 수어에서 다른 수어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언어’를 형성하여 사실상 전지구적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데프후드의 개념은 이러한 더 큰 차원을 포괄하려고 한다.(Paddy Ladd 2003: 14)

수어인들은 주류 사회가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다수 사회 내에서 그들의 ‘가정(Home)’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농인들에게, 가정(Home)은 농인 공동체이다. 이들은 지난 250년 동안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류문화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일상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은 주류사회가 수어를 배우도록 설득하여 두 공동체가 서로의 세계를 드나들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Paddy Ladd 2003: 16)

패디 랫드는 데프니스(deafness)에서 데프후드(Deafhood)로 나아가는 차원적 단계를 위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패디 랫드는, 그간 ‘데프니스(deafness)’라는 의학적 용어가 농인(Deaf)으로서의 경험을 청력 손상(hearing-impaired)²⁶⁾이라는 더 큰 범주에 포괄시키는 데에 이용되었고, 그리하여 집단적 존재로서의 농인의 진실은 없는 것²⁷⁾으로 여겨졌다고 보았다(Paddy Ladd

25) 이 본문에서 ‘상실’이란 ‘청력의 상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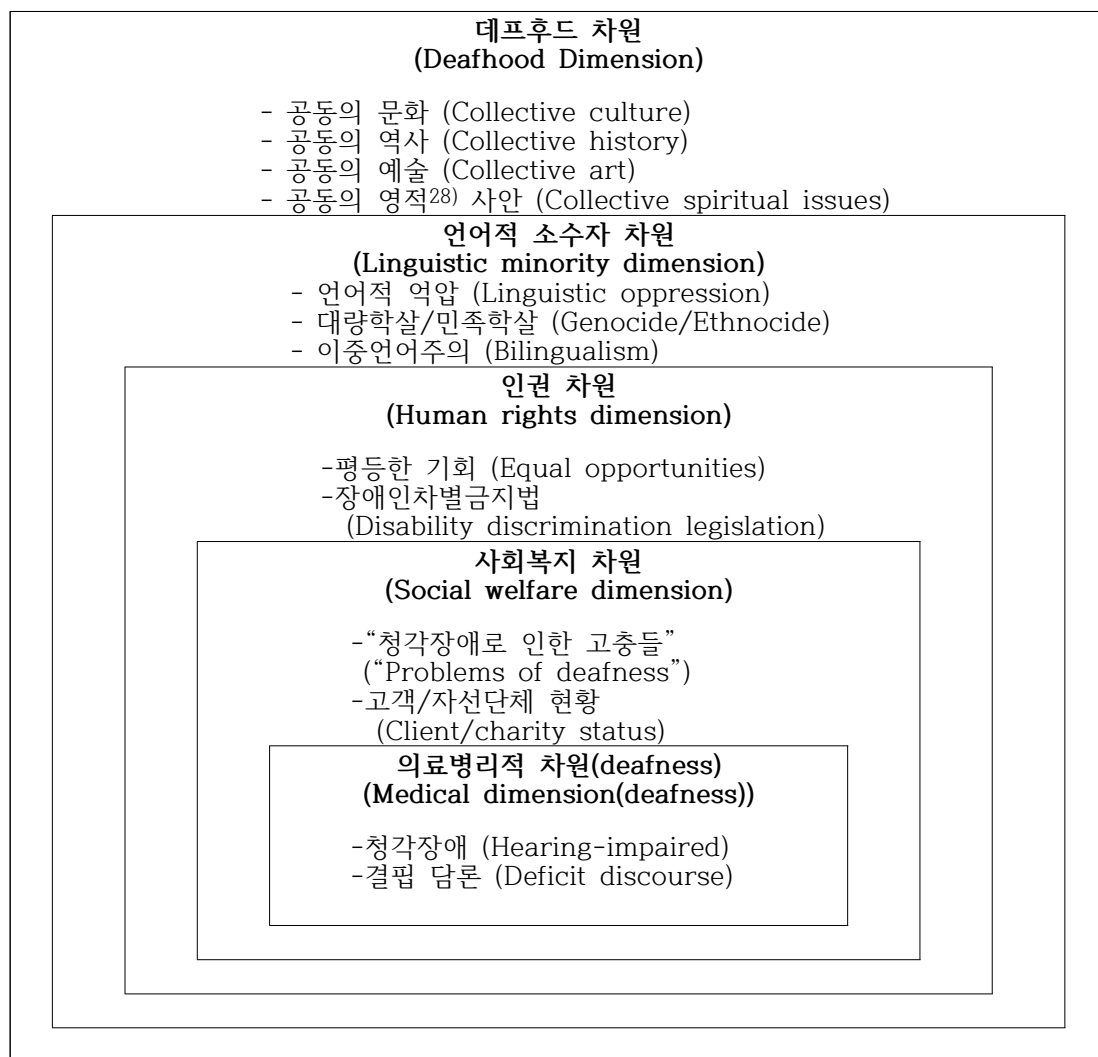
26) ‘청력손상(hearing-impaired)’은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가리킨다.’고 패디 랫드는 지적하였다.(Paddy Ladd 2003: xviii)

27) ‘없는’으로 번역한 ‘invisible’은 ‘눈에 보이지 않는’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어떤 것에 의해 가려졌다고 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2003: xviii).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데프후드(Deafhood) 개념을 제시하며 데프니스(deafness)에서 데프후드(Deafhood)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데프후드(Deafhood)에 대한 개념과 정의이다.(김철관, 윤병천 2014: 153-154)

- 데프후드는 ‘수어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신God 또는 자연이 범한 생물학적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 데프후드는 ‘자기 속의 농 그 자체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 여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여행이다.
- 데프후드는 농문화를 소중히 여겨 그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민주의가 이 문화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데프후드라고 하는 개념이 유용한 것은 이러한 때이다. 우리들 모두가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나, 그럼에도 농문화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깊고 넓은 데프후드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림 3-1> 데프니스에서 데프후드까지의 차원적 단계와 각 단계의 주요 용어

(Dimensional stages from deafness to Deafhood, together with key terminology for each stage)(Paddy Ladd 2003: 170)

28) ‘spiritual’은 ‘정신적인’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패디 랫드는 농인을 ‘수어인 Sign Languag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데프후드(Deafhood)를 한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농인(Deaf) 자신이 농인 정체성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농인 개개인은 국가, 시대, 계급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나름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가정하였다.(Paddy Ladd 2003: xviii)

데프후드(Deafhood)에서 영어 접미사 ‘후드(-hood)’는 ‘지위’, ‘상태’, ‘시기’, ‘시절’ 등의 어원을 내포하고 있어, ‘~의 상태·성질’로 해석이 가능한 동시에 ‘~한 사람들의 집단’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다. 패디 랫드는 청인들에게 농인의 진면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동시에 데프니스(deafness)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청각장애(Hearing-impaired)라는 결핍 담론 (Deficit discourse)을 넘어 공동의 문화(Collective culture), 공동의 역사(Collective history), 공동의 예술(Collective art), 공동의 영적 사안(Collective spiritual issues)을 다루는 차원, 즉 데프후드(Deafhood)의 차원으로 초대하고 있다. 데프니스(deafness)인 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든 데프후드(Deafhood)로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농인(Deaf) 중에는 세대를 거듭한 가정에서 농인(Deaf)으로 태어나 자라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데프니스(deafness)로 태어나 농인(Deafhood)이 되어간다. 그 길의 이정표에 데프후드(Deafhood)가 있다.

3.4 데프 게인(Deaf Gain)

- 바우만과 머렐(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교류, 혁신, 창조의 원천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만큼이나 인류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1조

바우만과 머렐(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은 그들의 저서 「데프 게인(Deaf Gain)」에서 청각장애(deafness)를 청력 표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정상 대 비정상’이라는 사회의 관념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각장애를 다른 어떤 이들에 비해 인간으로서 함량 미달이거나 혹은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은, 특정한 존재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상성(normalcy)이라는 관념체계는 자신들이 주장한 바대로 청각장애를 보고 있지 않다면, 이 관념체계보다 수천 년 앞서 고안된 유용한 다른 틀로서 생명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²⁹⁾을 소개하고 있다.(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2014: xviii)

29) 이 용어는 생물다양성과 언어·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두 개념을 융합한 것이므로 ‘생명문화다양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농문화와 농사회,국립국어원(2019)」에서는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과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생명문화적 다양성’으로 번역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생명문화다양성’으로 번역하였다.

‘정상’이라는 개념은 1840년에서 1860년대 사이에야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등장했고, 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통계학이 등장했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은 처음으로 종형(鐘形) 곡선이라는 플롯에 그래프로 표시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피험자가 중앙에 그룹화되고 그에 따라 소수의 사람들이 각 측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분포를 의미한다. 중앙에서 밖으로. 종형 곡선은 인구를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간주되었으며 공공 정책 결정 담론에 스며들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자칭 진보적 과학자와 개혁자들은 곡선의 “부정적” 끝을 정상화하는 것을 옹호한 반면, 일부 우생학자들은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옹호했다.

미국의 농교육은 19세기 대부분 동안 수어로 진행되었지만, 다음 세기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교실에서의 수어 사용을 금지하고 농인들 간의 수어 사용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다. 구어주의라고 불리는 이 철학은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 즉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으로 보이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재활하고, 최소화하려는 의도와 잘 들어맞았다. 영아는 병원과 같이 정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에서 태어날 때 측정, 진단, 재활의 궤적을 설정받게 된다. 청각장애인을 정상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언어인 수어의 사용은 종종 권장되지 않는다. 현재 의료 개입(달팽이관 이식 및 인공와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2014: xvi)

바우만과 머렐은 청각 및 구어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농교육 프로그램은 수어사용자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 증거로 유네스코의 언어 활력 측정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의 상태에 접근하는 수어는 없지만,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발표자들이 언어 활력에 대한 주요 측정에서 그들의 수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각장애’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상성’ 관념체계를 대신할 ‘생명문화다양성’ 체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한다.(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2014: xvi)

인류는 이미 ‘생물다양성’이라는 개념에 아주 익숙하다. 생물다양성은 보통 ‘어떤 지역의 유전자, 종, 생태계의 총체’로 이해되지만, 좀 더 자세한 정의로는 1989년 세계자연보호재단이 규정한 ‘수백만 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다. 모두 생명 현상의 다양함에 대한 개념이며 보통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분자 수준까지 덧붙이기도 한다.³⁰⁾

바우만과 머렐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파괴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단일 문화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연관하여 생물다양성과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현재 역사적인 비율보다 1,000배 더 큰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하고, 언어학자들은 세계 언어의 약 50%에서 90%가 10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들은 생물다양성의 증가가 생태계 건강의 지표라면,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생태계의 건강 지표라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인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언어를 잃어가면서 인류 번영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30)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식물학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2861&docId=5646836&categoryId=62861>

경고하였다.³¹⁾(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2014: xviii)

또한 바우만과 머렐은 ‘청각장애 유전자’ 중 하나인 Cx26의 예를 들며, 청각장애를 일종의 우리 인류의 진화적 적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Cx26 유전자의 돌연변이 복사본 2개를 가진 개체는 피부가 더 두껍다는 사실이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Cx26 유전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병리학적 상태로 간주 되는 청각장애가 오히려 보다 견고한 사회 및 문화적 생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인류에게 시사하는 것은 ‘정상성’보다는 ‘생명문화다양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봐야 할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 2014: xviii)

31) Daniel Nettle과 Suzanne Romaine은 "연구 결과 생물 다양성 영역과 고도의 언어 다양성 영역 사이에 매우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물언어적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공통 저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문화와 언어까지." 라고 말하면서 생물 다양성 핫스팟과 야생 지역이 종종 상당한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그 규모는 지구상 모든 언어의 70%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 농인의 정체성³²⁾

- 병리적 존재에서 문화적 존재로의 여정

4.1 청각장애 - 농인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거나 혹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인류의 극소수이다. 인류의 거의 대다수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소리에 기반한 언어와 지식을 문자로 기록해 왔다. 이러한 대다수의 인류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함과 결손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이들은 대다수의 인류가 붙인 술한 이름을 거쳐 청각장애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상태를 청각장애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 상태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은 상태’는 장애인으로 세상에 등록되는 원인인 동시에 언어·문화적 소수자인 농인(Deaf People)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결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이 모든 이름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수어를 잘해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을뿐더러 농인(Deaf)은 더더군다나 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가 아무리 구어를 잘해도 ‘듣는 사람(Hearing person)’이 될 수는 없다. 그들이 지닌 노력 속에 얻어낸 성과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들은 구어를 잘하는 청각장애인, 장애를 극복한 청각장애인이 될 뿐이다. 이것이 ‘999명이 1명에게 보여주는 시선’³³⁾이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듣는 사람’, 즉 청인의 세계 속에서 장애 대 비장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인에 두며 청각장애인으로 자라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있다. 바로 ‘소리가 들리지 않음’의 상태는 농인(Deaf People)이란 일종의 민족공동체³⁴⁾로부터 온 초대장이라는 것을.

4.2 의료·병리의 대상으로 자란 이들

- ‘저 너머에 있는 수어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1) 인공와우와 언어치료의 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장애인이란 이름을 얻는다. 자신의 상태는 ‘청각장애’가 되고 장애는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받는다. 과거에는 보청기와 같은 기구들이 청각장애 극복의 길잡이를 자처했다면 지금은 인공와우라는 공

32) 본 장은 아래 출처의 내용과 같은 기초를 가지고, 내용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김유미, 「농문화와 농사회-제2장 농정체성」(한국수어교원양성교재), 국립국어원, 2019.

33) 이 표현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표현은 아니며, 문학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이다.

34) 농인공동체는 흔히 민족공동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고유의 언어와 관습 등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학의 산물이 청각장애 없는 세상을 향해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장애의 영역으로 묶여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의 장애 영역의 하나로 분류되고 인공와우와 언어치료라는 사회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 음성언어가 주류인 사회에서 음성언어를 배우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이 아이들의 가정을 지배하게 되고,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사회적 신념에 설득당한 가족과 아이는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음성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2)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인공와우와 언어치료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제1언어로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과 학교의 보호와 지원 속에 청년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성장한 이들이 사회의 진짜 얼굴을 만나는 때는 학교의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이다. 사회초년생이 된 이들은 취업의 문턱 앞에서 남들보다 몇 배 높은 허들을 마주하게 되고, 사회는 다른 장애 영역보다 청각장애 영역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더 난색을 표한다. 취업의 문턱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은 이들의 청음독화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불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운 좋게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자신이 청인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이 감정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소속감을 느낄 공동체가 없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다. 일찌감치 수어로 넘실거리는 커뮤니티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인터넷을 헤집으며 동류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금의 정거장이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그다음 정거장 그다음 정거장을 짚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리고 꽃피울 영토를 찾아 나선다.

4.3 언어·문화적 존재로 자란 이들

- ‘수어는 내게 공기(空氣)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잘하고 싶다.’

1) 수어가 모어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가 세상에 나 하나가 아님을 일찌감치 경험하게 되는 이들도 있다. 부모가 자신과 같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다. 이들은 부모와 자신이 함께 공유하는 이 소리 없는 세상이 자신의 고향이며 이 세상 밖에 있는 소리 가득한 세상은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집에서는 수어가 살아 있으며 문을 열고 나간 집 밖의 세계에 수어가 없더라도 주눅 들지 않는다.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은 수어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산소 공급기에 연결된 채로 우주를 유영하는 것처럼 이들은 두 세계가 존재하고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익숙해진다. 또한 자신과 같은 존재가 아주 적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말이면 부모를 따라나선 그곳에 나와 같은 ‘수어인’³⁵⁾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어는 이 아이들이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폭발적으로 확

장 시키는 도구이다. 이 언어를 손에 진 이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세상살이의 이치와 방법을 배워나간다. 이들에게 수어는 공기와 같다. 수어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수어를 통해 펼쳐내는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와 담론들이 이들을 더욱 유능하고 의미 있게 한다.

2) 동족 찾기

여기 또 다른 이들이 있다. 부모는 듣는 존재이지만 자신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들에게는 동족이 있다. 이들 또한 자신과 같은 동족을 찾아 나선다. 자신과 부모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 이들이 농학교나 농커뮤니티에 발을 들이고 그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수어를 습득하고 수어에 자신의 언어 정체성을 꽂고 그 안에서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나간다. 수어를 공유하고 시각문화를 공유하며 함께 세월을 보내는 그 시공간에서 이들은 ‘농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수어인’,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 부르게 되는 것이다. 수어가 살아 숨 쉬는 시공간에서 이들은 더 이상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듣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회의 평가를 이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출발점에 ‘소리가 들리지 않음’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출발점을 통해 ‘청각장애’라는 이름표를 붙인 이들의 심장에는 ‘농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라 뛰고 있다. 이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병리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에 자신은 언어·문화적 존재로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3) 정체성과 자아실현

그렇다고 이들에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주류의 언어인 한국어는 학습과 기회의 기본 도구이기에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이들 대부분은 수어와 음성언어 둘 중 하나를 강요받았으며 수어로 자국의 문자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전무 하다시피 했고, 그 저 읽기와 말하기 훈련에 세월을 보내며 속수무책으로 학령기를 보내버리고 말았다. 이들에게 수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이기에 수어를 포기하며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은 아예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자국의 언어인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싶다. 그렇게 언어를 획득하여 더 높은 수준의 학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얻고 싶다. 그래서 한국어가 제1언어인 그러나 수어는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보노라면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올라오곤 한다. 마치 우리 땅을 떠나보지 않은 한국인이 젓먹이 시절 북유럽 어느 나라로 입양되어 성장한 이를 만날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유사한 경험을 되는 것이다.

4.4 언어·문화적 존재로 넘어오는 이들

- ‘수어는 애뜻하다. 비로소 나의 언어를 찾았다.’

35) ‘수어인’이란 용어는 패디 랫드의 담론 ‘데프후드’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패디 랫드는 농인을 수어인이라고 부르기 원했다.

1) 수어와 만나는 시간은 온다

병리적 대상이 되어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해가는 이들에게도 수어는 찾아온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빨리 이들은 수어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텔레비전을 켜면 동그라미 속에서 손짓을 하며 다양한 얼굴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 또 길거리에서 오묘하고 다채로운 얼굴표정을 지으며 수어를 하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만날 수도 있다. 혹은 부모님이 수어교실을 다니며 언어치료를 받는 자신에게 수어를 조금씩 알려주기도 할 것이다. 스스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고 학교에서 자신과 같이 인공와우를 한 친구와 함께 하게 되는 경우, 자신보다 먼저 수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그 친구를 보며 수어가 있는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더 많은 수어 관련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창작자들을 보게 된다. 이런저런 인연과 경험은 이들을 수어가 있는 시공간으로 안내한다. 그렇게 수어가 가득한 시공간을 엿보고 받을 들이고 한때 녹아들고 하며 수어가 이들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알약처럼 보이는 순간을 맞는다.

2) 수어의 세계로 넘어오는 사람들

이 알약을 먹을 것인가? 수어의 세계가 열리면 다시는 청인의 세상에 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수어의 세계가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이들을 머뭇거리게 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 나가게도 한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는 그 누군가를 통해 이들은 수어의 세계에 들어와 그 시공간에 머물게 되고 비로소 이들은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듣기 위해, 듣는 이처럼 의사소통하기 위해 애써왔던 지난날의 삶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 강박과 의무에서 벗어나 수어로 숨 쉬는 지금은 더 소중하다. 이들은 이렇게 병리적 대상에서 언어·문화적 존재로 넘어온다. 이들에게 수어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수어는 애뜻하다. 비로소 자신의 언어를 찾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모가 농인인 친구만큼 수어를 잘 구사할 수는 없지만 한국수어답게 구사하기 위해 공부하고 애쓰며 시나브로 진정한 농인이 되어간다.

그래서 일찍이 패디 랫드(Paddy Ladd)는 말했다. ‘농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이다.’라고.

4.5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

1)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 즉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결함과 결손이고 보충이 필요한 기능으로 이해되었다. 사회시스템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소리 기능이 없거나 저하된 이들의 재활과 더불어 사회의 성공적 복귀를 목표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이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 성장하여 자신을 장애의 한 영역인 청각장애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장애가 있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관여도 흡수한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존재'인 이들은 들리지 않는 이 상태를 옳지 않은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온전히 듣는' 이들처럼 자신도 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실 이들을 '위한다'는 모든 사회적 지원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토록 청인이 되고 싶지만 결국에 청인이 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회는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그렇게 사상의 진보와 과학의 화답으로 오늘날 많은 청각정보가 시각정보로 변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발전해 온 이 사회 속에서 청각장애인은 예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 모두가 이러한 사회의 지원에 만족하고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사회적 장애가 아닌 삶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회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장애 영역과는 달리 청각장애 영역은 근본적으로 언어권에 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2) 농인으로서의 정체성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제도는 나날이 개선되었고 과학은 청각장애 인자(因子)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세상에 내놓은 지 오래되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은 발전된 IT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차별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비장애인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분명 삶의 질이 향상되었건만 여전히 이들은 불편을 경험한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 중 한국수어가 제1언어인 이들, 즉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들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회는 한국어가 주류언어인 사회이므로 주류언어인 한국어를 아무리 시각언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농인들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나 지금이나 정보는 한국어를 입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제1언어가 아닌 농인들은 여전히 이 사회의 이방인이다. 자막과 수어통역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 사회가 모르는 한, 한국어와 한국수어가 상당히 다른 체계의 언어라는 이해가 일반화되지 않는 한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사회는 문화적 타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기보다 외국인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이들은 언어적 소수자이다.

3) 정체성 스펙트럼-장애정체성에서 농정체성으로

장애정체성 Disability Identity		농정체성 Deaf Identity	
소리가 들리지 않음			
나에게는 청각장애가 있다.		나는 소리가 안 들린다.	
자기 이해 ▶ ▶ ▶ ◀ ◀ ◀			
그러므로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청인들은 나를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세계관과 장애에 대한 인식 ▶ ▶ ▶ ◀ ◀ ◀			
이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		이 세상에는 청인과 농인이 있다.	
‘청각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야 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농인이면 편할 텐데’	
장애인들은 장애 영역이 다르더라도 함께 연대하고 뭉쳐야 한다. 장애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질감이 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서로 노력하면 된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청인들은 우리 농인을 보면 반가워하고 함께 연대하자고 한다. 우리 농인도 필요에 따라 함께 연대하여 접근권 등 여러 이슈에서 함께 행동한다. 그러나 솔직히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그런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품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청인이다. 농인인 우리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언어에 대한 인식 ▶ ▶ ▶ ◀ ◀ ◀			
☺나에게는 한국어가 제 1언어이다. ☺나는 한국수어를 배울 생각이 없다. ☺나는 한국수어가 낯설게 느껴진다.	☺한국수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하다 ☺한국수어는 의사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이다.	☺ 나는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한국수어를 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잘하려고 노력한다. ☺ 뒤늦게 배운 한국수어가 어렵지만 나는 한국수어로만 소통한다. 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 나의 제2언어는 한국수어이다. 우리 농인에게는 고유한 시각언어가 있다. ☺ 한국어는 학습과 자기실현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 언어이다. ☺ 나는 한국수어 사용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수어통역에 대한 인식 ▶ ▶ ▶ ◀ ◀ ◀			
☺나는 수어를 모른다. 나는 정보를 자막으로 전달 받는 것이 좋다.	☺ 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고 싶다. ☺ 듣지 못하는 내게	☺ 나는 한국수어 원어민이다. 한국어를 적어놓은 문자통역은 내게 외국어나 같다. 나는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정보를 전달받고 싶다.	

장애정체성 Disability Identity		농정체성 Deaf Identity	
	<p>수어는 훌륭한 보조 수단이다.</p> <p>☺ 수어통역사들이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사용해주면 나는 더욱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다.</p>	<p>☺ 나는 문자통역으로도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으나, 한국수어는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나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p>	
수어번역노래 ▶ ▶ ▶ ◀ ◀ ◀			
<p>‘수어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 수어로 노래를 한다면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일까? 음악과 어우러지는 퍼포먼스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다.’</p>	<p>‘수어노래는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청인과 농인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p>	<p>‘수어로 노래를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질감이 느껴지고 농인의 문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p> <p>‘수어노래는 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방법이다.’</p>	<p>‘수어번역노래는 정말 지루하다. 별 감흥이 없다. 무대에 서는 거 자체를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퍼포먼스는 정말 못 봐주겠다.’</p> <p>‘노래 가사를 기왕에 번역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면, 한국수어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겠다. 그렇다고 농인의 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p>

(1) 세계관과 자기 인식

장애에 관한 자기 인식은 장애정체성과 농정체성을 가르는 명료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른 장애 영역의 경우,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끼리 모였을 때 그 집합체는 동질감과 연대 의식을 진하게 나눌 수는 있으나 신체적 장애 상황은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 즉 농인들끼리 모이면 동질감과 연대 의식은 당연하거니와 더 이상 신체적 장애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청각적 장애는 수어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해소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신체적 장애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정체성은 환승정거장과 같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 채 환승구간에 머무는 이도 있고 혹은 그곳을 종착지로 삼는 이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언어·문화적 구간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장애정체성에 머문 이들에게 청각장애는 수용과 극복의 과제로 여겨지며 평생을 따라다니는 짐으로 작용한다. 반면 장애정체성을 찍고 농정체성에 안착한 이들에게 청각장애는 존재양식의 하나이며 소수자에 속한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농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듣기 위해 애쓰는 삶을 좇지 않고 농인으로서의 언어권을 보장받는 쪽에 마음을 쓴다. 즉 농정체성이 장애의 수용을 의미하거나 장애인으로의 권리보장을 요구로 연결되는 자기 이해는 아니다. 물론 농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청각장애라는 자신의 의료·병리적 지점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선과 관여를 수용한다. 그러나 그 위에 언어·문화적 자기 이해를 건설해 온 이들이 농정체성을 가진 이들, 즉 농인이다.

이들에게 이 지구는 다수의 비장애인과 소수의 장애인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수의 청인과 소수의 농인이 존재하는 곳이다.

(2) 언어관과 수어통역에 대한 인식

장애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한국어 중심으로 언어를 익히고 학습하며 성장한 이들이다. 이들에게 수어는 낯선 언어이거나 다가가기 쉽지 않은 언어이다. 이들을 위한 수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기관도 이렇다 할 게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장애정체성에 머물러 있고 한국어가 더 편한 이들이 스스로 한국수어를 배워보고자 하는 발걸음은 내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에 들어서 한국수어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수어의 기능만을 접하고 수어에 담긴 문화는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게 수어 단어를 한국어에 대입하며 자신의 의사소통에 기능을 하나 추가한 거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농인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이들의 여정이 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구화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잠근 채 수어만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이자 고유언어로 인식하고 서툰든 능숙하든 한국수어 안에 머무는 이들이야말로 농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어통역은 한국수어가 제1언어이자 모어인 이들에게는 정보 접근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정보 접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문자통역은 이들에게 외국어나 다름없다. 그래서 한국어 문자서비스는 다시 한국수어로 번역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요구한다. 수어통역은 듣지 못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다. 한국어를 ‘듣지 못해서’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속기와 같은 문자통역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체계가 다른 언어이기에 두 언어 간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휘도 문법도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회의 상식으로 통용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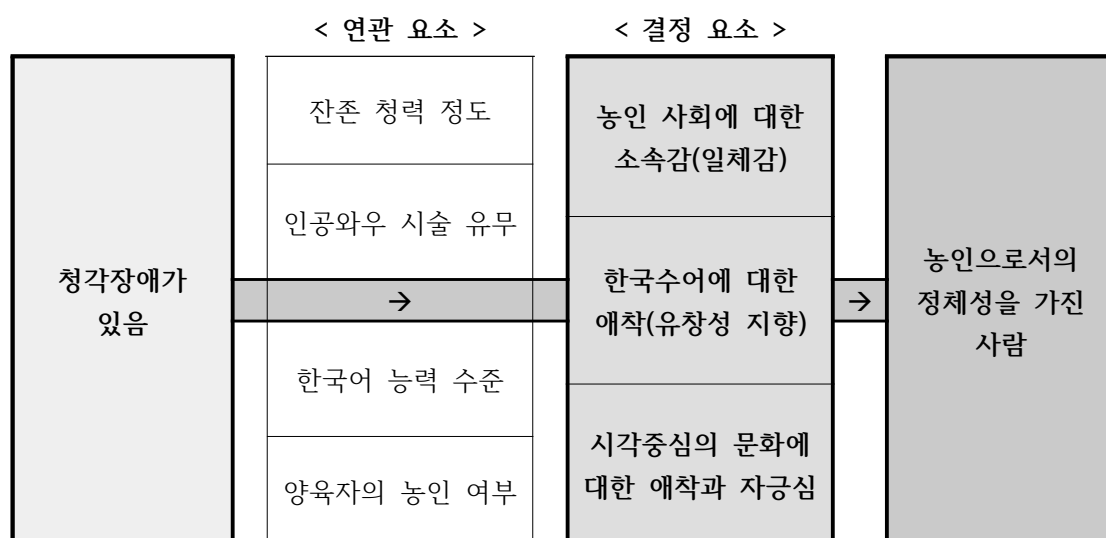
(3) 수어노래와 문화에 대한 인식

장애정체성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수어노래는 별 거부감이 없는 예술 혹은 퍼포먼스이다. 반면 농정체성에 도달해 있는 이들에게 수어노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듯 보이는 익숙하면서도 가까워지지 않는 퍼포먼스이다. 소리 없음에 근본을 두고 있는 농인의 문화를 생각해본다면 음악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이 행위가 얼마나 낯선 문화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수어노래’라는 용어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청인의 문화 산물인 노래 중 가사만을 수어로 번역하고 그 결과물에 시각적 퍼포먼스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수어번역노래’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마저도 온전한 언어-한국수어가 아니므로 ‘수어’라는 단어 대신 ‘수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고찰은 뒤로 하더라도 농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수어노래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회 내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수어노래는 청인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고심했던 농사회의 선택지, 농인의 필요와 청인의 취향의 결합, 자신의 예술혼을 표현하고 싶었던 농인들에게 주어진 문화적 대체재(代替財)였을 뿐이다.

4.6 농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의료·병리적으로 청각장애로 정의되고 사회는 장애정체성을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농정체성으로의 여정이 시작된다. 청각장애인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청각장애로 인해 초대된 또 다른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농인이 되어가는 이 여정에 선 사람들은 농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연관은 있으나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들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핵심적인 것들로 나뉜다.



<그림 4-1> 농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1) 농정체성의 연관요소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장애 정체성과 농정체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들이 있다. 다음은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이다.

(1) 잔존청력의 정도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 이 아이의 잔존청력의 정도에 따라 언어치료 방법과 학교 선택이 갈리고 그로 인해 이 아이가 농사회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주 늦어질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잔존청력의 정도는 농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농사회 안에는 소리를 거의 다 듣는 농인들도 꽤 있다. 그러나 이들이 소리를 꽤 듣는다고 해서 이들이 농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잔존청력과 상관없이 이들은 자신을 농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잔존청력이 농인의 등급을 나누지는 않는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든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그 난도와 상관없이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그는 농인이 되어가는 여정에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2) 인공와우 기술 유무

과거 인공와우 기술은 농사회 내에서 아주 극렬한 저항의 대상이었다. 인공와우 기술을 한다는 것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 여겨졌으며 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걸만 농인인 사람으로 치부되었다. 인공와우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소문들도 여전히 농사회 내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인공와우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공와우도 점점 더 개량되었고 과거의 불편을 해소한 기술집약적 인공와우들이 생산되고 영유아에게까지 정부의 기술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 대부분이 인공와우를 기술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저항하기에는 과학기술이 멀리 앞서나가고 말았다. 이제 농사회의 미래 세대는 인공와우를 달고 모일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인공와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성인이 된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공와우를 제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그런 결정들은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 현재 농사회의 정서와는 상관없이 이제 인공와우 기술 여부가 농인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인공와우 기술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력이 생기기 전인 영유아 때에 주로 이루어진다. 청각장애가 된 것도 스스로의 결정은 아니지만 인공와우 기술을 받게 된 것도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세대가 농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3) 한국어 능력 수준

농사회에는 인공와우 기술 여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능력 수준, 특히 음성언어의 구사 수준을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높은 발화 수준을 보이는 농인에 대해 보통 농사회는 부러움과 이질감이라는 양가감정을 갖는다. 또한 이 감정은 일관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같은 발화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특수학교(농학교) 출신 농인과 일반학교 출신 농인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학교 출신에게는 ‘구화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일반학교 출신에게는 ‘구화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결국 한국어 능력 수준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농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와 괴리감은 특별한 상황, 즉 경쟁과 갈등의 국면이 아닌 한 심각한 대립의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가 되었던 농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한 이들은 자신의 구화 능력을 쓰려고 하지 않으며 수어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과 일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 그 자체가 농인의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동기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한 측면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4) 양육자의 농인 여부

농아동의 양육자 모두가 청인인 경우, 양육자 중 한 명이 농인인 경우, 양육자 모두가 청인인 경우에 따라 농아동의 언어와 문화 환경을 달라진다. 따라서 양육자 중에 농인이 있어서 수어와 농인의 문화가 일찌감치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농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환경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 변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농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양육자의 조건보다는 양육자의 양육 방향과 헌신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기와는 달리

취학 이후에는 또래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농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농인의 90%는 청인 양육자 밑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농사회와 연결되었고 농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상 농정체성의 연관요소를 살펴보았다. 연관 요소는 농정체성의 밀도를 가늠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농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농사회 내에서도 마치 순혈주의와 같이 농정체성의 연관요소를 잣대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 특히 경쟁 관계의 구도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혹이다. 그러나 농사회는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소수언어집단이다. 연관요소가 농인을 계층화하거나 갈라치기 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농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 농정체성의 결정 요소

장애정체성과 농정체성을 가르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착이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 농정체성 형성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잔존청력의 정도도, 인공와우 기술 여부도, 한국어 능력 수준도, 양육자의 농인 여부도 농정체성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사회와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농인으로서 사는지 청각장애인으로서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1) 농인 사회에 대한 소속감-일체감

농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농사회의 사업 주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농학교, 농인협회, 종교 커뮤니티 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며 주거나 직업 그리고 일상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농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석(磁石)과도 같은 것으로 농인들은 서로에게 끌리고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모이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농인의 일상은 농인들의 회합을 중심에 두고 운용된다. 구화 능력, 인공와우 이식 여부, 심지어 수어 능력 수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방에는 한국어도 한국수어도 익히지 못한 채 흡사인을 하는 농인 어르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 편안함과 안도감 더 나아가 살아있음을 느끼느냐는 것이다. 농정체성을 형성한 이들은 여러 조건들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농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도감과 생동감을 동시에 느낀다.

(2)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유창성 지향

농사회에는 농학교를 졸업하여 수어가 아주 유창한 농인들이 있다. 반면, 앞서 말했다시피 지방 농어촌 지역에는 흡사인만을 구사하는 농인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화사용자로 성장하여 뒤늦게 농사회에 발을 들이고 수어를 배워나가는 이들도 있다. 이들 중 누가 농인인가? 이 세 부류 모두 농인일 수 있다. 이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한국수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보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언어의 유창성은 부족하더라도 농인이다. 물론 수지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수어를 잘하려는 노력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농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유창한 수어 화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발걸음에 농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시각중심의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

농인은 청각중심의 문화가 불편하고 시각중심의 문화가 편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농인은 청각경험에서 출발한 ‘듣는 문화(소리문화)’에 별 감흥이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농인은 시각경험에서 출발한 ‘보는 문화’에서 감흥과 역동성을 느낀다. 수어노래와 같은 소리문화의 산물보다는 수어시와 같은 보는 문화의 산물에 애정을 느끼며 시각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한국수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시각중심의 문화가 낳은 모든 가치 기준과 관습, 수어문학과 농인의 삶이 담긴 예술작품을 사랑한다. 자신이 속한 시각문화의 유산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발전을 모색하며 전승을 고민한다.

4.7 농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농인과 농사회를 의료·병리적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재활과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 왔다. 농사회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그 체계 안에서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농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이유로 받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농인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의료·병리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지원, 의료·복지 지원 안에 농인들에게 달가운 것만 있지는 않았다.

‘장애는 결함과 결손’이라는 근원적인 인식은 결국 장애를 물리적으로든 시스템적으로든 제거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듣는 경험을 하고 싶지만, 농인과 수어의 소멸은 원하지 않는’, 이 ‘농인(Deaf people)’이라는 부류 앞에서 사회는 당황하게 된다. 인공와우 시술의 확대를 반기지 않는 농사회의 정서를 청사회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농인을 위한 정책은 궤를 달리하게 된다. 그러나 농인에 대한 언어·문화적 이해와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는 너무 늦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농사회는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탱해주고 언어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뒤늦게 꿈꾸고 있다.

현재 농학교에 입학하는 청각장애 아동 수는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는 곧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 농사회의 규모와 역동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그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농사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농사회로 유입될 미래 세대를 찾아 나서야 하고 그들에게 한국수어 언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농인 인구의 감소는 한국수어라는 한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소멸해가는 과정이며 이 소중한 문화와 공동체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주류사회에 환기해야 한다. 농인 인구에 맞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도 필요하지만, 농인 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와 언어 소멸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농아동의 언어권 보장과 같은 절실하고 급박한 과제 해결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농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5. 농인의 문화³⁶⁾

5.1 농문화(Deaf Culture)의 정의

‘문화가 다르다’는 말은 공동체간에 가치와 도덕, 언어와 관습, 법과 양식 등에 차이가 있을 때 하는 표현이다. 같은 한국인이지만 청인과 농인은 문화가 다르다. 이 두 부류의 문화 그 기저(基底)에는 한국문화가 흐르지만, 청인은 ‘듣는 문화’로 농인은 ‘보는 문화’로 문화의 정원을 가꿔나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인들이 만든 문화양식과 유산이 시각적인 요소를 배제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청인의 문화는 청각적 요소를 배제하고는 성립되지 않는 반면, 농인의 문화는 청각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성립된다.

1) 소리 없음³⁷⁾에서 출발한 문화

농인의 문화는 ‘소리 없음’에서 출발한 문화이다. 청각적 요소가 무의미한 삶의 양식이다. 소리에 의존하는 양식, 소리가 개입된 문화 산물은 농문화가 될 수 없다. 내용적으로는 농인의 서사가 형식적으로는 청각적 요소가 구현된 문화양식들 역시 엄밀히 따질 때 농문화는 아니다. 청각적 요소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문화, 시각적 요소로 오롯하게 농인의 서사나 해석을 담아낸 문화양식이야말로 농인 고유의 문화, 즉 농문화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인의 관점에서 ‘소리 없음’은 쉽게 와닿지 않는 조건이기에 막막하거나 두렵기조차 할 것이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소리 없음은 존재의 출발이다. 이들은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삶의 양식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가다가 수어로 대표되는 ‘보는 문화’에 도달하여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고유의 문화를 꽃피운다.

2) 세상을 눈으로 사는 경험과 유산

농인은 ‘소리 없음’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두고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청각이 아닌 시각으로 세상을 내면에 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농인들의 언어는 시각언어이다. 소리와 상관없는 이 언어는 빛 아래서 빛나는 언어이며 암흑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언어이다. 농인은 소리 가득한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살아가며 수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서사를 표현하고 나누고 전승해나간다.

세상을 눈으로 살아가는 수어인³⁸⁾인 농인들은 늘 세상과 갈등을 겪는다. 이 세상은 소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소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는 주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의 여러 간섭을 받는다. 청인처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년기와 학령기를 보내고 나서도 심지어 인공와우 이식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주류사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농인들은 주류사회의 주인인 청인들과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겪는다. 농인은 농인끼리 살아갈 물리적 영토가 없다. 그저 수어가 살아있는 농사회라는 문화적 영토에 기대어 호흡하며 청인사회로 나아가 직장을 다니고 일상을 영위(營爲)한다.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유영하듯 농인들은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

36) 본 장은 아래 출처의 내용과 같은 기초를 가지고, 내용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김유미, 「농문화와 농사회-제3장 농문화의 바탕, 제4장 농문화의 실재」 (한국수어교원양성교재), 국립국어원, 2019.

37) 실제로 이 지구에 소리가 없지는 않다. 농인은 자신의 잔존 청력에 따라 소리가 아예 없는 세상, 혹은 소리가 무의미한 상태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소리 없음’으로 표현하였다.

38) ‘보는 사람’의 개념은 벤 바한, ‘수어인’의 개념은 패디 랫드에 의한 것이다.

농인들에게도 부피가 크고 답답한 우주복을 벗고 가볍고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다. 바로 농인끼리의 회합이다. 농인끼리 모였을 때에야 이들은 비로소 가볍고 날렵하고 풍부하게 자신의 생각과 참모습을 드러낸다. 이 순간을 농인들은 늘 기다리며 이 순간이 일상에서 찰나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농인은 청인 사회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갈무리하고 다시 힘을 내어 청인사회라는 일상에 복귀한다. 그리고 세상을 눈으로 사는 이들이 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고 그 경험과 서사를 시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농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5.2 농문화를 담은 예술과 농인의 창작물

1) 농문화의 범주

앞서 우리는 농인의 서사와 농인의 해석을 시각적 방식으로 담아낸 것들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소리없음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눈으로 사는 이들이 만들어 낸 무형의 산물과 유형의 산물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농인의 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술 분야에서의 농인의 활동 모두를 농문화로 보는 경향 또한 있다. 그러나 농문화를 담은 예술과 농인의 창작활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인의 경험과 심상을 시각적 방식을 표현하는 수어시는 농문화이지만, 노래를 농인이 수어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것은 청문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농인이 수어노래를 청인보다 훨씬 잘 표현할 수 있고 그 분야에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 향유와 창작활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농인이 만들어 낸 모든 창작물이 농문화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할 농문화예술, 즉 농문화를 담아낸 예술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야 수어시와 같은 진정한 농문화예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왕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5-1] 예술의 영역에서 보는 농문화

Deaf Culture			Hearing Culture		농 인 의 문 화 활 동 / 청 문 화
농 문 화	VV(Visual Vernacular) 수어시 데프조크	농인의 삶을 다룬 미술	수어번역노래와 퍼포먼스		
	수어콩트 수어연극	농인의 서사 or 농인의 심상 or 농인의 해석 + 시각적인 표현	농인의 해석 + 시·청각적인 표현		
		농인의 서사 or 농인의 해석 + 시·청각적인 표현	농인의 서사 농인의 해석 없음 시·청각적인 표현	연극	
	농인의 삶을 다룬 수어뮤지컬		무용 미술	노래 음악	
농인의 문화 활동 / 청문화			Hearing Culture		

2) 농문화가 담긴 예술

실제로 우리나라는 농문화예술, 즉 농문화가 담긴 예술에 관한 한 불모지나 다름없다. 농인이 자신의 예술혼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농문화 쪽으로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과거 농인극단이나 연극제 등의 명맥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고, 수어문학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어번역 노래가 자라나 농사회와 청사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농문화의 실상이다. 한국농사회에 농문화를 담은 예술 분야는 찾기 어렵다. 미술 영역에서도 농인을 주제로 한 작품은 찾기 어렵다. 한국의 농인들은 농문화와 관련이 적은 창작물을 만들어왔으며 그저 그 작가가 농인이었을 뿐이다.



작품명: 패밀리 도그(Family Dog)
화가: 수전 듀퍼(Susan Dupor, 1991)



작품명: 이탈리아 밀라노, 1880
화가: 메리 손리(Mary Thornley, 1994)



작품명: 기계적인 귀
화가: 척 베어드(Chuck Baird, 1973)



작품명: 농학교 안의 두 소녀(좌),
벨 학교, 1944(우)
화가: 베티 밀러(Betty G. Miller, 1971)

<그림 5-1> 농문화가 담긴 예술 작품들, 그림 및 내용 출처 : 「농문화와 농사회」229-231쪽

위의 작품들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농인 당사자들이 창작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농문화 영역에 들어와 있는 예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 농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농문화예술을 아직 꽃피우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수어문학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수어 시도 이제 싹이 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농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농문화 예술 창

작자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자란 농인 작가의 창작물은 곧 한국 농사회의 역사가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한국 농사회의 농인들의 모든 예술 작품과 예술 업적은 자랑하고 기릴만하다. 그러나 농문화를 담은 예술 활동과 예술 작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농인이 만들었다고 농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인의 서사와 농인의 심상과 농인의 해석이 시각예술로 발현된 작품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농문화의 유산이 풍부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5.3 농문화의 실재

[표 5-2]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³⁹⁾

농문화		
영역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
가치와 일상	농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	농인공동체 중심의 일상 운용
언어와 일상	한국수어	
	-	언어 갈등과 대화의 향연
	-	기나긴 작별 의식(롱 굿바이)
관습과 일상	얼굴이름	-
	반짝이는 박수(로 회중 전체가 연 사에게 집중하도록 함)	-
문학과 예술	수어문학 수어콩트	-
기술	시각·촉각 중심 기술 (스마트 기기, 진동타이머, 경광등 초인종)	-
공간	수어 대화를 위한 환경 Deaf Space (공간과 조도照度)	-

출처 : 「농문화와 농사회」61쪽

앞서 우리는 농문화가 담긴 예술에 관한 논의를 통해 농문화의 범주를 다루어보았다. 이제 농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농문화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문화 안에는 두 종류의 유산이 담겨 있다. 첫째는 세상을 눈으로 사는 시각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이며, 둘째는 소수자로서의 삶이 가져온 유산이다. 시각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은 관습과 예술, 기술과 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은 농인의 일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39) 이 표는 농문화와 농사회에 수록된 표를 바탕으로 수정·반영한 것이다. 출처: 농문화와 농사회(2019, 국립국어원) 61쪽

1) 소수자로서의 농문화

‘소수자로서의 농문화’는 농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니다. 예를 들면 결혼과 직업 등을 이유로 타국에 와서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언어·문화적으로 소수자의 위치를 점하게 된 이들은 대부분 언어 갈등과 문화적 갈망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자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 농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소수자로서 살아오면 형성된 문화가 있다.

(1) 언어와 가치관

한국수어가 시각 중심의 문화 산물이라는 하나, 한국수어와 언어생활에 관한 농인의 선택과 행동은 언어적 소수자로서 반응이다. 농인은 일상의 우선순위를 농인공동체에 두고 산다.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이기에 늘 언어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느낀다.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개만 들면 보이는 청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독한 환경을 살아간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예전만큼 언어적 고립과 갈등을 겪지는 않지만, 여전히 농인은 농인공동체의 회합에 참여하여 직접 소통하고 활동하기를 원한다. 농인의 대부분은 온라인 접속과 같은 비대면 모임보다는 직접 모여서 진행하는 대면 모임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일정을 바꿀 용의가 있다. 농인들은 농인 회합 날짜를 자신의 일정에 적어두고 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약속을 조정한다. 자신들의 고유언어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농인임을 새삼 확인하며 내면 가득한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2) 일상과 규범

또한 농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농인 공동체와 회합에서 형성된 규칙이나 관습, 지도자의 중재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류사회의 제도적 규칙과는 별개로 자신이 소속된 농사회가 제시하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는 약화 되었으나, 과거에는 농인 사이에 발생한 민사적 소송이나 형사적 소송이 필요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정서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농인의 중재로 제도권에 가지 않고 농인끼리 합의를 보는 일이 많이 있었다. 또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농인들이 지역의 농인 회합에 동시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모양새가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 속사정은 농사회 자체가 좁고 언어 갈등이 있는 언어적 소수자로서 달리 대안이 없어 상호 간에 감내하며 회합에 참여하는 것이다.

(3) 대화의 향연과 기나긴 작별 의식

농인은 업무 이외의 자신의 시간을 농인 회합에 참여하는 데에 상당 부분 사용한다. 농인은 자신의 여가를 수어가 있는 시공간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은 농인들이 수어를 모르는 청인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수어가 가득한 농인과의 만남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있지만 동족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다음 회합까지 기다리기에 너무나 언어·문화적으로 갈등이 나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도 갈등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인의 회합에 참여한 농인들은 대화의 향연을 펼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대화의 향연을 끝맺는 것은 농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업이다. 농인들은 모임을 마치고 나서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한다. 이들이 그 자리를 뜨는 데에는 적어도 삼십여 분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농

인들은 그 자리를 떴을 뿐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대화의 향연과 기나긴 작별 의식은 밤새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동의 시간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대화의 향연을 이어갈 것처럼.

2) 보는 문화로서의 농문화

(1) 언어와 가치관

한국수어는 농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인 동시에 농인의 정체성과 문화의 원천이다. 농인은 한국 수어를 통해 언어·문화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한국수어를 통해 자신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형성한다. 농인에게 한국수어는 최고의 가치이다. 수어가 없는 세상을 농인은 상상할 수 없다.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이 수어를 사용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농인이다. 그래서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공간을 농인들은 찾아 나서며 그 시공간에서 농인들은 자신이 장애인인 아닌 농인임을 경험한다. 언어·문화적 존재로 자란 농인들에게는 ‘농인 됨’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 그래서 농인사회에는 청인사회가 이해하지 못할 가치 기준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인 부부가 농인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경우를 청인사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인 부부가 농인 아이를 낳는 것이 청인의 관점에서는 불행의 대물림이겠지만, 농인의 관점에서는 수어와 농문화를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 축복이다.

(2) 언어와 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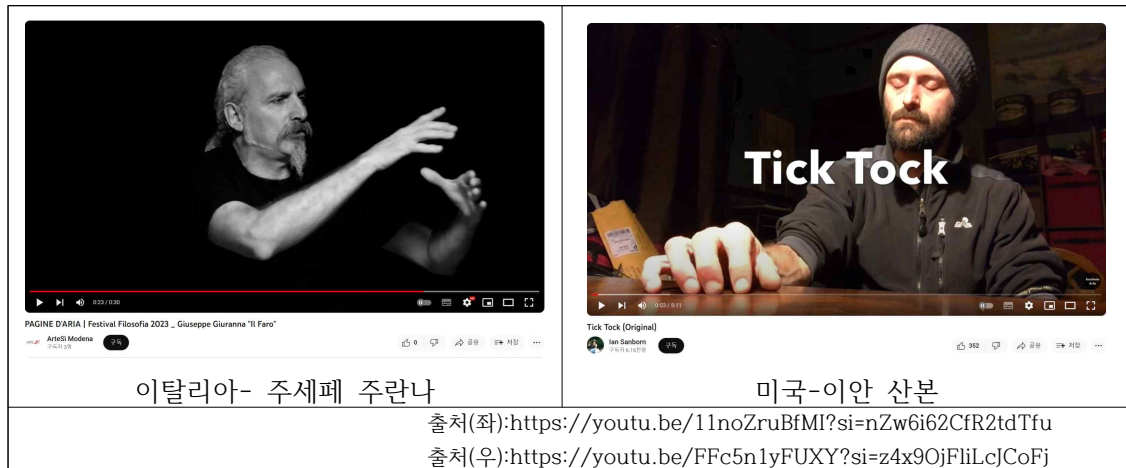
앞서 이야기한 수어로 이루어지는 이 대화의 향연을 위해 농인들은 최적의 공간 조건을 만들려고 애쓰며 이 대화의 향연이 방해받지 않는 데에 목적을 둔 관습과 규범을 지킨다. 예를 들어 농인은 청인보다 좀 더 공간을 널찍하게 써야 한다. 조금 더 넓게 띄어 앉고 둥글게 자리를 잡아 모두의 수어를 한눈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쌍방 간에도 수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1~2미터 간격을 두고 바라보며 제삼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확보된 공간에 유의해서 이동한다.

보는 문화로서의 언어생활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얼굴이름’이다. 농사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농인이든 청인이든 가릴 것 없이 농인이 지어준 수어 이름이 있다. 이를 ‘얼굴이름’이라고 부른다. ‘얼굴이름’은 지문자로 처리되는 한글 이름과는 달리 주로 시각적 특성에 기반한 직관적인 수어와 더불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남녀 성별도 표현한다. 과거 얼굴이름은 시각문화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문화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사자의 시각적 특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 수어를 조어하는 방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반짝이는 박수, 그리고 반짝이는 박수를 이용하여 군중 전체가 연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시각중심의 삶에서 나온 문화라고 할 수 있다.

(3) 수어문학과 농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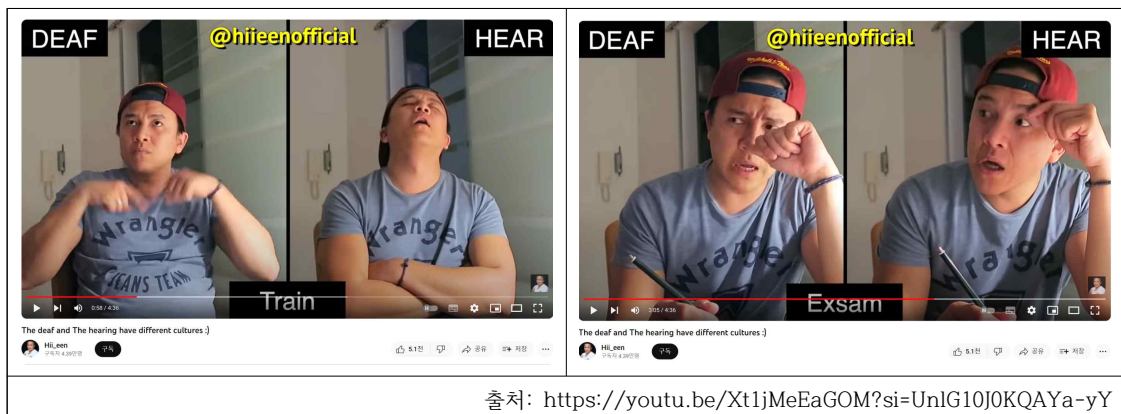
수어문학은 시각언어를 가진 농인공동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이자 예술이다. 수어시로 대표되는 수어문학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한국 농사회가 수어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임으로 오해받거나 한국

시를 수어로 번역한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일도 있다. 그러나 수어시는 마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수어에는 고정어휘⁴⁰⁾와 생산적 수어⁴¹⁾가 있는데, 수어시는 생산적 수어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일 뿐 마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해외의 저명한 수어시인(수어예술인)들의 수어시의 한 장면이다.



<그림 5-2> 수어시 예시

청인사회를 살아가는 농인으로서의 경험을 유머로 승화한 데프조크(Deaf joke)⁴²⁾-농인해학(聾人諧謔)도 수어문학의 일종이다. 다음은 미국수어-데프조크의 한 장면이다.



<그림 5-3> 데프조크(Deaf joke) 예시

수어시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사회에서는 데프조크도 변안물이 아닌 창작물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문화가 없다기보다는 사적인 회합에서 개인의 경험을 즐겁게 나눌 뿐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를 상호 간에 뽐낼 수 있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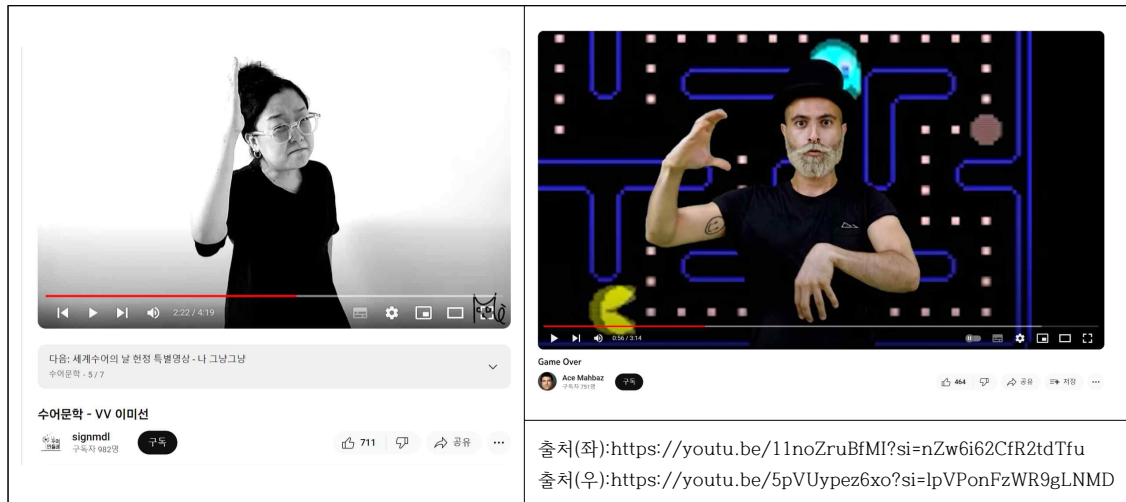
40) 고정어휘란 정형화된 어휘로서 수어사전에 수집되어있는 단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

41) 생산적 수어란 비정형화된 어휘로서 시각언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주요한 표현 방식이다. 수어의 다양한 문법 장치를 수어 공간에 펼침으로써 고정어휘와는 또 다르게 풍부하고 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비정형성 때문에 수어사전에 수집되기 어렵다. 생산적 수어의 일부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고정어휘화 된다.

42) <https://youtu.be/Xt1jMeEaGOM?si=UnlG10J0KQAYa-yY>

연 등의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어문학 중에는 ‘세상을 눈으로 사는’ 농인 특유의 관찰력과 해석을 담은 장르가 있다. 예를 들면 영화의 한 장면 등을 생산적 수어로 정교하게 혹은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이 장르는 우리나라에서 ‘수어문학’으로도 번역되며 VV(Visual Vernacular)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림 5-4> 수어문학(VV) 예시

일종의 스토리텔링인 이 장르도 농인의 서사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문자언어나 음성언어의 개입 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농인의 관찰과 해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농문화 예술이며, 예술적 장벽이 수어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농사회의 대중적인 참여와 향유가 가능한 영역이다.⁴³⁾

(4) 농문화가 담긴 기술

농인을 위한 기술은 농인의 문화가 반영되어 시각과 촉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듣기 위한 기술인 보청기나 인공와우는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기술 이기는 하나 농문화가 담긴 기술은 아니다. 농인 가정에 흔히있는 경광등 초인종이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진동타이머 등이 농문화가 담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모두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서 그 외에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인류사적인 발명품이라 할 만하다. 이 기기는 청인과 농인 모두에게 생활양식의 혁신을 가져왔다. 농인도 이 기술의 혜택으로 언어 갈등과 정보의 격차를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해소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IT기기로 집약된 기술은 결과적으로 농문화친화적이 되었고 향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모든 기기들은 연결되고 농인들의 삶의 양식에 맞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반면 농인을 위한 공간디자인은 과거에나 현재나 크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43) VV(Visual Vernacular) 자체를 수어문학의 총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 농문화를 담은 공간디자인-데프스페이스Deaf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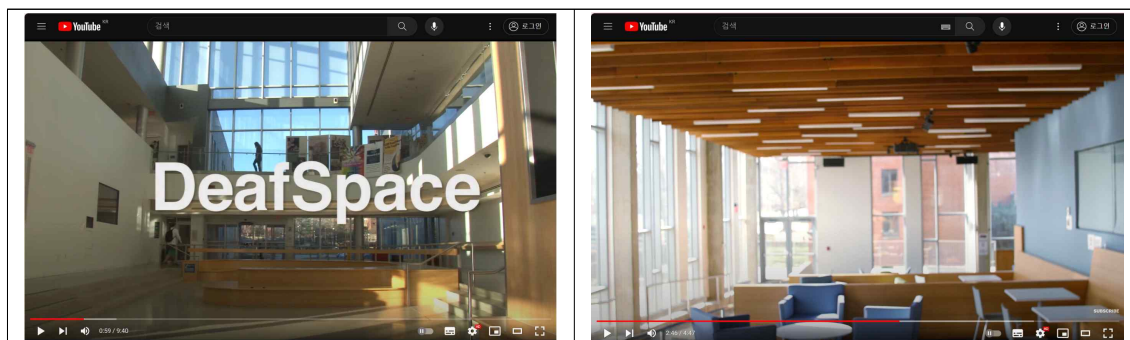
한국 농사회의 농인 대다수가 자신의 문화에 어울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나 한국농사회에서 농문화가 담긴 건축물은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농문화를 담아 공간디자인을 한 건축물 중 가장 최근에 건축된 것은 2019년 8월에 봉헌된 천주교서울대교구 에파타성당이다.



<그림 5-5> 데프스페이스(에파타 성당)

에파다 성당의 특징은 시각중심의 농문화에 맞게,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와 수어통역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제대(祭臺)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자들의 좌석의 기울기가 높아지는 경사식 구조라는 데에 있다. 그리고 제대 벽면 십자가 아래에 대형모니터를 장착하여 전례의 모든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농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시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농문화를 담은 공간디자인-데프스페이스DeafSpace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명성이 드높은 곳은 바로 미국의 갈로렛대학교이다. 다음은 갈로렛대학교의 공간디자인 예시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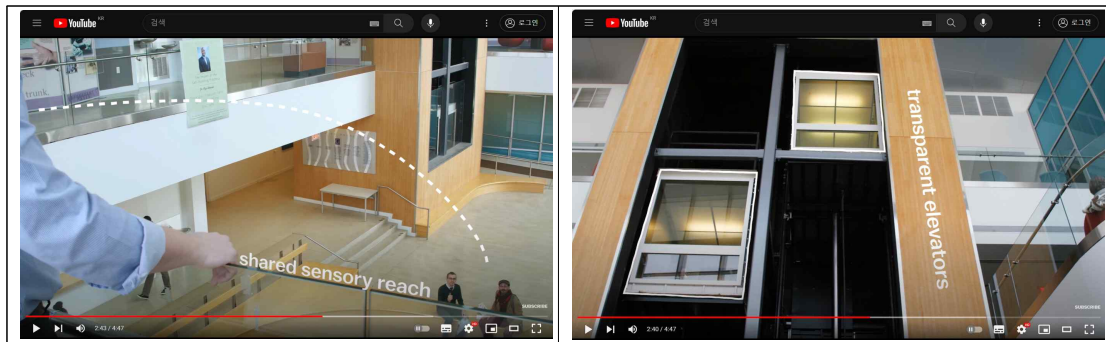


<그림 5-6> 갈로렛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1

데프스페이스DeafSpace는 시각중심의 농문화를 담은 공간디자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갈로렛대학교에 적용된 데프스페이스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 개방감이다. 건물의 외관부터 내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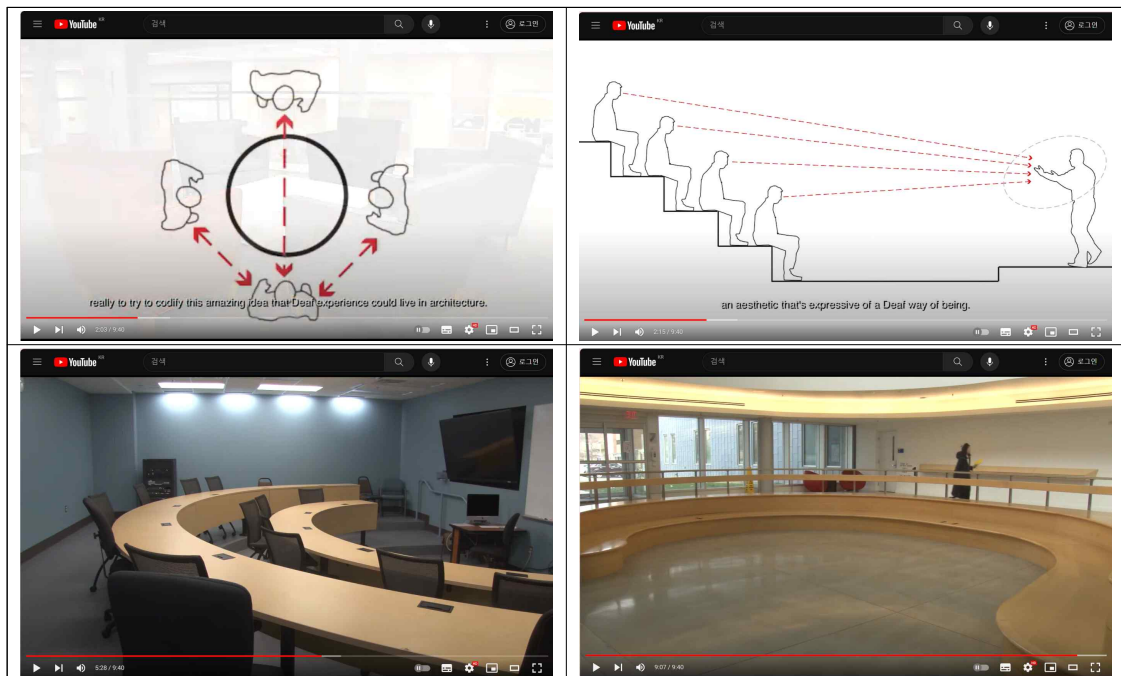
44) 출처: https://youtu.be/FNGp1aviGvE?si=CA2u_-0PWehc697s How architecture changes for the Deaf
출처: <https://youtu.be/u12uKwSwX3k?si=o8sJDaPFv-IE0xwb>

층별 구조까지 열려있는 구조를 보인다. 데프스페이스는 건물의 안팎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시각중심의 삶을 사는 농인들에게는 무척 생동감 있는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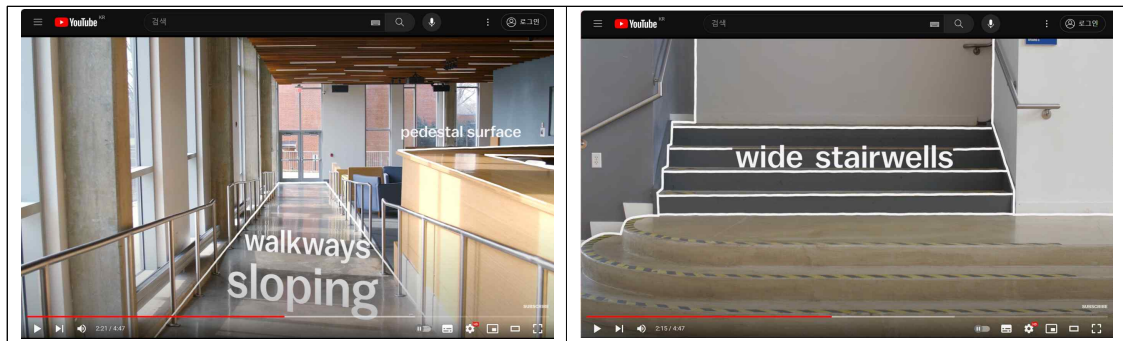
<그림 5-7> 갈로텟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2

건물의 내부는 윗층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 엘리베이터도 유리창을 내어 시각적으로 열린 구조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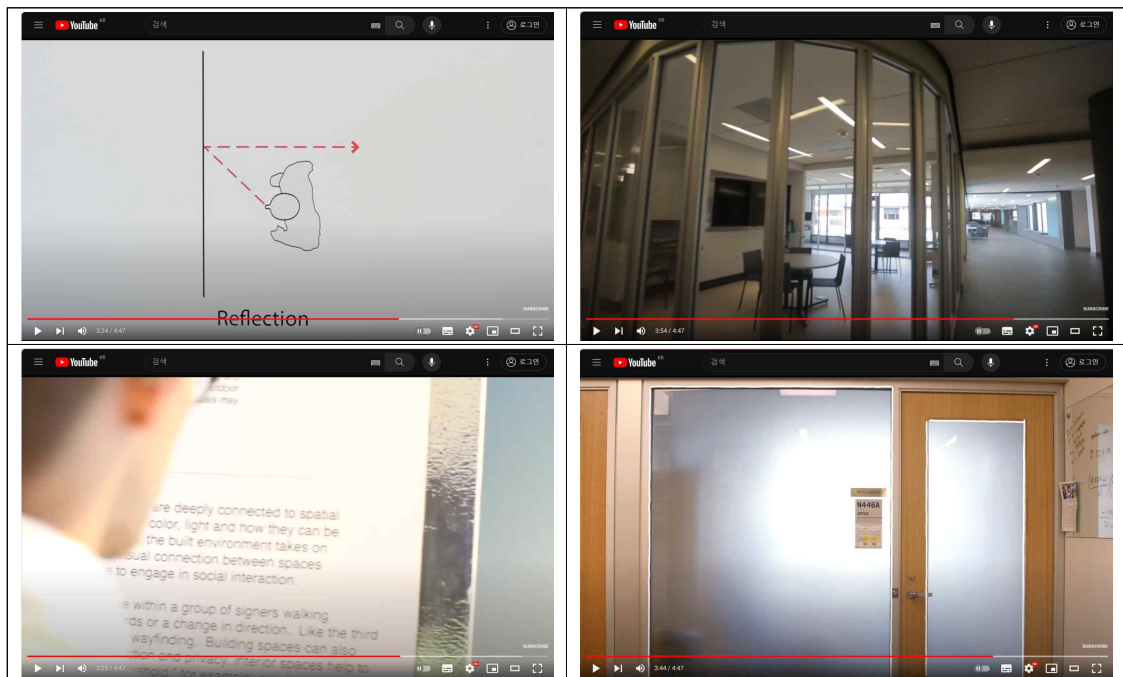
<그림 5-8> 갈로텟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3

회합의 장소들은 계단식 구조와 곡선으로 설계되어 시각적으로 막힘이 없는 동시에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과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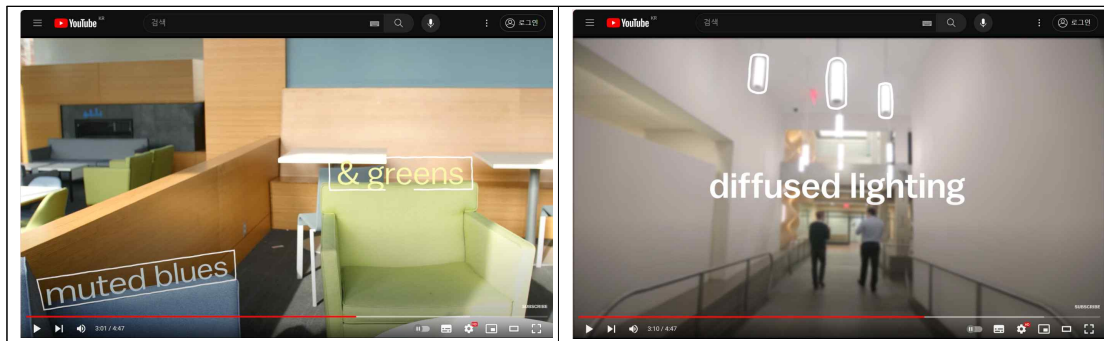
<그림 5-9> 갈로렛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4

또한 수어 대화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걸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넓은 경사로와 계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갈로렛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5

건물 내의 연구실과 같은 공간들은 전반적으로 개방적이지만, 개인 연구실의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재질로 벽면이 구성되었다.



<그림 5-11> 갈로텟대학교의 데프스페이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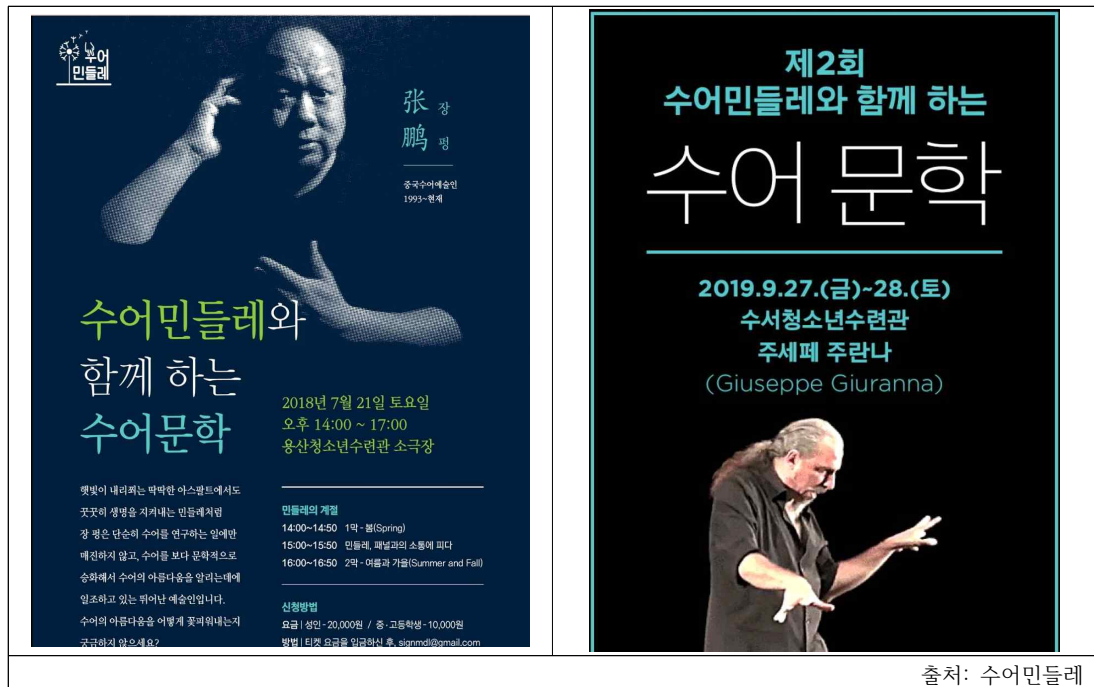
또한 시각적 감수성이 높은 농문화에 맞게 수어 대화에 최적화된 조명과 더불어 피로감이 적은 색상을 공간에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5.4 수어시- 농문화의 꽃

수어문학은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표현된 문학을 말한다. 이때 문학이란 문자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롯하게 시각언어로 빚어낸 이 장르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에서 출발하지도 않으며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개입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시각언어의 특성상 수어문학은 수어예술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콩트나 모노드라마도 수어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사의 스토리텔링(회고, 연대기 등)이나 데프조크(농인해학)는 예술적 장벽이 높지 않은 수어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어문학의 중심이자 정점(頂點)에는 예술적 장벽이 가장 높은 수어시가 있다. 한국어를 아는 모두가 한국어로 된 시를 쓸 수는 있지만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고 시대에 남을 시를 쓰는 시인은 손에 꼽듯이, 수어를 아는 모두가 수어시를 창작할 수는 있으나 모든 수어인의 가슴에 남을 수어시를 남기는 시인은 많지 않다. 그만큼 시(詩)라는 장르는 그 언어의 정점에 서 있는 언어의 정수(精髓)를 부어 피워낸 문화의 꽃이기 때문이다.

수어시 역시 수어의 정수(精髓)를 부어 피어낸 농문화의 꽃이다. 수어문학 장르 중 가장 차원 높고 수려하며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문학이다. 시문학의 장르가 다양하듯이 수어시도 형식과 내용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산문시 형태의 저항시, 정형시 형태의 서정시에 해당하는 수어시들이 시공간을 통해 구현되고 영상을 통해 기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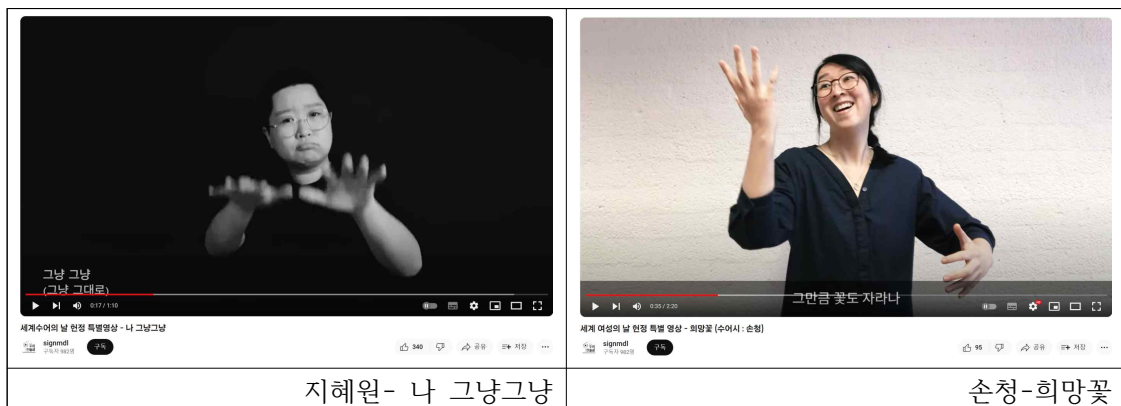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농사회의 경우 수어번역노래의 기형적 발전에 갇혀 진정한 농문화인 수어문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농인의 예술혼이 청인의 소리문화에 갇힌 셈이다.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연구와 결과가 농사회에 환기되면서 수어문학, 그 중에서도 수어시에 대한 한국농사회의 관심도 생겨나게 되었다.



출처: 수어민들레

<그림 5-12> 수어민들레와 함께하는 수어문학 포스터

수어민들레는 한국농사회에 수어문학의 진면목을 알리고 수어문학의 싹을 틔우고자 2018년과 2019년에 연이어 저명한 수어시인을 초대하여 한국의 농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수어시를 향한 한국농사회의 여정이 멈추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민들레는 수어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농사회에 수어시가 피어나도록 힘쓰고 있다. 다음은 한국수어-수어시 작품들이다.



<그림 5-13> 한국수어-수어시 작품

한국농사회에서 수어문학은 이제 막 싹을 틔웠고 그중에서도 예술적 장벽이 가장 높은 수어시 장르의 여전히 불모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어시인 혹은 수어예술가로서의 길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런 이들을 안내할 기회들이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농사회는 앞으로 수어문학, 그 중에서도 수어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농인예술가들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수어시가 농문화의 정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농아동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치고 함께 수어문학을 창작하는 세상을 꿈꿔보자. 농아동의 가슴에 수어라는 언어의 씨를 뿌릴 때, 수어시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농아동의 언어 영토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시문학에는 동시(童詩)라는 장르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어린 농학생들의 손에서 피어날 어여쁜 수어동시를 한국농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창욱, 곽정란, 황창호, 김정진, 엄미숙, 이미혜, 송미연, 김병하.(2017),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 김유미, 곽정란, 송미연, 변강석(2019), 『농문화와 농사회』. 국립국어원.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홍성사.
- 김유미·변강석(2018), 「농인의 내러티브가 담긴 농문화의 정수(精髓), 수어시」, <비마이너(BeMinor)>, 2018. 8. 30.
- 김칠관·윤병천(2014), 『농문화입문』, 정림사.
- 변강석(2010), 『한국수어와 친구되기』,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 엄미숙(2020), 「농문화와 농사회(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농교육의 역사’」, 강원도수어문화원.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Giulio Ferreri(1906), 『*THE DEAF IN ANTIQU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51, No. 5 (NOVEMBER, 1906), pp. 460-473 (14 pages)
- H-DIRKSEN L. BAUMAN & JOSEPH J. MURRAY(2014), 『*Deaf Gain: Raising the Stakes for Human D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ddy Ladd(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Multilingual Matters Ltd
- Per Eriksson(1993), 『The History of Deaf People-A Source Book.』, Translated from the Swedish by James Schmale. Orebro : Daufr.
- <https://deafhistory.eu/index.php/deaf-history>
- http://www.ead.ee/foreign_deaf_history
- <https://www.bridgesfordeafandhh.org/deaf-history>

[1급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교재 -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 교육실습

집필: 원성옥 한경대학교 교수

목 차

1. 한국수어 수업 계획하기
 - 1.1 수업 계획을 위한 지침
 - 1.2 수업 모형
2. 한국수어 수업을 위한 활동 예시
3. 강의 계획서 및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기
 - 3.1 강의 계획서
 - 3.2 교수학습 과정안

표 목차

- [표 3-1] 강의 계획서 종합 목표 예시
- [표 3-2] 차시별 강의 계획서
- [표 3-3] 주차별 강의 계획서 예시
- [표 3-4] 강의 계획서 양식
- [표 3-5]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 [표 3-6]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그림 목차

- <그림 2-1> 도입에서 활용할 그림 자료
- <그림 2-2> 전개 활동 1에서 활용할 그림 자료
- <그림 2-3> 전개 활동 2에서 활용할 그림 자료
- <그림 2-4> 전개 활동 3-생일상 차리기와 같은 음식 먹기 게임

1. 한국수어 수업 계획하기

수업이란 교실 내에서 한 시간 단위에 걸쳐 일어나는 통일된 한 세트의 절차로 보통 50분에서 길게는 120분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한국수어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업을 계획할 때는 해당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인 종합목표(goal)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종합목표란 하나의 강좌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강좌의 학생들이 성취하게 될 결과를 의미한다. 각각의 수업은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의도하는 결과인 종합 목표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수업에서는 종합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목표(objectives)가 설정되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종합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개는 한 차시 분량의 수업 활동과 관련이 되며 수업을 통해 얻을 것을 학생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종합목표에 비해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 출발과 도착에 관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요청한다고 하는 수업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어휘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어휘를 이용하여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업의 활동은 비행기 출발, 도착, 그리고 시간과 관련한 어휘를 익히는 활동, 그 어휘를 활용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수업 계획에서 필요한 것은 자료와 기자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좋은 수업 계획안을 짚는 것은 교실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혹은 무엇이 교실에 마련되어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어 수업에서 수업 활동에 필요한 수어 영상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활동에 필요한 수어 문장을 직접 시범 보일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수어 영상 자료는 일관성 있으며 정확하고 정제된 수어 표현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수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시하게 되는 수어 문장, 대화문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어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QR코드 등을 통해 교재에서 제공하는 수어 문장들이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수어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이 교실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 수업 계획을 위한 지침

실제로 한 차시분의 한국수어 수업을 계획할 때의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들어가기 전 그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교사는 교재의 몇 단원을 가르칠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먼저 확립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 공적 학교와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한국수어 수업에서는 확립된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원이나 협회 또는 방과 후 교실 등에서 진행되는 수어 수업은 확립된 교육과정이 없고 그에 따

른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사가 사용하기로 한 교재가 그 교육과정을 대신한다.

현재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각 단원의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교재를 사용할 때 교재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상 학습자에 또는 교수 상황에 따라 교재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수정 각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재에 대한 교사 자신의 견해와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수업의 주제와 목적을 수정 보완하여 세우는 작업은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1개에서 3개 정도의 구체적인 수업의 최종 목표 초안을 작성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강의 계획서 작성하기에서 직접 해 보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에 따라 교재에서 주어진 연습 문제도 어떻게 각색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를 토대로 기본 개요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지면 교수 기법과 실행 절차와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둘째, 수업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교수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지, 교수 기법이나 활동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었는지, 수업의 진행 속도는 적절한지 그리고 단위 수업 시간 길이를 고려하여 시간 분배는 적절히 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난이도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교수 기법의 난이도는 보통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자신이 가르칠 내용과 교수 기법의 난이도를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사는 수업에 들어올 학습자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이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중에 진행할 과업의 지시 사항 등은 교사의 발문 등을 대본으로 써봄으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해지며 객관적이 된다. 이 때 학습자에게 예시와 하위 과업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학생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언어적 난이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 학습자들에게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수어 표현에 노출을 시켜 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하지 않은 수어 표현도 이러한 자연스러운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추론하는 경험을 하게 해 주는데 이는 어휘 학습에도 효과적이다.

넷째, 대부분의 수어 수업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따라 초급에서 고급반까지 나뉘어서 운영된다. 그러나 실제로 교실 안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 때문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급반 수어 수업에서 도저히 중급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학습자, 또는 기준에 비해 우수한 학습자들이 있다. 이 때에도 모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쉬운 항목을 우수한 학생에게는 어려운 항목을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모둠을 구성할 때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모둠 집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모둠 구성은 편차가 큰 구성원들을 한 집단에 골고루 배치하는 방법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 이질 집단 또는 동질 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다. 특히 모듬이나 짝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는 기준 이하나 혹은 이상인 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최대한 교사의 발화는 줄이고 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주기 위한 대본 작성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사들은 자신들이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실 학습자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의 발화를 유도할 수 질문(발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하는 질문 보다는 학습자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며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여섯째, 첫 번째 고려 사항에서 우리는 교육과정 즉, 교재의 각색인 수정 보완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각색을 하고자 할 때는 확립된 교육과정이나 교재에서 제시하는 종합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 자료와 자원, 평가 등의 필수 조건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강좌(프로그램)의 종합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수업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각색해야 한다.

일곱째, 앞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과업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습자의 발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미리 대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굳이 교사와 학습자를 위한 대본 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 경험이 많은 교사는 한 페이지 내외의 메모나 개요만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강의 노트 목록 카드 작성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 즉, 올바르게 효과적인 순서와 교수 활동 만을 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실용적인 수업 진행 노트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덟째는 흔히 숙제라고 하는 별도의 과업에 대한 것이다. 이 별도의 과업은 교실 활동의 응용이나 연장이어야 하며 신중하게 계획되고 학습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교실 시간을 넘어서 얼마간의 학습을 스스로 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수업 모형

Shum & Glisna(1994)는 전망(시작), 동기 부여, 지도/참여, 후속 활동, 종료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우리는 전망과 동기 부여는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후속 활동과 종료도 하나로 묶어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수업의 전개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업 과정안을 제시하고 한다.

도입은 워밍업으로서의 수업을 시작하는 말로 인사를 하고 출결 확인을 한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다. 다음으로는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급반에서조차도 한국어인 음성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 끌어낸 학습 목표를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수업의 흐름을 제시하므로 학습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수업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도록 한다.

전개는 전체 활동 또는 모둠이나 짝활동 등에서 교사와 학생의 발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3개 정도의 활동으로 계획한다. 각각의 활동은 적절한 시간 비율을 고려한 한 세트의 활동이나 교수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활동은 Baker-Shenk와 Cokely(1980)가 제시한 제시 활동으로 새로운 어휘와 문장 그리고 문법적 요소를 익히는 활동을 한다. 두 번째 활동은 제시 활동에서 익힌 어휘와 문장을 연습하는데 이 때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연습을 하는 활동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활용이다. 배운 어휘와 문장을 가지고 다양한 의사소통 게임이나 과업을 완수해 보는 활동을 한다. 이 때 관련된 농문화나 농사회 관련 요소가 있으면 포함하는 활동도 좋다.

정리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히 연습해 본 후에 간단한 평가를 한다. 이 때 모든 수업이 다 작은 퀴즈나 공식적인 평가로 끝맺을 필요는 없다. 즉, 평가가 수업에서 분리된 요소이어서는 안된다. 그저 학습자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다음 수업 과정안을 재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간단한 퀴즈 형식의 평가는 예를 들어 교사의 수어 표현을 보고 맞으면 학습자들은 손을 흔들고 틀리면 발을 굴리게 하므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간단히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에서 배울 내용을 예고하고 마친다. 이 때 숙제라고 하는 별도의 과업이 주어질 수도 있다.

2. 한국수어 수업을 위한 활동 예시

본 차시의 수업 주제가 음식이라면 학습 목표는 ‘음식 이름과 맛에 대한 수어 어휘를 익히고 서로 음식을 권하며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가 될 수 있다. 도입에서 인사와 출석 확인, 전시 학습에 대한 상기를 마치고 나면 본 시 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을 한다. 이때 동기 유발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음식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또는 못 먹는 음식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스처 등을 통해 물어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때 교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스처와 도상성이 강한 수어 어휘를 활용하여 대화를 나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림 1>을 제시하며 오늘 무슨 내용에 대해 학습할 것인지를 수어나 제스처 등으로 이야기한다. 이때에도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제스처와 간단한 수어 어휘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그림 2-1> 도입에서 활용할 그림 자료

전개에서 첫 번째 활동 1은 <그림 2-2>의 ①을 보고 음식과 맛에 대한 표현을 익히는 제시 활동이다. 교사가 앞의 그림을 가리키며 [지시] [만들다][무엇?]라고 수어를 하고, [떡볶이] [만들다]라는 수어를 한다. 학생들이 [떡볶이] [만들다]라는 수어를 따라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떡볶이] [만들다] [부침개][만들다] 등 [요리하다]라는 수어를 익힌다. 다음으로 ①그림 아래의 케익, 소금, 고추, 레몬 그림을 보고 교사가 수어로 표현하는 맛에 동그라미를 치는 활동을 통해 연습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1>의 ②그림을 보고 [달다] [짜다] [맵다] [시다] 등의 맛 표현을 익히는 활동을 다시 한 번 해 본다.



<그림 2-2> 전개 활동1에서 활용할 그림 자료

두 번째 활동2에서는 <그림 2-3>의 ①과 ②를 보고 각 장면에서 말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어 대화문을 연습해 보는 활동을 한다. 엄마와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딸과 아빠의 대화문 영상을 먼저 본 후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짝을 지어 역할극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 1에서 익힌 수어 표현을 상호작용을 통해 연습해 본다.



<그림 2-3> 전개 활동2에서 활용할 그림자료

활동 3에서 앞에서 익힌 수어 표현을 통해 먼저 둘씩 짝을 지어 생일상 차리기 놀이를 한다. 첫 번째 그림①과 같은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후에 빈 접시에 음식을 그려 넣어 생일상을 완성한 후에 서로 대화를 해 본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②처럼 학생들에게 그림 카드를 나누어 주고 음식 먹기 게임을 한다. 여기서는 시간을 잘 분배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3-4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 그림 카드 한 세트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는다.

나. 교사가 [마음껏 먹어]라고 하면서 카드를 한 장 골라 들면, 학생들도 카드를 한 장씩 골라 든다.

다. 교사가 자신이 집어 든 카드를 보여 주며 [케이크 달다] 등으로 말하면 조별로 각자 고른 카드를 확인하여 교사와 같은 카드를 고른 학생 수만큼 점수를 얻는다.

라. 그리고 교사가 [더 먹다?]라고 물으면 같은 그림의 카드를 들고 있는 학생들은 일어나서 [예 수락]라고 대답하고, 다른 그림의 카드를 든 학생들은 [아니오 거절]라고 대답한다.

마. 제한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조가 이긴다.



<그림 2-4> 전개 활동 3-생일상 차리기와 같은 음식 먹기 게임

3. 강의 계획서 및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기

3.1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양식은 다양하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든지 강좌명, 일정, 수강 대상, 사용할 교재 그리고 종합 목표와 주차별 학습 목표 및 내용이 기술되도록 한다. 다음 [표 3-1]은 강의 계획서 첫 부분의 예시이다. 이 강의 계획서는 처음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종합 목표 안에는 해당 강좌의 대상 특성과 강좌 운영 방법 및 주로 사용하게 될 교수 기법을 기술하면서, 강좌가 끝났을 때 수강생들이 성취하게 될 결과를 기술한다.

[표 3-1] 강의 계획서 종합 목표 예시

강좌명	수어 동아리 교실	일정	매주 월요일 16:00~18:00
수강 대상	고등학생 학습자	교재	교사 자체 제작 교재
1. 종합 목표			
<p>본 강좌는 고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처음 한국수어를 배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 주에 2시간씩 총 12주 24시간을 운영한다. 의사소통 중심 언어지도 방법으로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학습하여 수강생이 농인들과 간단한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초적인 수어의 이해와 표현뿐 아니라 의미있는 맥락에서 수어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한다. 이 강좌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어 어휘와 올바른 수어 문법을 활용한 수어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농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농인들과 만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표 3-2]와 [표 3-3]은 강의 계획서의 종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차시(또는 주별) 학습 목표 및 학습 내용에 대한 예시이다. [표3-2]의 강의 계획서에는 학습 목표 및 내용을 함께 간단히 기술하고 기타 난에 목표로 하는 수어 어휘나 문장 또는 필요한 교수 기법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에 비해 [표 3-3]에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을 분리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수업 자료와 지도상의 유의점을 기술하였다. 강의 계획서의 형태는 교사가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별로 목표로 하는 어휘, 문장과 그에 따라 익혀야 할 문법 요소, 의사소통 기능, 농문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표 3-2] 차시별 강의 계획서

차시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자료	기타
1	1. 인사와 자기 소개에 필요한 어휘 익히기(어휘 관련 내용) 2. 수어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 소개하기(문법 및 의사소통 관련 내용) 3. 수어이름 만들기(농인과 농문화 관련 내용)	1. 주교재 2장 2. 주교재 2장, 부교재 56쪽 3. 부교재 60쪽 "모든 농인에게는 이름이 두 개다."	목표 어휘: 안녕, 농인, 청인, ""
2	1. 가족과 관련된 어휘 익히기 2. 가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의문문 형태 익히기) 3. 시각언어 사용자와 대화 시작하기	1. 주교재 4장 2. 주교재 4장, 부교재 4장 3. Singing Naturally, p34	

[표 3-3] 주차별 강의 계획서 예시

주차	학습 내용		수업 자료 및 지도상 유의점
1	학습 주제	소개	㉠수어로 서로 소개하는 대화문 영상자료 ㉡시각 언어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함
	학습 목표	- 간단한 수어 문장으로 자기 자신이나 친구를 소개한다. - 수어로 하는 상대방의 자기소개 내용을 이해한다. -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농문화에 있는 수어 이름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 수어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기 - 의문문과 평서문을 나타내는 비수지기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 각자 수어 이름 만들기	
2	학습 주제	가족	㉠가계도, 수어로 가족 소개하는 대화문 영상자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장려함
	학습 목표	- 가족 관련 수어 어휘를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서로 소개한다. - 상대방이 하는 가족 소개를 보고 적절하게 질문한다. - 코다 관련 농문화를 이해한다.	
	학습 내용	- 가계도를 보면서 가족 관련 어휘 익히기 - 서로 자신의 가족과 형제자매 소개하기 - 농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위의 예시를 참고로 하여 경기도 수어 교육원(초급편, 중급편)이나 강원도 수어 교육원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거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으면 그 중

한 권을 선택하여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어 교육원의 교재 [한국수어의 실제, 초급편]은 12장(12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편]은 14장(1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인이 설정한 대상 학습자에 따라 교재를 선택하고, 해당 교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각색을 할 것인지를 고민한 후에 [표 3-4]의 강의 계획서 양식에 직접 강의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때 앞에서 제시한 수업 계획을 위한 지침을 참고한다.

[표 3-4] 강의 계획서 양식







강좌명			
일정			
대상			
교재			
종합목표			
참고 사항 (지도상 유의점)			
주차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자료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 학습 과정안은 교수학습 지도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도안이란 용어는 교사가 지도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교수학습 과정안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 진행 과정을 강조한다. 교수학습 과정안의 양식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양식 이든지 공통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모형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도입에서는 인사하기, 전시 학습 상기하기 등을 하고 나면 동기 유발을 위한 활동을 한다.

[표 3-5]는 간단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이다. 이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 대본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교수 기법과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만 기술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이 정도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 [표 3-6]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도입 부분을 보면 대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대본 형식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기술할 수도 있다.

[표 3-5]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활동		자료(재) 유의점(유)
		교수자 활동	학습자 활동	
도입 (10분)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기 얼굴 이름으로 출석 부르기	교사와 인사하기 교사와 눈을 맞추고 대답하기	
	전시 학습 상기	-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으로 묻기 [점심] [먹다] [무엇]	- 완전한 문장으로 답하기 [점심] [뽕] [먹다]	
	동기 유발	- 병원과 환자 그림 제시하고 짝 지어 보도록 하기  	병원과 환자 그림 짝짓기 임산부 - 산부인과 골절 환자 - 정형외과	(재)병원그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환자그림(임산부, 치통 환자 등)
	학습 목표 제시	- 병원 그림 제시 후 배운 내용을 추측해 보도록 하기 - 목표 어휘 제시하기 [병원] [의사] [아프다], [진찰], [소화], [감기], [아프다], [주사], [약], [수술], [입원], [퇴원] 등	- 몸짓으로 추측한 내용 표현하기 - 교사의 수어 보고 따라 하기 	(재)병원내부 그림 (의사와 환자가 있는)
전개	활동 1	- 병원과 관련된 상황 그림을 보여주고 수어로 표현하기    - 그림을 보여 주고 수어로 해 보도록 하기	- 교사의 수어 보고 따라 연습하기 -교사가 보여 주는 그림 보고 수어로 해 보기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그림 보고 수어로 표현해 보기	(유) 한국어 어휘와 1대1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함
	활동 2	- 수어 대화 영상 자료 보여주기 - 동영상 속의 내용에 대한 질문하기 (누가, 어디가 아파서 어떤 병원을 갔는지 물어보기) - 둘씩 짝지어 동영상 속의 수어 대화문을 연습하도록 하기	- 수어 대화 영상 자료 보기 - 교사 질문에 대답하기 - 둘씩 짝지어 동영상 속의 수어 대화문을 연습하기	(재) 수어 영상자료 (병원 관련 대화 영상)
	활동 3	-둘 짝 짝 지어 환자와 의사 역할극을 위한 상황 그림 제공하기 -6개 이상의 의사와 환자의 대화문을 만들도록 하기 -한 팀씩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기	-둘 짝 짝지어 교사가 주는 상황 그림을 보고 역할 정하기 -상황에 적절한 의사와 환자의 대화문을 만들어 연습하기 -연습한 대화문 발표하기	(재) 병원 상황그림자 료 (유) 학생들이 대화문을 만들 때 최소한 개입할 것
정리	평가	- 그림을 보여 주면서 교사가 수어로 할 때 맞으면 학생들에게 손뼉을 치고, 틀리면 발을 구르도록 하기	- 교사의 수어가 맞으면 손뼉을 치고 틀리면 발구르기	
	마무리	- 수업 내용 요약하기 -인사하기	-교사 주목하기 -인사하기	

[표 3-6]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교수 학습 지도안

단원명	계절 이야기	교재	p 149-168	차시	7 (2시간)
학습주제	날씨와 계절	수업방법	강의 식, 개인 발표	대상	대학생
학습목표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	PPT 자료			
	학생	유인물			

학습 단계 (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나누기 동영상 시청하기	교사 : [안녕] [잘지냈다?] 학생 : [안녕] [잘 지내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요일 관련 단어를 사용하여 안부를 묻고 말한다. 교사 : [지난] [토요일] [뭐?] 학생 : [지난] [토요일] [아빠] [생일] 일기예보 관련 동영상 시청 후 1:1로 날씨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날씨] [대하여] [배우다]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_Y_vikAV4qk
전개	목표 어휘 제시하기	교사는 날씨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수어를 시범 보인다. <div>  [비.우다]  [눈.우다]  [맑다]  [바람 불다]  [구름 끼다] 계절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고 수어로 한다.  [따뜻하다]  [덥다]  [바람 불다]  [춥다] </div>	목표 어휘에 대한 그림

위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를 참고로 하여 다음의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 중 하나를 택하여 50분 한 차시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해 본다. 수업의 주제와 내용은 본인이 앞에서 작성한 강의 계획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짠 강의 계획서가 한 주에 2시간(100)으로 계획되어 있다면 선택한 주차의 주제(학습 내용 및 목표)를 가지고 2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차시에 대한 과정안의 경우는 차시를 1/2로 기입하고, 두 번째 차시에 대한 과정안의 경우는 2/2로 기입하면 된다.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성하도록 한다. 전개에서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활동을 3개 이상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이 제시와 상호작용적 제시 그리고 활용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 3-7]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

본시 주제		대상		차시		지도일시		지도장소	
수업 목표									
지도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학습분위기조성 동기유발 목표제시								
전개	활동1 활동2 활동3								
정리	마무리 평가								

차시			대상		수업 장소					
본시 주제					지도 일시					
학습목표										
단 계	학습과정	교 수 - 학 습 내 용			시간	학습 형태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습자			개 별	소 집 단	대 집 단		
도 입	수업분위기조성 동기 유발 본시 내용제시									
전 개	활동1 활동2 활동3									
정 리	마무리 평가 차시 예고									

<부록 2>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청 자료 목록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 요청 자료 목록

분류	학위과정 운영기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 교재 목록 2. 전임교원 및 강사 수 3. 강의안(강의계획서) 등 4. 교육 기간(기수)별 등록 인원 및 수료 인원 5. 교과목별 교강사 명단 및 연락처(추후 설문조사 협조 의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작성 필요 6. 강의 운영 방법(2023년 기준, 대면/비대면 등) 7. 강의 평가 유무 및 방법, 문항 및 결과 8. 현장실습 기관별 실습 기간, 실습수업 시간(학점), 실습 방식 구분 (2022년 기준, 대면/비대면, 참관/시연/모의수업) 	

<부록 3> 한국수어교원 교강사 실태조사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 한국수어교원 교강사 실태조사지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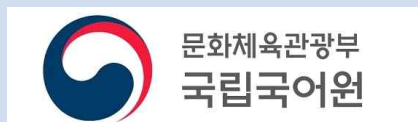
국립국어원과 강남대학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강사의 교수·학습 관련 및 수어교원 1급 자격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하고자 한국수어교원 교강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설문지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교강사'에 대한 설문으로, 교강사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성 명		전화번호	

설문지 작성 요령

- ◆ 문항별로 응답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또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하나의 보기만 골라 주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면 입력창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응답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타나는 문항에 대해 차례로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 처리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수집 · 이용 · 처리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 조회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제공 · 조회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제공기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 국립국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연구 주관부처)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I 교수·학습 관련 현황

1 수어교육 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십니까?

- ① 작성한다 ② 작성하지 않는다 ③ 의뢰 기관에서 요청 시에만 작성한다.

2 수어교육 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을 평가하십니까?

- ① 평가한다 → **2-1** ② 평가하지 않는다 → **3**
③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 **3**

2-1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 ① 문답형 ② 시연형 ③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④ 기타()

3 수어교육 후 강의 평가를 시행하십니까?

- ① 시행한다 → **3-1** ② 시행하지 않는다 → **4**
③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 **4**

3-1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 ① 출석률 ② 만족도 검사 ③ 의뢰 기관에서 진행해서 알 수 없다.
④ 기타()

4 수어교육 시 교재(커리큘럼)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중복 선택가능)

- ① 기관에서 제작한 교재(커리큘럼) 사용 ② 기관에서 선정한 교재(시판 교재)
③ 의뢰 기관의 요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재구성
④ 시판되고 있는 교재 중 과정에 맞는 것을 직접 선택
⑤ 기타()

5 교육현장에서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의뢰 기관과의 사전·사후 업무협의 ② 교육 설계, 개설 및 운영 ③ 학생 지도의 어려움
④ 교육내용 평가 ⑤ 기타()

6 한국수어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수어 교강사를 위한 자료 부족(교사용 지침서 등) ② 한국수어 교재의 부족
- ③ 한국수어 의사소통 능력 ④ 한국수어 교육자료 개발 ⑤ 농문화에 대한 이해
- ⑥ 한국수어 능력 평가 ⑦ 한국수어 교육 방법 ⑧ 한국수어 지식
- ⑨ 기타()

7 농인 혹은 청인 교강사로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세요.

8 한국수어 교육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수어 어휘 ② 수어문법 ③ 농문화 ④ 기타()

9 수어교육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①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의 이해 ② 적절한 교육자료 선정 및 구성
- ③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 선정 ④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방법 선택
- ⑤ 효과적인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설계

10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① 자기 계발을 위한 교강사의 노력 ② 정기적인 연수(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 제공
- ③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④ 현장에 맞는 한국수어 교육의 정책 개선
- ⑤ 기타()

11

한국수어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재교육 및 보수교육 등)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자격 유무 무관)

- ① 있다 → 11-1 ② 없다(이유는?)

11-1

어떤 종류의 연수를 받고 싶습니까?

- ① 한국수어학, 농문화 이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
② 교원 간 정보 교류 및 연구 발표, 토론을 하는 워크숍
③ 교육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④ 교육과정 개발
⑤ 교수법 ⑥ 기타()

11-2

희망하는 연수의 형태는?

- ① 현장 대면 교육 ②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③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④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11-3

희망하는 연수의 방식은?

-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교육 실습 중심 ④ 시청각 활용 ⑤ 수업 참관식
⑥ 프로젝트 중심 ⑦ 문화 체험 중심 ⑧ 무관함 ⑨기타()

II

수어교원 1급 요구 조사

12 향후 한국수어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취득할 계획이다. ② 취득할 계획이 없다. ③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3

한국수어 1급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수어교원으로서 다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지식관리 능력	어학 지식					
	교육학 지식 (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사회문화 지식 (농사회·농문화 등)					
직무수행 능력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					
	교육 내용 구성 능력					
	교육 도구 활용 능력					
	교육자료 제작 능력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수업 운영 능력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14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15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수어문법, 수어문학,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강의의 실제,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16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민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17 각급별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1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어 사용 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농문화 이해,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17-2 1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어 사용 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농문화 이해,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18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순 위
1. 언어학 전문가	
2. 수어 정책 전문가	
3. 수어 교육 전문가	
4.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5. 기타()	

19 1급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 ① 현장 대면 교육 ②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③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④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20 1급 양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교육 실습 중심 ④ 시청각 활용 ⑤ 수업 참관식
 ⑥ 프로젝트 중심 ⑦ 문화체험 중심 ⑧ 기타()

21 귀하께서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 정보

2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3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4 귀하의 장애 유형은?

- ① 농인 ② 다른 장애() ③ 해당 없음

25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학사(졸업) ③ 학사(졸업) ④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⑤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26 귀하의 제1전공은?

- ① 수어학전공 ② 수어교육전공 ③ 수어통번역전공
④ 언어학전공 ⑤ 사회복지전공 ⑥ 특수교육전공 ⑦ 기타()

27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 여부는?

- ① 자격증 있음 → 27-1 ② 자격증 없음 → 28

27-1 수어교원 자격증 취득연도는? (20 년)

27-2 수어교원 자격증 취득 경로는?

- ① 학부 전공 ② 학부 부전공 ③ 대학원 전공
④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⑤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교육

28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 ② 사회복지사 ③ 직업재활사
④ 언어재활사 ⑤ 자격 없음 ⑥ 기타()

29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수어교강사 → **29-1** ② 수어통역사 → **29-1** ③ 사회복지사
④ 학생 ⑤ 교직(교강사) ⑥ 서비스업 ⑦ 자영업 ⑧ 기타()

29-1 소속은?

- ① 수어통역센터 ② 농아인협회 ③ 수어교육원(문화원) ④ 대학교(원)
⑤ 복지관 ⑥ 공공기관 ⑦ 프리랜서 → **30** ⑧ 기타()

29-2 근로 형태는? → **29-3**

- ① 정규직 ② 기간제 근무 ③ 기타()

29-3 주 업무 및 겸직 여부는?

- ① 수어교육만 담당 ② 수어통역만 담당
③ 수어통역+수어교육 ④ 기타 업무+수어교육 ⑤ 기타()

30 수어 사용 경력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6년 이상

31 수어교육 경력은?(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교육 경력을 적어주세요)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6년 이상

32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과정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초급과정 ② 중급과정 ③ 고급과정 ④ 교원양성과정(이론)
④ 교원양성과정(실습) ⑤ 통역사양성과정 및 시험대비반 등 ⑥ 기타()

33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기관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센터/협회의 수어 교실 ② 복지관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교(원)
⑦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⑧ 민간기관(사설 학원) ⑨ 기타()

34 현재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지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과 강남대학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자의 경험 및 수어교원 1급 자격에 대한 요구를 조사·분석하고자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강남대학교

※ 본 설문지는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설문으로, 수어교원 자격 취득자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설문지 작성 요령

- ◆ 문항별로 응답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또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하나의 보기만 골라 주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면 입력창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응답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타나는 문항에 대해 차례로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 처리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수집 · 이용 · 처리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 조회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제공 · 조회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제공기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 국립국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연구 주관부처)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8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여섯 가지 영역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언어 및 교육기초 ② 한국수어학 ③ 한국수어교육론
④ 한국수어실제 ⑤ 농문화와 농사회 ⑥ 한국수어교육실습

9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9-1** 이유:)

10 수업환경 및 시설은 학습하는 데 적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1 실습 기관(참관 및 교육)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 11-1	② → 11-1	③	④	⑤

11-1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11-2**

- ① 소재지의 위치 ② 기관 혹은 강사의 실습 거절 ③ 실습비 부담
④ 실습지도자와의 이중적 관계 ⑤ 기타()

11-2 실습 기관의 수는 선택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 기관은 농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3 2급 교원 자격 취득 후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1급 교원 자격 취득 ② 취업 및 경제활동 ③ 자아실현 ④ 취미여가 활동
⑤ 농인과의 의사소통 ⑥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 ⑦ 기타()

II

수어교원 1급 요구 조사

16 향후 한국수어교원 1급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취득할 계획이다. ② 취득할 계획이 없다. ③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수어교원으로서 다음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부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지식관리 능력	어학 지식					
	교육학 지식 (교수법과 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와 적용 등)					
	사회문화 지식 (농사회·농문화 등)					
직무수행 능력	학생의 학습 분석과 평가 능력					
	교육 내용 구성 능력					
	교육 도구 활용 능력					
	교육자료 제작 능력					
	교실 활동 구성 능력					
	수업 운영 능력					
	교육과정 설계 능력					
	학생 지도 및 상담 능력					

18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민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19 한국수어교원 1급 양성과정 개발 시 포함되길 희망하는 학습 내용은?

(예: 수어문법, 수어문학,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강의의 실제,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20 한국수어교원 2급 양성과정보다 더 강화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학습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역	교과목 예시	순위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 실제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21 각급별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1 2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어 사용 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농문화 이해,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21-2 1급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업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어 사용 능력, 수어문법에 관한 지식, 수어교수법, 강의 설계, 강의 평가, 농문화 이해, 언어이해 능력, 수강생과의 상호작용 등)

22 1급 양성과정에 적합한 강사의 순위를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순 위
2. 언어학 전문가	
2. 수어 정책 전문가	
3. 수어 교육 전문가	
4. 농사회·농문화 전문가	
5. 기타()	

23 1급 양성과정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 ① 현장 대면 교육 ② 온라인 비대면 교육(실시간)
 ③ 이러닝 교육(녹화 강의식) ④ 온라인-오프라인 혼합교육

24 1급 양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 ① 강의식 ② 토론식 ③ 교육 실습 중심 ④ 시청각 활용 ⑤ 수업 참관식
 ⑥ 프로젝트 중심 ⑦ 문화 체험 중심 ⑧ 기타()

25 귀하께서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 정보

26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7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8 귀하의 장애 유형은?

- ① 농인 ② 다른 장애() ③ 해당 없음

29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학사(졸업) ③ 학사(졸업) ④ 석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⑤ 박사(과정, 졸업 및 수료 포함)

30 귀하의 제1전공은?

- ① 수어학전공 ② 수어교육전공 ③ 수어통번역전공
④ 언어학전공 ⑤ 사회복지전공 ⑥ 특수교육전공 ⑦ 기타()

31 수어교원 자격증 취득연도는?(20 년)

31-1 수어교원 자격증 취득 경로는?

- ① 학부 전공 ② 학부 부전공 ③ 대학원 전공
④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⑤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3년 이상 근무 300시간 이상 교육

3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포함) ② 사회복지사 ③ 직업재활사
④ 언어재활사 ⑤ 자격 없음 ⑥ 기타()

33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수어교강사 → **33-1** ② 수어통역사 → **33-1** ③ 사회복지사
④ 학생 ⑤ 교직(교강사) ⑥ 서비스업 ⑦ 자영업 ⑧ 기타()

33-1 소속은? → **33-2**

- ① 수어통역센터 ② 농아인협회 ③ 수어교육원(문화원) ④ 대학교(원)
⑤ 복지관 ⑥ 공공기관 ⑦ 프리랜서 → **34** ⑧ 기타()

33-2 근로 형태는? → **33-3**

- ① 정규직 ② 기간제 근무 ③ 기타()

33-3 주 업무 및 겸직 여부는?

- ① 수어교육만 담당 ② 수어통역만 담당
③ 수어통역+수어교육 ④ 기타 업무+수어교육 ⑤ 기타()

34 수어 사용 경력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6년 이상

35 수어교육 경력은?(자격 취득 유무 및 시기와 상관없이 교육 경력을 적어주세요)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6년 이상

36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과정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초급과정 ② 중급과정 ③ 고급과정 ④ 교원양성과정(이론)
④ 교원양성과정(실습) ⑤ 통역사양성과정 및 시험대비반 등 ⑥ 기타()

37 수어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기관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센터/협회의 수어 교실 ② 복지관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대학교(원)
⑦ 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⑧ 민간기관(사설 학원) ⑨ 기타()

38 현재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중복 선택 가능)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학위·양성과정) 실태조사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학위·양성과정) 실태조사지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과 강남대학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학위·양성과정) 운영 현황 및 영역별 개설 교과목을 조사·분석하고자 한국수어교원 교육기관 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기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강남대학교

※ 본 설문지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설문으로, 주 업무 담당자(담당교수 등)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전화번호		거주지	() 시/도

설문지 작성 요령

- ◆ 문항별로 응답 항목을 선택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또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하나의 보기만 골라 주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면 입력창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응답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타나는 문항에 대해 차례로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이용 ·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 처리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수집 · 이용 · 처리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 조회 목적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관련 요구조사 및 사례 지급
제공 · 조회 항목	연락처, 거주지(시도)
제공기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 국립국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연구 주관부처)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 사업 기간(1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본 사업의 요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II 교과 운영

※ 다음은 교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교과 운영의 목적은?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격 취득)
- ② 한국수어교육 강사 양성
- ③ 한국수어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
- ④ 기타()

6 각 교과목의 학습 목적과 실제 강의 내용의 일치 정도는?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일치한다	⑤ 매우 일치한다

7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수강생의 학습 능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일치한다	⑤ 매우 일치한다

8 2023년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어 교육과정(4주 이상 연속 운영하는 '수어 학습과정') 운영 유무는?

- ① 있다 → 8-1
- ② 없다 → 8-4

8-1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형태는? → 8-2

- ① 대면 교육
- ② 비대면 교육
- ③ 대면과 비대면 혼용
- ④ 기타()

8-2 한국수어 교육과정의 운영 단계는? → 8-3

- ① 초급(입문)과정
- ② 초급-중급과정
- ③ 초급-고급과정
- ④ 기타()

8-3 한국수어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 교재는? → **8-4**

- ①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
- ② 교육기관 외 민간 개발 한국수어 교재(예: 개인 저자들이 집필한 교재)
- ③ 별도의 보조 자료(예: PPT, 유튜브 등의 영상매체 등)
- ④ 기타()

8-4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수어학습과정'이 아닌 '훈련과정 등'에 해당하는 교육)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어통역사 양성프로그램, 한국수어 통번역 관련 등

9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과목이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10 교과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교과목이 있다면 교과목명과 이유를 써주세요.

예) 한국수어분석,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

Ⅲ

교육 환경

※ 다음은 교육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강사 선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항목	순위
과거 강의 수강생의 만족도 평가	
기관 내 인사의 추천	
내부 협의를 통한 결정	
지식에 대한 전문성	
체계적인 강의 내용	
지명도	
기타()	

12 이론 강의의 강의료는?

- ① 정액 지급(기본 1시간()만원 + 추가 시간()만원)
- ② 경력 또는 학위에 따라 다름
- ③ 외부 인력만 지급
- ④ 기타()

13 수강생의 수료(졸업) 이후 사후관리 여부는?

① 사후관리를 한다 → **13-1**

②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 **14**

13-1 사후관리의 내용은? (중복 선택 가능)

-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 관련 정보(접수, 시험일, 합격일 등) 제공
- ② 양성과정 보수교육(예: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관련 문제 풀이반 개설 등) 운영
- ③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 ④ 한국수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 ⑤ 수료자 정보 DB 관리(관리 기간: 년)
- ⑥ 기타()

IV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관련

※ 다음은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관련 질문입니다.

14 수강생의 등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교원 자격 취득
- ② 자기 계발
- ③ 한국수어강사 활동
- ④ 수어 능력 향상
- ⑤ 기타()

※ 아래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입니다. 살펴본 후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표 1]>

번호	영역	교과목(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3학점			-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6학점	6학점	6학점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12학점	6학점	9학점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9학점	-	3학점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3학점	3학점	3학점	15시간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0시간
	합계		36학점	18학점	24학점	120시간

15

위의 교과목이 수강생의 한국수어교육능력 함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교과목(예시)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일치 한다	⑤ 매우 일치한다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한국 수어 실제	초급 한국수어의 실제, 중급 한국수어의 실제, 고급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16

위의 교과목의 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이 수강생에게 한국수어교원으로서 교수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적절 하다	⑤ 매우 적절하 다
언어 및 교육 기초	3학점	6학점	6학점	-					
한국수어학	6학점			15시간					
한국수어 교육론	12학점	6학점	6학점	35시간					
한국수어 실제	9학점	-	3학점	25시간					
농문화와 농사회	3학점	3학점	3학점	15시간					
한국수어 교육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0시간					

17

귀 한국수어교원 양성기관에서 한국수어교원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 책임자 이준우

공동 연구원 김연신, 원태연, 유경미, 정점희, 조정환, 고시현, 이기상

연구 보조원 김아름

사업 담당자 최보람(주무관)
조주연(연구원)

발행인: 장소원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69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24년 3월 14일

발행일: 2024년 3월 15일

인 쇄: 동양프린팅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수어교원 1급 표준교육과정 개발’의 최종 연구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